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박사 학위논문

전통무예의 스포츠화 연구

- 기사(騎射)를 중심으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성 제 훈

전통무예의 스포츠화 연구

- 기사(騎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 순 용

이 논문을 체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성 제 훈

성제훈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김기한 (인)

부위원장 _____ 권순용 (인)

위 원 _____ 나영일 (인)

위 원 _____ 곽낙현 (인)

위 원 _____ 박금수 (인)

전통무예의 스포츠화 연구

- 기사(騎射)를 중심으로 -

성제훈

한국의 역사에 보이는 기사의 문화적 특성은 산림지역이라는 자연환경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중화의 문화, 유목문화에 보이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활동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중화의 역사에 자신들의 동쪽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기사에 뛰어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사의 역사적 특성을 밝히고, 한국의 전통무예인 기사가 스포츠화될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삼국시대 이전의 문헌과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은 농경민족, 유목민족과 달리 산림지역을 무대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말과 마구, 활과 화살이 발달하여 사냥감과 말의 속도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화살을 재어 쏘는 연속기사법(連續騎射法)과 또한 한 목표를 여러 번 활을 쏘는 전법과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에 활을 쏘는 다연발기사전법(多連發騎射戰法)이 가능함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고도의 기마술과 활쏘기의 조합은 선기사(善騎射), 중기사(重騎射), 상기사(尙騎射)라는 전통으로 남아 조선시대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삼국시대의 문헌기록 보다 고려사에 점점 더 자세한 기사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는 고려시대 무예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이 단체로 군사훈련을 받으면 실제 전쟁터에서 그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전투기록을 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소수로 다수의 적을 격퇴한 경우는 대부분 기병들의 기사였다.

고려시대의 기사사냥을 중심으로 중국식 군사제도와 의 융복합을 시도한 결과 강무(講武)라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과(武科)라는 인재선발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국가제도화의 근간이 되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선기사(善騎射)라고 표현된 개인의 능력은 조선시대에는 국기(國技)가 되었다.

조선시대 중반에 기사는 과학기술과의 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 화포의 발달이 이루어지자 조총과 같은 화기와 같이 전쟁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는 조선시대의 최후까지 전통무예로 이어졌다. 임진왜란 이후 정묘, 병자 호란으로 가속화된 화포의 발달과 함께하여 비록 전장의 주역에서 보조의 역할로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사는 조선의 국기로서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스포츠가 도입되고 현대에 전통무예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며 기사는 개별 종목으로서 경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는 현대의 한국에서 전통무예가 주목받으며 재해석 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성격이 강하기에 기존 스포츠 종목들과 무예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기사의 경기화에 보이는 특징은 문화적 포용성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기사의 역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일치한다. 한반도라는 자연환경 안에서, 다른 문화와도 융합을 이루어내었고, 과학기술과도 복합적인 형태로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근현대를 거쳐 경기화 되는 과정에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

현재 기사경기에 보이는 특성은 기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있으며,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공평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사의 문화적 특성을 보았을 때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기사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며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간, 대상, 시간적인 측면에서 전통무예와 스포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내(Indoor)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야외 공간(Out Door)에서 수련할 수 있으며, 사람 간의 밀접 접촉뿐 아니라 거리를 두고 수련할 수 있으며, 체력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무예와 같은 개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더 나아가 혼합현실(Mixed Reality) 메타버스 등의 최신 기술과의 접목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전통무예, 스포츠화, 기사, 사냥, 기병, 활쏘기

학 번 : 2014-3051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선행연구의 검토	7
4. 연구방법	13
5. 용어의 정의	16
II. 삼국시대 기사(騎射)의 문화적 특징	25
1. 삼국시대 이전 기사(騎射)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	25
1) 기사가 발생한 지역의 지리적 특징	25
(1) 대초원 유목생활과 기사의 관계	25
(2) 산림지역 반농반목 생활과 기사의 관계	27
2) 좋은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과정	29
(1) 초원에서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29
(2) 산림지역에서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31
3) 군사 전술로서 기사의 발달	33
(1) 대초원에서 군사 전술로 발달한 기사의 특징	33
(2) 산림지역에서 군사 전술로 발달한 기사의 특징	35
2. 삼국시대의 문헌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특징	39
1) 삼국시대 기사의 전통적 특징	39
(1) 삼국시대 기사의 전통적 공간 범위	40
(2) 삼국시대 기록에 보이는 기병의 특징	42
(3) 삼국시대 선기사(善騎射)의 전통적 특징	44

2) 삼국시대 기마술의 특징	44
(1) 기사 복식의 전통적 특징	44
(2) 마종과 기마술의 관계	46
(3) 마구로 본 기마술의 특징	48
3) 삼국시대 활쏘기의 특징	51
(1) 유목민에게서 볼 수 없는 활의 특징	51
(2) 삼국시대 활과 화살의 특징	53
(3) 삼국시대 활쏘기의 특징	55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법의 특징	58
1) 기사의 위치 변화로 본 기사법의 특징	58
(1) 사냥 장소와 마종으로 본 기사의 특징	58
(2) 사냥감을 추격하는 기사의 특징	60
(3) 사냥감과 방위로 본 기사의 특징	61
2) 기사의 속도로 본 특징	64
(1) 기사에서 속도의 중요성	64
(2) 연속으로 기사하는 모습의 특징	65
(3) 다수의 사냥감을 동시에 기사하는 장면의 특징	66
3) 몰이사냥 하는 방식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68
(1) 몰이사냥 대상과 기사의 관계	68
(2) 소규모 몰이사냥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79
(3) 대규모 몰이사냥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70
4. 소결	72
Ⅲ. 고려시대 기사(騎射)의 군사무예적 특성	74
1. 고려시대에 전해진 기사(騎射)의 전통적 특성	74
1) 고려에 전해진 마종(馬種)의 특징	75
(1) 말교역으로 본 한반도 북부와의 관계	75

(2) 한반도 북부에서 수입한 말들의 특성	76
(3) 몽골로부터 받아들인 말들의 특성	78
2) 고려에 전해진 활과 화살의 특성	78
(1) 명적과 호시의 전통적 특성	78
(2) 각궁과 호시의 전통적 특성	79
(3) 고려 후기 화살의 특징	80
3) 고려시대 선기사의 특성	81
(1) 중국의 사신이 본 고려의 기사	81
(2) 기사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	84
(3) 선기사(騎騎射)하는 인물들의 특성	86
2. 북방민족과의 전쟁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특징	90
1) 거란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90
(1) 거란 대비 인재선발 방식으로 본 기사	90
(2) 무인의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92
(3) 거란과의 전쟁 후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	97
2) 여진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98
(1) 여진 대비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	98
(2) 신기군 창설과 기사의 관계	100
(3) 무인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104
3) 몽골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106
(1) 몽골 대비 별초의 편제에 보이는 전통적 특징	107
(2) 무신정권의 마별초 훈련에 보이는 기사	110
(3) 몽골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111
3. 고려 후기 사냥으로 본 기사(騎射) 양상과 특징	114
1) 일상생활 속 사냥으로본 기사의 목적	114
(1) 한반도 북부에서의 기사사냥의 양상	114
(2) 고려의 국제적 지위와 기사사냥의 중요성	117
(3) 무인의 생활에서 기사사냥의 목적	120

2) 무예수련으로 본 기사의 특성	122
(1) 사냥방식에 보이는 무예의 성격	122
(2) 기사 연습 수단으로서의 기사사냥	123
(3) 무인의 무예로서 기사사냥의 특성	126
3) 군사훈련으로 본 기사사냥의 특징	130
(1) 기사사냥이 가진 군사훈련의 성격	130
(2) 몰이사냥 방식으로 본 기사의 위력	131
(3)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본 기사 사냥의 특징	135
4. 소결	139

IV. 조선시대 기사(騎射)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 140

1. 고려말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40
1) 고려말 한반도 북부 기사의 전통적 특징	141
(1)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이성계의 등장	141
(2) 이성계의 지역적 기반을 통해 본 기사의 특징	143
(3) 이성계의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44
2) 군제 개혁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48
(1) 중국식 군사훈련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	148
(2) 진법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50
(3) 왜구의 침입과 군사훈련의 변화	152
3) 고려말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54
(1) 최영의 기사 사냥으로 본 군사훈련의 특징	154
(2) 우왕의 요동정벌 과정으로 본 기사사냥의 특징	157
(3) 군사훈련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59
2. 조선전기 기사의 제도화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64
1) 여말선초 군제개혁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64
(1) 태조의 즉위교서에 보이는 기사의 양상	165

(2) 정도전이 구상한 강무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66
(3) 정도전 구상한 무과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69
2) 강무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72
(1) 조선초 강무의 시행과 한계	172
(2) 강무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74
(3) 군례로서 강무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성	176
3) 무과시취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78
(1) 조선초 무과시취의 시행 과정에 보이는 기사	178
(2) 기사 시험방식의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성	179
(3) 무과시취의 법제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83

3. 조선후기 기사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185

1) 기사의 훈련방식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85
(1) 군사적 장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85
(2) 강무제의 시행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88
(3) 모구와 삼갑사의 도입으로 본 기사의 특징	190
2) 화포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92
(1)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한계	192
(2) 절강병법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95
(3) 화포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97
3) 화포의 도입이후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99
(1) 전략전술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기능 변화	199
(2) 기병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02
(3) 무과시취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05

4. 소결 209

V. 근·현대 기사의 스포츠화 가능성 탐색 211

1. 근·현대의 스포츠로서 기사(騎射)의 재해석 211

1) ‘스포츠화’로 본 전통무예의 재해석	211
(1) 문명화과정과 근대스포츠의 특징	214
(2) 기사의 단절과 보사의 근대화 과정에 보이는 특징	216
(3) 양궁의 도입과 궁도의 재해석 과정에 보이는 특징	216
2) 근대 유럽승마의 도입으로 본 기사의 잠재성 탐색	219
(1) 일제강점기 마종의 개량과정에 보이는 특징	219
(2) 경마와 승마대회 개최에 보이는 특징	221
(3) 승마의 도입과정으로 본 기사의 잠재성	222
3) 전통무예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에 보이는 기사	224
(1)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대상으로서의 기사	224
(2) 국가무형문화재 활쓰기와 기사의 관계성	226
(3) 서울시 문화재 전통군영무예와 기사의 관계성	227
2. 근대스포츠와 구분되는 기사의 문화적 특성	229
1) 지리 환경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229
(1) 한국 기사의 공간적 범위로 본 특징	229
(2) 자연환경과 말(馬)의 관계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32
(3)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로 본 한국 기사 문화의 특징	233
2) 역사적 경험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235
(1)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35
(2) 무예의 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36
(3) 국기(國技) 차원의 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38
3) 융복합적 관점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240
(1) 한국 기사의 역사에 보이는 다문화적 특성	240
(2) 두 가지 신체 능력의 융합으로 본 기사의 특징	242
(3) 과학기술과 문화기술과의 복합 측면으로 본 기사의 특징	243
3. 국제경기대회로서 한국 기사의 잠재력 검토	244
1) 무예와 스포츠관련 정책으로 본 기사의 경기화 가능성 탐색 ..	244
(1) 21세기 동시대 스포츠와 무예의 정책적 연관성	244

(2) 「말산업 육성법」으로 본 기사의 경기화 가능성 탐색	247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본 국제경기화 가능성 탐색	250
2) 실�크로드의 문화적 특성으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51
(1)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통한 국제협력의 가능성	251
(2) 일본의 야부사메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52
(3) 터키식 기사 콰바크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54
(4) 매사냥으로 본 기사의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56
3) 세계기사선수권대회에 보이는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60
(1) 경기 규정으로 본 기사의 종목화 가능성 탐색	260
(2) 회원국으로 본 경기화 가능성 탐색	261
(3) 기사의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263
4. 소결	267
VI. 결론	269
참고문헌	275
Abstract	292

<표 차례>

<표 II-3-1> 기사도상에 보이는 고삐 사용에 따른 기마술	60
<표 II-3-2> 위치변화로 본 기사와 사냥감도상의 상관성	61
<표 II-3-3> 화살 개수로 본 기사와 사냥감도상의 상관성	65
<표 III-1-1> 고려의 기사하는 인물 명단	89
<표 IV-2-2> 세종대 기사 방식의 변화	181
<표 IV-2-1> 경국대전의 무과 과목	184

<표 IV-5-1> 법전에 보이는 기사 206

<그림 차례>

<그림 II-3-1> 장천 1호분과 Sam Savitt 도상의 비교 59
<그림 II-3-2> 안악 1호분, 덕흥리 고분, 장천 1호분 도상 63
<그림 II-3-3> 무용총 수렵도, 덕흥리 고분벽화의 수렵도, 기마사희도 63
<그림 II-3-4> 약수리 고분 수렵도 연속기사 67
<그림 IV-5-1> 「訓練都監別武騎哨軍大習圖」 5번째, 8번째 칩 203
<그림 IV-5-2> 『武藝圖譜通志』 기병의 편곤(좌), 기창(우) 2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구려와 함께 인접한 시대의 국가들인 파르티아, 쿠산, 사르마트, 사산조 페르시아, 흉노, 돌궐, 거란, 여진 등의 통치자들은 모두 신기에 가까운 기사(騎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Allsen, 2006 : 13). 기사는 스키타이와 흉노와 같은 전형적인 유목민들의 특기였던 것이 분명하나 정주민들¹⁾의 문자에 의해 역사 기록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중국의 문헌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기사의 형태는 고구려인들에 의해 고분벽화에 선명히 남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사(騎射)가 유목민들이 공유했던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정주민들이 가진 보편적인 신체문화라는 사실과 이들과 인접했던 한반도의 북부지역에도 기사(騎射)라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유라시아초원에서 활동한 유목민족들에게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능력이었던 기사는 수렵과 전쟁에서 그리고 생존과 스포츠로서 아주 중요한 개인의 신체 능력이었다.

한국의 신체문화로서 기사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스포츠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테마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유목민의 기사와 유사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 지역 특유의 기사(騎射) 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주로 몰이하며, 포위하는 수렵(狩獵)의 상황에 표현되어 기사(騎射)의 모습은 유목과 농경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수렵(狩獵)이 아닌 상황에서 마사회(馬射戲)라는 용어가 명시된 기사(騎射) 경기 방식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 체계적인 훈련 혹은 경기 방식이 존재하였다는

1) 정주민들이 기록한 유목민들의 모습은 공통성을 보인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스키타이와 파르티아 기병의 기사(騎射) 하는 모습을 각종 예술작품과 고전에 남겼고, 춘추(春秋)와 전국(戰國) 시대부터 중국의 역사가들은 서쪽, 북쪽, 동쪽 이민족들이 기사(騎射) 하는 모습을 남겼다.

것을 알 수 있다(이진수, 2004 : 202).²⁾

한반도의 북부와 한반도지역의 기사가 가진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기사(騎射)라는 신체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전개의 양상을 살펴며, 그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스포츠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三國史記』에 보이는 ‘주몽’은 현 북만주 지역에 존재한 부여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활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고, 양마(養馬) 하는 능력 있었다. 특히 그의 기사(騎射) 능력이 주목받게 된다. 주몽이 기사(騎射)를 시작하게 된 부여는 현재의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시기 신체활동에서 볼 수 없는 전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기원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탄생한 기사(騎射)는 유목민과 정주민의 대립과정에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의 이동 능력이 대체되고 활과 화살의 위력이 대체되며, 그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19세기 나담대회에서 ‘봄브그 남나(Бөмбөг намнах)’³⁾를 하였다는 몽골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기사(騎射)는 오히려 정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사삼물(騎射三物)이라 하여 세종류의 기사 방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야부사메⁴⁾라는 방식이 무형문화재로서 신사(神社)의 의식⁵⁾에서 행하고 있다(中澤克昭, 1966 : 123; 福原敏男, 1995 : 379). 그리고 놀랍게

2) 이진수(2004)는 마사회가 18세기의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조선 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는 몽골유목민들의 기사(騎射) 훈련방식으로 현재 터키의 과박(Kabak)과 비슷한 형태의 과녁 혹은 가죽 공을 맞추는 한 종목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T, May, 2006).

4) 일본의 역사에서 야부사메를 포함한 말타고 활쏘는 문화는 헤이안 시대부터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1096년의 기록인 주유기(中右記)에 정확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일본 116개 지역의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신사별 정확한 일정이 존재한다. https://www.bajikyo.or.jp/festival_12.html(2022년 12월 15일 검색)

도 사이타마현에 소재한 고마진자(高麗神社)에서는 세계기사연맹과 일본 기사협회가 공동주최하여 고려군 건군 1300년 주년 행사로 2016년 까지 5회에 걸친 고구려 마사회(馬射戲) 재현 행사를 하였다.⁶⁾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현대에 전통 기사의 경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과 헝가리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화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세계기사연맹은 2003년과 2004년에 국내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열기 시작하여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던 기사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중국은 2006년 칭해성 민속활 축제에서, 유럽의 국가들은 2008년 독일의 밤베르크에서, 터키에서는 2009년 시바스에서, 일본에서는 2009년 아오모리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오레곤에서, 요르단은 2011년 암만에서 각각 처음 기사대회를 열어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세계기사연맹, 2014).⁷⁾

그리고 2014년부터 키르키즈 공화국에서 유목민 문화의 부흥과 보존을 위해 ‘World Nomad Games’가 열리고 있는데 기사 역시 이 대회 of 종목 중 하나이다. 이 대회는 2019년에 열린 3회 대회에서 74개국의 1,200명의 선수가 37개 종목대회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⁸⁾

또한, 유목민족인 돌궐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터키의 전통 활 문화가 2019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⁹⁾ 터키의 전통 활을 만드는 궁장(弓匠), 보사(步射) 그리고 기사(騎射)

6) <https://japanese.korea.net/Events/Overseas/view?articleId=2970>(2022년 12월 15일 검색)

7) 현재까지 기사와 관련된 가장 큰 규모의 대회는 ‘세계기사선수권대회(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로 2010년부터 유네스코의 공식 후원을 받아 2019년 현재 15회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기사연맹에는 50여 개 국가가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8) <http://worldnomadgames.com/en/page/History/>(2022년 12월 15일 검색)

9)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turkish-archery-01367/>(2022년 12월 20일 검색)

는 콜럼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무형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정부간 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터키가 내세운 기사(騎射)의 한 종목인 ‘과박(Kabak)’은 장대에 원형의 과녁을 달아 맞추는 방식으로 2009년 세계기사연맹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0년부터 세계기사대회의 정식종목¹⁰⁾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사(騎射)라는 신체문화가 10여 년도 채 안 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기사가 단기간¹¹⁾에 스포츠화되고 있는 현상은 문화적으로 말을 타는 행위와 활을 쏘는 행위에 있어서 인류의 무형유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기사가 말과 활의 문화라는 점에 있어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전파하는 방식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스포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기사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만 존재했던 신체활동을 알아보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¹²⁾ 이러한 현재 인식 없이 스포츠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 문헌학적 작업만으로 끝나 버리게 되며, 스포츠의 역사에서 과거를 현재로부터 분리된 별개적인 모습으로만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서구 유럽의 산물인 올림픽과 같은 특정 문화중심의 세계화는 앤서니(2015: 35-36)가 주지했듯이 단일 문화의 확산을 초래한 것과 같다. 결국 신체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잃게 하여 수많은 신체활동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기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기록으로만 남은 한국 신체문화의 다양성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 <https://mookas.com/news/9614>(2022년 1월 14일 검색)

11) 한국의 태권도는 경기화되며, 올림픽 종목이 되어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음.

12) 본 연구자는 드로이젠(J. G. Droysen, 1971 : 339)의 주장을 따라 이전의 것으로부터 이후의 것을 설명하려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는 크로체(B. Croce, 1941 : 19)의 정의나,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카아(E. H. Carr : 1961 : 30)의 정의 등은 모두 현재인식이 바로 과거 이해의 근거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견해들이다.

고 본다.

유럽 등의 서구 열강들은 근현대의 역사에서 승마, 양궁, 사냥 등 전쟁에서 쓰이던 신체활동을 스포츠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마장마술경기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힘든 기마술(騎馬術)이 다수 표현되어 있으며, 양궁대회와 국궁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법(射法)들이 표현되어 있어 스포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스포츠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가치가 크다고 본다.

현재 기사가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정작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실제 현대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스포츠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기사이지만 아직 각국의 역사적 정체성, 장비, 기술, 훈련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사료나 증거가 불충분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騎射)가 현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기스포츠로서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우선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 기사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경기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2000년 이상을 이어온 역사가 있기에 만약, 이를 현대인의 몸으로 높은 수준에서 구현할 경우 한국형 스포츠 문화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인류 보편의 신체문화로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기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보편성 안에서 한국 방식의 기사가 가진 경기스포츠로서의 특수성을 찾아낸다면 한국의 기사는 기존 서양 중심의 역사로 서술되고 있는 세계사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리라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사에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라는 행위의 역사성을 밝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실체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스포츠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사가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현대에까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현대적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경기스포츠로서 그 위상을 찾을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더불어 한국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사의 역사적 가치를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하였다. 흉노와 몽골과 같은 유목민의 기사에 대한 중국 측의 문헌과 유물을 검토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기사(騎射)의 양상을 파악하였고, 중국 측의 문헌과 한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식 기사의 특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인류와 말이라는 거시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한국 역사 기록에 기사(騎射)가 출현하는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여 기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역사적 시각에서 읽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삼국시대 이전과 이후에 말을 타고 활을 쏘게 된 과정에는 어떠한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사를 하게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조건을 탐색하였다.

두 번째로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이어졌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헌에 보이는 기마술, 활쏘기, 기병전술과 같은 세부 요소들의 양상을 검토하여 실제 기사의 기능과 목적을 분석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밝혀내었다. 무인들의 일상생활속, 무예수련, 군사훈련에서 기사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로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어졌고,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제도화되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를 하는 주체가 한반도의 북부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국가 차원으로 제도화되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역사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사는 어떠한 연속성을 보이는지 조선시대에

제정된 의례(儀禮)와 인재 선발인 무과(武科)에 기사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제도화되는데 어떠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근대스포츠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가지는 기능적 의미 변화와 현대에 재해석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들과 종합하여 근현대의 스포츠가 정립되는 과정과 비교하여 서양의 근대스포츠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경기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은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기사(騎射)라는 인류 역사에서 행해진 보편적인 신체활동이 한국의 역사에서 어떠한 지속성이 있고, 내용적 특징을 가지는지 검토해 보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전통의 신체문화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 속에서 진행돼오고 있다. 특히 무예서와 병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예도보통지』를 국문학자인 정인보(1931)가 동아일보에 ‘朝鮮古書解題’를 18회 연재¹³⁾한 후 1970년 10월 홍이섭이 해제하여 학문 각에서 150부 영인하여 한정판으로 간행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1월 한국체육사연구회에서 나현성이 해제하여 발간하면서 스포츠역사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¹⁴⁾ 1984년 김위현이 『무예도보통지』를 국역하였고, 실제 무예인들의 기술 실연한 사진을 사용하여 설명한 실기해제는 1987년 김광석·심우성과 1996년 임동규에

13) 박기동·김상구(1992 : 84), 「무예도보통지 반포와 그 시대적 배경」, 강원대체육과학 연구소논문집 제 17호, 강원대체육과학연구소.

14) 『무예도보통지』는 홍이섭과 나현성이 해제하고 영인한 이후 여러 차례 영인이 되었고, 1998년에는 동문선에서 『무예제보』와 함께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허건식(2005 : 89), 「무예도보통지의 현대적 가치」, 무예24기 학술회의 회보, 무예24기 보존회.

의해 출판되면서 무예인들에게도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¹⁵⁾

특히 나현성의 『한국체육사연구』에서 근대 이전의 체육을 무사체육, 유희, 위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전통의 신체문화를 현대의 체육적 개념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전통의 신체활동과 체육적인 개념은 나영일(1992)에 의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신체활동을 무사체육이라는 관점에서 무과제도(武科制度)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종 법전과 『무과총요(武科總要)』, 『관서무사시취방(關西武士試取榜)』 등의 무과 기록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의 무예훈련과 평가기준에 대한 신체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혔다.

또한, 나영일은 『무과총요』와 『무예제보(武藝諸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과 같은 무예서의 번역을 통해 조선시대 무예 훈련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밝혔다. 특히 무예서의 번역작업과 연구는 무예와 전법(戰法)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전통의 신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박기동(1993)에 의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형성과정이 밝혀지며 더욱 다양한 내용의 스포츠역사가 논의되었다. 그는 특히 임진왜란 당시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무예제보(武藝諸譜)』를 최초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에 입각한 전통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후의 연구자들이 진법, 전법, 전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군제사 분야의 연구들 역시 스포츠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도 인접하여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김광석은 1992년 『권법요결』, 1995년 『본국검』, 2002년 『조선창봉교정』 등의 일련의 실기해제에 관한 서적을 각 무예들의 이론과 함께 그림을 사용하여 해제하였다. 이외에 김술이나 권법과 같은 각 무예에 대한 실기해제가 된 서적이 있으나 전체를 다 해석한 것은 이 두 권이 전부이다.

16) 노영구(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동경

곽낙현(2012)은 도검무예를 중심으로 역사학의 이론과 체육학 분야의 실기가 하나로 융합하여 각종 연대기자료, 법전류, 무예서 등의 기존연구자료와 함께 군영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당시 도검무예의 실체를 밝히고 실제 활용과 연마의 목적을 밝혀 조선후기 무예사에서 이론과 실체가 하나가 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박금수(2013)는 『병학통(兵學通)』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에 편찬된 진법서(陣法書)를 분석하고,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도보통지』 등의 무예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군사들이 진법과 무예를 훈련하는 절차와 내용을 개별군사들의 무기와 무예의 종류와 상호보완체계, 그리고 이들이 진법에 따라 조직되어 전체 부대가 주장(主將)의 지휘하에 유기적인 전술행동을 펼치는 방식을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들이 조선시대의 보병에 중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온 데 반해 기병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여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스포츠의 역사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1997)의 『마문화연구총서』 발간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 마상무예 전반에 걸친 역사적 고증과 더불어 실기 복원 및 고증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초로 말과 같이 구현한 무예의 실기해제가 같이 이루어져 주목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 중심의 무예사 연구 중 마상무예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¹⁷⁾ 심승구(1999)는 모구(毛毬)라는 기사(騎射) 방식을 논의하였고, 최형국(2006)은 조선시대 행해졌던 기사(騎射)의 방식을 무과시험 속에서 기사, 모구, 삼감사 등의 종목과 과녁의 변화, 규정의 변화 등과 사범비전공하에 담긴 기사의 수련법을 탐색하였다. 또한, 최형국(2009)은 마상무예의 시취 규정을 분석하여 당시 구사되

(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해은(2007). 「18세기 무예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御營廳中甸騰錄을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논총, 제9호. 등이 있다.

17) 沈勝求(1999), 沈勝求(2000), 沈勝求(2004), 최형국(2006), 최형국(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었던 기병전술과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조선의 기병 전술에 관한 연구 역시 군제사 분야와 스포츠역사학분야가 상호연관이 있어 보인다. 기병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군사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의 입장에서 조선후기 기병의 변화를 읽어 내어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에 집중하여 무예, 무기, 훈련, 시취 및 무과, 전술, 전법 등의 주제 각각에 문헌 검토단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집중된 정확한 사료에 입각한 분석은 스포츠역사학의 측면에서 기존의 역사학과 군사학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방법론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의 시대적 범위인 ‘조선’라는 시대적 고립성 그리고 사료에 있어 중국 문헌의 유입에 의한 의존성 등은 한국스포츠의 역사를 논하는 데 벗어나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조선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병 관련 연구와 같이 ‘인간과 말’에 대한 연구¹⁹⁾ 스포츠역사학 분야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역사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신체문화를 집중적으로 논한 것은 이진수(1996)가 최초이다. 그의 저서인 『한국의 고대 스포츠 연구』에서는 나현성(1977 ; 1978)의 연구에 더하여 우리 전통스포츠의 특징을 구회, 활쏘기, 격투기, 도인, 놀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봉회, 장치기, 궁시, 궁술, 각종 놀이와 도인법 등을 보충하여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2004년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기사(騎射)에 關하여」에서 고구려 시기의 기사(騎射)를 논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사를 활쏘기와 말타기

18) 노영구(2002), 李弘斗(2000), 李弘斗(2002), 李弘斗(2010), 李弘斗(2006) 등의 연구가 있다.

19) 李弘斗(2004),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 :특히 漢族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68호 ; 李弘斗(2005), 「高麗 契丹戰爭과 騎兵戰術」 『史學研究』 제80호. 등이 있다.

가 복합된 어려운 신체운동으로 보고, 고구려의 승마법이 스키타이, 사르마트, 흉노와 일치하며, 수렵도에 나타난 말의 종, 기사법, 양마법, 활과 화살 등을 스포츠학적인 측면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파르티안 샷’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진수의 연구는 대부분 역사와 군제사 분야²⁰⁾에서 고구려의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강대한 군사력을 중기병(重騎兵)의 전략적인 운용에서 찾는 것과 달리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경기병(輕騎兵)에 주목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신체활동이 조선시대의 연구에서 주목한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 유라시아 초원에서 활동한 유목민들 혹은 반농·반목을 한 북방민족들과 큰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논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고구려의 신체활동 중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놀이와 스포츠형식으로 존재²¹⁾하고 있음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정형호(2005)는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에서 그리고 전호태(2013)는 「고구려의 음악과 놀이문화」에서 고구려 시기의 기사(騎射)를 격투기적 성격을 가진 놀이로 구분하고, 개인적인 무예 수련과 동시에 놀이, 수렵 등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논한다.

이진수(1996)가 주목하였듯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말 위에서 몸을 돌려 활을 쏘는 자세를 보통 ‘파르티안 샷’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파르티아인들의 기병 전술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피터 켈라크나, 2019: 147). 『The Histories of Herodotus』부터 『Plutarch’s Lives』와 『Dio’s Roman History』의 기록을 보면 파르티아인들이 스키타이인의 유목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말을 타고 활쏘기에 능했고, 퇴각하며 화살을 쏘는 데 탁월했다는 사실을

20) 李仁哲(1996), 徐榮教(2004a), 徐榮教(2004b), 이홍두(2004), 정동민(2007), 강현숙(2008), 정동민(2008), 이홍두(2011), 林世旭(2012), 이홍두(2013), 이홍두(2014), 정동민(2017) 등의 연구가 있다.

21) 이행원(1983), 최용기(1996), 심승구(2004a), 심승구(2004b), 李鎭洙(2004), 김영학·안종남(2005), 전미선(2005), 정형호(2005), 최미애(2006), 김산·송일훈(2009), 전호태(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엿볼 수 있다.

‘파르티안 샷’의 기원적인 측면에서 소마 다카시(相馬隆, 1970)는 ‘파르티안 샷’ 도상에 대해 스키타이인과 킴메리안 같은 유목민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논의하였고, 국내에서는李玉洙(1991)가 삼산이낭(杉山二郎, 1971)의 연구에서 아무런 역사적 논의 없이 ‘파르티안 샷’이 후대인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물을 지칭하는 데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정석배(2017)에 의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는 ‘기마 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에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물뿐 아니라 아케메니아드 페르시아와 킴메르의 자료부터 러시아 학계의 연구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자세가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에 흑해 북안에 존재한 킴메르인들에게서 유래하여 스키타이에서 유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파르티안 샷’은 주로 동서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서방에서의 전래로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의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보이는데(Rostovtzeff, 1927 ; Rostovtzeff, 1929 ; Rostovtzeff, 1935 ; Rostovtzeff, 1935 ; Wilma, 1941) 한(漢) 시대의 중국예술에 기마 전투와 사냥 장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헬레니즘화된 파르티아의 예술이 중국예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의 연구²²⁾는 이러한 러시아 학계의 연장선상에서 미술사 분야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흉노와 대립한 한(漢)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역(西域)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파르티안 샷’ 역시 중국을 통해 고구려에 전래하였을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여 서방 전래라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 의견도 있다.李玉洙(1991 : 58)는 조(趙)의 무령왕이 북방의 기사(騎射)를 받아들인 이후 ‘파르티안 샷’ 자세가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미술작품에 정형화되어 나타나기에 서방으로부터의 전래에 문제를 제기하

22) 국내에서 ‘파르티안 샷’ 논의는李玉洙(1991), 蔡漢承(1993), 이진수(1996: 125), 국사편찬위원회(2007: 11), 홍선표(2001 : 96), 전지은, 심하진(2001), 권영필(2002), 하효진(2003), 신현규(2006), 정수일(2008), 최미애(2008), 박아림(2014), 정석배(2017)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였고, 이진수(1996 : 125 ; 2004)는 에가미 나나오(江上波夫, 1973 : 238)의 연구를 논의하며 고구려의 사냥 문화로서 ‘파르티안 샷’이 자체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역사에 존재하는 전통의 신체활동을 현대에 복원하려는 연구는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에 집중되어 개인의 무예, 인재 등용 방식, 군사가 진법을 이루는 방식 등을 복원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의 시기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또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신체문화 교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의 신체활동이 감지된다.

또한, 기원전 6세기경부터 나타나는 ‘파르티안 샷’ 도상의 미술사적인 해석으로 유목민들의 모습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중국을 매개로 한 서역으로부터의 전래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도상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나타나 시기와 지역을 규칙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렇기에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기사(騎射)라는 전통의 신체활동은 스포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연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대 스포츠에도 말타는 스포츠는 승마, 활 쏘는 스포츠는 양궁, 국궁으로 서양에서 온 스포츠와 한국의 스포츠가 공존하기에 이들이 통합된 형태인 기사(騎射)를 연구하여 연습의 방법과 독특한 기법을 밝히는 것은 전통을 간직한 한국형 스포츠문화를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연구방법

스포츠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와 비판, 해당 자료에 대한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의 구성, 새로운 사실의 발견, 풀이 및 서술의 단계로 진행 된다(나영일, 1988 : 33). 이러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문제선택,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 설정, 자료의 수집과 분류 및 분석, 결론 도

출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역사, 인류, 유라시아 연구업적을 통하여 말 그리고 활과 관련된 지식들과 한반도 북부의 연결성을 고찰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였다.

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기사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중국 문헌에 분류된 중화(中華)의 문화와 다른 변경 지역의 그리고 그 너머의 외부인과 관련된 기록 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 외부인들의 공통된 특징인 기사(騎射)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역사적인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한반도의 북부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토된 유물, 고분 벽화, 암각화 등에 남아있는 기사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시각자료를 고고미술사학에서 쓰이는 도상학(圖像學)적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기사의 구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그 밖에 금석문 등 문헌이 많아지는 시기에서는 말과 활 두 가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관계된 텍스트들을 최대한 추출하여 시대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기사라는 행위가 등장한 시대, 역사적 배경, 인물, 관련 인물, 장소, 정치적 배경 등과 면밀히 비교하여 기사라는 행위가 기록된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1) 유물의 수집 및 분석 방법

고구려 시기의 고분벽화에 표현된 ‘기사’ 관련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자들이 특정 도상의 개별적인 모습을 일차원적으로 해석²³⁾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물 간, 인물과 대상 간의 자세와 위치 비교를 통해 최대한 입체적으로 벽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개별 인물이 표현된 그림 분석을 위하여 도상(圖像)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다. 도상은 다수의 ‘기사’ 그림의 내용과 형식 관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차용한 것으로 미술 작품의 이해를 탐구하고자 하는

23)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전체적으로 원근법이 무시되고 오히려 역원근법으로 중요한 인물을 나타낸다(이원복, 2005).

학문인 도상해석학(圖像解釋學, Iconology)에서 쓰이는 개념(에케하르트 캐멀링, 1997; 에르빈 파노프스키, 2002)이다.

삼국시대의 고분벽화, 유물 등에 나타난 도상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마구, 말, 활, 화살의 형태, 수렵의 장소, 사냥감의 수와 종류 그리고 기마술 등과 같은 다양한 양상의 정보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존에 출판된 도판과 모사도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한 도상만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선 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8)의 『조선유적유물도감』과 이태호·유홍준(1995)의 『고구려고분벽화』의 도판 외에 자료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朝鮮畫報社에서 1985년에 발간한 『高句麗古墳壁畫』, 중국의 북경 박물관에서 2012년에 발간한 『中國出土壁畫全集』 1~8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의 기사도상 자료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주로 수렵도에 여러 도상(圖像)들이 상하좌우의 배치로 인해 공간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임두빈, 2012)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상의 상관관계를 찾고 도상 간 비교를 통해 기사(騎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일정한 유형을 분류하여 기사(騎射) 하는 자세의 특징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기사(騎射) 하는 모습은 고분벽화 외에도 백제와 신라 등의 유물에 등장하고, 고구려와 관계한 유목민들 혹은 유목민의 모습을 표현한 여러 예술 작품에도 폭넓게 등장하기에 인물과 말의 모습, 복식, 마구, 활, 화살, 화살촉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도상의 설명에 있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고구려와 비슷한 위진(魏晉)시대의 벽화와 유목민족들의 암각화에 표현된 유형의 도상들을 보조 자료로 참고하면 기사가 표현된 상황에 있어 더욱 폭넓고 자세한 설명 뿐 아니라 문화권별 유사성 파악을 통한 전래의 관계의 유추가 가능하리라 보고 최대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2) 문헌고찰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로서 선정된 문헌은 중국의 문헌과 한국의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원전 7세기경 춘추전국시대의 문헌들에 보이는 산발적인 자료들과 중화 외부의 민족들의 역사가 별도로 구성되기 시작한 『史記』 등에 보이는 고조선의 기록들을 먼저 분류하여 중화는 외부의 민족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후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舊唐書』 등 중국의 정사(正史)²⁴⁾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을 확인하여 기마술에 뛰어난 사람들, 활을 잘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분류하였으며 이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잘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한국인에 의해 씌여진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²⁵⁾에서 기사 관련 사료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고, 최대한 문맥을 참고하여 포착되는 한국 기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사는 서쪽의 정주민들에게도 기록되어 있다. 『The Histories of Herodotus』, 『Plutarch’s Lives』 와 『Dio’s Roman History』 등 로마의 역사서에 담긴 스키타이, 파르티아 등의 유목민족들의 기사하는 방식도 참고하였다. 이들 서양고전은 Harvard University Press에서 영문번역으로 발행되어 있으며, 오역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어번역연구회(1992), 홍사중(2007), 박현태(2015)의 번역서를 비교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기사(騎射)

본 연구에서는 기사(騎射)라는 정확한 단어가 기원전 4세기 중국의 문헌에 호복기사(胡服騎射)로서 중국의 문화 외부의 신체문화로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폈듯이 스키타이와 파르

24) 이러한 고문헌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역주한 『사기 외국전 역주』, 『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후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삼국지·진서 외국전 역주』가 발간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25) <https://db.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타의 특기인 말타고 활쏘기에 대한 논의와 중첩되는 시기이며,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용어는 조선시대의 무과의 한 종목으로서 정확히 명시되기에 말타고 활을 쏘는 행위를 기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라는 용어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정황이 묘사된 경우를 통칭할때에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의 문헌부터 보이는 말타고 활을 쏘는 행위들도 모두 기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유학자들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한 한국 문헌의 특징상 고려시대를 기록한 문헌부터 다양한 어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기사(騎射) 외에도 사어(射御), 마사(馬射), 치사(馳射)라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말타고 활을 쏘는 행위로 보았다.

특히 사어(射御)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御)가 문맥상 육례(六禮)의 하나를 지칭할 때는 활쏘기(射)와 연결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문신인 조연수에 대해서는 유학에서 말하는 육례의 하나로서 어(御)와 활쏘기(射)를 말하고 있기에 배제하였다.²⁶⁾

고려 성종 대에도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북방의 강역을 방비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토착민들 중 사어에 능한 사람들 뽑아야 한다는 주장(選土人能射御者), 정도전이 당의 5조목을 들면서 신당서의 무과 종목의 馬射를 射御로 표기한 점으로 볼때 기사, 사어, 마사, 치사 등은 모두 말타고 활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조선시대에 기사(騎射)는 무과의 중요한 한 종목이었으며, 오례(五禮)에도 명시되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행위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 전방위기사법(全方位騎射法), 포위기사전법(包圍騎射戰法)

2장에서 사용한 ‘전방위기사법(全方位騎射法)’과 ‘포위기사전법(包圍騎

26) 조연수묘지명, 今東韓平壤趙司空, 富與貴極, 而容儀秀麗, 才與智齋, 而識度淵弘, 善解音律, 尤工書畫射御無缺, 君子六藝中, 唯一甚欠. 至如出將入相, 一身文虎, 一舌華夷, 全百美, 而綽綽有餘閒, 嗚呼, 天不與年.

射戰法)’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 기사라는 행위에 있어서 개인이 행하는 움직임의 원리 그리고 이들이 모여 단체 행위의 원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는 본 연구자인 성제훈(2018)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법 양상 검토」와 성제훈(2019)의 「파르티아 시기의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의한 후 사용하였다. 고분벽화의 특성상 당대의 언어로 묘사되고 체육학적으로 표현된 문헌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사의 기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 연구를 진행하며 기원전 4세기경 무령왕의 호복기사와 같이 이미 한반도 북부지역에 존재했던 호(胡)와 맥(貉)이라는 구성원들에게 기사는 보편적인 활동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등자, 명적, 사냥감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냥장면에 산림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표현되기에 파르티안 샷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다양한 방위로 말을 타며 활을 쏜다는 체육학적 측면에서 전방위기사법(全方位騎射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뒤를 돌아보고 활을 쏘는 장면을 하나의 개별적인 동작으로 보지 않고, 단체로 기사를 할 때 필요한 전술적인 형태로 보았다. 이는 기사하는 인물과 사냥감과 위치 변화 그리고 둘 이상이 협공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위치 변화에 따라 사냥감 혹은 적군을 포위하여 몰이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렇기에 포위기사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3명의 소규모 인원이 사냥감을 가운데 두고 협공하는 장면과 다수의 기마인물이 양편, 혹은 일정한 방향으로 사냥감을 몰이하는 장면을 지칭할 때 포위기사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라시아 초원을 무대로한 유목민들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²⁷⁾과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사냥이라는 공통적 특성과 이 민족들의 기병 전략 전술을 연구한 학자들²⁸⁾ 기사를 사용한 포위와 몰이사냥을 농경민족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여겼다. 이처럼 몰이하여 포위한 후 기사

27) Barfield(1989), Di Cosmo(2005), Beckwith(2014)와 같이 유라시아 초원을 무대로한 유목민들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 Hildinger(1997), May(2006), Allsen(2006)

28) Hildinger(1997), May(2006), Allsen(2006)

하는 모습은 고구려고분벽화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사냥에 대한 묘사 그리고 군사훈련 묘사 등 많은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그렇기에 기사하는 인물 개인이 뒤를 돌아 보고 활을 쏘는 하나의 개별 동작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전체 장면의 상황에서 이를 보고, 기사를 하면서 몰이하는 장면 그리고 포위하여 화살을 쏘는 장면을 포위기사전법(包圍騎射戰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3) 유목민, 농경민, 반농반목민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기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사료를 분석하는 데 자연환경의 특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한국 고대사 기록의 전개가 자연환경에 의한 생활 양식인 농경민, 유목민과 구분되는 반농반목민으로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원을 지리적 범위로 한족의 역사와 관계된 국가들과 민족은 농경민, 초원을 무대로 유목민의 역사와 관계된 부족, 민족 그리고 이들이 세운 국가를 포함하여 유목민, 한반도 북부에서 한반도 까지 산림지역을 범위로 한 부족들과 이들이 세운 국가는 반농반목민의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팀 마샬(2015)²⁹⁾, 유발 하라리(2015)³⁰⁾ 의 연구에서 주지하였듯이 인간의 역사는 지구상에서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의 특성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렇기에 동아시아 보편의 신체문화인 기사의 역사를 탐색하며, 산림지역에서 전개된 한국 역사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하여 초원을 무대로 활동한 유목민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여 문화를 꽃피운 농경민과 구분하였다.

그렇기에 기사라는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발달하여 전파된 것이라는 기존 무예, 스포츠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적 특성에 의한 내재적 발전과 주변과의 상호교류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김호동(2010)은 그의 저서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에서 인류의 역사를 볼때 전

29) Prisoners of Geo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30)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통적인 전과론이라고 불리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먼저 고도의 수준에 도달한 하나의 지역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류발전형이라 불리는 관점에서 각각의 사회와 문화가 독자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상호 교류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기야마 마사아키(1999 : 92)는 유목문화를 해석하며, 서양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 극히 작은 일부분의 역사를 가지고 동·서간의 대립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호동과 스기야마 마사아키에 따라 기사가 현재의 중국, 러시아, 한국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Barfield(1989)³¹⁾의 연구의 전개 방식인 동아시아에서 중국, 만주, 한반도 이 삼자 구도에 대한 시각에 주목하여 해석하였다. Barfield는 동아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정착 문명의 중원, 유목문명의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삼림과 초원 문명이 공존한 만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북방민족인 유목민은 농경민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동의하며, 나아가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 지역은 산림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 자연환경에서는 반농반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 기사를 해석하였다. 기사(騎射)라는 신체활동을 기존에 서술되는 서역에서 고구려로의 전래 혹은 중국에서의 전래라는 시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래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한국의 역사에서 저평가되었거나 주목받지 못하였을 수 있는 북방민족들과의 관계선상에서 기록을 재조명하여 탐색하였다.

4) 수렵(狩獵), 사냥, 기사사냥

본 연구에서 고구려의 기사(騎射)를 읽는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수렵(狩獵)과 사냥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의 기사에 대한 논의

31) Barfield, T. J. (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Cambridge, Mass., Cambridge, Mass. : B. Blackwell.

를 진행하면서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수렵(狩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고분벽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본 연구자는 북방민족들의 사냥은 대부분 기사(騎射)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의 사냥 장면 묘사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수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사용된 사냥 용어들 중 수렵(狩獵)이라는 용어가 의미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국내의 미술사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전쟁 훈련과 기사(騎射) 사냥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수렵(狩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헌을 중심으로 기사의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사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역사학에서 논의되는 고려시대부터 유학의 저변확대와 용어 사용에 있어 개념의 변화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심승구(2011)에 의하면 사냥을 뜻하는 용어로 매우 다양한데³²⁾ 『周禮』에 의하면, ‘전(田)이 병사를 훈련시킨다’는 뜻이고, ‘전(畋)이 짐승을 잡는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통상은 ‘엽(獵)’이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사냥에는 군사훈련을 겸하는 사냥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사냥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강무·타위·답렵·산행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수렵·전·유렵 등이 있었다. 『周禮』에 따르면, 봄에는 ‘수(蒐)’라 하여 백성과 북을 쳐 구역을 둘러 쌓아 불을 붙인 후 꺼지면 잡은 짐승을 잡는 ‘화전(火田)’이다. 여름 사냥인 ‘묘(苗)’는 새끼를 배지 않은 짐승을 수레를 써서 몰이하는 방식이다. 가을 사냥인 ‘선(獮)’은 그물을 치거나 그물을 던져 잡는 방식이다. 가을 사냥은 곧 ‘그물 사냥’이다. 겨울 사냥 ‘수(狩)’는 사냥감 취하기를 가리는 것이 없고 깃발 정(旌)으로써 좌우의 화문을 만들어 보졸(步卒)과 수레로 진을 치는데 험한 들판에는 사람이

32) 심승구(2011)에 의하면 사냥을 뜻하는 용어로는 엽(獵)·전(田)·전(畋)·전수(田狩)·전렵(田獵)·전렵(佃獵)·전렵(畋獵)·산렵(山獵)·유렵(遊獵)·유전(遊田)·타렵(打獵)·타위(打圍)·답렵(踏獵)·수렵(狩獵)·수(蒐)·묘(苗)·선(獮)·수(狩)·요(獠)·산행(山行)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주가 되고 평평한 들판에는 수레가 주가 된다.³³⁾

수레의 사냥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의 사냥은 고대 중국의 왕실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예법에 근거하여 수레를 몰며 행한 사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절별 사냥법이 조선시대에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산이 많아서 사냥할 때 수레를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냥의 어원은 ‘산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데서 알 수 있다. 이는 문종대의 기록을 통해 처음 확인된다.³⁴⁾ ‘산행’ 또는 ‘산행 출입(山行出入)’은 군사 훈련을 뜻하는 용어로 굳어져 갔다.³⁵⁾ ‘산행’이란, 곧 ‘군사 훈련을 겸한 수렵’을 뜻하게 되었다.³⁶⁾ 사냥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이후에 정착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사료들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그대로 따르며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기사를 해석했지만, 기사와 특징이 보이는 기록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사사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수렵 관련 기록에 비해 고려시대의 수렵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묘사가 훨씬 구체적이다.

Allsen(2006 : 21)에 의하면 크세노폰(Xenophon)의 기록을 예를 들어 기병의 포위 전술은 주로 사냥을 통해 훈련되는데 도보사냥 보다는 기마사냥의 형태로 사냥감을 몰이하여 포위한 후 활로 사냥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마 상태에서 활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묘사가 된 기록을 논의할 때는 ‘기사사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사료에 보이는 매사냥, 도보 사냥 등과 구분하고, 보병훈련, 기창, 격구 등의 기병훈련과의 구분을 위하여 기사사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의 사냥은 수레를 탄 상태에서 행하거나 도보로 하는 사냥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33) 柳馨遠, 『礪溪隱錄』 권23, 兵制攷說 講武.

34) 『文宗實錄』 권8, 문종 1년 7월 임술, 전략 山行 因獵以鍊軍士 又行幸時 銃筒衛領率 護軍 帶弓箭 侍衛 銃筒衛 如有失伍離次者 隨即糾察 從之.

35) 『世宗實錄』 권22, 세종 5년 11월 병술, “一 監司統察一方 凡軍民之事 無不管攝 往往都節制使以職秩相等 不顧體屬之義 處事自專 出入自如 誠爲未便 自今都節制使應敵動軍外 軍兵點考 山行出入 雖一日之役 必報監司 然後施行 以存體統.”

36) 『世宗實錄』 권124, 세종 31년 4월 병인.

였다.

5) 경기(Competition), 스포츠(Sports), 국제경기대회

영국에서의 기록을 보면 17세기 초부터 승마 기록을 두고 내기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M. Bouet, 1968 : 316)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에 걸쳐 확립된 근대스포츠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태동하여 유럽 각지, 북미, 남미 등의 여러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Elias(1999)의 문명화 과정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성격을 띄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Elias(2014)에서는 18세기~19세기 초반 영국의 귀족들이 행한 여우사냥을 최초의 스포츠로 보고 있다. 원래 목적인 여우의 살생 보다 이를 추적하고 몰이하는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쾌락에 대하여 쾌락 원천의 다양화와 클라이맥스의 지연이라 칭하였다.

위의 여우사냥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을 타고 사냥감을 모는 행위는 유럽에서도 스포츠라는 개념 정립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현상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스포츠라는 단어는 12~13세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뛰놀다(s'ébattre)를 의미하는 동사 데스포르테(desporter)의 데스포(desport)라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였고, 영국에서는 기사(Knight)들에 의해 유입된 '데스포'라는 단어가 16세기에 '디스포'(disport)로 변형되고 그 후 스포츠가 되는데 19세기까지도 경마, 기마사냥 등의 말을 사용한 경기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Thomas, 2000 : 26-28).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라는 개념이 유럽에서 정립되었고, 근현대의 세계사에 미친 그 영향력은 가히 전지구적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현대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기화라는 측면이 결국 말을 타는 행위와 사냥에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렇기에 한국의 역사에서의 기사 역시 이러한 경기의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스포츠의 개념이 근대 한국에 도입된 후 전통문화와

만나며 무예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나영일(1992 : 199)은 조선시대의 무사 체육을 논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무예를 찾으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현대체육의 새로운 소재로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³⁷⁾ 본 연구에서도 기사(騎射)라는 행위가 한국의 역사에 전통으로 자리한 신체문화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무형의 문화라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재현된 전통스포츠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기에 기사를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그리고 이에 담긴 스포츠의 맹아(萌芽)로서 다양한 가치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영일(2000 : 25)이 논의한 바와 같이 체육을 넘어서 문화의 영역에 위치하기에 신체를 중심으로 ‘스포츠’라는 범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통무예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는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가 있다. 무예와 스포츠관련 정책의 기초를 보았을 때 기사 역시 전통무예로서 동시에 경기스포츠로서 발전할 경우 대회 개최, 지도자 양성 그리고 단체 운영 등 잠재적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기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로는 현재의 일본, 남한,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6개국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경기스포츠적인 측면 더 나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국제경기대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7) 이러한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체육학과 스포츠학의 용어 사용에 대한 학문적 개념은 나영일(1992), 나영일(2003), 박현우(2007), 이학준(2010), 나영일, 곽낙현, 박귀순(2017)에 의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II. 삼국시대 기사(騎射)의 문화적 특징

본 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정립되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기사라는 행위가 출현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전개가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삼국시대가 정립된 이후 보이는 문헌과 유물을 동시에 검토하여 기사가 발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기사를 잘하게 된 이유를 밝혀 고려와 조선의 역사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하기 이전 기사의 형태는 어떠한지 한반도와 그 북부라는 지리적 범위안에서 전개된 기사의 역사를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1. 삼국시대 이전 기사(騎射)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

1) 기사가 발생한 지역의 지리적 특징

(1) 대초원의 유목생활과 기사의 관계

기원전 5세기에 『역사』를 저술한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초원의 유목민인 마사게타이에 의해 스키타인들이 서쪽으로 오면서 그 지역의 유목민인 킴메리안들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Herodotus 4.11). 서쪽의 흑해 북부로 이동하게 된 스키타이와 여기에 세력을 두었던 킴메르를 쫓아 남하하던 스키타이는 이란 서부를 침략하고 그 후 28년 동안 서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니게 된다(Herodotus. 4.12).

H. Komatsu(2005 : 43)에 의하면 스키타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과거 소련 학계에서는 청동기 시대 남러시아 지역의 주민이 그대로 발전하여 스키타이가 되었다는 토착설이 주류였으나 우크라이나 고고학자 테레노지킨(A. I. Terenajikin)이 주장한 것처럼 사르마트, 훈, 아바르, 몽골을 비롯한 수많은 유목민이 동방에서 이동해온 점, 결정적으로 남시베리아 투바의 아르잔고분의 유물 출토는 스키타이의 동방 기원설 역시 신빙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자연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신중하게 계획되고 방어진 경로와 목초지를 따라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목축 활동을 했다. 그렇기에 농경민들처럼 큰 규모의 노동집약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소규모의 효율적인 생활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목민 한두 명이 말을 타면 수백 마리의 양떼에서부터 100마리 이상의 말떼까지도 돌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전투에서 유목민이 가졌던 주요 강점인 기마술의 발달을 야기하였다(Golden, 2021 : 33~36).

따라서 목초지를 둘러싼 유목민들 사이의 투쟁은 일부 부족들을 정주 세계로 밀어내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역사가들이 유목민들에 대해 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그리스인들은 유목민들이 젖을 마시며 이동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경제구조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겼다. C. I. Beckwith(2014 : 41)는 유목민들이 필요한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지역의 부유한 농경민들을 약탈한다고 여기게 되며 각종 편견이 굳어졌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말을 활용한 기동성을 동원하여 무역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부유했다. Khazanov(1990)의 저서인 『유목사회의 구조』에서 논의된 유목민들의 문화는 동서 교역에서 육상을 이용한 모든 중요한 교역로는 유목민들에 의해, 또는 참여하에 개척됐다고 논의하고 있다. 유목민은 교역과 중개, 물건 운송 그리고 사막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코끼리나 낙타를 이용하여 무기와 식량을 준비해서 여행하는 상인 단체인 대상(隊商)의 보호와 안내, 통행료 징수 등으로 이득을 취했다.

스키타이가 역사상 최초로 유목국가를 건설한 집단이라면, 흉노(匈奴)는 유라시아 동부 초원에서 처음으로 유목국가를 세운 이들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중국은 장건이 서역을 다녀온 뒤 비로소 중앙아시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한 제국은 흉노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고비 사막 이남의 초원과 하서회랑을 장악한 뒤, 이를 거점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김호동, 2016 : 34).

흉노사회의 경제 역시 유목에 의한 목축업이 위주였다. 목축업 가운데서도 말은 이동과 전쟁의 기본수단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말은 그 종류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량도 매우 많았다. 수렵은 그들에게 식품과 일용품(가죽, 털 등)을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선우들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렵에 나서곤 하였다. 그러나 목축업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은 약화되었지만 때로는 수렵이 그대로 군사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정수일, 2013).

(2) 산림지역 반농반목의 생활방식과 기사의 관계

초원의 유목민인 흉노와 훈이 이동한 초원의 동쪽, 즉 현 만리장성의 북쪽이자 동쪽인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동베이 평원은 호, 맥, 고조선, 고구려 등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동베이 평원은 침전 작용이 아니라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장성 안쪽의 황허 평원과 다르면서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 이 지역은 쑹화(松花)강과 랴오허(遼河)강 수계를 따라 남북으로 이분되며 곳곳이 산맥으로 에워싸여 있다. 평원 동쪽과 동남쪽은 백두산을 경계로 한반도와 구분된다.

북쪽에서는 소싱안링(小興安嶺) 산맥이 헤이룽강을 따라 평행으로 뻗어 있고, 서쪽에서는 남북을 축으로 전개된 대싱안링 산맥을 경계로 몽골 고원과 구분된다. 평원의 서남쪽은 치라오투 산맥, 누루얼후 산맥 등에 의해 네이멍구 자치구와 황허 평원으로부터 구분된다. 평원의 남쪽에는 랴오둥 만(遼東灣)을 마주하고 랴오허 협곡이 123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다(N. Di Cosmo, 2005 : 30).

사기, 한서, 삼국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조선(고조선), 부여, 고구려가 활동한 오늘날 중국의 동북 지역에 위치한 동베이 평원은 진수의 기록과 일치한다. 넓은 평원과 산림지대가 공존하는 동베이 평원은 말을 사육하고, 야금술이 발달한 곳으로 평양문화, 샤자텐 문화 등 기원전 8세기 이전의 것들로 추정되는 마차, 기마와 관련된 유물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중국 장성 북쪽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가축을 키우

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은 사람들이 말을 다루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였다. 조선(고조선) 역시 한반도 북부를 배경으로 세력을 다진 국가였다. 유목경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는 아니었던 것을 보이지만 훗날 같은 지역에서 발흥한 요, 금, 청과 같이 반농반목의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기병중심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둥베이 지방 동부에는 라오둥 반도에서 헤이룽 강까지 산맥과 강유역 사이로 뻗은 고지대가 있다.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고 비와 습기가 많은 덕분에 광대한 산림이 형성되었으며, 산림의 남쪽은 낙엽수림이고 동쪽은 침엽수림이다. 사냥꾼들의 무대인 이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주민들이 여전히 텃을 놓지만 농경 역시 가능하다(N. Di Cosmo, 2005 : 31).

지리적으로 둥베이 평원 서부는 오늘날 네이멍구 자치구 동북부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여 농경에 적합지 않다. 대싱안링 산맥은 몽골 내륙 대부분을 차지하는 몽골 고원의 동부와 닿아 있으며, 이곳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방식은 모두 몽골의 생활 방식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사냥과 목축생활을 해왔다. 바위투성이 산맥인 탕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서남부는 상이한 두 경제 구역, 즉 농경에 적합한 동쪽의 라오허 강 유역과 서쪽의 몽골 고원 및 고비 사막 사이에서 자연적 경계역할을 한다. 이 산맥 지역은 북중국, 특히 허베이 성과 산시(山西) 성으로 뻗어 있으며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타이항 산맥이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N. Di Cosmo, 2005 : 32).

『鹽鐵論』 「憂邊篇」에서는 만(蠻)과 맥(貉)은 사람과 식량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 하여, 한대에는 맥에서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漢書』 「晁錯傳」 에서도 호(胡)와 맥(貉)의 땅은 습기가 쌓인 곳이어서 나무 가죽이 3촌이고 얼음의 두께가 6척이며 살코기를 먹고 유즙을 마시며, 그곳의 사람의 피부는 두텁고 새와 짐승의 털은 촘촘하여 추위를 잘 견뎌낸다고 하여, 맥이 중국 북방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둥베이 지방에는 북쪽 절반 지역의 고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산

림, 강 유역의 경작 가능한 토지, 서쪽의 대초원 등 세 가지 자연환경이 존재한다. 이곳은 대륙성 기후 탓에 겨울이 길고 추위가 혹심하며 여름은 짧고 덥다. 이곳의 토양은 초지라는 자연적 보호막 덕분에 매우 비옥하다. 서부는 건조한 탓에 농경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동부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 덕분에 농경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지역은 초원의 유목민들처럼 완전한 이동생활을 하기보다는 농경을 하며, 가축도 기르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N. Di Cosmo, 2005 : 31).

2) 좋은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1) 초원에서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초원의 유목민과 주변 정주국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초원 유목민의 고향인 중앙유라시아 스텝(대초원)지역이다. 이곳은 유라시아에서 말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목초지였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말과 함께 말 위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늘 이동했으며, 짧은 시간에 멀리 갈 수 있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기원전 말의 사육은 4800년경에 흑해-카스피해 초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식량 수단이었으나 기원전 4000년경 목축민들은 말 가죽으로 옷과 가옥을 만들고, 짐을 나르게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략 3700년 정도에 이 말을 타기 시작했고 기원전 2000년경에 일부 자급자족형 농경민들은 목축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스텝의 목초지로 계절 이동을 하기 시작하며 유목민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Golden, 2021 : 30).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학적 자료들이나 언어학적 근거들로 볼 때, 기마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유목민의 생활 기술을 개발한 이들이 기원전 1000년 초기의 스텝지역 이란어족이라는 데에는 현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Di Cosmo , 2002 : 21 - 24). 그 이전에 고도의 기마술이 개발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스텝 지역의 이란어족은 일상생활에서 말을 타고 다녔다(Drews, 2004).

기원전 제 3천년기에 목축민과 가축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목축민들은 스텝 지역으로 더 깊숙이 이주했고 목축이 이들의 주된 직업이 되었다. 수렵도 물론 계속해서 중요한 식량 획득 수단으로 남았다. 이 점은 훗날의 유목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조직화된 수렵은 군사 훈련의 한 형태로도 기능했다. 기원전 제 2천년기 초(약 기원전 1700~기원전 1500년 사이)에 스텝 지역에 거주하던 목축민들 중 일부가 기마민족으로 발전했다.

기마전투술을 발전시킨 인도-유럽인 유목민들은 민족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바퀴 달린 수레에 이어 아마 중앙아시아에서 발명된 전차가 등장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전차들이 요새화된 정착지였던 신타시타에서 발견되었다. 신타시타는 남부 우랄 스텝 지역에 위치한 신타시타-아르카임 페트로브카(Shintashta-Arkaim Petrovka) 고고유적군에 속해 있다. 잘 발전된 야금술을 보유했던 신타시타는 이 스텝 지역에 존재했던 도시 정착지들의 일부였다.

전차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각종 마구의 개발과 함께 기마술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기원전 약 3천년 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마구가 없이 초보적인 형태의 기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Owen 1991, p. 260 - 62). R. Drews(2004 : 35)와 James Downs(1961 : 1195)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실제로 인류가 말을 제어하였다기보다는 그저 말의 등에 오르기만 한 낮은 단계의 말타기로 보았다.

기마술에 있어 큰 변혁을 이룬 것은 유목민들이었다. 기원전 2100년경부터 1800년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신타시타(Sintashta) 문화의 표지유적인 신타시타 유적의 무덤군에서 전차가 발견되었고(Anthony 2007: 371-7; Littauer and Crowell. 1996) 여기에서는 청동제의 알비(Cheek Piece, 鑣轡)³⁸라고 불리우는, 재갈을 고정하기 위해 말의 양쪽 뺨에 위치하게 되는 장치가 발견되어 유라시아 대초원에서는 마차를 끌던 말들이 재갈과 굴레에 의해 제어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8) cheekpieces 말의 재갈 양쪽에 있는 금속제의 막대기나 원판 한국의 마구에서는 알비鑣轡로 표현

이후 청동으로 만든 재갈의 탄생은 기마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청동제 재갈은 가장 단순한 직선 형태가 먼저 발견되고 기원전 1,000년경 드디어 두 개의 조각을 연결한 재갈이 코카서스 북부와 러시아 남부 및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며, 기마술의 발달을 보여주었다. 9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거의 600개의 청동 조각 또는 폰틱-카스피해 대초원에서 발견되었다(R. Drews, 2004 : 78). 이후 마침내 기원전 9세기경 아시리아의 유물에 그들의 적과 기병전을 펼치는 장면에서 적의 말을 탄 동료가 활을 쏘는 사람의 고삐를 잡아 주는 초보적인 형태의 기사 하는 모습이 발견된다(R. Drews, 2004 : 56)

(2) 산림지역에서 말의 생산과 기마술의 발달

말의 가축화와 기마술의 발전은 대초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료상 나타나는 시기는 기원전 4세기 경으로 늦지만 한반도 북부 지역인 요동이라는 지역(현 내몽골에서 흑룡강 일대)에서 가축을 잘 다루는 집단, 용맹한 기병이 있는 집단이 존재한 것은 확실하다. 『戰國策』 「秦策」에서 소진이 진 혜왕에게 대왕의 국가는 서쪽으로 파, 촉, 한중 등의 이익이 있고 북쪽으로는 호, 맥, 대 등에서 나는 말을 이용할 수 있다고³⁹⁾하여 유목민족인 호와 같이 말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漢書』 「高帝紀」 4년에 북맥과 연인이 효기(梟騎)⁴⁰⁾를 보내와서 한고조 유방을 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초에 맥이 여전히 연국의 북쪽에 인접해 있었음과 동시에 맥이 기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

39) 『戰國策』 「秦策」 蘇秦始將連橫說秦惠王曰 大王之國 西有巴蜀漢中之利 北有胡貉代馬之用 南有巫山黔中之限 東有肴函之固 田肥美 民殷富 戰車萬乘 奮擊百萬

40) 漢書 卷一上 高帝紀 第一上(四年(B.C.203)) 八月, 初爲算賦. 如淳曰 : 「漢儀注民年十五以上至五十六出賦錢, 人百二十爲一算, 爲治庫兵車馬。」 北貉·燕人來致梟騎助漢. 應劭曰 : 「北貉, 國也. 梟, 健也。」 張晏曰 : 「梟, 勇也, 若六博之梟也。」 師古曰 : 「貉在東北方, 三韓之屬皆貉類也, 音莫客反。」 資治通鑑 卷十 漢紀二 太祖高皇帝(四年(B.C.202)) 八月, 北貉燕人來致梟騎助漢. 應劭曰 : 北貉, 國也. 梟, 健也. 張晏曰 : 梟, 勇也, 若六博之梟也. 師古曰 : 貉在東北方, 三韓之屬, 皆貉類也. 蓋貉人及燕皆來助漢. 孔穎達曰 : 經傳說貉多是東夷, 故職方掌九夷·九貉. 鄭志答趙商云 : 九貉, 卽九夷也. 又周官貉隸, 註云征東北夷所獲. 貉, 讀與貉同.

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마천의 『史記』 41)의 조선의 왕 우거(右渠)가 한나라의 장군들에게 태자를 보내 장안에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천 필을 바치고 군량을 제공해주었다는 기록에서 당시의 조선에서 말 생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전국시대 소진(蘇秦)이 진에 대항할 연횡책을 제안하며 외교 전략을 펼 때 언급한 각 세력의 군사력을 보면 진, 조 등 당시 기병 양성에 주력한 중화의 국가들이 기병 10,000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말 5천 필 진상은 많은 숫자라고 본다.

한나라 후기부터 요동지역에서 나는 말에 대한 기록으로는 진수의 『三國志』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가축을 잘 길렀으며, 명마(名馬) 역시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그리고 『魏略』을 인용하여 부여의 시조인 동명(東明) 역시 어려서부터 말을 기르던 전문가로 나온다.⁴³⁾ 읍루, 물길, 말갈⁴⁴⁾ 등은 『三國志』와 『魏書』에서 공통적으로 말의 생산지로 기록되어 있고, 수서와 구당서에는 말갈 기병⁴⁵⁾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三國志』의 고구려에 대한 기록에 고구려의 말이 모두 체구가 작아서 산에 오르기에 편리하⁴⁶⁾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三國志』와 『後漢書』에서는 예(濊)에서 과하마⁴⁷⁾의 생산지임을 명시하였다. 이 과하마는 『舊唐書』의 「百濟傳」의 기록을 보아 백제에서도 생산된 것으로 보이며,⁴⁸⁾ 『北史』 「高句麗傳」에는 이 과하마를 주몽이 탔던 말로서 기록되어 있다.⁴⁹⁾

그리고 이러한 요동지역에서 생산된 말이 그대로 전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호, 맥, 대의 전투용 말 외에도

41) 『史記』 天子爲兩將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 頓首謝: 「願降, 恐兩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軍糧.

42) 『三國志』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狝·明珠

43) 『魏略』 名曰, 東明, 常令牧馬. 東明善射

44) 『三國志』 有五穀·牛·馬·麻布

45) 『三國志』, 『魏書』 元率靺鞨之衆萬餘騎寇遼西

46) 『三國志』 其馬皆小, 便登山

47) 『後漢書』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48) 『舊唐書』 「百濟傳」 武德四年, 其王扶餘璋遣使來獻果下馬

49) 『北史』 「高句麗傳」 出三尺馬, 云本朱蒙所乘, 馬種卽果下也

『宋書』의 고구려전에는 원가 16년(439) 송태조가 북방을 토벌하고자, 고련(장수왕 長壽王)에게 조서를 내려 말을 보내도록 하여, 이에 고련이 말 800필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⁰⁾ 고구려의 편등산마 인지 과하마 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세력 범위에 있었던 말이 북방을 토벌하는 데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宋書』에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에 와서는 한대의 요동군에 해당했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고구려왕 고련(장수왕, 재위: 413~491)이 진 안제(재위: 397~419) 의희 9년(413)에 장사 고익을 보내 표를 올리고 자백마(赭白馬)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이 자백마(赭白馬)는 몸통에 붉은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는 말을 뜻한다. 당대 자백마는 고아한 털 빛깔로 귀한 종이자 명마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慕容鮮卑의 지도자慕容廆가 타던 자백마가 유명하였고⁵²⁾, 남조 황실에서는 자백마를 기르며 천자의 수레를 끌게 하였다고 한다(池田溫, 2002).

중화의 역사가들은 맥, 조선, 고구려 등의 세력이 통치했던 요동지역에 대하여 춥고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이들은 농사 외에도 사냥해야 하는 반농반목의 경제활동을 했으며, 이곳의 자연환경은 가축을 기르기 좋아 유목민인 호(胡), 흉노(匈奴), 오환(烏桓), 선비(鮮卑) 등과 같이 좋은 말의 생산지였다.

3) 군사 전술로서 기사의 발달

(1) 대초원에서 군사 전술로 발달한 기사의 특징

스키타이는 북부(혹은 동부) 이란어족이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스키타이의 도시 올비아와 기타 지역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스키타이인들은 스스로를 스콜로티(Scoloti)라고 불렀다. 페르시아에서는 그들을 사카(Saka)라고 불렀고, 아시리아에서는 이스쿠자이 또는 아스쿠

50) 『宋書』 「高句麗傳」 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51) 『宋書』 「高句麗傳」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奉表獻赭白馬

52) 『晉書』 권110, 慕容雋載記

자이(Iškuzai or Aškuzai)라고 했다. 이런 이름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스키타 Scythia- 라고 하는 어휘와 같은 어원에 바탕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부 이란어 스쿠타(Skuḍa 즉 활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동쪽으로는 중국 사이에 사는 모든 북부 이란어족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C. I. Beckwith, 2014 : 146).

특히 이들의 뛰어난 궁술은 어릴 때부터 왼손으로도 활을 잘 사용하도록 연습했다는 기록과(Plato, Laws 7.795a), 용병으로서 그리스에서 중장보병인 호플리테스를 보조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고, 이를 계기로 아테네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 5세기경부터 4세기 초까지 도시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로도 고용(Herodotus, 4.76.1-2) 되는 기록을 보았을 때 그리스와 아테네인들은 스키타이의 생활양식과 이들의 특기를 잘 알고 있었다.

사마천이 흉노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 역시 헤로도토스가 묘사한 스키타이와 거의 일치한다. 사마천은 어린아이들도 양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며 활을 당겨 새나 쥐를 쏘아 맞추고, 조금 크면 여우나 토끼를 쏘아 맞추고, 크면서 활(𠄎弓)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모두 무장 기병(騎兵)이 된다고 하여 유목민들의 타고난 성품 혹은 자연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중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흉노의 사람은 태어나 이른 시기부터 활을 당겨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고 공격하는 것을 익혀 침공하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는 활과 화살이고,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는 칼과 창(鋌)으로 어떠한 적과 조우한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체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을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연환경 그리고 사냥을 많이 하기에 활을 잘 쏠 수 밖에 없는 자연조건이 이들을 기사에 능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청년이 되면 강력한 활로 화살을 쏘게 되고 이들이 전투에 임하게 되면 주로 멀리서 활로 공격하고 가까이서는 칼을 사용하는 기병이 된다.⁵³⁾

흉노가 제국화되면서 이러한 유목민족들의 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방이 백등산 포위에서 벗어난 후 한나라와의 화친 과정에서 흉노의 선우는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더이상 소수의 유목민들이 각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었다. 이는 한나라가 제국화되는 경향과 거의 시기를 같이하며, 얼마만큼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그리고 사마천은 흉노 이외에 서이의 국가들도 같이 유목민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누란(樓蘭), 오손(烏孫), 호게(呼揭) 등을 비롯한 서역의 26개국도 흉노에게 복속되는 과정 역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활을 당기는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대완⁵⁵⁾에 대해서는 그 병기가 활(弓), 모(矛)이고 기사를 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오손⁵⁶⁾에 대해서는 활을 당기는자 수만, 강거⁵⁷⁾에 대해서는 활을 당기는자 8, 9만, 엄채⁵⁸⁾에 대해서는 활을 당기는자 10여만, 대월지⁵⁹⁾에 대해서는 활을 당기는자 23만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본 연구자는 흉노라는 대표적으로 강성했던 유목제국 외에는 주로 말을 잘 탄다는 표현은 생략하고 활을 당기는 자 혹은 활을 잘 쏘는 민족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들 민족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흉노로 대표되는 장성 북쪽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있거나 급해지면 기사를 하며 침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2) 산림지역의 군사 전술로 발달한 기사와 특징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만리장성의 동북쪽 산림지역이 활동 무대였던

53) 『史記』 「匈奴列傳」 其長兵則弓矢, 短兵則刀鋌.

54) 『史記』 「匈奴列傳」 樓蘭·烏孫·呼揭及其旁二十六國, 皆以爲匈奴. 諸引弓之民,

55) 『史記』 「匈奴列傳」 其兵弓矛騎射

56) 『史記』 「匈奴列傳」 控弦者數萬

57) 『史記』 「匈奴列傳」 控弦者八九萬人

58) 『史記』 「匈奴列傳」 控弦者十餘萬

59) 『史記』 「匈奴列傳」 控弦者可一二十萬

60) 『史記』 「匈奴列傳」 故其急則人習騎射,

동쪽의 호와 맥이라고 불리운 민족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주나라 제후국들이 호와 처음으로 직접 접촉한 때는 기원전 457년이다. 그해 진나라의 조양자는 용을 합병하고 대나라를 정복한 후 그 길로 여러 호를 쫓아냈다. 이 사건은 『史記』 권 110 「匈奴列傳」에서 문구를 조금씩 달리하여 여러 차례 등장한다. 「匈奴列傳」에는 조양자가 구주산을 넘어 대나라를 병합하고 호맥(胡貊)에 다다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가 종족 또는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을 테지만 한나라 이전 자료에서는 단지 유목민을 지칭하는 통칭으로 쓰였으며 현대에는 흉노와 동의어가 되었다. 앞서 말한 호와 같이 보이는 맥(貊)은 종족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가리키는 문헌적 근거는 전혀 없으나 N. Di Cosmo(2005 : 178)는 포괄적 용어로서 유목 목축생활을 경제활동으로 삼는, 말타고 활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管子』 61)에 발조선(發朝鮮)에서 문피(文皮)가 나온다는 기록이 있어 한국의 고대사인 고조선의 특산물 중에 문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한규(2004 : 92)는 이 기록에 쓰인 발(發)이 맥(貉)과 환치되어 쓰인다고 결론내렸다. 맥(貉)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주요 구성원으로 중국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맥은 춘추시대 『時經』 「大雅: 韓奕篇」에 처음 등장하는데 서주시대 맥이 연(燕)국이 위치한 중국의 동북 지역에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²⁾

『管子』 「小匡篇」에서는 제 환공이 연국을 구원하기 위해 그 북쪽에 이웃한 적, 호, 맥, 도하 등을 제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山海經』 「海內西經」에서도 맥국이 한수의 동북에 있어 그 땅이 연과 가까웠기 때문에 멸망되었다고 하여 전국시대의 맥국이 연국과 인접했음을 직접 설명하고 있으며, 『史記』 「燕召公世家」에서도 연이 북쪽으로蠻,貉과 가까이 있고 안으로는齊,晉 등과 섞여 있다고 하여 貊이 연국의 북쪽에 인접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61) 『管子』 「揆道篇」: 「輕重甲篇」

62) 전략...溥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貊 奄受北國 因以其伯.. 후략

기원전 3세기경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인 『荀子』 「疆國篇」에서 지금 진은 북쪽으로 호맥(胡貉)과 이웃하고 있다.⁶³⁾ 고 하고 『戰國策』 「秦策」에서도 소진이 진 혜왕에게 대왕의 국가는 서쪽으로 파, 촉, 한중 등의 이익이 있고 북쪽으로는 호, 맥, 대 등에서 나는 말을 이용할 수 있다고⁶⁴⁾ 유세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史記』 「李斯列傳」에서 북쪽으로 호와 맥을 쫓고 남쪽으로는 백월을 평정하였다고 한 바와 같이 진, 한 국가와 중국의 공간적 확장으로 인해 맥의 중심도 동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호맥(胡貉) 혹은 호(胡)와 맥(貉) 이라는 민족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증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중화 문명 밖 진(秦)과 연(燕)나라의 변경에 기병을 보유한 국가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戰國策』 제19권 趙策 二 242. 武靈王平晝閒居에는 조나라와 주변국들의 위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들이 인식한 호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조나라는 常山으로부터 代, 上黨의 동쪽은 燕나라와 東胡와 국경이 닿고 있고, 서쪽으로는 樓煩과 秦나라·韓나라와 국경이 닿아 있으면서도 전혀 騎射의 방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경계하였다.

조나라와 동과 서에 인접한 동호와 누번은 모두 기사(騎射)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방비 역시 기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제 무령왕은 배를 모으고 물가에 사는 사람을 소집하여, 훈련시켜 하수와 박락을 지키고자 하며, 호북으로 갈아 입히고 기사(騎射)를 훈련시켜 胡·樓煩·秦·韓의 변경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무령왕이 인식한 호 그리고 이들로부터 차용하려는 기사는 정확히는 조나라 동쪽 그리고 연나라 북쪽 호의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今吾國東有河·薄洛之水，與齊·中山同之，而無舟楫之用。自常山以至代·上黨，東

63) 『荀子』 「疆國篇」

64) 『戰國策』 「秦策」 蘇秦始將連橫說秦惠王曰 大王之國 西有巴蜀漢中之利 北有胡貉代馬之用 南有巫山黔中之限 東有肴函之固 田肥美 民殷富 戰車萬乘 奮擊百萬

有燕·東胡之境，西有樓煩·秦·韓之邊，而無騎射之備。故寡人且聚舟楫之用，求水居之民，以守河·薄洛之水；變服騎射，以備其參胡·樓煩·秦·韓之邊。

이에 대하여 『史記』에는 동호에 대한 정의를 조나라 동쪽에 영주(瀛州)가 있는데 이는 동북이다. 영주의 지경은 동호로 오환의 땅이다.⁶⁵⁾ 라 하였고, 동호는 오환의 선(先)으로 후에 선비라 한다. 즉 동호는 오환과 선비로 이어지는 민족들이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은 정확히는 중국 북쪽의 초원이 아니라 모두 동북의 산림지대에 근거한 민족들로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의 활동 영역과도 겹친다.

특히 선비의 벽화와 고구려의 벽화에 보이는 기사 수렵장면은 거의 비슷하다. 또한 등자 역시 기원 후 선비가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

召樓緩謀曰：「我先王因世之變，以長南藩之地，屬阻漳、滏之險，立長城，又取藺、郭狼，敗林人於荏，而功未遂。今中山在我腹心，北有燕，東有胡，【正義】趙東有瀛州之東北。營州之境即東胡·烏丸之地。服虔云：「東胡，烏丸之先，後爲鮮卑也。」西有林胡、樓煩、秦、韓之邊，而無疆兵之救，是亡社稷，奈何？夫有高世之名，必有遺俗之累。吾欲胡服。」樓緩曰：「善。」群臣皆不欲。

본 연구자는 이러한 활쏘기 텍스트를 읽을 때 후에 『北史』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의 텍스트의 맥락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건의 서역원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주세계는 항상 군마의 부족에 시달려 왔다. 부여, 고구려 등지에서 명마와 과하마 등 산에 오르내리는 능력이 탁월한 말이 난다는 짧지만 아주 자세한 정보는 주변 국가의 군마를 정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활을 잘 쏜다는 것 맥궁과 같이 좋은 활이 난다는 것, 독화살 등을 기록한 것은 당시 중화가 인식한 여러 초원의 유목국가 그리고 산림지역의 국가들의 군사 활동이 활쏘기를 주로 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냥을 통해 훈련하고 있다는 맥락을 포착할 수 있다.

65) 『史記』 卷四十三 趙世家 第十三，趙東有瀛州之東北。營州之境即東胡·烏丸之地。服虔云，東胡，烏丸之先，後爲鮮卑也。

이러한 중화의 텍스트는 흉노를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말타고 활쏘는 능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며, 초원 지역 뿐만이 아닌 만주지방에 존재했던 부여, 고구려, 맥, 예맥 등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국가에 대한 말과 활 관련 텍스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2. 삼국시대의 문헌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특징

1) 삼국시대 기사의 전통적 특징

(1) 삼국시대 기사의 전통적 공간 범위

한무제에 의해 흉노제국이 약화함과 동시에 고조선 역시 멸망하여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었다. 이후에 ‘맥’은 고구려를 대신 칭하기도 하였다. 『後漢書』 「화제기」 원흥(元興) 원년과 『後漢書』 「광무제기」 건무 25년에 고구려가 요동지역에 침략하였는데 이들이 맥인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後漢書』 「東夷傳」에서는 건무 25년에 구려가 우북평을 침략하였다고 하여 이 맥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활동범위가 요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한규, 2004 : 96).

그리고 이 당시의 맥은 오환, 선비 등 요동의 중부와 서부를 점유하고 있던 유목민들과 인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림의 『陳記室集』에서 烏丸의 遼東屬國 率衆王 등은 북쪽으로 험윤을 막고 동쪽으로는 예맥을 막으면서 대대로 북타(北唾)를 지켰다고 하며, 『後漢書』 「오환선비전」에서 단석괴가 우북평에서 동쪽으로 요동까지, 부여 예맥과 인접한 20여 읍을 동부로 삼았다고 했듯이 이 무렵 맥의 공간적 범주가 고구려의 국가적 영역을 포함했고 요동 중부의 오환, 선비와 동서로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맥의 중심이 한번 더 동쪽으로 옮겨졌다. 『三國志』 「동이전」에서는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 떨어진

진 곳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조선 예맥과 동쪽으로는 옥저와 북쪽으로는 부여와 인접하였다. 예는 남쪽으로 진한과 인접하였다. 지금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었다라고 하여 옥저의 남쪽 한의 북쪽에 ‘예맥’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로 보아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맥의 동쪽 끝이 동해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동지역의 주요 구성민족이었던 맥(貉)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요동의 서쪽에서부터 중화의 국가들인 진(秦), 조(趙), 연(燕), 대(代) 등의 나라들의 북쪽에 인접했던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장성(長城) 너머의 북쪽과 동쪽에 살던 호(胡)와 동호(東胡)와 같은 알타이어족 계열 종족들과 문화적으로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맥은 진한 시대에 이르러서는 요동의 중남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마침내 요동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중화에 인식된 맥의 공간적 범주는 요동의 서쪽 끝에서 요동의 동쪽 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맥의 공간적 활동범위를 검토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조나라 무령왕의 호북기사 개혁에 보이는 조나라 동쪽에 존재했던 호(胡)는 후에 역사서에 조선, 고구려의 주요 구성 성분이었던 맥과 기사라는 신체활동을 공유한 집단 혹은 그 자체로도 볼 수 있다.

(2) 삼국시대 기병의 전통적 특징

춘추시대에 쓰여진 『管子』 권8 「小匡」에는 제환공(齊桓公)이 주나라의 천자에게 제후들이 복종하게 하면서 중화를 위협하는 이민족들을 격파하여 적(狄)의 왕을 사로잡고 호맥(胡貉)을 패배시켰고, 도하(屠何)를 격파하였다. 이로써 기병도적(騎寇)을 비로소 굴복시켰다⁶⁶⁾고 하여 호(胡)와 맥(貉)이 기병을 앞세워 도적질 하는 기구(騎寇)를 복종하게 한 것으로 보아 중화의 변방을 자주 침입하였고 이들은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민족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와 적대관계였던 고구려의 사람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익숙하

66) 『管子』 「小匡」中救晉公，禽狄王，敗胡貉，破屠何，而騎寇始服，北伐山戎，制泠支，斬孤竹，而九夷始聽，海濱諸侯莫不來服

여, 沃沮와 東濊를 모두 복속시켰으며, 궁과 위궁으로 표현된 고구려의 태조대왕과 동천왕에 대해서는 동천왕이 태조대왕을 닮아 용감하고 힘이 세었으며, 말을 잘 타고 사냥에서 활을 잘 쏘았다고 하였다. 읍루의 사람들은 매우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 하였으며, 활을 잘 쏘아 사람을 쏘면 어김없이 명중시킨다고 하였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활과 독화살을 두려워하여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중화의 문헌에 기록된 한반도 북부지역은 척박한 환경으로 농사가 어렵기에 반농반목을 해야 했다. 흉노와 비교해서 중화의 예가 닿는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흉포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의 흉포함은 사람들의 태생적 강함에 기인하며, 이들이 타고 다닌 말 그리고 강력한 활과 화살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이 두가지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흉노라는 제국이 형성되기 이전⁶⁷⁾ 조나라 무령왕의 호북기사 군제개혁 일화에서처럼 호라고 대변되는 민족은 기사를 잘하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듯이 맥은 진나라가 전투용 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호와 맥을 연칭하여 쓸 정도로 두 집단을 가깝게 보았다. 초원의 유목민들의 말과는 다른 종의 말이었겠지만, 맥과 조선이 자리했던 자연환경에서도 말 양육이 지속되고 있었고, 강력한 활 역시 생산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나라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중화의 문명이 기병을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인 기원전 306년을 기준으로 이미 시기를 알 수 없는 그 이전부터 호와 맥은 기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순자, 전국책, 사기 등에 보이는 호맥의 관계와 결부시켜보았을 때 중화가 받아들인 기사(騎射)는 중화의 사람들 고유의 신체문화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기사가 호(胡)와 맥(貉)이 공유했던 신체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67) 호는 기원전 209년을 전후로 두만과 묵돌선우에 의하여 흉노제국이 성립되기 이전 유목민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춘추시대 후기에서 전국시대 초기 사이에 등장하는 호(胡)라는 이름의 족속이 중화권 사람들이 최초로 조우한 유목민이라고 보는 학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戰國策』에 실린 호복기사 일화, 『三國志』에 실린 부여의 시조인 동명(東明),⁶⁸⁾ 고구려의 위궁(位宮, 동천왕)⁶⁹⁾ 『魏書』 「列傳 高句麗」에 실린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朱蒙)⁷⁰⁾으로 이어지는, 기사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화에서 알 수 있다. 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 시기 역대 만주족 관련 기록을 분류한 『滿洲源流考』에는 卷16 「國俗」에서 국속을 5분야 10조목(기사·관복, 정교·문자, 제례·전례, 관제·언어, 물산 잡철) 중 기사(騎射)를 제일 앞에 두고, 부여인과 주몽의 활쏘기를 자신들 기사의 원류로 여기고 있다.⁷¹⁾

(3) 삼국시대 선기사(善騎射)의 전통적 특징

부여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과 주몽은 공통적으로 말을 잘 기르는 목마(牧馬), 양마(養馬)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으며, 주몽의 경우는 말을 시험하여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분별하고 이들에게 먹이를 조절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궁(동천왕)은 안장 위에서 편할 정도로 말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냥에서 활을 잘 쏘았다. 특히 주몽은 사냥할 때 한 마리를 잡는데 화살 하나로 한정하는 핸디캡을 가졌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만큼 기사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화의 기록에서는 기마 사냥하는 맥락에서는 선사(善射), 선렵사(善獵射)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화의 기록에 선(善)자로 표현된 경우는 거의 최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고구려와 습속이 같다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백제는 『北書』에

68) 東明, 常令牧馬. 東明善射

69) 位宮有力勇, 便鞍馬, 善獵射.

70) 夫餘人以朱蒙非人所生, 將有異志, 請除之, 王不聽, 命之養馬. 朱蒙每私試, 知有善惡, 駿者減食令瘦, 駑者善養令肥. 夫餘王以肥者自乘, 以瘦者給朱蒙. 後狩于田, 以朱蒙善射, 限之一矢. 朱蒙雖矢少, 殪獸甚多. 夫餘之臣又謀殺之. 朱蒙母陰知, 告朱蒙曰: 「國將害汝, 以汝才略, 宜遠適四方。」

71) 『滿洲源流考』卷16「國俗」後漢書 夫餘國善射 其人彊勇而謹厚 以弓矢刀矛爲兵. 三國志夫餘其人強勇謹厚以刀矛弓矢爲兵家家自有鎧仗. 晉書夫餘國其人強勇. 南北朝: 北史 夫餘王子朱蒙善射王狩于田以朱蒙善射給一矢殪獸甚多

서는 중기사(重騎射)⁷²⁾라 하여 기사를 중시하고, 『隋書』에서는 상기사(尙騎射)⁷³⁾라고 하여 기사를 숭상한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극도로 기사하는 행위를 높여서 표현한 경우는 다른 중화의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史記』에 선기사(善騎射)와 선사(善射)라고 표현된 인물들은 곽거병(霍去病), 이광(李廣), 한언(韓嫣)⁷⁴⁾, 이릉(李陵)⁷⁵⁾ 정도로 흉노와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최고의 군지휘관이거나 고위층의 자제들이다. 이후 『漢書』에 5명이 추가되고 『三國志』에 와서야 위촉을 가리지 않고 기사를 잘했다고 기록된 인물들이 15명 정도로 많아진다. 예를 들면 동탁, 여포, 공손찬과 같은 후한 시기의 유명한 장군들이며, 그나마도 장성 서쪽과 동쪽 근처의 북방민족과 가까운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완전한 기사의 국가로 인식된 흉노, 오환, 선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기사(善騎射) 하는 민족으로 소략하여 기록되어 있다. 특히 『三國志』 「魏志」의 ‘오환선비동이전’이라는 배치와 구성의 특성상 오환은 선기사로 표현하였지만, 이후에 배치된 선비에 대해서는 오환과 풍습이 같다는 정도로만 축약된 것 같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 비슷한 부분들은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오환, 선비, 동이에 대해서는 선기사를 공통적으로 하는 곳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이에 관해서 강조하여 활 쏘는 능력에 대해 묘사하였고, 사냥을 잘한다 묘사한 것은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중화에 인공지국으로 알려진 흉노의 경우도 목돌선우만이 명적 일화를 기록하며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중화 바깥 민족의 시조들 또는 왕을 기록하며 기사를 잘한다고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들이며, 중화가 한반도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기사를 특별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에 고려시대의 김부식에 의해 편찬된 『三國史記』부터 고구려의 평

72) 俗尙騎射，讀書史，能吏事，亦知醫藥·著龜·占相之術

73) 兵有弓箭刀稍。俗重騎射

74) 한신 집안

75) 이광의 손자

원왕⁷⁶)과 백제의 계왕(契王)⁷⁷)은 정확하게 선기사(善騎射)로서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는 마침내 주체적인 역사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고구려 신체문화의 계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선기사는 3장에서 논의하였다.

2) 삼국시대 기마술의 특징

(1) 기사 복식의 전통적 특징

고대의 복식 연구자들은 호복을 말을 타기에 편한 질긴 바지와 버선 모양의 부츠형 신발, 그리고 활쏘기에 편하게 옷고름이 왼쪽에 있는 저고리(左衽)를 말한다고 종합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인의 전통적인 복장은 바지를 입지 않고 고름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점(右衽)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적으로 고분벽화에 표현된 기사하는 인물의 특징은 전부 바지⁷⁸)를 입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기마술을 위해 고안된 전통이 감지된다(전지은, 심하진, 2001).

『古本竹書紀年輯證』 魏紀에서는 “將軍 大夫 適子 戍吏에게 命하여 모두 貉服을 입게 하였다”고 하여 貉人의 복식이 中國과 달랐음을 전해준다(김한규 : 100~102). 반면 중화의 사가들은 맥과 호에 대해서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鹽鐵論』 「復古篇」에서는 胡와 貉을 끊어 單于를 잡는 데 있었다고 하였고, 『漢書』 73 「韋玄成傳」에서 孝武皇帝가 東으로 朝鮮을 伐하고 玄菟郡과 樂浪郡을 설치하여 匈奴의 左臂를 끊으려 하였다고 하였다.

『鹽鐵論』에서 말하는 호맥(胡貉)은 곧 흉노(匈奴)와 조선(朝鮮)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호와 맥은 흉노와 조선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호복, 맥복에 이어 주목할 점은 위만(衛滿)이 조선에 망명하

76)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第7, 平原王 원년 559년

77)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第2, 契王 344년

78) 고구려의 바지는 고(袴)라는 표현으로 『北史』에는 ‘大口袴’, 『隋書』에는 ‘大口袴’, 『南齊書』에서는 ‘窮袴’, 『新唐書』에는 ‘袴大口’ 등이 있다(전지은, 심하진, 2001)..

며 행한 추결만이복(魍結蠻夷服)⁷⁹⁾ 일화이다. 한무제 시기에 중화는 흉노라는 거대 유목제국의 영향으로 남과 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사기 흉노전의 경우처럼 조선에 대한 기록에서도 조선왕 만(滿)을 옛날 연(燕)⁸⁰⁾나라 사람으로 소급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사마천은 노관이 흉노로 투항할 때 만(滿)이라는 인물도 같이 망명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사기에는 만(滿)이 무리 千餘人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의 복장(추결만이복, 魍結蠻夷服)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遼東의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秦의 옛空地인 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亡命者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王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사마천이 남긴 조선에 관한 기록은 역시 흉노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다. 한고조 유방과 특별한 관계였던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한을 배반하고 匈奴로 망명했는데 이 노관은 이미 흉노와 서로 화친을 주장할 만큼 흉노와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실제 유방 사후에 바로 흉노로 투항한다.

만(滿)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노관과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방이 노관을 토벌할 때 거의 비슷한 처지에 처해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확실히 다른 점은 노관이 유방의 신임을 받았고 흉노에 투항해서도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투항한 지 1년 만에 사망한 것에 비해 만(滿)은 추결(魍結)을 하고 만이(蠻夷)의 복장⁸¹⁾을 하고 요동을 넘어 직접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면 결코 작은 세력이 한나라를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투와 만이의 복장을 하였다는 것으로 무령왕의 호복기사와 같은 맥락에서 중화와 다른 복식을 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흉노로 전향한 노관과는 달리 만(滿)은 이 만이(蠻夷)화를 통해 같은 연나라 출

79)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魍結夷服, 復來王之. ‘韓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80) 『史記』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魍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81) 한서에는 호복(胡服)으로 나와 있다.

신이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한(漢)나라와 만이(蠻夷)의 중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이상에서 호복, 맥복, 만이복 등은 말을 타기 위한 복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말을 타기 위해 고안된 바지, 활을 쏘기 편한 상의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중국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들과 반농반목을 하는 산림지역의 민족들이 모두 공유했던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마종(馬種)과 기마술의 관계

『三國志』에 기록된 고구려는 중화를 기준으로 한 고구려의 위치와 주변 세력에 대한 정보들로 시작된다.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농산물의 부족에 대한 언급 이후에 성질이 흉악하며, 기력(氣力)이 있고, 노략질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순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풍습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군사력에 관한 설명이 시작된다. 산에 오르기 편한 말이 있고, 사람들이 힘이 세고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沃沮)와 동예(東濊)를 모두 복속(服屬)시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구려의 궁(宮)이 마한(馬韓)과 예맥(濊貊)의 수천 기병을 거느리고 현도(玄菟)를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⁸²⁾ 이때에는 부여가 후한 측과 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 동원된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유주(幽州)·현도(玄菟郡)와 함께 연합한 후에 고구려군에게서 승리를 거두어 5백여 명을 참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도에서 벌어진 고구려 측 수천의 마한 예맥 기병에 대항하여 부여 유주, 현도군 2만은 보병인지 기병인지 알 수 없으나 기병에 대항한 부여 측 기병과 한나라 측 보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구려 기병의 말에 대하여 삼국지에는 모두 체구가 작아서 산에 오르기에 편리하다⁸³⁾ 하여 산림지역에서 생산되는 말의 특성을 가장

82)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秋, 宮遂率馬韓·濊貊數千騎圍玄菟. 夫餘王遣子尉仇台 將二萬餘人, 與州郡并力討破之, 斬首五百餘級.

83)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三國志』와 『後漢書』에 따르면 예(濊)에서도 과하마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⁴⁾ 배송지의 주⁸⁵⁾를 보면 과하마⁸⁶⁾는 키가 3척으로 타고 가히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어서 그런 까닭에 과하(마)⁸⁷⁾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고, 구당서의 백제전에는 무덕 4년(624)에 그 왕 부여장(무왕, 재위: 600~641)이 사신을 보내 과하마를 헌상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⁸⁸⁾ 송서에는 송태조 조광윤이 북방을 토벌하고자 장수왕에게 말을 보내도록 한 기사가 있다.⁸⁹⁾ 고구려의 편등산마인지 과하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말이 북방을 토벌하는 데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北史』 「梁書」 고구려전에도 키가 석 자 되는 말이 나는데, 옛날 주몽이 땀던 말이라고 하니, 그 말의 종자가 곧 과하마라고 하였고, 그 나라의 말은 모두 작아서 산에 오르기에 편리하다⁹⁰⁾는 기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1척을 약 30센티로 보았을 때 90cm 정도가 되는 과하마 역시 전투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의 크기가 아니었을 것이며, 흉노의 말처럼 얼마나 지구력이 좋고, 훈련이 잘되어 말 위에서 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이 좋았을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貊

84)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後漢書』, 권85권 「東夷列傳」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臣松之按, 果下馬高三尺, 乘之可于果樹下行, 故謂之果下. 見博物志·魏都賦.

85) 果下馬 :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 濊에 '果下馬'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裴松之가 주석을 붙여, "果下馬高三尺 乘之可於果樹下行 故謂之果下"라고 하였다. 또 「魏都賦」에도 "馳道周屈於果下"라는 기록이 있는데, 劉逵의 「魏都賦注」에서 이르기를 "漢廐 舊有樂浪獻果下馬 高三尺 以駕輦車明 黃洪憲 朝鮮國紀云 產果下馬 長尾雞 貂豹 海豹皮 姜西溟曰 定張車 果下馬 皆宮內所用"이라고 하였다. 단, 果下馬와 주몽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위서』가 처음이다.

86) <https://youtu.be/MPmfDPeY0nQ> 경마 외에 말의 키는 작을수록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투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 melin은 150cm 정도로 한라마와 비슷하다. 한국에서도 마상무예 시연은 모두 한라마가 출전한다.

87) 劉逵가 魏都賦의 注에서 이르기를, '漢의 마구간에는 옛날에 樂浪에서 바친 果下馬가 있었는데, 키가 3尺이고 輦車を 끌었다.'고 하였다. 明의 黃洪憲은 朝鮮國紀에서 이르기를, '果下馬, 長尾雞, 貂豹, 海豹皮가 산출된다.'고 하였다. 姜西溟이 이르기를, '定張車(작은 수레 종류), 果下馬는 모두 궁정 내에서 쓰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88) 『舊唐書』 卷199上, 列傳 149上, 百濟國, 武德四年, 其王扶餘璋遣使來獻果下馬.

89) 『宋書』, 권97, 列傳57, 夷蠻, 出三尺馬, 云本朱蒙所乘, 馬種卽果下也.

90)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尙氣力, 便弓矢刀矛, 有鎧甲, 習戰鬥.

까 인데 이러한 정보는 기록상 삼국지의 편등산에서 밖에 찾을 수 없으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기사 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당시 말의 훈련 정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덕흥리 벽화에는 말이 표적을 같이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수와 말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는 투우경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분벽화에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장면에 보이는 이러한 묘사는 현대의 투우경기에서도 볼 수 있다. 투우를 위해 훈련된 말은 기수와 함께 돌진하는 소를 주시하면서 옆으로 가거나 뒷걸음으로 달린다. 돌진하는 소의 속도에 맞추어 기수와 호흡을 같이 하는 장면을 보면 실제 사냥에서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능력 외에도 많은 기마술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투우사(Picador)와 같이 이렇게 말의 기수가 활쏘는 방향을 향해 같이 시선을 같이하고 있는 장면은 덕흥리 벽화 외에 백제의 금동대향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승기사라고 표현된 백제의 기사능력과 고구려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작은말 과하마에 대한 기록은 실제 전투에 사용하였는지는 논란이 많아 보인다. 스키타이나 파르티아의 유물에 보이는 고대의 말들은 사람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고대인들의 키를 최대 180cm 정도로 보는데 창을 든 스키타이 전사가 말을 탄 상태에서 다리가 말발굽까지 거의 내려 온 것으로 보아 90cm 정도로 예상 할 수 있어 이를 삼척마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당시의 사람들이 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마구로 본 기마술의 특징

남도영(1997)과 이난영·김두철(1999)은 마구(馬具)를 제어용구, 안정용구, 장식용구⁹¹⁾로 분류하고 있다. 제어용구로서 재갈은 대부분 금속제로

91) 제어용구: 재갈, 재갈멈치, 고삐 이음쇠, 굴레, 고삐 등
안정용구: 안장, 안장갈래, 다래, 고들개, 등자 등
장식용구: 말띠꾸미개, 말띠드리개, 방울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형태별 특징을 알 수 있으나 굴레와 고삐는 대부분 유기질로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고분벽화나 토기 등에서 ‘고삐이음쇠’나 ‘재갈멈치’에 연결된 모습을 통해 사용 기능을 알 수 있다(권미세, 1995).

이런 마구는 고구려 건국초기부터 확인이 가능한데, 기원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요녕성 桓仁 望江樓 고분군에서 일찍이 재갈이 출토된 바 있다. 출토된 재갈 모두 철봉 2마디로 이루어진 2연식이며 이들의 형태는 모용선비와 같은 유목민족들의 재갈 형태와 유사하다(정동민, 201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마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말과 소통을 잘하여 고도의 기마술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개의 봉이 연결된 재갈, 고삐, 안장이 필수이다. 그런데 산림지역의 유물과 도상들에는 특이하게도 등자가 보인다. 가장 확실한 형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7개의 도상⁹²⁾이 확인 가능한데 등자의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벽화는 무용총 벽화에는 4명 중 2명의 도상에만 등자를 확인할 수 있고, 쌍영총 기마인물 벽화조각에도 발 부분에 테두리가 있는데 이것이 등자임을 알 수 있다. 장천 1호분에도 3개 도상에서 등자를 확인할 수 있다.⁹³⁾ 약수리 고분, 덕흥리 고분의 수렵도와 기마사회도 같이 대규모의 수렵이 표현된 벽화에도 등자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도상을 분석함에 이러한 안정구의 사용모습에 주목하였다. 강인욱(2006)은 고구려의 등자에 주목한 러시아학계⁹⁴⁾의 논의를 소개하며, 중국의 경우 역시 단편적으로 보이는 등자자료를 제외한다면 본격적으로 금속제 등자가 쓰이는 시점은 삼연문화-고구려보다 훨씬 늦으며, 남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의 초원지대의 등자의 기원지로 고구려를 비롯한 극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로(2009 : 85) 역시 중국 중심의 마구 발달의 관점을 달리하여 초기

92) ‘장천 1호분 수렵도’, ‘무용총의 수렵도’와 ‘쌍영총의 기마인물도’에서 확인 가능함.

93) 徐榮教(2004a)는 장천 1호분의 벽화에서 3개 도상에서 등자가 보임을 언급하였다.

94) A. K. Амброс(1973), A. Д. Грач(1982), С.И. Вай иштейн(1991)

등자의 발생 시기와 배경 및 완전한 등자로의 변천에 대해 중국 비기마 민족인 한에서 기원하였는데 유라시아초원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가 개신 후 다시 중국대륙으로 전파되었다는 연구결과들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흉노와 같은 기마민족에게서 기원하여 비기마민족과 유라시아 초원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고구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마전술을 장악한 집단으로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집안 고구려무덤에서 안정용 마구에 속한 등자는 많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선비의 영향을 받고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모용선비인 삼연문화에 전투용 마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魏存成, 1991, 王巍, 1997).

Грач(1982)와 Исмаилов(1990) 등의 국외 학자들도 고구려의 금속제 등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학자에 따라 세부적인 편년은 다르지만 대체로 고분벽화에 중갑기병이 등장하는 서기 4세기경은 모용선비의 삼연문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금속제 등자의 사용 시기에 해당하기에 고구려에서 이미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알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시베리아지역은 서기 5세기 말엽에 등자가 등장하며 유럽은 서기 7세기 이후에나 등장한다고 논의한다.

장인욱(2006) 역시 고구려 등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금속제 등자는 기원후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엽이 되면서 중장비한 기병, 장창, 극 등의 무기와 함께 요서지방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요령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와 유목민족국가로 발흥하던 모용선비의 군사적 갈등이 촉발되면서 등자의 사용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유라시아로의 확산은 선비와 접촉을 했던 투르크계의 유연 이후 돌궐가한(可汗)의 발흥에 따라 동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헝가리지역의 아바르족의 기원이 되었고, 중세 유럽에서 중갑병의 기원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등자의 정확한 출현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 학계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류상의 관점이 달라 고분벽화에 표현된 등자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말을 오르기 위해 사용한 장비에서부터 실제 중갑의 장비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용까지 사용 용도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목민에 의한 발명인지 정주민에 의한 발명인지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등자가 보이는 선비와 고구려의 활동범위는 산림이라는 점, 말이 작다는 점, 어느 곳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활쏘기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산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기승자가 말의 앞뒤로 밀려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줄 수 있는 안장과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등자 역시 필요하다. 스키타이, 흉노, 고구려의 말은 공통적으로 기승자가 발이 닿을 정도로 작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에 등자 없이도 승하마가 용이하다. 또한 산과 숲을 달리며 또는 장애물을 넘으며 활을 정확히 쏘려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자의 사용이 필요하다.

3) 삼국시대 활쏘기의 특징

(1) 유목민에게서 볼 수 없는 활의 특징

『三國志』⁹⁵⁾에 구려(句麗)는 일명(一名) 맥(貊)이라 부른다고 하고, 이후에 바로 맥궁(貊弓)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서안평현 북쪽 소수(小水)가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고구려의 별종이 소수 유역에 나라를 세워 소수맥(小水貊)이라고 하고 여기서 좋은 활(好弓) 소위 맥궁(貊弓)이 생산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맥궁(貊弓)은 요동의 동부에서 생산되던 호궁(好弓)으로 중화에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수(陳壽)가 보통 활의 명수들로 알려진 호, 흉노, 오환과 같은 초원에서 좋은 활이 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史記』 「匈奴列傳」에는 관궁(毳弓)이라는 흉노의 활이 명시되기는 하지만, 이 활이 좋다거나 강하다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군사와 관

95) 『三國志』, 권30, 魏書30,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련된 물품이 좋다는 곳에 쓰인 호(好)자의 용례를 보면 강거국(康居國)에서 좋은 말이 난다는 것에 사용된 것이 유일하다.⁹⁶⁾

『晉書』 「四夷」에 강거국은 장건이 얻은 한혈마가 나는 대완에서 서북쪽으로 2천 리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완과 비슷한 인종과 풍속을 가진 곳으로 묘사되며, 한나라에 선마(善馬)를 바쳤다고도 한다. 한무제의 최대 관심사였고, 장건이 서역 여행하면서 들여오게 된 대완의 한혈마⁹⁷⁾를 선마(善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강거국에서 나오는 말 역시 대완의 한혈마에 버금가는 말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비교해보아야 할 사료는 『三國志』 「魏志 烏桓鮮卑列傳」의 선비의 각궁에 관한 기록이다. 오직 선비(鮮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궁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선비 역시 동호의 일부인데, 따로 선비산(鮮卑山)에 의탁하여 살았기 때문에 선비라 불렀다고 하며, 선비의 언어와 습속은 오환⁹⁸⁾과 같다고 묘사되어 있다. 오환과 선비 모두 동호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둘다 오환산과 선비산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이들 모두 산림지역을 거점으로 했던 민족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된 단우의 뿔로 만든 활이다. 중국의 것과 다른 선비의 짐승들로는 야마(野馬), 완양(羆羊), 단우(端牛)가 있었는데 이 단우의 뿔이 활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진수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각단(角端)⁹⁹⁾¹⁰⁰⁾으로 불렀다¹⁰¹⁾고 하여 선비는 동호(東

96) 『晉書』, 권97, 열전67, 四夷, 康居國在大宛西北可二千里, 與粟弋·伊列鄰接. 其王居蘇薤城. 風俗及人貌·衣服 略同大宛. 地和暖, 饒桐柳蒲陶, 多牛羊, 出好馬. 泰始中, 其王那鼻遣使上封事, 并獻善馬.

97) 大宛國 大宛西去洛陽萬三千三百五十里, 南至大月氏, 北接康居, 大小七十餘城. 土宜稻麥, 有蒲陶酒, 多善馬, 馬汗血.

98) 『後漢書』 「烏桓鮮卑列傳」 俗善騎射, 弋獵禽獸爲事. 隨水草放牧, 居無常處. 오환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재주가 능하였으며, 새와 짐승 사냥을 주업으로 삼았다. 물과 풀을 따라 다니며 방목하였고,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다.

99) 후한서 李賢의 注에서 “郭璞의 爾雅注에서는 原羊은 吳羊과 비슷하며 큰 뿔이 있었고 西方에서 유래되었다.”라 하고, 『漢書音義』에서는 “角端은 소와 비슷하며, 뿔로 활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100) 角端: 하루에 萬里를 가고 먼 곳의 말에 통한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101) 其地東接遼水, 西當西城. 常以季春大會, 作樂水上, 嫁女娶婦, 髡頭飲宴. 其獸異 於中國者, 野馬·羆羊·端牛. 端牛角爲弓, 世謂之角端者也. 又有貂·豹·驪子, 皮毛柔蠕, 故天下以爲名裘.

胡)의 후예임을 명확히 하면서 흉노와 오환과 관련된 기록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단우의 뿔로 만든 활(端牛角爲弓)’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선비가 후에 고구려와 대립하는 모용선비, 고려시대 대립했던 거란의 조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 있어서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선비의 단우각으로 만든 활(端牛角爲弓), 고구려의 맥궁(貊弓)과 호궁(好弓)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삼국시대 활과 화살의 특징

『三國志』와 『後漢書』의 예(濊) 관련 기록에서는 길이 3장이나 되는 창을 만들어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손에 쥐고 걸거나 뛰면서 싸우는 데에 능하였다고 하며, 낙랑의 단궁¹⁰²⁾¹⁰³⁾이 그 땅에서 산출되었고, 과하마(果下馬)가 나며, 그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생산되었다

백제는 『宋書』 「夷蠻列傳」에서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이후 『南齊書』, 『梁書』, 『魏書』에 고구려와 풍습이 유사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周書』에는 백제는 무기로는 활(弓), 화살(箭), 칼(刀)과 삭(稍)이 있다. 풍속에 말 타고 활 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울러 옛날 책과 역사책을 좋아하며, 뛰어난 자는 자못 글을 읽거나 지을 줄 알고, 또 음양오행을 안다. ¹⁰⁴⁾

『진서』 「동이열전」에는 마한(馬韓)이 활(弓), 방패(楯), 창(矛), 노(櫓)를 잘 사용한다(善用)고 나와 있고 신라에 관한 기록은 『梁書』 「동이열전」 처음 등장한다. 그들의 언어와 물건 이름은 중국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하니 국가를 나라(邦)라 하고, 궁(弓)을 활(弧)라 한다고 하

102) 作矛長三丈，或數人共持之，能步戰。樂浪檀弓出其地。

103) 궁: 檀木으로 만든 동예의 檀弓은 고구려의 貊弓과 함께 중국에 잘 알려진 활의 일종으로 短弓일 가능성이 높다. 短弓은 보통 활체의 길이가 80cm 내외이며, 활체가 크게 휘 彎弓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삼국의 활은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고분벽화 등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두 彎弓에 해당한다. 『晉書』, 「四夷列傳」, 「肅慎氏傳」에 肅慎에서도 3尺 5寸의 檀弓을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일본에는 檀木으로 만든 활로 인한 지명도 있었다. 檀木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 사이에서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檀弓이라는 명칭이 활에 사용된 재료 때문인지 혹은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104) 兵有弓箭刀稍。俗重騎射，兼愛墳史，其秀異者，頗解屬文，又解陰陽五行。

여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언급하며 활의 존재를 언급한다. 소는 수레를 끌게 하고 말은 탄다고 하여 말의 존재 역시 언급한다.¹⁰⁵⁾

당시 고구려의 공동체로서 언급된 읍루, 숙신, 물길, 말갈숙신은 삼국지에 읍루로 나오지만 호시와 청석족은 주무왕시기(기원전 1000년)에 바친 숙신의 일화에 대해서는 후대의 사서들에서도 일관된 서술을 하고 있다. 숙신은 중국의 고전인 『국어(國語)』·『좌씨전(左氏傳)』·『일주서(逸周書)』·『사기(史記)』·『회남자(淮南子)』·『산해경(山海經)』 등에 그 이름이 나타난다. 식신(息慎)·직신(稷慎)이라고도 하며, 호시(楛矢)와 석노(石柞)를 사용하는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朝鮮)이라는 왕조명을 갖기 이전에 고조선인들을 부르던 호칭으로도 보기도 한다.

초기 기록인 『국어』에 나온 바에 따르면, 숙신은 당나라 때의 『진서(晉書)』에 언급된 것처럼 흑룡강(黑龍江) 중·하류의 주민이 아니었다. 즉,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원(中原) 북쪽 경계를 비롯해 산둥반도 및 남만주 주민을 총칭한다는 것이다.

호목(楛木)은 곧으며 습기나 건조함에 따라 휘어지지 않아 화살대로 적합하다. 『國語』 卷5, 魯語에는 “仲尼在陳 有隼集於陳侯之庭而死 楛矢貫之 石柞其長尺有咫 陳惠公使人 以隼如仲尼之館問之 仲尼曰 隼之來也遠矣 此肅慎之矢也”라는 기록이 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17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또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 挹婁에도 “矢用楛 長尺八寸”이라고 진한다. 楛矢는 중국에서 石柞와 함께 숙신의 상징인데, 이는 단순한 조공품이 아니라 천자의 성덕에 九夷가 복종하는 의미, 곧 천자의 통치가 四海에 미치는 구체적 상징으로 이해되었다(여호규, 2017).

그런데 숙신의 후손으로 꼽고 있는 종족으로서는 한(漢)대의 읍루(挹婁), 후위(後魏)대의 물길(勿吉)과 수·당대의 말갈(靺鞨), 말해 멸망 후의 여진(女眞)이다. 따라서 숙신은 일반적으로 여진족의 선조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그들의 종족 계통과 기원, 분포지역, 읍루 및 예맥(濊貊)·고조선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아시아족 기원설과

105)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辰韓亦曰, 秦韓, 相去 萬里, 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馬韓, 馬韓亦割其東界, 居之以秦人, 故名之曰, 秦韓.

순통구스, 몽고족, 동이(東夷)의 은인(殷人) 기원설 등이 제기되었다.

(3) 삼국시대 활쏘기의 특징

위와 같은 인종적 논쟁을 떠나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 아주 진보된 형태의 활쏘기가 행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범엽은 『後漢書』의 東夷列傳에 읍루의 활쏘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읍루는 숙신씨(肅愼氏)의 나라임을 명시하며, 이곳의 활의 길이는 4척인데, 위력이 쇠뇌(弩)와 같다고 하였다. 화살대로는 싸리나무를 쓰는데, 길이는 한 자 여덟 치나 되며, 청석(靑石)으로 화살촉을 만들고, 활을 잘 쏘아서 사람을 쏘면, 모두 눈(目)을 맞추며, 화살에 독을 발라서 사람이 맞으면 모두 죽는다¹⁰⁶⁾

범엽은 부여의 구성 성분인 읍루가 용감하고 힘이 세며¹⁰⁷⁾, 험한 산중에 살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활을 잘 쏘아서 사람의 눈을 쏘아 꿰뚫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활을 잘 쏜다고 알려진 유목민들에 대한 평가에도 이렇게 극도로 활을 잘 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강력한 활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힘이 쇠뇌(弩)와 같다고 하여 노를 잘 사용하는 한인에 비하여 이들의 활과 화살이 월등히 두려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漢書』 권49 「晁錯列傳」의 조조의 상소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若夫平原易地 輕車突騎 則匈奴之衆 易撓亂也 勁弩長戟 射疏及遠 則匈奴之弓 弗能格也 堅甲利刀 長短相雜 遊弩往來 什伍俱前 則匈奴之兵 弗能當也 材官

106) 『後漢書』, 권85, 열전75, 東夷列傳. 其弓長四尺, 力如弩, 矢用楛, 長尺八寸, 靑石爲鏃, 古之肅愼氏之國也. 善射, 射人皆入因. 矢施毒, 人中皆死.

107) 『後漢書』, 권85, 열전75, 東夷列傳.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鄰國患之. 東夷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法俗, 最無綱紀也. 후한서에는 배를 잘 타고 노략질을 좋아하므로 이웃 나라들이 꺼리고 걱정거리로 여겼으나,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東夷나 夫餘는 음식을 먹을 때 거의 모두 俎豆를 사용하지만, 오직 挹婁(挹婁)만은 法度가 없으니 東夷 중에서 가장 기강이 없다고 하였다.

騶發 矢道同的注 則匈奴之革筍木薦 弗能支也 下馬地鬪 劍戟相接 去就相薄 則匈奴之足 弗能給也 此 中國之長技也.

조조는 흉노기병의 강함을 분석하며 흉노는 말, 사람이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과해책을 상소하였다. 흉노기병의 장점은 산을 오르내리고 산골짜기 계곡을 넘나드는 말의 능력, 험한 길과 기울어져있는 곳에서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강인한 사람이 흉노기병의 장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흉노의 기병을 중국인이 이기려면 평원에서 전차와 돌격 기병을 사용하고, 강력한 쇠뇌와 긴 극을 멀리 발사하여 먼 곳에 미치게 하면 흉노의 활이 다다르지 못하고,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칼날로 긴 병기와 짧은 병기를 합하고 쇠뇌를 유격대로서 왕래하면서 십오(什伍)가 함께 전진하면 흉노의 병사가 당해내지 못하고 수레를 탄(騶) 재관(材官)¹⁰⁸이 발사한 화살의 길이 표적을 같게 하면 흉노의 갑옷과 나무 방패가 지탱하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땅에서 싸울 적에 칼과 창으로 서로 만나 몰아 나가서 서로 부딪히면 흉노의 말이 상대하지 못하니 이것은 중국의 장기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면 중국의 장기 중 쇠뇌에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의 강력한 쇠뇌는 흉노 활 사정거리 밖에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재관이 쇠뇌를 쏘는 것으로 흉노가 말에서 내려 땅에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검과 극을 사용한 지상 전투에서 한이 훨씬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읍루 활의 힘이 쇠뇌와 같다고 한 것은 흉노의 활보다 강하며 한의 쇠뇌와 비견할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한서 이후에도 강력한 활과 청석촉 그리고 사냥을 잘한다는 텍스트는 일관되게 나온다. 다만 활을 표현하는 용어가 『晉書』에 숙신씨의 활은 단궁으로 수서에서부터는 각궁으로 표현되어 있다. 진서에 따르면 숙신의 산물에는 돌로 만든 화살촉¹⁰⁹, 단궁(檀弓)¹¹⁰, 호시¹¹¹가 있다.

108) 용감하고 힘이 센 병사로 구성된 부대.

그 나라 동북쪽에 있는 산에서는 돌이 나는데, 그 날카로움이 쇠를 뚫을 정도였다. 『魏書』에는 물길국(勿吉國)에 대해서 그들은 굳세고 흉폭하여 東夷 중에서 가장 강하며, 언어도 그들 만이 다르다. 활로 사냥을 잘 하니 활의 길이는 3자요, 화살 길이는 1자 2치인데, 돌로 화살촉을 만든 다라고 한다.

『隋書』에는 말갈 사람은 모두 활사냥으로 생업을 삼는다. 각궁의 길이는 3척이고, 화살의 길이는 1척 2촌이다. 항상 7~8월마다 독약을 만들어 화살에 바르고, 화살을 쏘아 짐승을 사냥하는데, 맞으면 즉시한다.¹¹²⁾

『北史』에는 물길 사람은 모두 활을 잘 쏘아(善射), 활사냥을 생업(射獵爲業)으로 삼는다. 각궁(角弓)은 길이가 3자이고, 화살은 길이가 1자 2치인데, 매년 7~8월에 독약을 만들어 화살에 바르는데, 짐승과 새를 쏘아 적중하면 즉시한다. 꿩인 독약의 기운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가 인식한 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숙신 등 요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국가들은 유목민족들과 같이 말과 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된 단우의 빨로 만든 활, 좋은

109) 『說文解字』 卷10, 石部에 “弩 石可以爲矢鏃者”라고 전한다. 『國語』 卷5, 魯語에는 “仲尼在陳 有隼集於陳侯之庭而死 楛矢貫之 石弩其長尺有咫 陳惠公使人 以隼如仲尼之館問之 仲尼曰 隼之來也 遠矣 此肅慎之矢也”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와 『後漢書』 卷85, 東夷, 挹婁에 “靑石爲鏃”이라는 기록이 있다.

110) 檀弓 : 숙신이 사용한 활을 말하는데, 그 크기가 대체로 4자 가까이 되는 큰 활이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17에는 “正義 肅慎國記云 肅慎 其地在夫餘國東北河六十日行 其弓四尺強勁弩 射四百步 今之靛靛國方有此矢”라고 전한다.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에도 “其弓長四尺 力如弩”라는 기록이 있다.

111) 楛矢 : 楛木은 곧으며 습기나 건조함에 따라 휘어지지 않아 화살대로 적합하다. 『國語』 卷5, 魯語에는 “仲尼在陳 有隼集於陳侯之庭而死 楛矢貫之 石弩其長尺有咫 陳惠公使人 以隼如仲尼之館問之 仲尼曰 隼之來也 遠矣 此肅慎之矢也”라는 기록이 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17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또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에도 “矢用楛 長尺八寸”이라고 전한다. 楛矢는 중국에서 石弩와 함께 숙신의 상징인데, 이는 단순한 조공품이 아니라 천자의 성덕에 九夷가 복종하는 의미, 곧 천자의 통치가 四海에 미치는 구체적 상징으로 이해되었다(여호규, 2017).

112) 『三國志』 읍루 이후 물길과 말갈에서 확인되는 전통이다. 『本草綱目』에 의하면 毒草類 가운데 烏頭라는 풀에서 줄기의 汁을 짜서 햇빛에 말려 사냥할 때에 이것을 화살에 발라서 쏘는데, 사람이 맞으면 모두 죽는다고 한다. 烏頭는 滿洲와 沿海州 일대에 많이 자라는데, 勿吉人들이 이것을 사용하여 독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三上次男, 1966).

활인 맥궁, 단궁, 각궁, 청석축, 독화살이 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화는 이들의 활쏘는 능력을 두려워했다.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법의 특징¹¹³⁾

본 연구를 진행하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표현된 기사도상(騎射圖像)을 분류한 결과 명확히 자세를 볼 수 있는 39개의 도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도상 분석을 통해 마구(馬具), 말, 활, 화살과 화살촉, 장소, 사냥감의 수와 종류 그리고 기마술(騎馬術)과 활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양상의 정보들이 드러났다. 기존에 출판된 도판과 모사도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한 도상만을 분석하였는데 대안리 1호분, 통구 12호분, 마선구 1호분, 약수리 벽화분은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8)와 이태호·유홍준(1995)의 모사선화도를 참고하여 도상을 분석하였다.

1) 기사의 위치 변화로 본 특징

(1) 사냥 장소와 마종으로 본 기사의 특징

앞서 논의 하였던 산림지역 기사의 조건과 고분벽화의 말 도상은 거의 일치한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마종은 무사와 비교했을 때 체고가 낮고 다리도 짧게 표현되어 있으며, 말이 달리고 있는 배경은 산악지형(조동석, 2005)임을 알 수 있다. 장천 1호분에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남벽에서 동벽으로 북벽의 일부에까지 천정에는 산골짜기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사냥이 그려졌고, 장면사이에 봉우리에 나무가 있는 산악이 배치되어 실재감을 준다(이태호, 1980, 전호태, 2015b). 주목할 점은 기사도상에서 표현된 말들이 전체적으로 다리가 앞뒤로 뻗어있고, 비스듬히 표현된 경우가 있다¹¹⁴⁾는 것이다.

113) 3절은 본 연구자의 연구인 성제훈(2018).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법(騎射法) 양상 검토. 체육사학회지 23(2): pp.27-42.의 내용임을 밝힘.

114) 덕흥리 고분과 장천 1호분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음.

최용기(1996)와 이진수(2004)는 이를 ‘비주형’ 혹은 ‘플라잉 갤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산악지형에서 달리는 말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현대의 승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나무와 숲 사이를 거칠게 달리거나 장애물을 넘을 때 기수가 안장에서 몸을 띄우고 앞으로 기울어진다(한국마사회, 1985). 그리고 Savitt(2007: 47)이 언덕을 뛰어오르고 내려오는 말을 관찰하여 그린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II-3-1>¹¹⁵⁾의 장천1호분 수렵도의 도상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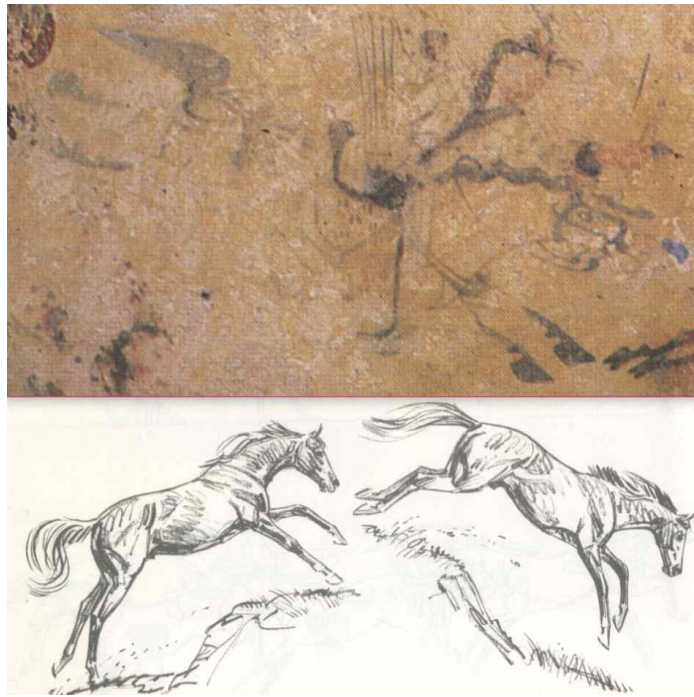


그림 II-3-1. 장천 1호분과 Sam Savitt 도상의 비교

앞서 초원의 유목민들의 기사와 구분되는 산림지역의 기사 방식을 논의 하였듯이 고구려 기사의 무대가 되는 곳은 산 그리고 숲이다. 삼국지부터 등장하는 문헌기록상 말이 작고 산에 오르기 편하다는 묘사와 정확

115) 도판출처: 朝鮮畫報社(1985), 圖205

히 일치하는 상황이며, 산림이라는 불규칙적인 지형을 달리는 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후술할 사냥감들에게서도 알 수 있는데 호랑이, 곰, 사슴 등 주로 산에 사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2) 사냥감을 추격하는 기사의 특징

기사도상에는 고삐¹¹⁶⁾를 비롯한 안장과 등자 등 각종 제어구와 안정구가 다수 표현되어 있어 무사가 마구를 사용함에 따라 기마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표 II-3-1. 기사도상에 보이는 고삐 사용에 따른 기마술

벽화명		양손 고삐	한손 고삐	고삐 놓음
안악 1호분				1
덕흥리고분	수렵도			8
	기마사회도	2		2
약수리고분		4		3
무용총			1	4
감신총				2
마선구 1호분				1
장천 1호분				7
통구 12호분				1
쌍영총			1	
대안리 1호분				1
수렵총				1
합계		8		31

이러한 마구의 표현 여부와 무사의 모습을 기사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굴레와 재갈 그리고 재갈에 고삐를 매어 무사가 손을 통해 말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소선섭외 5인, 2013)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고삐

116) 남도영(1997)과 이난영, 김두철(1999)은 말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구로 재갈(합), 재갈멈치(함유), 고삐이음쇠(인수), 굴레, 고삐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하나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삐라는 하나의 개체로 보겠다.

사용 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표 II-3-1>¹¹⁷⁾에서와 같이 39개의 도상 중 31개의 도상이 고삐를 놓고 있어 기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는 기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삐를 놓는 것은 현대의 승마와는 전혀 다른 말타기 형태이다. 승마에서는 말과 소통하는 데 있어 고삐를 사용하며, 체중 이동을 미묘하게 이전하는 동작과 하체 부조를 통해 제어하는 방법이(이동훈·임순길, 1997)있고, 이정분(李呈芬)의 『射經』의 마사(馬射)편에도 체중 이동에 관한 기록(김해성, 1999; 190; 민경길, 292)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고구려의 무사들은 고삐로 말을 제어하다가 기사를 위해 고삐를 놓은 후에는 체중 이동과 다리의 움직임으로 말을 제어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사냥감과의 방위로 본 기사사의 특징

<표 II-3-2>. 위치변화로 본 기사와 사냥감도상의 상관성

벽화명	전	전좌	전우	후	후좌	후우
안악 1호분	1					
덕흥리고분	수렵도	2	4		1	2
	기마사회도				1	
약수리고분		3				
무용총		3			1	
감신총		1	1			
마선구 1호분		1				
장천 1호분		1	5	1		
통구 12호분	1					
쌍영총						
대안리 1호분			1			
수렵총			1			
합계	2	11	12	1	3	2

고구려의 기사는 산과 숲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불규칙적인 지형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말을 타고 재갈, 안장, 등자와 같은 마구들을 활용하여 고삐를 놓고 양손에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고난이도의 신체활동이었

117) 표 II-3-1은 성계훈(2018)의 표 2를 인용하였음.

다. 기사 도상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고난이도의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사냥감을 추격하는 묘사가 자세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고분벽화에 보이는 사냥감을 분류한 결과 사슴 혹은 노루로 보이는 동물이 12마리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¹¹⁸⁾ 호랑이 또는 범은 9마리로 사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¹¹⁹⁾ 그리고 멧돼지 2마리, 날짐승 2마리, 곰 1마리, 미확인 동물이 2마리¹²⁰⁾가 보이는데 대부분 산에 사는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냥감도상을 중심으로 기사도상의 공간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두 도상의 위치 변화에 따라 6종류의 방위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기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났다.¹²¹⁾ <표 II-3-2>¹²²⁾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냥감들이 기사자(騎射者)의 앞쪽에 배치된 경우가 25개로 가장 많고 뒤쪽에 배치된 경우는 6개로 나타났는데 전(前), 전좌(前左), 전우(前右)와 같이 후방(後方)에서 말을 달리며 접근하여 전사(前射)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냥감도상이 기사도상과 일렬로 배치되었고, 말의 머리 위에 활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 전사(前射)로 분류하였다. 사냥감이 기사도상 앞의 위나 아래에 배치되었고, 활의 아랫장이 말머리에 가려져 있으면 전좌사(前左射)와 전우사(前右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냥감이 기사도상 뒤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면 후사(後射)로 분류하였다. 사냥감이 기사도상의 뒤에 있으면서 위나 아래에 배치된 경우 후좌사(後左射)와 후우사(後右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사냥감이 기사도상의 바로 앞에 배치된 것은 안악 1호분과 통구 12호 수렵도¹²³⁾로 총 2회 나타난다. <그림 II-3-2>¹²⁴⁾의 위 그림에서 볼 수

118) 김수민(2003)은 사슴이 많이 표현된 이유를 왕의 사냥이 신성한 통치행위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라고 논한다.

11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七 陽原王 十一年冬十月 “十一年 冬十月 虎入王都 擒之” 는 기록으로 볼 때 실제 호랑이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20) 감신충의 사냥감으로 멧돼지 혹은 호랑이로 보인다(이태호, 유홍준, 1995: 58).

121) 사냥감도상은 기사도상의 말의 머리를 기준으로 전(前), 전좌(前左), 전우(前右), 말 꼬리를 기준으로 후(後), 후좌(後左), 후우(後右) 총 6방향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2) 표 II-3-2은 성계훈(2018)의 표 3을 인용하였음.

123) 통구 12호분의 수렵도는 박락이 심해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8)의 모사선화도를 참고하였다. 5권 p.91페이지

있듯이 도상 모두 사냥감과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사냥감의 바로 뒤에서 정면으로 기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냥감의 후우방에서 접근하는 도상은 11개, 후좌방에서 접근하는 도상은 12개¹²⁵⁾로 사냥감의 후우방(後右方)에서 추격하는 기사도상은 전좌사(前左射), 사냥감의 후좌방(後左方)에서 추격하는 기사도상은 전우사(前右射)의 자세를 보인다.

<그림 II-3-3>¹²⁶⁾의 중간과 아래의 그림을 보면 사냥감의 후우방에서 쫓으며 말머리의 왼쪽으로 조준하고 있는 무사의 모습과 사냥감을 후좌방에서 쫓으며 말머리의 오른쪽으로 조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²⁷⁾



<그림 II-3-2>. 안악 1호분(전사), 덕흥리 고분(전좌사), 장천 1호분(전우사) 도상

<그림 II-3-3>. 무용총 수렵도(후좌사), 덕흥리 고분벽화의 수렵도(후우사, 전좌사), 기마사회도(후좌사, 전좌사)

124) 그림 II-3-2와 그림 II-3-3은 성제훈(2018)의 그림 3과 그림 4를 인용하였음.
 125) 마선구 1호분, 약수리고분벽화, 무용총, 장천1호분, 대안리 1호분, 덕흥리 고분벽화의 수렵도와 기마사회도에 표현되어 있다.
 126) 도판출처 위에서 부터: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8). 권 5, p.108, 152, 권 6, p.78
 127) 덕흥리 고분 수렵도 왼쪽 1번째, 장천 1호분 수렵도의 왼쪽에서 3번째 ‘기사’도상

사냥감 혹은 목표물이 기사도상의 뒤에 배치되어 후방으로 조준을 하는 도상을 분류한 결과 6개¹²⁸⁾로 나타났다. 이는 몸을 돌려 뒤를 향하여 활을 쏘는 이진수(2004)의 연구에서 주목한 ‘파르티안샷(Parthian shot)’ 혹은 ‘안식식(安息式) 사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동작의 개별적인 특수정보보다는 수렵도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사냥감의 도주 방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II-3-3>의 위 도상은 전체적으로 무용총 수렵도에 표현된 후사 장면이다. 이 도상 외에도 4명의 무사들이 벽화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사냥감을 쫓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사슴이 무사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어 후방(後方)으로 기사(騎射)하는 무사가 처음부터 뒤를 향해 조준했다기보다는 조준한 상태에서 사냥감이 지나쳤거나 방향을 바꾼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바꿔 후사(後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기사의 속도로 본 특징

(1) 기사에서 속도의 중요성

기사도상의 분석을 통해 산악지형에서 사냥감의 속도에 맞추어 추격하는 기마술과 작은 활과 화살의 사용은 기사를 하는 데 속도(速度)를 중요시했음이 드러났다. 杉山正明(1999: 34)는 북방의 유목전사의 기마능력은 고속의 이동이 장점이라는 것을 논한다. 이러한 고구려 말의 기동성은 중국의 문헌에 키가 3척(90cm)¹²⁹⁾이며, 하루에 1천리를 달렸고, 지구력이 강해 산악전¹³⁰⁾에 뛰어났다(徐榮教, 2004b; 朴世旭, 2012; 이흥두, 2014)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활의 기능 역시 중요하다. 徐榮教(2004a), 李鎭洙(2004), 최석규·정희석(2009)의 연구에 의하면

128) 덕흥리 고분벽화의 수렵도와 기마사회도, 무용총, 장천1호분의 수렵도

129) 魏書, 高句麗傳, 卷100

130) 三國志·魏志, 東夷傳

고구려 경기병의 무기는 만궁(彎弓)으로 80~90cm 정도의 짧은 활을 썼는데 만궁은 짧으면서 굽었기 때문에 명중률, 살상력, 사거리 그리고 휴대성이 우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구려 활의 모습은 실제로 4세기 고구려의 영화 9년명 벽돌무덤 안에서 출토된 골제활 부속구와 고분벽화에 보이는 활들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李鎮洙, 2004).

(2) 연속으로 기사하는 모습의 특징

본 연구를 진행하며, 기사도상과 사냥감도상을 분류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위로 기사를 하는 유형과 함께 기사자(騎射者)가 산악지형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며, 연속(連續)으로 활을 쏘는 유형의 기사하는 방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대규모의 수렵이 표현된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장천 1호분에서 일정하게 나타난다.

<표 II-3-3> 화살 개수로 본 기사와 사냥감도상의 상관성

벽화명	기사도상	화살수	사냥감도상	화살수	총개수
덕흥리고분	1	1	멧돼지	1	2
	2	1	사슴		1
	3	1	도상 1과 同		1
	4	1	사슴	1	2
	5	1	새		1
	6	1	호랑이 1	1	2
	7	1	호랑이 2	1	2
	8	1	도상 7과 同		1
약수리고분	1	2	호랑이 1	1	3
	2	2	호랑이 2		4
			호랑이 3	1	
			곰	1	
3	1	사슴	1	2	
장천 1호분	1	1	호랑이	2	3
	2	1	사슴 1	1	2
			사슴 2		
	3	1	멧돼지	1	2
	4	1	호랑이	1	2
	5	1	새		1
	6	1	사슴	1	2
7	1	확인 불가		1	
합계	18	20	19	14	34

이러한 연속사의 형태 역시 기사도상과 사냥감도상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화살의 개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장천 1호분과 같이 대규모의 수렵이 표현된 사냥감과 기사도상들을 보면 화살이 꽂힌 채 도망가고 있는 사냥감을 기사자(騎射者)가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3>¹³¹⁾는 기사도상이 쫓고 있는 사냥감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살 개수에 관한 정보이다. 18개의 사냥감 도상 중 14개의 도상에 화살이 이미 꽂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개의 호랑이 도상, 2개의 멧돼지 도상, 1개의 곰 도상, 3개의 사슴 도상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대형의 빠른 사냥감을 상대로 1번 이상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도망가는 사냥감을 추격하면서 한 번의 발사(發矢)로 잡지 못한 사냥감들을 상대로 연속(連續) 활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다수의 사냥감을 동시에 기사하는 장면의 특징

특히 <표 III-3-2>¹³²⁾의 약수리 고분 수렵도 2번 기사도상과 주변 사냥감 도상들을 자세히 보면 金性泰(1993)의 분석과는 달리 3개의 사냥감도상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³⁾ 본 연구자는 <그림 III-2-2>의 아래 오른쪽 그림의 기사자가 세 마리의 사냥감을 모두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 마리의 사냥감을 모두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큰 호랑이와 곰은 화살을 한 발씩 맞은 상태이므로 화살을 2회 발사(發矢)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줍통에 화살 한 발이 더 쥐어져 있는 상태로 조준을 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사냥감을 상대로 화살을 동시에 최대 4번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31) 도상의 순서는 도판들의 좌에서 우로 번호를 지정함, 표 II-3-3은 성제훈(2018)의 표 4를 인용하였음.

132) 그림 II-3-4는 성제훈(2018)의 그림 5를 인용하였음.

133) 金性泰(1993)는 서벽의 사수가 호랑이를 2마리 쫓고 있다고 했지만 바로 앞에 곰으로 보이는 검은 사냥감이 한 마리 더 있다.

『紀效新書』에서 척계광(戚繼光)은 줌통에 화살을 2발까지 함께 쥐고 쏘는 방법을 제안¹³⁴⁾하는데 이를 후대의 고영(高穎)¹³⁵⁾은 『무경사학정종지미집(武經射學正宗指迷集)』에서 무과시험에서의 방법이라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기록까지 있다.¹³⁶⁾ 그러나 본 연구자는 동개에서 화살을 직접 꺼내어 발사(發矢)하는 방법보다 줌통에 준장전된 화살을 발사하는 방법이 연속으로 활을 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림 II-3-4>. 약수리 고분 수렵도 연속기사

그리고 한 개의 목표에 집중하여 연속으로 활을 쏘는 모습도 보인다.

134) 『紀效新書』, 卷13, <射法>: “馬上射把箭須以箭二枝連弓把把定 又以一枝 中弦挂爲便 其有以箭插衣領內 或插腰間俱不便 決要從吾言”

135) 생물년 미상,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정제(崇禎帝)(1611~ 1644) 시기의 문인(文人)으로 추정(馬明達, 2003)

136) 『武經射學正宗』, 민경길역(2010), p.170에서 재인용

<표 II-3-3>의 기사도상 1과 관련된 장천 1호분 수렵도의 왼쪽 아래 배치된 사냥감도상을 보면 호랑이의 뒤에 화살이 꽂혀 있고, 앞에도 화살이 꽂혀 있다. 기사자(騎射者)는 후방에서 전사하고 연달아 사냥감을 지나가며 후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후사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말과 무사의 속도의 중요성은 후술할 조선시대 무과 시험에서도 알 수 있다. 초기 무과에서 기사는 25보(약 30m)의 간격으로 3개의 적(的)이 설치된 75보(약 90m)의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세종은 속도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험방식 개정을 주장하여¹³⁷⁾ 시험방식이 바뀌는데 가능한 말을 빨리 달려 5개의 목표물을 방향을 바꾸며 연속으로 쏘아 맞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¹³⁸⁾

3) 말이 사냥하는 방식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1) 말이 사냥 대상과 기사의 관계

후술하겠지만 사냥을 일상으로 삼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민족들은 각종 생필품을 사냥을 통해 얻고 이를 교역하여 부족한 자원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어려서부터 기사 사냥을 해야 했기에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는 민족들 보다 기마술이 뛰어났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쏘기 능력을 갖추고 살아갔다. 그리고 이는 말이사냥의 형태로 나타날 때 사냥뿐 아니라 군사훈련의 형태까지 갖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먼저, 앞서 살폈듯이 고분벽화에 보이는 사냥감은 무리 지어 빠르게 도주가 가능한 사슴 혹은 노루로 보이는 동물이 12마리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밖에 멧돼지, 날짐승, 곰, 등이 보이는데 모두 산에 서식하는 동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맹수들이 사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고려와 조선시대 까지 호랑이 또

137) 「世宗實錄」 卷15, 15年 3月 甲子

138) 조선시대 무과에서의 기사에 관해서는 최형국(2006)의 연구에 설명되어 있다.

는 범은 두려운 존재였고, 이들을 잡는데 소규모의 기사사냥이 동원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호랑이 사냥을 하는 경우를 보면 소규모로 기사하여 호랑이를 몰아 화살과 창으로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맨손으로 대적하기 힘든 맹수들을 기마상태로 원거리에서 활을 쏘아 포획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기사능력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중국의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 백제를 위시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선기사(善騎射)의 문맥을 분석하였듯이 고분벽화에 표현된 인물들은 뛰어난 기사 능력이 잘 표현되어 있다.

(2) 소규모 몰이사냥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그림Ⅱ-3-2>와 <그림Ⅱ-3-3>에 보이는 후사(後射)하는 대부분의 도상은 개체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냥의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말을 몰거나 활을 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파르티안샷’ 기술의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기사도상에 보이는 전방위(全方位)에 의한 기사법(騎射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후방위의 사법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장천 1호분, 약수리 고분, 감신총, 덕흥리 고분¹³⁹⁾의 수렵도에는 둘 혹은 여럿이 사냥감을 포위하여 사냥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림 4>¹⁴⁰⁾의 중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덕흥리의 수렵도에는 앞과 뒤에서 협공¹⁴¹⁾ 하는 장면이 2회 나타나는데¹⁴²⁾ 사냥감의 앞에서 후사(後射), 뒤에서 전사(前射)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냥감을 앞뒤의 방향에서 포위함과 동시에 후사와 전사

139) 진호태(2015a)에 의하면 덕흥리 고분의 수렵도는 천장 궁륭고압에 위치해 천상계의 내용과 같이 있어 일상의 수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 행렬도와 같이 연결하여 보면 대규모의 수렵이었음을 알 수 있고(이태호, 유흥준, 1995: 52), 본 연구에서 주목한 기사도상 역시 기마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일반 수렵도로 분류하였다.

140) 무용총 수렵도, 덕흥리 고분벽화의 수렵도, 기마사회의 도판출처 위에서 부터: 朝鮮書報社(1985), 圖215~216, 圖.6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8). 권5, p.170

141) 감신총의 경우에는 전좌사와 전우사로 협공하는 모습이 특징이다. 국립중앙박물관(2006). p.56의 모사도에서 확인 가능

142) 홍선표(2001)에 의하면 덕흥리 벽화에서 나타나는 호랑이를 앞뒤에서 협공하는 광경은 다른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논한다.

로 협공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를 <그림 II-3-3>의 아래 기마사회도의 도상과 비교했을 때 자세만 보면 마치 수렵도에 표현된 포위사냥을 기마사회도에 훈련 장면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자(騎射者)의 왼편에 있는 과녁을 맞히는 경기로 볼 수 있지만, 한번은 전좌사 그리고 바로 연이어 후좌사를 하는 양손을 사용한 활쏘기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사도상을 활을 당기는 손으로 분류한 결과 우사는 15개, 좌사는 16개로 나타나¹⁴³⁾ 한쪽의 손을 특별히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감신총의 기사도상에서는 좌우(이태호, 유홍준, 1995: 58)에서 전좌사와 전우사로 호랑이나 멧돼지로 보이는 사냥감을 협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를 덕흥리의 수렵도와 기마사회도와 종합해보면 상황에 맞는 쪽의 손으로 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대규모 몰이사냥으로 본 기사법의 특징

장천 1호분과 약수리 고분의 수렵도에는 양편에서 한 곳으로 사냥감들을 몰면서 기사를 하는 조직적인 수렵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전·후방위의 기사가 모두 표현되었으며,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혹은 좌우에서 몰아가며 다양한 방위에서 사냥하는¹⁴⁴⁾ 방식이 잘 표현되어 있어(이태호, 1980a; 전호태, 2015b) 이를 통해 포위사냥을 하는데 전방위 기사법(全方位騎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속기사법(連續騎射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수렵도에 다수의 사냥감을 동시에 연속으로 활을 쏘는 형태와 한 개의 목표물에 집중하여 연속으로 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수의 목표에 동시에 활을 쏘는 모습은 <표 II-3-3> 장천 1호분의 2번 기사도상과 <그림 II

143) 기사를 준비하는 도상인 기마사회도의 2개, 무용총의 1개, 약수리의 4개, 쌍영총의 1개 도상 제외

144) 지상의 무사와 기사자(騎射者)가 협공하는 방식도 표현된 것이 다른 고구려의 수렵도와 다른 특징이다.

-3-4>¹⁴⁵⁾ 약수리 고분의 수렵도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약수리 고분의 장면에서 金性泰(1993: 23)¹⁴⁶⁾는 사수가 범 2마리를 쫓으면서 범을 겨누고 손에는 예비로 평편촉을 쥐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¹⁴⁷⁾ 본 연구자는 이 모습을 예비 화살이라기보다는 준장전(準裝填) 상태로 본다. 그 이유는 사냥감인 호랑이는 이미 등에 화살을 맞은 상태로 도망가고 있음에도 기사자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의 약수리 고분 수렵도 2번 기사도상과 주변 사냥감 도상들을 자세히 보면 金性泰의 분석과는 달리 3개의 사냥감도상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⁸⁾ 본 연구자는 <그림 II-3-4>의 아래 오른쪽 그림의 기사자가 세 마리의 사냥감을 모두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 마리의 사냥감을 모두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큰 호랑이와 곰은 화살을 한 발씩 맞은 상태이므로 화살을 2회 발사(發矢)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줍통에 화살 한 발이 더 쥐어져 있는 상태로 조준을 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사냥감을 상대로 화살을 동시에 최대 4번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紀效新書』에서 척계광(戚繼光)은 줍통에 화살을 2발까지 함께 쥐고 쏘는 방법을 제안¹⁴⁹⁾하는데 이를 후대의 고영(高穎)¹⁵⁰⁾은 『무경사학정종지미집(武經射學正宗指迷集)』에서 무과시험에서의 방법이라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기록까지 있다.¹⁵¹⁾

그러나 『太祖實錄』에서 이성계의 호랑이 사냥 기록¹⁵²⁾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도상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수렵상황에

145) 도판출처: 朝鮮畫報社(1985), 圖40

146) 무사가 줍통에 쥐고 있는 화살에 대해서는 金性泰(1993)가 이미 발견한 바 있으나 그 후로는 주목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147) 본 연구에서 2명의 무사가 활의 줍통에 화살을 1발씩 쥐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148) 金性泰(1993)는 서벽의 사수가 호랑이를 2마리 쫓고 있다고 했지만 바로 앞에 곰으로 보이는 검은 사냥감이 한 마리 더 있다.

149) 『紀效新書』, 卷13, <射法>: “馬上射把箭須以箭二枝連弓弣把定 又以一枝 中弦掛爲便 其有以箭插衣領內 或插腰間俱不便 決要從吾言”

150) 생물년 미상,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정제(崇禎帝)(1611~ 1644) 시기의 문인(文人)으로 추정(馬明達, 2003)

151) 『武經射學正宗』, 민경길역(2010), p.170에서 재인용

152)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卷1: “太祖執弓矢, 又以一矢插腰間而往”

서 유용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개에서 화살을 직접 꺼내어 발시(發矢)하는 방법보다 줌통에 준장전된 화살을 발시하는 방법이 연속으로 활을 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 개의 목표에 집중하여 연속으로 활을 쏘는 모습도 보인다. <표 II-3-3>의 기사도상 1과 관련된 장천 1호분 수렵도의 왼쪽 아래 배치된 사냥감도상을 보면 호랑이의 뒤에 화살이 꽂혀 있고, 앞에도 화살이 꽂혀 있다. 기사자(騎射者)는 후방에서 전사하고 연달아 사냥감을 지나가며 후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후사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며 연속으로 기사하는 모습은 <그림 II-3-3> 덕흥리 고분의 기마사회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녁 수로 보아¹⁵³⁾ 최대 5 연속으로 쏠 수 있고, 전사와 후사를 연속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태호(1980), 최용기(1995), 李鎭洙(2004), 전호태(2015a)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경기를 인재 등용의 시험으로 보고 있는데 연속으로 다수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자세로 기사를 하는 능력이 기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다연발(多連發)로 공격하는 기사전법(騎射戰法)은 적은 수의 기병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전투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4. 소결

삼국시대 이전의 문헌과 고구려시기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도상(騎射圖像)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은 농경민족, 유목민족과 달리 산림지역을 무대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말과 마구, 활과 화살이 발달하였고, 이를 활용한 경이로운 기사 능력은 군사 활동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악지형에 적합한 체고가 낮은 형태의 말이 등장하며, 고삐를 놓은 채 하체만으로 말을 통제하는 기마술과 짧고 굵

153) 벽화상에 이미 2개는 이미 땅에 떨어져 쪼개져 있다.

은 활과 화살을 양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분벽화에 표현된 사냥감을 사냥하는 방식은 방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냥감의 후방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말을 몰 수 있는 전술적인 기마술(騎馬術)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냥감의 위치 변화에 대응하여 전방 위기사법(全方位騎射法)이 중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포위기사전법(包圍騎射戰法)이 표현되어 있어 한반도 북부에서 사냥과 군사전술로서 기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유추 할 수 있다.

산악지형에 적합한 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냥감의 속도와 위치변화에 따라 말을 모는 기마술과 휴대가 용이한 활, 화살의 형태적 기능적인 특성이 만나 사냥감과 말의 속도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화살을 제어 쏘는 연속기사법(連續騎射法)이 드러났다. 또한 한 목표를 여러 번 활을 쏘는 전법과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에 활을 쏘는 다연발기사전법(多連發騎射戰法)이 가능함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기사는 중국과 초원에서 발달한 기사와는 다른양상을 보인다. 산림지역이라는 특성상 산과 평야에서 모두 활동이 가능한 말과 이에 따른 마구들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지에서 하는 기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활쏘기 역시 요구되었다. 이런 고도의 기마술과 활쏘기의 조합은 선기사(善騎射), 중기사(重騎射), 상기사(尙騎射)로 표현되어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남게 되었다.

Ⅲ. 고려시대 기사(騎射)의 군사무예적 특성

앞선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기사라는 행위는 기원전 4세기까지 중화라는 문명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들의 주된 신체문화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는 조나라 동쪽의 호와 맥이 장성의 동북쪽과 한반도 북부라는 지역적 범위를 무대로 시대적으로는 고조선을 거쳐 삼국시대까지 전해져 한국의 역사에 선기사로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국시대 이후 남북국 시대를 거치며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고 한반도 지역은 왕건에 의해 고려가 건국되는 역사의 전개가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북부는 거란과 여진 등 기사의 전통 그대로 간직한 민족들이 서로 연합과 반목을 지속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면 곧바로 중국을 위협함과 동시에 고려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며, 서로의 역사에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1. 고려시대에 전해진 기사(騎射)의 전통적 특성

고려 초기와 중기에는 각각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가 중국을 제압했으며, 후기에는 초원에서 발흥한 몽골제국이 중국을 지배하였다. 이들 생활양식의 필연적 결과로 기사(騎射)를 중시하였고, 발해의 멸망 후 더 이상 요동은 고려의 무대가 아니었지만 흥미롭게도 기사(騎射)는 여전히 고려의 특기였다. 본 장에서는 남북국시대 이후 기사의 전통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색을 지니는지 탐색하였다.

1) 고려에 전해진 마종(馬種)의 특성

송나라의 사신 서공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 고려 기병의 모습은 마치 송나라를 위협하던 거란과 여진의 세력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만큼 고려는 기사를 중시하는 민족들과 연관이 깊었다. 그중 이들로부터 수입한 말은 고려가 전쟁에 사용할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 말교역으로 본 한반도 북부와의 관계

고려시대의 마종(馬種)은 외부에서 들여온 호마와 내부에서 직접 생산해낸 말들로 나눌 수 있다. 외부에서 들여온 마종으로는 고려 전기에는 여진의 달단마(韃靼馬)와 고려 후기 몽골의 몽골마로 구분이 가능하다. 고려전기 달단마는 여진의 중요한 조공상품이었다. 정종대(945~949)부터 예종대(1105~1122) 까지 조공마 숫자는 대략 4천~5천 필에 이른다. 여진 부족들은 고려에 달단마를 조공한 대가로 고려에서 생필품이나 약재 등을 가져갔으며, 고려에서는 달단마를 전마로 이용하였다.

한편 고려후기에는 몽골에서 부터의 유입된 말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충렬왕 2년(1276년) 몽골은 탐라목장에 몽고마를 들여와 몽골식 마목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충렬왕 5년(1279)에는 150여 필을 가져와 전국의 섬목장에 종마로 분배하였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온 말들은 척박한 환경도 잘 견뎠다. 여진의 달인(韃人)들은 독자적인 양마지법으로 달단마를 사육하기도 하였다(이홍두, 2020 : 44-45).

10세기 초 여진은 송화강을 중심으로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분화되었다. 동여진은 흔히 ‘30성 부락(三十姓部落)’이라고 불리었고, ‘혹수말갈, 과 혼용해 쓰였으며, 서여진은 ‘압록여진’이라고도 했다(이홍두, 2020 : 49). 이 지역은 앞장에서 검토해본 것과 같은 지역으로 중국문헌에 기록된 부여, 고구려, 발해, 예맥과 활동 범위를 같이 하는 지역으로 여러 종류의 특색있는 말들의 산지였다.

이홍두(2020 : 49)는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말을 분류하였다, 그는 토마(土馬), 마(馬), 준마(駿馬), 양마(良馬), 명마(名馬)로 구분하는데 토마는 경기병에 사용하고, 마, 준마 양마 명마는 중기병에 이용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토마가 3척 정도로 체구가 작았던 반면에, 달단마는 4척(尺) 1촌(寸卜)에서 4척 7촌까지의 중형마였다. 그렇기에 기사에 적합한

말은 작은 3척마였다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 북부에서 수입한 말들의 특성

여진이 조공한 말들은 수초가 풍부하며, 높고 추운 지방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 강했다.¹⁵⁴⁾(이홍두, 2020 : 51). 이러한 여진의 양마법으로 길들인 수말을 선택하여 종마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거세하여 강건한 전마를 얻었다.¹⁵⁵⁾ 고려 초기 여진은 수만 필의 달단마를 고려에 조공하였다. 태조 19년(936) 일리천(一利川)에서 후백제와 교전할 때 黑水 경기병 9천 5백 기, 정종 2년(947)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 광군 30만을 선발할 때 수만 필, 정종 3년(948) 동여진의 대광 소무개가 말 7백 필을 바친 사례가 있다.¹⁵⁶⁾

그런데 여진이 조공마를 고려에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1010년(현종 1),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침공한 거란의 제2차 침공 때였다. 당시 고려는 행영도통사 강조가 40만의 방어군을 편성했는데, 여진이 조공한 수만 필의 달단마를 중장기병으로 사용했다(金渭顯, 1985 : 166). 고려는 여진으로부터 전마를 얻어 기병의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태조 1년(918)부터 인종 1년(1123)까지 2백여 년간 여진, 동여진, 서여진, 북여진, 동북여진, 동서여진, 철리국, 동흑수, 흑수말갈, 여진말갈 등이 말을 공납한 회수는 120회 정도였다.

당시 여진이 공납한 말의 품종을 구분하면, 명마 8회, 양마 14회, 준마 31회, 마 50회, 토마가 16회 였다. ‘마’는 과하마와 호마의 중간에 해당하지만, 앞에서는 중형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진의 토마를 고려가 수입한 것은 토마가 체구는 작지만 산악지형에서 전투력을 크게 입증한 결과

154) 『宋史』 卷198, 志 卷151, 兵12, 馬政

155) 재인용. 왕국수편(王國維編), 「黑韃事路叢證」, 『蒙古史料四種中』, 499쪽. “韃人養馬之法, 自春初罷兵後, 凡出戰好馬, 並恣其水草, 不令騎動, 直至西風將至, 則取而控之, 繫於帳房左右, 啖以些少水草, 經月後腿落而實, 騎之數百里, 自然無汗, 故可以耐遠而出戰.尋常正行 路時, 並不許其吃水草, 蓋辛苦中吃水草, 不成鵬而生病.此養馬之良法, 南人反是, 所以馬多病也. 其牡馬留十分壯好者, 作移刺, 馬種外餘者多扇了, 所以無不强壯也”.

156) 『高麗史』 권81, 지제 35, 병 15군 ; 『高麗史』 권2, 세가 정종 3년 9월

로 보인다(이흥두, 2020 : 53). 한편 고려시대에 여진의 토마를 수입한 횃수가 16회인바, 현종 때 토마 수입회수는 15회로써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현종 때 여진의 토마를 집중적으로 수입하였는데 이 토마는 고려의 산악지형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했다.¹⁵⁷⁾ 특히 3차 거란전쟁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 일대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을 궤멸시켰는데,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은 산악지형에서 기동력을 발휘한 여진의 토마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는 11세기 중엽부터 50여 년간 여진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잡았다(이흥두, 2020 : 53).

그러나 1104년(숙종 9) 제1차 정주성 전투에서 동여진의 완안부에게 패배함으로써 여진의 조공마가 크게 축소되었다. 제1차 정주성 전투의 패배는 고려의 주력군이 보병이었던 반면, 거란의 주력군은 기병으로 기동력에서 차이가 났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기병대를 강화한 별무반을 창설하여 제2차 정주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따라서 여진의 조공마 무역은 현상을 유지하였으나, 1115년(예종 10) 아골타가 금제국을 건국하면서 여진의 단달마를 통한 조공무역이 단절되었다. 이후 150년간 북방의 달단마가 유입되지 않게 되었다(이흥두, 2020 : 57).

원나라는 1275년(충렬왕 1) 경상과 전라도에 중앙 관리를 파견하여 탐라목장을 건설하고, 몽골의 목호(牧胡)를 파견함으로써 목마 사업을 직접 관장하였다.¹⁵⁸⁾ 당시 몽골에서 들여온 호마는 몽고마였다(이흥두, 2020 : 57).¹⁵⁹⁾ 달단마의 시조를 몽고마로 보는 것에는 학계의 이견이 거의 없다. 즉, 몽고마의 연원은 기원전 3세기 말 흉노의 선우 묵특(冒頓)이 동호(東胡)와 서쪽의 월씨국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서역의 한혈마를 수입하여 몽고마를 개량하였다.

157) 1010년(현종 1)에 발발한 제2차 거란전쟁의 기동로는 홍화진에서 통주, 광주, 운진, 안북부를 통과하는 북계 서로다. 이 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구릉지대 로써 말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악지형의 기마전은 말이 비탈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체형이 작은 토마를 전마로 활용한 전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이었다(안주섭, 2003, 『고려거란전쟁』, 121쪽).

158) 南都泳, 1996, 앞의 책, 138쪽

159) 『成宗實錄』 권281, 성종 24년 8월 정묘.

(3) 몽골로부터 받아들인 말들의 특성

한편 10세기 초 거란(907~1125)은 지금의 내몽골 지역에 요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백산과 흑수 사이에 있는 넓은 목초지에서 기북마(冀北馬)를 생산하였다(이홍두, 2020 : 58).¹⁶⁰⁾ 그런데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골의 후신 달단이 등장하면서 기북마를 달단마로 불렀다. 이후 달단마는 요동과 두만강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는데, 조선이 여진과 국경을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수입한 여진의 달단마는 고려전기 달단마와 같은 혈통의 말이었다. 여진의 달단마는 서역마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지구력이 강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냈다.

고려에서 몽골에서 온 말을 방목한 것은 1276년(충렬왕 2) 몽골이 호마 160필을 탐라에 방목하여 몽골식 마목장을 건설한 것이 시초다.¹⁶¹⁾ 이때부터 탐라는 명마의 산지로 중국에 알려졌다. 이로써 여진의 금나라 건국 이후 끊겼던 호마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몽골 기병의 절반 이상이 가죽 투구만을 쓴 경기병이었던 반면, 3분의 1은 중장기병이었다. 그런데 중장기병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들이 타는 말도 마갑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체형이 커야 했다(정해은 외 5인, 2006 : 225).

2) 고려에 전해진 활과 화살의 특성

(1) 명적과 효시의 전통적 특성

여러 연구가들은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의 수렵장면에 보이는 명적을 고구려 화살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호용 화살은 주로 유목민들의 상징으로도 묘사된다. 목동 선우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중국인이 보았을 때 오랑캐의 장비였다. 『晉書』의 「北狄」¹⁶²⁾을 보면 어떻

160) 謝成俠, 1959, 『中國養馬史』, 北京科學出版社, 29쪽.

161) 『高麗史節要』 권19, 충렬왕 2년 8월.

162) 『晉書』 「北狄」, 爰及秦始, 匪革前迷, 廣關塞垣, 更招種落, 納萎莎之後附, 開育鞠

게 흉노가 중화와 인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저자의 눈에 어떻게 오랑캐의 문화가 비쳤는지를 알 수 있다. 오랑캐의 풍속이 유행하고 명적(鳴鏑)이 여기저기서 날린다고 표현되어 있어 명적을 오랑캐의 풍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호용 화살은 고려에도 전해졌다. 고려말 김방경과 이성계의 기록에서 관련 묘사를 찾아 볼 수 있다. 『高麗史』 163)에는 김방경과 효시와 관련된 일화가 존재한다. 왜구를 상대하여 김방경은 신호용 화살(嚆矢) 하나를 뽑아들고 전투를 시작하여 박지량(朴之亮)과 김흔(金忻)·조변(趙抃)·이당공(李唐公)·김천록(金天祿)·신혁(申奕) 등과 큰 승리를 거둔다. 뒤늦게 도착한 여진의 홀돈이 몽골군의 강함과 고려군을 비교하면서 고려의 전투에 놀라는 묘사까지 기록되어 있다.

(2) 각궁(角弓)과 호시(檣矢)의 전통적 특성

고려시대에도 사용된 각궁은 송상인을 통한 무역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高麗史』 권42 列傳에 최이에 관한 일화를 보면 고려시대에도 각궁을 계속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송(宋) 상인을 통해 각궁의 재료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료에 등장하는 송 상인은 고려에서 물소 뿔을 구해서 활을 만든다는 정보를 듣고 칙령을 내려 매매를 금지하여 사오지 못했다고 하기도 하였다. 후에 송 상인이 물소 4두(頭)를 바치니, 최이가 인삼 50근과 포 300필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물소 뿔이 바로 각궁의 중요한 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직접 제작하는 활과 화살 외에도 한반도 북부에서 조공을 통해 공급을 받았다. 말갈, 여진에서는 각 부족의 추장이나 추장들이 고려에 화살을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권4 현종(顯宗) 대의 일련의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여진에서 활과 화살 조공 역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추장(酋長) 아두(阿頭)와 타불(陶弗) 등이 와서

之新降，接帳連鞮，充郊掩甸。既而沸膺成俗，鳴鏑爲群，振鴞響而挺災，恣狼心而逞暴。163) 『高麗史』, 권104, 열진, 권17

말(馬)과 활, 화살을 바쳤다.¹⁶⁴⁾ 동여진(東女眞)의 수령(首領) 사빈(史彬)이 와서 말(馬)과 활, 화살을 바쳤다.¹⁶⁵⁾ 동여진(東女眞)과 서여진(西女眞)의 추장(酋長)이 각각 부락의 자제들을 인솔하여 와서 토종말 및 활과 쇠뇌(弩)를 바쳤다.¹⁶⁶⁾

동여진(東女眞)의 만투(曼鬪) 등 60여 인이 와서 과선(戈船) 4척과 호목으로 만든 화살인 호시(楛矢) 117,600개를 바쳤다.¹⁶⁷⁾ 동여진(東女眞)의 봉국대장군(奉國大將軍) 소물개(蘇勿蓋) 등이 와서 말 9필, 과선(戈船) 3척, 호시(楛矢) 58,600개 및 무기와 의장(儀仗)을 바쳤다.¹⁶⁸⁾

동여진(東女眞)의 영새장군(寧塞將軍) 목사아골(睦史阿骨), 유원장군(柔遠將軍) 알나(闕那)와 귀덕장군(歸德將軍) 아개주(阿箇朱)가 와서 말과 철갑옷, 호시(楛矢)를 바쳤다.¹⁶⁹⁾ 동여진(東女眞)의 만투(曼鬪) 등 60여 인이 와서 싸리화살(楛矢)과 과선(戈船) 4척을 헌상하였다.¹⁷⁰⁾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통해 말과 함께 각궁의 생산 역시 중국의 문헌에 기록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신(肅愼) 때부터 등장하는 호시(楛矢)는 한반도 북부의 전통적인 화살로 이 당시 흑수말갈, 동여진, 서여진에서 들여온 활(弓)과 화살(矢) 들은 모두 앞서 『三國志』에서 기록된 바를 논의한 지역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고려 후기 화살의 특징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문헌에 보이지 않던 화살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고려시대에 궁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거리 무기였다. 고려사 兵志의 兵制를 보면 신기(神騎), 신보(神步), 경궁(梗弓), 정노(精弩), 석투(石投), 대각(大角), 철수(鐵水), 강노(剛弩), 도탕(跳盪), 사궁(射弓), 말화

164) 是月，黑水靺鞨酋長阿頭·陀弗等來，獻馬及弓矢。

165) 己未 東女眞首領史彬來，獻馬及弓矢。

166) 閏五月 壬子 東·西女眞酋長，各率部落子弟來，獻土馬·弓弩。

167) 戊子 東女眞曼鬪等六十餘人來，獻戈船四艘，楛矢十一萬七千六百。

168) 乙卯 東女眞奉國大將軍蘇勿蓋等來，獻馬九匹，戈船三艘，楛矢五萬八千六百及器仗。

169) 是月，東女眞寧塞將軍睦史阿骨，柔遠將軍闕那，歸德將軍阿箇朱來，獻馬及鐵甲·楛矢。

170) 東女眞曼鬪等六十餘人來，獻楛矢及戈船四艘。

(發火) 중 경궁, 정노, 강노, 사궁 등 활과 관련있는 부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려시대의 활과 화살이 중요하게 여겨진 반면, 중국 사신 서궁(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고려의 활과 화살(弓箭)은 그 모양이 간략하여 탄궁(彈弓)과 비슷한데 비록 화살이 매우 멀리 나가는 해도 위력은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화살이 위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쇠뇌와 비교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말 이성계의 기록을 보면 고려말기에 편전, 대우전, 유엽전 등의 화살을 사용한 경이로운 전투 기록이 보인다. 이 화살들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조선시대 까지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던 화살들이다.

『高麗史』 171)의 황산대첩의 묘사에는 대우전과 유엽전으로 기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성계의 유명한 황산(荒山) 대첩 장면에서 이성계는 적에게 대우전(大羽箭) 20발을 쏘고 계속하여 유엽전(柳葉箭)을 쏘아 50여 발을 연속해서 발사한 기록이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이성계가 늘 대우전(大羽箭)을 쓰시어 화살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계¹⁷²⁾가 편전을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공민왕 19년(1370) 정월, 이성계는 종자(從者)의 활을 빌려 편전(片箭)을 쏘아 70여 발이 모두 적들의 얼굴에 명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성계는 이 편전을 종종 저격하듯이 사용할 정도로 정확한 활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¹⁷³⁾

3) 고려시대 선기사의 특징

(1) 중국 사신이 본 고려의 기사

송나라의 사신이었던 서궁은 『宣和奉使高麗圖經』 174)을 통해 고려의

171) 『高麗史』 卷一百二十六, 列傳 卷第三十九

172) 『高麗史』 卷四十二, 世家, 卷第四十二

173) 『高麗史』 卷一百十四, 列傳, 卷第二十七

여러 측면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글과 함께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림은 사라지고 글만 남게 되었다. 송나라라는 전통적인 중화의 관점에서 그 외부인들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점에 대해서는 멸시의 시선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서공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기병에 대한 묘사는 권24 「節仗」에 있어 이들이 기사를 하는 기병임을 알 수 있다. 서공이 본 행렬에서는 신기대(神旗隊), 용호친위(龍虎親衛), 영병상장군(領兵上將軍) 순으로 나오고 영군낭장(領軍郎將)이 있는데 모두 기병(騎兵)으로 이들 모두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는 점을 기록하였다¹⁷⁵⁾

고려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였다. 권23 「雜俗 種藝」에서는 고려의 영토(封地)는 동해에 닿아 있으며, 큰 산과 깊은 골이 많아 산길 이 험하고 산이 높고 험하며 평지가 적다. 그 때문에 농사를 산간에서 많이 짓는데, 지형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개간하는데 힘을 많이 들인다하여 삼국시대 이후에도 반농 반목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¹⁷⁶⁾

권15 「車馬」에서 서공은 고려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산이 많은 고려(麗國)에서는 도로가 험하(坎壘)기에 수레의 이용은 불편한데다 무거운 것을 끌 수 있는 낙타(橐駝)도 없다고 하여 한반도 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중국처럼 수레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¹⁷⁷⁾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려는 금나라(大金)와 멀지 않은 까닭에 준마(駿馬)가 많다고 하여 중국과 달리 수레의 사용은 어렵지만 말을 활용하는 고려의 풍속을 포착하였다.

서공은 오랑캐 금나라와 연결 짓는 시점에서 이미 송의 문화보다 미개함을 표현한다.¹⁷⁸⁾ 특히 중국의 문화와 다른 복식, 활, 말과 관련되어서

174) 서공은 1123년(고려 인종 원년 · 송 휘종 선화 5년)에 중국 송(宋)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공(徐兢, 1091~1153)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는 고려에 한 달여 동안 머물며 기록하였다.

175) 권24 「節仗」 神旗之次, 有錦衣龍虎親衛. 旗頭一名, 騎而前驅, 執小紅旆. 其次, 則領兵上將軍, 其次, 則領軍郎將, 皆騎兵也. 持弓矢, 佩劍, 飾馬之具, 皆有鑾聲. 馳驟甚亟, 頗自矜耀.

176) 高麗, 依山瞰海, 地瘠而磽. 然有稼穡之種, 麻桑之利, 牛羊蓄產之宜, 海物惟錯之美.

177) 麗國多山, 道路坎壘. 車運不利, 又無橐駝. 可以引重, 而人所負載甚輕, 故雜載多用焉.

는 멸시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서궁은 고려의 복식에 대한 멸시의 표현을 감추지 않는다. 신호좌우친 위군이 착용한 높은 모자에 대해서는 제(齊) 영녕(永寧)연간에 고구려(高麗) 사신이 ‘궁고(窮袴)’라는 바지를 입고 ‘거풍(拒風)’이라는 모자를 썼기에 중서랑(中書郎 : 中書侍郎) 왕융(王融)이 의복이 맞지 않는 것(服之不衷)은 몸으로서는 재앙에 해당한다고 멸시했던 일화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서궁이 보기에 지금의 높은 모자를 보니 그 거풍(拒風)의 풍속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였다.¹⁷⁹⁾

그리고 고려의 활과 화살(弓箭)은 그 모양이 간략하여 탄궁(彈弓)과 비슷하다. 비록 화살이 매우 멀리 나가는 해도 위력은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화살이 위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쇠뇌와 비교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자신들의 쇠뇌와 동쪽의 활을 일관되게 비교하였고 쇠뇌의 위력을 자신들의 장기로 삼았다.

그러나 위력이 없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 측에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것인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상한 점이 있다. 이 당시 고려는 송나라에서 수우(水牛)의 뿔(角)을 수입하여 각궁을 만들고 있었기에 원거리 무기로서 궁시(弓矢)를 중요시한 고려로서는 적절치 않은 평가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서궁은 고려에 준마는 많지만 마부(圉人)가 말을 잘 부리지는 못한다고 하며, 말들이 빨리 달리는 것(步驟)은 완전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잘 훈련시킨 덕분은 아니다(不假人力)라고 하였다. 또한 거란(契丹)의 향졸(降卒)들이 고려의 기병에 존재했었는지 이들의 기마술에 대해서는 멸시를 아끼지 않았다. 서궁이 본 수십 기(騎)는 말방울을 울리며 치닫고 안장과 등자(鞍鐙) 사이에서 날뛰는 것으로 이러한 기마

178) 高麗去大金不遠，故其國多駿馬。然圉人不善控馭。其步驟皆自天然，不假人力也。鞍韉之制，唯王所乘，以絳羅繡韉，益以金玉飾。國官大臣，以紫羅繡韉，以銀爲飾。餘如契丹之俗，亦無等差。初使人既到館，卜日受詔，而所奉鞍馬，略如王制。使者，以其僭侈，固辭再四，乃易別馬，如國官所乘者。上節所乘，降使副禮一等，中節又隨等第而殺之。

179) 神虎左右親衛軍，服毳文錦袍，塗金束帶。金花大帽，仍加紫帶，繫於頰下，如紘纓之屬，形製極高，望之巍然。昔齊永寧中，高麗使至，服窮袴，冠拒風。中書郎王融，戲之曰，“服之不衷，身之災也，頭上定，是何物？”荅曰，“此則古弁之遺像也。”今觀高帽之制，其拒風之俗，今猶然也。

술을 보이는 것은 한낱 무용(武勇)을 자랑하려는 것으로 보아 가소로웠다고 평가하였다.¹⁸⁰⁾¹⁸¹⁾

(2) 기사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

고려의 역사는 유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만큼 기사를 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기사와 사냥만을 일삼으며 유학자들을 무시하였는가의 여부와 전쟁에서 큰 공이 있으며, 유학자의 기질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

먼저 기사를 잘하여 사냥에 매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목종, 충혜왕, 우왕 처럼 폐위되거나 기행을 일삼아 평가가 좋지 못한 인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목종은 품성이 침착하고 의젓하여 어려서부터 임금이 될 도량이 있었으나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술과 사냥을 좋아하여 정사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며, 폐행(嬖倖)을 믿고 총애하였다가 화를 입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었다.

충혜왕은 성품이 호협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였으며, 재물과 이익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황음무도하였으니, 소인배들은 뜻을 얻고 충직한 자들은 배척을 당하였고, 누구라도 직언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배어 죽이니, 사람들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평가되었다.

우왕의 경우에는 사냥을 자주 다녔을 뿐 아니라 저잣거리에서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길거리에서 개와 닭 같은 동물들을 기사하여 죽였으며, 명나라의 복식도 따르지 않고 호복을 고집하였다. 격구도 자주하였으며, 군사훈련을 지켜보다가 음주한 채로 자신이 직접 기사를 하면서 술주정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유일하게 왕준(王綽) 만이 왕족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원나라

180) 권12 「仗衛」 領軍郎將騎兵，服飾其等不一。凡紫羅戰袍，白袴皂屨，文羅爲巾，飾以珠貝者，皆麗人也。至服青綠緊絲大花戰袍，其袴或以紫，或以黃，或以皂，髻髮而巾制不表，切附於頂，聞是契丹降卒。使副會于王府，還至奉先庫前，岡阜之上，見前驅數十騎。鳴鑾馳驟，跳梁鞍鐙間，輕銳驍捷，意欲耀武。烏夷僻遠，偶有勁卒，而急於人知，亦可笑也。

181) 癸丑 御重光殿西樓，召投化宋人郎將陳養·譯語陳高·俞坦，試閱兵手，各賜物。

에 불모로 잡혀가 있었으면서도, 유학에 밝았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왕준은 영녕공(永寧公)으로 봉해졌는데, 용의(容儀)가 아름답고, 강개하여 뜻과 지략이 있었다. 기사를 잘하였으며, 책을 읽으면 대의에 통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원사(元史)에 역시 왕준은 기사를 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왕들의 측근에서 간신으로 묘사된 인물들도 있다. 이병은 기사하는 능력으로 관직은 장군(將軍)에 이르렀고, 충렬왕을 사냥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되었다. 또한, 원경은 성격이 사치스럽고 기사를 좋아하였으며, 유학(儒學)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충렬왕(忠烈王) 때 여러 번 승진하여 중랑장(中郎將)이 되었다. 게다가 몽고어에 능하여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칸)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복해는 우왕과의 사냥을 자주다닌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우왕이 멧돼지를 활로 쏘았는데, 멧돼지가 달려들어 말을 들이받으니 우왕이 놀라 떨어졌다. 반복해가 말을 달려 곧장 앞으로 나와 화살 한 대로 멧돼지를 쏘아 죽여 우왕을 살렸고, 이를 계기로 우왕은 반복해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탐욕스런 성격과 방탕한 인물로 묘사된 경우도 있다. 장려와 같이 권귀(權貴)들에게 뇌물을 주어 관직을 사고 성격이 탐욕스럽고 무지하여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적으로부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 광여처럼 여색을 밝히어 음탕하였다고 하며, 이자의는 재물 욕심이 많았으며 무뢰한 용사들을 모아 기사를 일삼았다. 이의풍(李宜風)은 원나라 사람으로 뛰어난 기사 사냥능력을 인정받아 충숙왕(忠肅王)의 총애를 받았으나 매관매직을 일삼고, 여색을 밝히고, 왕에게 아침만 일삼았다는 등의 혹평을 받았다.

무신의 경우에는 호국공신이거나 집안이 좋으면 평가가 좋았다. 윤가관(尹可觀)은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석(尹碩)의 증손(曾孫)으로 무예와 지략이 있었으며 기사를 잘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무신이었던 유실(柳實)에 대해서 날래고 용맹하였으며 기사를 잘하였기에 공민왕(恭愍王) 때 여러 번 옮겨 예의총랑(禮儀摠郎)이 되었고, 신

축년(辛丑年, 1361)에 공민왕을 호종(扈從)한 일과 흥왕사(興王寺)의 변란을 평정한 공로를 기려 모두 2등 공신이 되었다고 하여 유실의 공이 기사에 기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윤가관(尹可觀)은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석(尹碩)의 증손(曾孫)으로 무예와 지략이 있었으며 기사를 잘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김행과는 기사를 잘해 태조(太祖)가 성(姓)을 하사하여 김(金)이라 하였다. 태조가 같이 사냥을 자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문혁(玄文赫)은 어려서부터 기사를 잘하여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여 기사하는 능력이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탁성(奇卓誠) 역시 용모와 태도가 아름다웠고, 기사를 잘하여 처음 교위(校尉)에 보임(補任)되었는데, 의종(毅宗)이 말타기와 격구(擊毬)를 좋아해서 그를 견룡군(牽龍軍)으로 발탁하여 늘 곁에 있게 했다고 기록되었다.

최홍재에 관해서는 기사에 능해 여러 차례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이부에 대해서는 최충헌(崔忠獻)이 대장군 이부(李孚)를 섬으로 유배 보내었을 때 이부가 지략과 용력을 갖추었고 기사를 잘했기에 사졸들이 잘 따라 큰일을 맡길 만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었다.

이자성은 성품이 강직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용력(勇力)이 있고 기사를 잘했다. 동경(東京)을 평정한 뒤부터 장사(將士)들이 날로 그의 문에 몰려드니, 권귀(權貴)가 이를 꺼릴 것을 두려워하여, 질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하였다. 사람들이 기미를 안다고 칭찬하였다.

강민첨은 특이하게도 기사가 그의 장기가 아니었음에도 공을 세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서생(書生) 출신이었으나 의지와 기개가 굳고 과단성이 있어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의 공을 세워 드디어 현달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3) 선기사(善騎射) 하는 인물들의 특성

고려시대의 문헌에는 상당한 지위와 관직을 역임한 관료의 생애에 대

한 공식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다. 김병인(2017)은 『高麗史節要』의 ‘卒記’를 확인한 결과 고려시대 초부터 말기까지 관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품성으로 유교 사회의 특성인 청렴, 근면, 신중, 겸손, 공손, 단정할 것 등이었고, 이에 비해 무신들에게는 용기와 담력, 용맹성 등이 요구되었다고 논의하였다.

고려사회는 문무 양반사회였기 때문에 문신뿐만이 아니라, 무신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존재했는데, 담력과 용기 그리고 기개와 용맹이 강조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담력이 뛰어나다(膽力過人)’, ‘용맹하고 지략이 있다(有勇略)’, ‘성품이 용맹하고 맹렬하다(性勇烈)’, ‘체격과 용모가 우람하고 기세를 부렸다(體貌魁偉, 且使氣)’, ‘의지와 기개가 굳세고 과감하다(志氣剛果)’, ‘기개를 숭상하다(尙氣)’, ‘담력과 지략이 있다(有膽略)’, ‘용력이 있다(有勇力)’, ‘무예가 출중하다(武藝出衆)’ 등이었다.

이는 고려사회가 문무양반 사회였으며, 문무가문의 가풍과 가업의 차이점, 출사방식이 다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기사에 관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사는 문무양반(文武兩班)을 막론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인식되었다. ‘기사를 잘하였다.’, ‘기사를 좋아하였다.’와 관련된 문헌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사실 무반의 인물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에 귀화한 외국인들 역시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은 서공의 평가에서 명확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서공은 고려에서 유학이 행해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기록하였으나, 말타고 활쏘는 행위와 같은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고려의 유학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말타는 행위 활을 쏘는 행위는 고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오랑캐의 습속에서 기인하며, 당시에 여진, 거란, 말갈과 같은 북방민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사에 출중했다는 기록(善騎射, 善射御, 工射御, 左右馳射)’, ‘기사를

자주 익혔다는 기록(騎射爲事, 好騎射, 練騎射, 好射御), ‘기사로 사냥한 기록’, ‘기사로 실제 전투를 한 일화’, ‘활을 잘 쏘았다는 기록’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정리하였다. <표 III-1-1> 를 보면 총 36명의 인물 중 善騎射 또는 善射御라고 표현된 기사에 뛰어났다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인물이 21명, 기사를 좋아했거나 연습하였다고 표현된 인물이 5명, 사냥이나 전투에서 기사로 활약한 묘사가 있는 인물이 10명임을 알 수 있다.

騎射와 射御라는 표현은 모두 말타고 활을 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는 한희유 같이 여러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려사 열전 제신 한희유에 대해서는 善騎射로 표현¹⁸²⁾되어 있고, 고려사절요 충렬왕 32년 기사에는 善射御라고 되어 있다.¹⁸³⁾ 우왕의 경우와 같이 사냥과 관련된 기사가 많은 경우에도 기사와 사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성종대에도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북방의 강역을 방비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토작민들중 사어에 능한 사람들 뽑아야 한다는 주장(選土人能射御者), 정도전이 당의 5조목을 들면서 신당서에 무과의 馬射를 射御로 표기한 점으로 들때 기사, 사어, 마사, 치사 등은 모두 말타고 활 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사의 국가로 알려진 요나라의 역사서에도 사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기사와 사어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¹⁸⁴⁾

표에 열거된 인물들은 대부분 고려사에 있어 최고의 지휘관이거나 전쟁에서 큰 공이 있는 인물들로 기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자질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반 수 이상이 문신으로 기사는 고려시대 당시 문무 양반에 있어서 모두 갖추어야 할 소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2) 『高麗史』, 卷一百四, 列傳 卷第十七

183) 『高麗史節要』, 卷23, 忠烈王五, 7월

184) 『遼史』 권 71 열전(列傳) 제1 후비(后妃), 국역 요사 하, p187 論曰：遼以鞍馬爲家, 后妃往往長於射御, 軍旅田獵.未嘗不從.如應天之奮擊室章, 承天之 御戎澶淵, 仁懿之親破重元, 古所未有, 亦其俗也。

<표 III-1-1> 고려의 기사하는 인물 명단

표현	인물명	신분	표현	인물명	신분
善騎射	왕준	왕족	工射御	권림	문신
善騎射	서공	문신	工書畫射御	조연수	문신
善騎射	한희유	문신	左右馳射	김륜	문신
善騎射	유실	무신	騎射爲事	이자의	문신
善騎射	윤가관	무신	好騎射	충혜왕	왕
善騎射	이병	무신	練騎射	유돈	문신
善騎射	충혜왕의 정예	정기병	好射御	원경	무신
善騎射	박인석	문신	기사 사냥	우왕	왕
善射御	목종	왕	기사 전투	반복해	관리
善騎射	현문혁	무신	기사 전투	지채문	무신
善騎射	이성계	만호	기사 전투	유가량합	여진인
善騎射	장려	무신	기사 전투	최영	무신
善射御	김행과	호족	기사 전투	대란하	발해 유민
善騎射	김정순	문신	기사 전투	이두란	여진인
善射御	기탁성	무신	기사 전투	김경손	무신
善射御	이의풍	원사람	기사 전투	정유	고려 백성
善射御	최홍재	무신	기사 전투	척준경	무신
善射御	이부	무신	추격전	양규	공신
善射御	이자성	무신	善射	고열	흑수출신

고려사절요 문종 10년(1056) 을유일에 수사공 상서우복야로 치사한 고열이 졸하였다. 열은 흑수 사람으로 활을 잘쏘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당시의 명장이었다. 그가 죽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으며, 왕은 사흉 간 조회를 중지하고 백관들로 하여금 장례에 참석하게 했다.

흑수인의 고려 내투는 고려초 태조조부터 기록에 나타난다. 태조 4년(921) 4월에 흑수의 추장인 고자라가 일족 170명을 이끌고 투항해왔다. 일리천 전투에서는 흑수인들은 유금필 휘하의 기병 9,500인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태조이후부터 목종조 까지는 흑수인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이후 현종중기(1017)년부터 다시 흑수인의 입조가 시작된다.

『고려사』 예종(睿宗) 10년¹⁸⁵의 기록을 보면 보면 그 풍속은 흉노(匈

奴)와 같아서, 모든 부락에는 성곽이 없고 산과 들에 흩어져 살았고, 그 지역에는 돼지·양·소·말 등이 풍부하고 준마(駿馬)가 많은데, 그 중에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도 있었다. 사람들은 사납고 용맹하여 어려서는 활로 새나 쥐 등을 쏘아 잡다가 커서는 활시위를 당기고 말을 달리면서 싸움을 익혀 강한 병사가 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물론 흑수인 중 말을 못 타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으나 고열은 수사공 상서우복야(守司空 尙書右僕射)라는 대장군 급 인물이었기에 고열의 선사는 여기서는 선기사로 분류하였다.

2. 북방민족과의 전쟁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특징

고려 건국 당시, 한반도의 북부에는 거란족과 여진족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중 거란족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여러 부족을 통일한 뒤, 916년 요나라(遼)를 건국하였다. 922년(태조 5년) 야율아보기는 고려에 낙타와 말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고려 태조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는 한편 거란에 대해서 ‘금수지국(禽獸之國)’이라 부르고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북진 정책을 실행하였다. 942년 요 태종이 낙타 50필을 보내자 고려 태조는 사신 30인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에서 굶겨 죽여버렸다.

1) 거란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1) 거란 대비 인재선발 방식으로 본 기사

고려의 창업자 왕건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호족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이는 이들과의 혼인관계로 이어졌다. 왕건의 후비(后妃) 중 황해도 동주(洞州)의 호족 출신 김행파의 딸들인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이 있다. 김행파는 기사에 뛰어나(善射御) 김(金)씨 성을 하사받았고¹⁸⁵⁾ 고려

185) 『高麗史』 卷十四, 世家, 卷第十四

전기의 중1품 관직인 대광(大匡)에 이르렀다. 김행파는 고려의 국경지역인 동주의 호족으로 왕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왕건이 김씨성을 하사 하고 그의 딸들이 후비가 될 정도로 이 지방의 실력자였다.

왕건은 〈계묘〉 26년(943) 여름 4월 왕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¹⁸⁷⁾를 내렸는데 이중 아홉째에는 관료의 녹봉을 공적에 따라 녹봉을 정하는 방식과 더불어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로 병졸의 대우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용예가 뛰어난 자(勇銳出衆者)를 사열(閱)하여 편의(便宜)에 따라 벼슬을 더하여라고 하여 사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문종 시기 왕충지의 간언을 보면¹⁸⁸⁾ 국가에서는 매년 중추(仲秋)가 되면 동반(東班)과 남반(南班)의 원리(員吏)들을 교외(郊外)로 불러 모아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왕건이 말한 용예출중자(勇銳出衆者)를 사열하여 우대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사를 장려 하여 국방을 강화한다는 의미하거나 최소한 용예의 조건 안에 기사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중앙집권과 동시에 군사력 확충을 위한 인재선발에 관한 흔적은 947년(정종 2)에 이루어진 광군사(光軍司) 설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광군사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다.¹⁸⁹⁾ 광군의 관장기관인 광군사(光軍司)는 전국의 광군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통수부로서 개경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의 실권자인 호족을 통하여 운영된 듯하다. 그뒤 지방제도의 재정비시기인 1012년(현종 3)부터 1018년(현종 9) 사이에, 광군은 주현군 가운데 일품군으로 개편되면서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광군사가 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성종(成宗) 원년(982) 6월 문신 최승로(崔承老)가 성종에게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을 모두 28개 조목으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솔직

186)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后妃

187)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太祖 26年 4월

188) 『高麗史』 卷八十一 > 志 卷第三十五

189) 『高麗史節要』 卷2 定宗文明大王 定宗 二年

하게 피력한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를 상소하였다. 이 중에서 당시에 어떠한 인물들을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보인다. 이는 28조 중 첫 번째로 등장한다.

一,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糜費者, 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其中二三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芻粟省飛輓之費.¹⁹⁰⁾

병사가 쉬지 못하고 군량이 소모되는 이유가 서북쪽으로 오랑캐들(거란)과 이웃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며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요충지를 선택해서서 경계를 정하시고, 기사에 뛰어난 병사들을 선발(選土人能射御者)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승로의 주장은 『高麗史』 편찬자들에게도 소중한 자료로 여겨져 병지(兵志) 진수(鎭戍)조 에도 실려 있다.¹⁹¹⁾

(2) 무인의 전투 방식으로 본 기사 특성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하며 끝난 거란의 1차 침입에 이어 거란의 성종은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목종이 쫓겨나고 현종이 즉위하게 된 것을 빌미로 친정(親征)을 결정한다. 성종이 직접 나서고 소매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1010년 11월 압록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요 거점은 흥화진(興化鎭)이었다. 여기에는 후술할 양규(楊規)와 정성 등 대거란전에서 맹활약할 인재들이 포진해있었다. 그만큼 당대에 최고의 전력을 갖춘 부대들을 양성하였을 것으로 본다.

거란군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성을 공격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여 수비군 20만을 인주(麟州) 남쪽 무로대(無老代)에 남기고, 200,000명의 대군을 남쪽으로 진격하여 통주(通州)에 이르렀다.¹⁹²⁾ 거란

190) 『高麗史節要』 卷2, 成宗文懿大王, 成宗 元年6월

191) 『高麗史』 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192) 『高麗史』 卷九十四, 列傳, 卷第七

은 고려군을 패퇴 시켰으나 사실 중요한 거점들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거란은 광주를 공격하여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여 12월 9일에는 서경까지 도달했다.

서경유수 원종석이 항복을 준비하고 거란의 사절은 남하 하고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채문이 먼저 군용사 시어사(軍容使 侍御史) 최창(崔昌)과 함께 진격하여 강덕진(剛德鎭)에 도착했다. 지채문은 서경유수가 항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서경 내부의 세력들과 협조하여 성안으로 진군했고, 성의 북쪽에 척후를 보내어 거란 군영으로 돌아가는 사절단을 기다렸다가 불시에 쳐서 그들을 죽이(掩殺)고 항복의 의사를 전하는 표문(表)을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지채문의 서경 입성에서 부터 거란의 사절단 엄살(掩殺)까지 지채문 부대의 빠른 기동력과 전투 능력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항복의 여지를 잃어버린 서경의 세력들은 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채문이 성의 남쪽으로 나가 진을 쳐도 오직 대장군(大將軍) 정충절(鄭忠節)만이 지채문의 편에 있는 상황에서 함경도 방면에서 온 탁사정의 본대가 서경에 도착하며 전황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지채문은 탁사정과 합류하여 다시 서경으로 입성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현종의 조회 요청 표문(表請朝)이 거란의 성종에게 도착한다. 이에 성종은 서경 주변의 약탈을 금지하고 을름(乙凜)으로 하여금 기병 1,000기(騎兵一千)를 거느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임명한 마보우(馬保佑)를 호송하게 하였으며, 함문인진사(閣門引進使) 한기(韓杞)로 하여금 돌격 기병 200기(突騎二百)를 거느리고 서경 북문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탁사정이 지채문과 함께 모의하여 휘하의 정인(鄭仁) 등으로 하여금 용맹하고 날랜 기병(驍騎)을 거느리고 돌격하게 하였다(突出擊). 한기 등 100여 명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으니, 살아서 돌아간 자가 하나도 없었다. 직 후에 다시 탁사정은 지채문을 선봉으로 하여 나가 을름과 전투하게(戰) 하니 을름과 마보우가 패하여 도망하였다(敗走). 이에

성 안의 사람들이 조금 안정되자 탁사정은 성안으로 돌아오고 지채문과 이원(李元)은 자혜사(慈惠寺)로 나가 주둔하였다.¹⁹³⁾

지채문은 강조의 대패 이후 서경의 위급 상황 수습을 위하여 속전속결로 대응하였다. 현종의 명을 받고 서경을 구하기 위해 개경에서 출발하여 거란군보다 먼저 도착하였으며, 내분이 있는 서경성에 진입하여 항복 사절단을 엄살(掩殺)하고 빠르게 서경을 전투 태세로 돌려놓았다. 거란측 한기(韓杞)의 돌격 기병 200기(突騎二百)를 상대로 고려의 용맹하고 날랜 기병(驍騎)을 거느리고 돌격하게 하여(突出擊) 완전 승리하였다. 을름과 마보우의 대군을 상대로 선봉에 서서 영격(迎擊)하여 두 번이나 이들을 큰 피해를 입히고 패퇴시켰다.

서경을 수비하면서 보여준 이러한 지채문의 속도전은 지채문의 기병전술과 기사능력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현종을 호종하는 지채문이 기사하는 모습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

1010년 12월 29일(음)에 적성현(積城縣) 단조역(丹棗驛)에 이르자 무졸(武卒)인 견영(堅英)이 역인(驛人)들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 장차 행궁을 범하려고 하니, 지채문이 말을 달리면서 기사(馳射) 하여 패주시켰다. 이들이 다시 서남쪽의 산으로부터 갑자기 튀어나와 길을 막자 지채문은 또 다시 기사를 하여 그들을 물리쳤다(射却).

1011년 1월 5일(음)에는 사산현(蛇山縣)을 지날 때, 지채문은 여러 기러기들이 밭에 내려앉은 것을 보고는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躍馬而前). 기러기들이 놀라 날아오르자 몸을 돌려(翻身) 올려다보며 활을 쏘았으며(仰射), 화살로 명중하여 떨어뜨렸다.

기록된 바와 같이 지채문은 순간적으로 말을 몰아 활을 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말에서 자유롭게 몸을 돌려 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듬해 거란군이 철수한 뒤 전공으로 전토 30결(結)을 하사받고, 1026년(현종 17)에는 상장군(上將軍)·우복야(右僕射)가 되었다. 1031년(덕종 즉위) 1등공신에 추록되었다.

193) 『高麗史』 卷九十四, 列傳 卷第七

양규의 포로구출작전에서도 기사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12월 16일 홍화진의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나온 양규와 700명의 결사대가 통주(通州)에 도착했다. 거란군이 홍화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주(麟州) 남쪽 무로대(無老代)에 남긴 200,000의 거란군을 뚫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곳에서 고려군을 수습하여 약 1천 명 이상의 군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부터 양규의 부대의 거란군을 웃도는 속도전이 펼쳐진다.

곽주(郭州)를 확보한 거란은 군사 6,000여 명을 잔류시켜 그 성을 수비하게 하였다. 양규(楊規)는 홍화진(興化鎭)에서 군사 700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1,000명 정도의 군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양규의 부대는 밤중에 곽주(郭州)로 들어가 잔류한 6,000의 거란 병사들을 공격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으며, 성(城) 안에 있던 남녀 7,000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약 6배 많은 거란군과 상대하여 전멸시키고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 낸 것이다. 밤에 곽주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별동대를 구성하여 야간에 습격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⁴⁾

임용한(2004 : 181)이 제시한 거란군의 퇴각 속도는 하루에 약 50km였다. 양규와 김숙홍의 고려군은 이러한 거란군을 상대로 추격전을 벌였고 특히 양규군은 포로들을 해방하는 작전을 동시에 편 것이다. 거란군이 비록 지쳤다고 하나 빠르게 퇴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규군이 보병들만으로 추격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기병들만으로 구성된 부대는 아니었겠지만 주로 기병들을 활용하여 추격전을 벌였다고 본다. 그리고 양규군처럼 소수의 기병대로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전투에서 기사(騎射)의 활용은 필수이다.

『高麗史節要』에 양규와 김숙홍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추격전을 벌여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고려인 포로들까지 구출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성종이 이끄는 본대에 포위당하여 장렬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규와 김숙홍의 전투는 애전(艾田)에서 거란(契丹)의 선봉대를 급습하여 1,000여 급의 머리를 벤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거란의 군주가 이끄

194) 『高麗史』 권94, 열전, 권제7

는 대군을 상대로 양규는 김숙흥(金叔興)과 더불어 종일토록 힘써 싸웠으나 전멸한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節要』의 기록에서는 패전의 이유를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졌기에 모두 진영이 무너져 전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달 사이에 벌어진 양규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양규는 고립된 군대를 데리고 한 달 사이에 총 7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사살한 거란의 병사들¹⁹⁵⁾이 매우 많았고, 사로잡혔던 백성 30,000여 구를 되찾았으며, 획득한 낙타, 말, 무기, 기계(駝馬器械)들은 이루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¹⁹⁶⁾는 것으로 보아 거란의 병사들을 사살해 가면서 이들에게서 말과 무기들을 확보하며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현종이 직접 양규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현종은 양규가 중군(中軍)에서 용맹을 떨치며 군사들을 지휘하여(中軍鼓勇, 指揮士卒)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원수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아 있는 힘을 다해 나라의 강역을 안정시켰다. 한 번 칼을 뽑으면 만인이 다투어 도망가고, 강궁(六鈞)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으니, 이로써 성(城)과 진(鎭)이 보존될 수 있었다¹⁹⁷⁾고 하여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양규군의 활약은 추격과 강력한 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⁸⁾

거란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지채문과 양규 모두 거란기병의 속도를 뛰어넘는 병사 혹은 기병대 운용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전면전에서도 거란의 기병을 압도하였다. 이렇게 빠른 기동전을 펼치며 소수가 다수를 상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활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이다.

195)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高麗史節要 卷3, 顯宗元文大王 顯宗 二年 1월에서는 사살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는 화살이 다 떨어진데 근거 한 것으로 보인다.

196) 『高麗史節要』 高麗史節要 卷3, 顯宗元文大王, 顯宗 二年 1월

197) 『高麗史』 卷九十四, 列傳 卷第七

198) 전공으로 공부상서(工部尙書)에 추증되고, 부인 은율군군(殷栗郡君) 홍씨(洪氏)에게는 교서와 함께 양곡 100석이 하사되었으며, 아들 양대춘(楊帶春)에게는 교서랑(校書郎)이 제수(除授)되었다. 1019년(현종 10)에 공신녹권(功臣錄券)이 내려지고, 1024년에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에 추봉(追封)되었다. 또 문종(文宗) 때 양곡 100석이 하사되었으며, 공신각(功臣閣)에 도형(圖形)되었다.

(3) 거란과의 전쟁 후 군사훈련으로 본 기사

3차 전쟁이 끝난 뒤에도 거란 성종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고,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사대 관계를 회복할 것을 청하니 명분도 없어서 결국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양국 간의 오랜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시기에 현종(顯宗)은 앞선 3차에 거친 거란의 침략 이후에도 계속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 10년(1019) 9월에 함화문(咸和門)에 가서 6위(衛) 장교(將校)가 기사하는 것을 사열하였고,¹⁹⁹⁾ 11년(1020) 9월에 같은 장소인 함화문(咸和門)에 나가 여러 장수들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사열하였다.²⁰⁰⁾

뿐만 아니라 활쏘기도 따로 연습한 것으로 보인다. 9년(1018) 2월에 선화문(宣化門)에 가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해군(海軍)과 노군(弩軍) 2군의 교위(校尉)와 선두(船頭) 이하에게 차(茶)와 베(布)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²⁰¹⁾

20년(1029) 윤2월에 처음으로 문관(文官) 4품 이상으로서 나이가 60세가 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매 휴가일마다 동교(東郊)·서교(西郊)에서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였다. 중외(中外) 군사(軍士)가 피를 내어 정역(征役)을 면제받으려고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²⁰²⁾

거란의 거듭된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고려는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거란도 고려를 힘으로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거란에게 압박을 당했던 송은 고려의 국력을 재평가하며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재편 속에서 고려는 거란 및 송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199)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0)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1)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2)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 여진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1) 여진대비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

고려는 거란의 3차에 걸친 침공을 막아내며 동아시아의 패자로 지위가 상승했지만 가장 인접한 세력인 여진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었다. 2장에서 논하였듯이 기사의 역사에서는 여진은 숙신, 말갈 등의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모두가 이들의 활과 화살을 두려워했던 강력한 민족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이들이 모두 생여진, 동여진 등으로 불리었고, 고려의 국경과 인접한 곳에 자리한 민족이었다. 예와 맥처럼 여진의 사람들은 고구려, 발해와는 함께 나라를 이루었고, 수, 당 그리고 거란의 전쟁 때는 함께 싸웠다.

고려시대에 생여진(生女眞)인들은 흑수말갈(黑水靺鞨) 또는 동여진(東女眞)으로 불리었는데 고려는 이들을 미개한 사람들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화가 인식한 북방의 오랑캐와 같이 풍속이 흉노와 같아 문자가 없으며, 좋은 말이 나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릴적부터 활을 잘 다루어 성인이 되면 모두 기병이 된다고 하여 삼국지에 묘사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오랑캐로 묘사되었다.

고려가 무시하던 여진인들²⁰³⁾은 여진의 유력세력인 완안부(完顔部)의 추장으로 영가(盈哥: 훗날 목종 1085)가 추장이 되며, 고려 접경지역의 여진부족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간도지방을 거쳐 두만강 북부 함경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갈라전(曷懶甸)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103년에서 1104년에 걸쳐 완안부는 갈라전과 이 지역 부락들을 복속시키며 고려의 접경까지 영향력을 키우게 되었다.

사실 여진에 대한 대비는 문종시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무

203) 『高麗史』 卷十四, 世家 卷第十四, 睿宗 10年 1월 여진의 유력세력인 완안부(完顔部)가 성장하는 배경에 고려인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고려인 승려와 여진인 여성은 고을태사(古乙太師)를 낳았고, 고을태사가 활라태사(活羅太師)를 낳았고, 활라태사는 아들을 많이 두었다. 장남이 핵리발(劔里鉢)이고 막내아들은 영가(盈歌)였는데, 영가가 지혜와 용맹이 가장 빼어나 민심을 얻었다. 영가가 죽자 핵리발의 장남 오아속(烏雅束)이 지위를 계승하였고, 오아속이 죽자 그 동생 아골타가 그 자리에 올랐다.

방하다. 도병마사였던 왕충지의 간언을 보면 거란이 침입한지 약 30여년 만에 헤이해진 기병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 문종(文宗) 4년(1050) 10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 왕충지(王寵之)는 국가의 방비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은 간언하며²⁰⁴⁾ 국가에서는 매년 중추(仲秋)가 되면 동반(東班)과 남반(南班)의 원리(員吏)들을 교외(郊外)로 불러 모아 기사를 익히게 한다고(敎習射御) 하였다.

이와 동시에 여러 위(衛)의 군사들은 농한기를 틈타 금고(金鼓)·정기(旌旗)·좌작(坐作)의 규칙을 훈련하였고, 마군(馬軍)은 모두 연습(練習)하지 않다고 하여 훈련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선봉마병(先鋒馬兵)을 선발하여 1대(隊)마다 말의 갑옷(馬甲) 10벌(副)을 지급하여 달리고 쫓는 것을 익히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기사는 원리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훈련중이었고, 별도로 마군의 훈련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어사대(御史臺)·병부(兵符)·6위(六衛)로 하여금 그 교열(敎閱)을 관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²⁰⁵⁾

윤관이 여진에게 패한 1104년 이전 기록을 보면 숙종대에 6건의 사열 기록이 보인다. 이중 기사 훈련이 3건이고, 마대 훈련 후 과녁에 활쏘기 사열 1건, 기병 훈련 1건, 활쏘기 훈련 1건으로 기병 훈련이 기사를 위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종(肅宗) 원년(1096) 8월에 귀령각(龜齡閣)에서 무반(武班)의 장군(將軍) 이하 대정(隊正) 이상의 기사(射御)를 4개월간 사열한 기록이 보인다.²⁰⁶⁾

숙종대에 활쏘기를 사열하는 공간²⁰⁷⁾과 기병을 사열하는 공간은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기사와 기마대 훈련은 귀령각(龜齡閣), 장경사(長慶寺)에서 이루어 졌다. 귀령각에서는 활쏘기, 무사, 기사 사열을 다양하게 시

204) 四年十月 都兵馬使王寵之奏, “傳曰, ‘安不忘危,’ 又曰, ‘無恃敵之不來, 恃吾有備,’ 故國家每當仲秋, 召會東南班員吏於郊外, 敎習射御. 而況諸衛軍士, 國之爪牙, 宜於農隙, 敎金鼓旌旗坐作之節. 又馬軍, 皆不練習, 請先選先鋒馬兵, 每一隊, 給馬甲十副, 俾習馳逐, 仍令御史臺·兵部六衛, 掌其敎閱.” 從之.

205)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6)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7) 숙종대 부터는 활쏘기를 정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동지의 사정(東池射亭)에서 1건, 동지(東池) 1건, 흥복사(弘福寺) 근처 1건, 회복루(會福樓) 2건, 창화문(昌化門) 2건

행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기병과 기사를 훈련하는 곳이었다. 장경사에서 서는 1102년 10월 미상(음)에는 과녁을 맞추는 기사 훈련을 했다는 자세한 기록이 보인다. 숙종이 장경사(長慶寺)에 행차하여 양경(兩京)과 정주(靜州)의 장사(將士)와 마대(馬隊)를 사열하고, 재추(宰樞)와 호가신료(扈駕臣僚)에게 활로 과녁을 쏘도록 명령하여 적중한 자에게는 구마(廐馬)와 능견(綾絹)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²⁰⁸⁾고 하여 기마대 훈련과 동시에 기사 훈련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재추와 관련하여 1102년 6월에 동지(東池)의 귀령각(龜齡閣)에 가서 재추(宰樞)를 불러 기병(騎兵)을 사열하고 상(賞)을 하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재추는 기병 사열의 대상이었고, 귀령각에서 주로 기사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추를 불러 기사 연습을 시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⁰⁹⁾

(2) 신기군 창설과 기사의 관계

비록 기사를 중심으로 한 기병 훈련은 하고 있었어도 여진의 기병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진 정벌에 실패한 윤관은²¹⁰⁾ 1104년 12월에 별무반(別武班)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별무반은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신기군(神騎軍)으로 편성되었고, 후자는 신보군(神步軍)·도탕군(跳蕩軍)·경궁군(梗弓軍)·정노군(精努軍)·발화군(發火軍)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신기군이 되려면 과거를 보아야 했다. 나이 20세 이상의 남자 중 과거를 보지 않는 자는 모두 신보군에 속하였다.

별무반이 만들어진 이후에 1105년 9월 숙종이 직접 영작원문(營作院門)에서 기사를 사열²¹¹⁾한 기록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양반(兩班)은 여러 진(鎭)·부(府)의 군인과 함께 사시사철 훈련하고 또 승도(僧徒)를 선발하

208)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09)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 一

210) 『高麗史節要』 卷7, 肅宗二, 肅宗 九年 12월

211) 『高麗史』 卷十二, 世家 卷第十二, 肅宗 10年 9월

여 향마군(降魔軍)으로 삼아, 다시 거병할 것을 꾀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별무반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왕이 직접 사열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예종 즉위 후 1106년 11월 6일(음) 계사 윤관(尹瓘)과 오연충(吳延寵)이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을 사열하였다.²¹²⁾ 그 이듬해 1107년 윤10월 예종은 여진(女眞)을 정벌하려고 순천관(順天館) 남문에 나아가 열병하여 여진 정벌 준비를 마친다. 윤관의 패전 후에 3년 도 안 되는 기간에 여진 정벌 준비를 마친 것이다.²¹³⁾

별무반의 신기군은 소속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기병부대 보다 훨씬 우수한 무사들이 선발되었다. 실제 신기군에는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영(閔瑛)이란 인물의 묘지명을 보면 당시에 신기군이 어떠한 인재를 선발 하였는지 엿 볼 수 있다. 민영(閔瑛)은 사람됨은 호방하고 씩씩하여, 어려서 매와 개(鷹犬)로 익렵(弋獵)²¹⁴⁾하는 일을 좋아하였으며, 말을 달리고 격구(擊毬)하며 벼슬길을 구하지 않았다.²¹⁵⁾

아버지 민효후는 동계병마판관(東界兵馬判官)이었는데 적국(敵國)과 싸우다 사망하였다. 이로써 한을 품고 복수로 아버지의 치욕을 씻고자 생각하였다. 마침 예종(睿廟)이 동쪽 오랑캐(東虜)를 정벌할 때를 만나 신

212) 『高麗史』 卷十二, 世家 卷第十二, 睿宗 元年 11월

213) 『高麗史』 卷十二, 世家 卷第十二, 睿宗 2年 윤10월

214) 날짐승을 활로 쏘아 잡고, 길짐승은 쫓아가 잡음. 사냥.

215) 『後漢書』 卷120 烏桓鮮卑列傳 第80. 烏桓者, 本東胡也. 漢初, 匈奴冒頓滅其國, 餘類保烏桓山, 因以爲號焉. 俗善騎射, 弋獵禽獸爲事. 오환 사람들은 기사에 뛰어나 새와 짐승을 익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舊唐書』 卷199 上·下 열전 第149 東夷·北狄. 에는 몽골의 원류인 실위(室韋)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위의 병기(兵器)에는 각궁(角弓)과 고시(楛矢)가 있었고 활쏘기를 특히 잘해 때마다 모여 익렵(弋獵)을 행하고 일이 끝나면 흩어졌다. 兵器有角弓楛矢, 尤善射, 時聚弋獵, 事畢而散. 『宋高僧傳』 卷第14 明律篇 第四之一 唐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에는 釋眞表 者, 百濟人也. 家在金山, 世爲弋獵, 表多躡捷, 弓矢最便. 라하여 석진표는 백제인으로 집이 금산에 집이 있어 대대로 익렵 했는데 진표는 몸이 많이 가볍고 빨라 궁시에 최고로 편했다고 하여 익렵에 활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한시기부터 송시기 까지 익렵은 주로 동북 방면의 민족들의 사냥을 지칭했으며,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기마 사냥이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卷118 列傳 卷第31에는 조준이 올린 시무책 중에 사냥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서 익렵이 기마 사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州郡因朔膳使客供支等事, 雖當盛農, 驅集農民, 馳騁荆棘, 旬月弋獵.

기군(神騎)이 되기를 청하였다. 갑신년(숙종 9년, 1104)·정해년(예종 2년, 1107)·무자년(예종 3년, 1108)·기축년(예종 4년, 1109) 4년 동안 변방에서 근무하며(赴防) 매년 선봉으로 돌진하여(每爲選鋒突騎) 적을 사로잡거나 물리친 것(擒賊却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每爲選鋒突騎).²¹⁶⁾

이 시기 별무반의 설립과 같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진 정벌을 위해 많은 무인들을 모였다. 황주(黃州) 사람 김정순(金正純)이 이러한 경우로 한미한 가문 출신이나 기개를 숭상하고 용감하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다(善射御). 김정순은 예종(睿宗) 때에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정벌하자 종군(從軍)을 자청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승진하여 합문지후(閣門祇候)가 되었다가 화주(和州)와 수주(水州) 두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후에 김정순은 인종(仁宗) 때에 서경(西京)에서 묘청의 반란이 일어나자 도병마사(都兵馬使)로서 김부식(金富軾)을 따라가 적을 평정하여 추밀원좌부승선(樞密院左副承宣)의 벼슬을 받고 금대(金帶)를 하사받았다.²¹⁷⁾

남경(南京) 사람 인걸(仁傑)은 다른 사람보다 날쌔고 용감하였다(勇悍過人). 신기군(神騎軍)에 속했다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남북으로 출몰하여 약탈하였다. 하루는 개경으로 들어왔는데 나졸(邏卒)들에게 발각되어 이 소식을 접한 최이가 10여 명의 기병들을 파견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인걸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기병의 말 뒤에 도약하여 올라(仁傑自馬後騰上), 기병을 잡고 아래로 내팽개치고(摔曳下) 그 말을 빼앗아 달아나자(奪其馬以走) 나머지 기병들이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餘騎追不及).²¹⁸⁾

실제 신기군에는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도적이 된 인걸의 일화만 보아도 최이의 10여 기병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다. 기마 상태의 사람 뒤에 올라타 그 사람의 말을 탈취 할 수 있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말에 오르내리는데 능숙했으며, 또 말 탄 사람을 말 위에서 아래로 떨어트릴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결정적으

216) 묘지명·묵서명 | 墓誌銘·墨書銘 > 민영묘지명

217) 『高麗史』 卷九十八, 列傳 卷第十一

218) 『高麗史』 卷一百二十九, 列傳 卷第四十二

로 자기 말이 아니었음에도 오르자 마자 말의 특성을 간과하여 추격하는 기병을 따돌릴 정도로 말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기마술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별무반이 설립되고 신기군이 기병의 주축이 되면서 기사를 사열하였다는 기록은 자취를 감춘다. 왕이 직접 기사를 사열했다는 기록은 1105년 숙종 10년 9월. 영작원문(營作院門)에 임어하여 기사(射御)를 사열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 이유는 위에 제시한 민영(閔瑛)과 인결(仁傑)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기군(神騎軍)의 구성원은 이미 기마술, 기사사냥 그리고 격구까지 익숙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이 승인문(崇仁門) 밖에서 사열한 기록처럼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처럼 병종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외에 정노(精弩)·도탕반(跳盪班) 등 보병의 사열이 추가되었으며, 활쏘기 사열은 따로 10번 진행되었다. 중광전 외에는 따로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장령전, 복녕문, 청연각, 장락문에서 사열이 이루어졌으며, 가창루, 상춘정에서는 연회 중 활쏘기를 하였다.

본격적으로 여진 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한²¹⁹⁾ 1106년 11월 6일(음) 계사(癸巳), 윤관과 오연총이 계사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이 승인문(崇仁門) 밖에서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을 사열한 기록 이후로 1109년에는 2월에 두 번 3월에 1번 건덕전(乾德殿), 신봉문(神鳳門), 중광전(重光殿) 근처에서, 1110년 1월에 한번 9월에 두번 중광전(重光殿), 남명문(南明門) 근처에서, 1114년 8월과 1115년 10월에는 동지(東池)의 귀령각(龜齡閣)에서 6도(道)의 신기군(神騎軍)의 장수와 사졸을 사열하였다. 특히 동지(東池)의 귀령각은(龜齡閣) 숙종대부터 꾸준히 기사를 사열하던 곳이다.

219) 이후 실제 여진 정벌을 위한 원정을 편 예종대에는 사열한 기록이 없다. 그 대신 예종은 예종 원년(1105) 2회 부터 3년(1108), 5년(1110), 6년(1111), 9년(1114), 10년(1115), 11년(1116), 13년(1118), 14년(1119) 2회 14까지 가장 많은 활쏘기 기록이 존재한다. 예종은 시를 지으며, 시종(侍從)과 장상(將相)에게 시합을 시키며, 잔치를 열며 활쏘기를 사열한 것으로 보인다. 놀이로서 활쏘기를 즐긴 듯 보인다.

(3) 무인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성

윤관의 기병이 아니라는 언급은 실제 기병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척준경의 전투에서 알 수 있다. 척준경(拓俊京)은 곡주(谷州) 사람으로 선조는 그 주의 아전(吏)이었다. 숙종(肅宗)이 계림공(鷄林公)이 되자 그 부(府)에 종자(從者)가 되었다가 마침내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로 임명되었다. 척준경은 특이하게도 보통 기사를 잘한다고 평가되는 다른 무사들 외에도 창, 검 및 모든 무예에 출중한 인물로 묘사된다.

고려사에는 척준경이 기사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척준경은 고려가 치른 첫 번째 여진과 전투 과정에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숙종 9년(1104)에 고려 측은 여진의 침입에 대응하여 임간(林幹)을 보내어 정벌하게 하였다. 이 부대에 척준경이 같이 출전하였다. 금사의 기록에서처럼 고려군은 대패하고 여진기병의 추격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高麗史節要』의 기록에는 임간(林幹)이 공을 바라고(幹又邀功)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引不教之兵)을 이끌고 서둘러 나가 전쟁에 참여하니(遽出與戰), 패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고 되어있다. 임간부대의 패전 원인을 전투에 투입된 고려 군사들의 수준과 임간의 작전능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임간이 여진과의 실전 경험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임간은 결정적으로 퇴각하는 고려군을 상대로한 여진기병의 추격 섬멸전을 막지 못하여 자신이 지휘한 군사의 반이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다.

숙종의 사열 기록을 볼 때 고려의 군사 훈련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에 실제 이 시기의 고려 군사들의 훈련이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간의 지휘력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반면,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 척준경(拓俊京)은 여진의 기병에 대한 대응책을 알고 있었다. 척준경은 개인적인 무공이 뛰어났고 낮은 직급에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간에게 부탁하여 무기와 갑옷 입힌 말을 청(請兵器·介馬)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 한 명을 베고(斬其將一人) 야군 포로 두 명을 되찾았다.

또한, 마침내 교위(校尉) 준민(俊旻)·덕린(德麟)과 함께 활을 쏘아 각각 한 명씩을 거꾸러뜨리자 적들이 약간 물러났다(賊少却)고 되어 있는데 척준경이 임간에게 개마와 무기를 청하면서 소규모의 기병대가 같이 출전한 것으로 보인다. 척준경이 퇴각하려는데(俊京將退) 적이 100기(騎)로 추격해오니(賊以百騎追之) 또 대상(大相) 인점(仁占)과 함께 적장 두 명을 활을 쏘아 죽였다(射殺賊將二人). 적들이 감히 전진하지 못하니 아군은 무사히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20)

척준경, 준민(俊旻), 덕린(德麟), 인점(仁占) 기사로 적을 쓰러트린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진 추격기병 100기와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아 척준경이 임간에게 개마와 무기를 청하여 출격할 때 소규모의 기병대와 같이 출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100기는 여진 특유의 맹안모극제에 의한 1모극 기병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척준경이 무기를 청하였다는 부분에서 개마(介馬)로 표현된 고려의 중갑기병이 썼던 무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척준경은 개마(介馬)를 탄 상태로 적진에 들어가며 적장 한명을 벤(斬其將一人) 무기, 교위들과 함께 쏘아 거꾸러트린(射殪一人) 무기 두 종류를 사용하였는데 참(斬)한 무기는 검(劍) 혹은 도(刀)와 같은 날붙이 무기 종류였을 것이고, 연속으로 적장을 쏘아 거꾸러트린 무기는 활과 화살이었을 것이다.

이 전투로 임간 및 병마사 좌복야(兵馬使 左僕射) 황유현(黃俞顯), 부사 대장군(副使 大將軍) 송충(宋忠), 호부시랑(戶部侍郎) 왕공윤(王公胤), 우승선(右承宣) 조규(趙珪)의 패전 책임을 물어 파직당했지만, 척준경은 천우위 녹사참군사(千牛衛 錄事參軍事)에 제수되었다.

짧은 기록이지만 척준경의 여진 기병에 대한 대응에서 당시의 전황을 엿볼 수 있다. 척준경은 여진기병의 장갑이 두껍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갑을 착용한 말을 청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중장기병으로 돌격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가 포로를 두명이나 구출하고 그 기세를 탄 교위(校尉) 두명과 혹은 애초에 임간에게 중장기병대를 청한 걸로 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여진 기병이 물러날 정도의 화살 사격

220) 『高麗史』 卷一百二十七, 列傳 卷第四十, 叛逆

을 하였다.

결정적으로 여진 기병의 추격전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척준경은 퇴각을 준비 하면서 그리고 고려군이 성안에 모두 안전하게 들어갈 때 까지 여진군의 추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사의 기록처럼 고려의 장군들은 여진 기병의 추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척준경은 중장기병대로 기사(騎射) 하면서 최고의 정예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100의 여진 기병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려 측에서는 윤관의 지도하에 동북 9성을 세우기도 했지만 겨우 2년 만에 반환해야 했다. 예종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른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여진족을 공격했고, 결국 동북 9성을 차지한 지 2년 만에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참패(갈라수 전투)하게 된다. 또한 동북 9성으로 인한 재정 부족이 날로 심해지자 고려는 결국 동북 9성을 포기하게 된다. 이후 동북 9성의 책임자인 윤관은 중앙에 복귀하지 못하고 파직당한다.

여진은 이후 금나라로 발전하면서 요나라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며 중국대륙의 북쪽을 점령했는데도 고려를 단 한 차례도 침공하지 않았다. 2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금나라도 고려 군사력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다.

이후 여진이 금을 건국하고 2대 태종이 1125년에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는 손쉽게 1127년 1월 9일에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점령하여 송나라(북송)은 멸망하였다. 1234년 몽골에 의하여 멸망할때까지 고려를 침입하지 않았다.

3) 몽골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양상과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고려의 전반기의 역사에서는 거란, 여진과 전쟁을 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이와외의 연장선상에서 13세기 전후 고려의 중반과 후반의 역사에서는 몽골제국과의 전쟁 그리고 그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가 최씨의 무단정치(武斷政治)하에 있는 동안 중앙아시아 대륙에서는 테무친이 등장하여 몽골족을 통일하고, 1206년 경 칭기즈 칸이라 칭하고 강대한 제국(帝國)으로 군림하였다. 몽골은 13세기 초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규합되었고, 유라시아 전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고려 역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합류하게 된다.

고종 18년(1231년) 몽고의 제1차 침략 당시 거란과 여진을 상대로 한 방어 거점으로 기능해온 군·현(郡縣) 중심지의 성(城)은 완전 다른 공략 방식의 몽골군에 대항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주(黃州)·봉주(鳳州) 및 북계(北界)의 여러 주진(州鎭)에서 해도입보(海島入保)²²¹⁾가 이루어졌다. 몽고의 제1차 침입은 1231년 12월 여·몽·양국 간의 화친(和親)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1232년(고종 19) 6월 무신 집권자 최우(崔瑀)의 재항전 의도 속에 강화천도(江華遷都)가 단행되었고, 그 이후로 고려는 몽고와 30년에 걸친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1) 몽골대비 별초의 편제에 보이는 전통적 특성

몽골 기병은 행군하다가 성을 만나면 포를 쏘아 성을 함락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때 고려군은 청야수성전을 기본으로 대응하다가 몽골군 진영에 틈이 보이면 성 밖에서 기병 돌격전을 감행하였다. 특히 주변의 성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방어를 굳게 하였다(이홍두, 2007). 이러한 작전 수행은 『高麗史』에 의하면 주로 별초(別抄)에 의하며 수행되었다. 그렇기에 몽고와의 전투에서 기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별초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 별초(別抄)의 편성은 중앙군에도 있었지만, 지방군에도 있었다. 별초의 기원은 앞서 살폈듯이 숙종(肅宗) 여진을 정벌하기 위하여 편성된 별무반(別武班)에서 찾을 수 있다. 별무반은 북방민족의 기병과 전

221) 최우정권은 강화천도가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과 병행하여 각 도(道)에 사신을 보내 민인들을 산성과 해도로 입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몽고군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장기전을 치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도인 강화로 천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각 지역은 해도(혹은 산성)에 입보토록 한 것이다.

면전을 벌이기 위해 창설한 기동적인 특수부대로서 별초의 성격과 그대로 부합한다. 별초에 대한 기록은 무신정권시대인 1174년(명종 4) 이후에 많이 보이는데, 경주별초군(慶州別抄軍)·전봉별초(戰鋒別抄)·경주별초(慶州別抄)·신기군(神騎軍) 또는 신기반(神騎班)·야별초(夜別抄)·좌별초(左別抄)·우별초(右別抄)·신의군(神義軍) 등으로 표현된다(김상기, 1954).

신기군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기에 별무반의 한 부류였거나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이어진 것이 분명하여, 이것을 보면 별무반은 후세 별초 편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별초 또는 경주별초군과 같은 명칭으로 미루어보아 지방군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전봉별초처럼 기능에 따라 여러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야별초나 삼별초(三別抄) 등도 별초의 일종이다. 즉 무신정권대의 기록에 보이는 별초는 고려시대 정규군 이외에 결사대(決死隊), 선봉대(先鋒隊), 별동대(別動隊)의 성격을 가졌던 특수부대(特殊部隊)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우왕(禡王) 3년(1377) 7월 야별초와 관련된 기록에 별초의 특징을 유추 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개성부(開城府)에서 올린 장계(狀啓)에 왜적(倭賊)에 대한 방비에 대한 내용에서 야별초가 등장한다. 야별초(夜別抄) 3번(番)은 모두 보졸(步卒)로서 용력(勇力)이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여 야별초가 보졸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적들에 대한 고려의 방비과정에 약한 말과 궁핍한 백성들을 강제료 마병(馬兵)이라 하여 활쏘기와 말타기의 능숙함과 능숙하지 않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쓰지 못할 활과 화살로써 군액(軍額)을 채웠습니다고 하여 위 야별초 3번 외에는 마병의 기사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료의 결론은 기사를 잘하고 용감한 자는 마병(馬兵)으로 삼고, 민군(民軍)은 곧 보졸로 삼아 적(賊)의 선봉을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²²²⁾

구산우(2020)는 이렇게 고려시대 전반의 군편제와 전투에 동원된 병종

222) 『고려사』, 권81, 지 권제35, 병1(兵 一), 병제, 七月. 開城府狀曰, “其一, 倭賊向京城對戰事則曰, 我國家夜別抄三番, 皆步卒有勇力者也, 近年以來, 倭賊深入陸地, 弱馬窮民, 強稱馬兵, 不論射御能否, 皆以凋弓殘箭, 以具軍額.

과 군사적 규모에 대하여서도 별무반과 신기군 그리고 별초까지의 병종 구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왕건이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후백제와 고려가 최후로 벌인 일리천 전투에 동원된 병력에서 고려의 마군과 기병, 보군과 보병의 비례는 40,300 : 37,700으로 말 탄 병사의 비율과 중요도가 아주 높았다고 보았다.

구산우는 일리천 전투 이후 마군의 존재, 기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의 편성, 묘청 반란의 진압에 동원된 기병의 존재, 우왕 2년에 전국 8도에 14,700명에 달하는 기병의 존재, 여러 군현에서 이루어진 말의 보유와 양육 등의 사실은 근거로 고려시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주현군의 마군을 양성하고 있었으며, 거란²²³⁾과 여진, 몽골과의 전쟁을 거치며 기병과 보졸의 비례는 대략 1 : 5로 파악하였다.

여진 정벌에 활약한 윤관 이후 기병의 필요성에 의하여 별무반이 창설되었기에 별무반은 기병을 크게 강화한 특수부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기군, 신보군 등의 보병, 항마군 등의 병력 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별무반 편성 당시의 마군과 보군 병력의 비율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종(元宗) 11년(1270) 대의 기록인 선기사(善騎射)하는 현문혁(玄文赫)이라는 인물을 보아 별초가 기병이 중시되었고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다. 현문혁은 어려서부터 말타고 활쏘기를 잘하였으므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²²⁴⁾고 하여 후대의 기록이지만 위에 언급한 우왕대의 기록에 보이는 별초와 마병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리고 여진과 거란과의 전쟁준비과정과 전투에서 보이는 기사의 형태를 보았을 때 별초가 기사를 중시한 군사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원종대 고려와 거란이 벌인 최후의 전투는 顯宗9년 10월에서 10년 2월 사이에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거란은 15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였고, 강감찬이 지휘한 고려군은 步兵이 208,300명, 騎兵이 12,000명 이상이였다(구산우, 2010, 고려 원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 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95~96쪽). 이 사실에서 당시 고려가 기병을 우왕 2년에 버금가는 정도로 양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4) 《櫟翁稗說》전집2, 玄文赫, 少以善騎射爲三別抄首領, 率妻子乘小舟, 遁以自歸, 賊追及之, 射貫其臂, 仆於舟中, 妻曰義不爲鼠輩所辱, 携其女蹈水而死, 玄公與子僅免

(2) 무신정권의 마별초 훈련에 보이는 기사

고려시대의 별초에 관한 기록 중 마별초는 기사를 훈련하였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마별초가 몽고와의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최씨 무신정권의 가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초와 더불어 실제 전투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의장대로서의 역할 이었는지 사료의 부족으로 명칭만 확인 할 수 있다. 용어의 의미 그대로 마군이나 마병 중의 별초로 추정되지만 좌우별초, 신기군 등의 별초의 성격을 가진 부대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

최씨무신정권의 사병으로서 성격은 확실하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崔瑀)부터 무신정권의 제7대 집권자인 최항²²⁵⁾과 관련된 기록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려사 고종(高宗) 16년(1229)에는 최이가 인근의 가옥 100여 구(區)를 점탈하여 구장(毬場)을 세우고 격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방(都房)과 마별초(馬別抄)를 소집하여 격구를 하거나 창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하거나 기사(騎射)를 하게 하였다.²²⁶⁾

또한 5군(軍)으로 나누어 전투 연습을 하니, 사람과 말이 넘어지고 엎어져서 많이 죽거나 다쳤다. 이것이 끝나면 사냥을 연습(習田獵)하느라 부대가 꼬리를 물고 순환하였다(縣絡循環). 최이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술과 음식을 베풀었다²²⁷⁾고 한다. 이를 통해 최씨 무신정권하에서 마별초는 강도 높은 기사와 기병대 훈련과 동시에 사냥 연습까지 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우는 최충헌 다음의 무신 집권자로 교정별감이 되어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의주(宜州)·화주(和州)·철관(鐵關) 등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대

225) 『고려사』, 卷一百二十九, 列傳 卷第四十二, 叛逆

226) 十六年, 怡占奪隣舍百餘區, 築毬場, 東西數百步, 平坦如碁局. 每擊毬, 必使里人, 灌水浥塵. 後又壞人家廣之, 前後占奪, 無慮數百家. 日聚都房·馬別抄, 令擊毬, 或弄槊騎射. 怡邀宴宰樞耆老, 臨毬庭觀之, 或至五六日, 能者立加爵賞. 於是, 都房·別抄, 鞍馬·衣服·弓矢, 効韃靼風俗, 競以美麗相誇. 都下子弟, 亦爭事豪侈, 妻多以貧見弃.

227) 且分五軍習戰, 人馬多顛仆死傷者. 於其終, 習田獵, 縣絡循環, 怡悅之, 饗以酒食. 毬庭舊有樓三間, 怡又增三間, 日晚起役, 至詰朝畢. 怡奏, “今年大旱, 禾稼不登, 請遣使五道, 審檢損實.” 從之.

몽향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夜別抄)를 조직하여 야간순찰과 도둑을 단속하게 함을 시작으로 후에 삼별초(三別抄)로 확대, 개편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최씨정권의 사병집단으로서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마별초와 실제 몽골기병과의 전투에 관한 기록이나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최우의 마별초 훈련을 통해 고려의 후기에도 전기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 기사 연습, 단체 기병 훈련 그리고 기사사냥을 통한 실전 훈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몽골과의 전투에 보이는 고려 기사의 특징

앞서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기병 전투에서 기사가 어떻게 훈련되고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운관에 의해 창설된 별무반에서 신기군의 훈련과 사열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고려사의 기록 서술의 특성상 당대의 기본적인 관념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생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초의 활약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별초가 보병이나 기병과 같은 특정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확실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폈듯이 고려 전기에 창설된 기병 중심의 별무반과 같은 성격이었다는 점, 삼별초 대장의 조건도 선기사(善騎射)여야 했었다는 점, 고려말기 왜구에게 대비한 별초의 보충에 대한 제안도 마군의 확보와 기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기병과 기병의 기사는 중요한 별초의 구성 성분이었음은 확실하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구산우(2020)의 연구에서처럼 고려시대의 보편적인 군편성이 기병과 보병의 1 : 5 비율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별초 역시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별무반의 구성은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되어 최소 1 : 3의 비율로 기병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과 삼별초가 좌·우별초에 더하여 신의군(神義軍)²²⁸으로 세별초로 구분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1 : 3에서 1 : 5 정도의 기병과 보병의

비율은 유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군(神義軍)과 관련해서는 고종(高宗) 45년(1258)에 고려의 반역자인 조휘 일당이²²⁹⁾ 춘주(春州) 천곡촌(泉谷村)에 주둔한 것을 신의군(神義軍) 5명이 말을 달려 주둔지로 들어와서는 위협한 후 별초를 불려서 사방에서 공격하여 남김없이 죽였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 신의군내에 기병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별초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전투는 김경손과 12명의 별초와 관련된 기록이다. 고종(高宗) 18년(1231) 『高麗史』 김경손 열전의 기록²³⁰⁾을 보면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너 철주(鐵州)를 도륙하고 정주(靜州)까지 침략하자 김경손이 관아 내의 결사대 12인(死士)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가 힘껏 싸우니 몽고군이 퇴각하였다고 하여 몽골의 기병에 대항하여 12명으로 맞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김경손은 비록 정주성을 포기하고 홀로 12명과 함께 산을 올라 야행(夜行)하면서 7일만에 귀주(龜州)에 도착하여 또 한 번 활약을 하게 된다. 몽고의 대군이 귀주성의 남문에 이르자 김경손은 12용사와 함께 성을 나가면서 직접 선봉을 쏘니 흑기(黑旗)를 든 기병 하나가 곧바로 쓰러졌고 12용사도 인하여 분전한 결과 몽고군을 퇴각시켰다.

김경손의 정주성과 귀주성 전투 장면은 몽골 북로군이 123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까지 4개월에 걸쳐 네 차례 귀주성을 공격하였지만, 고려군이 그들을 격파하고 귀주성을 방어한 내용이다. 몽골군은 9월 3일 새벽

228) 『高麗史節要』 권18 원종(元宗) 11년 5월

229) 『高麗史』 권130 列傳 권43 반역(叛逆)

230) 高宗十八年，爲靜州分道將軍，蒙古兵渡鴨綠江，屠鐵州，侵及靜州。慶孫率衙內敢死士十二人，開門出力戰，蒙古却走。俄而，大軍繼至，州人度不能守，皆奔竄。慶孫入城，無一人在者，獨與十二士，登山夜行，不火食七日，到龜州。朔州戍將金仲溫，亦棄城來奔，兵馬使朴犀，令仲溫守成東西，慶孫守成南。蒙古大至南門，慶孫率十二士及諸城別抄，將出城，令士卒曰，“爾等不顧身命，死而不退者。”右別抄皆伏地不應，慶孫悉令還入城，獨與十二士進戰。手射先鋒，黑旗一騎卽倒，十二士因奮戰。流矢中慶孫，臂血淋漓，猶手鼓不止。四五合，蒙古退却，慶孫整陣，吹雙小笳還，犀迎拜而泣，慶孫亦拜泣。犀於是，守城事，一委慶孫。蒙古圍城數重，日夜攻之。車積草木，輒而進攻，慶孫以砲車，鎔鐵液以寫之，燒其積草，蒙古兵却。復來攻，慶孫據胡床督戰，有砲過慶孫頂，中在後衙卒，身首糜碎。左右請移床，慶孫曰，“不可 我動則，士心皆動。”神色自若，竟不移。大戰二十餘日，慶孫隨機設備，應變如神，蒙古曰，“此城以小敵大，天所佑，非人力也。”遂解圍而去。尋拜大將軍·知御史臺事。

에 귀주성을 공격하였다. 고려 병마사 박서는 김종운의 부대를 성의 동쪽과 서쪽에 배치하고 김경손 부대를 성의 남쪽에 배치하였으며, 도호부와 위주, 태주 소속의 별초군 250여 명을 성의 3면에 분산 배치하였다.

몽골군은 귀주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서문과 남문, 북문을 밤낮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분도장군 김경손이 12명의 기병 결사대를 이끌고 남문으로 출격하였다. 결사대는 몽골군의 대열 중앙으로 돌진하여 흑기를 든 선봉 기수를 사살하였다. 기병 결사대는 이후 4, 5차례 집전으로 몽골군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이때를 틈타 고려군이 동시에 성문을 열고 출격하자, 몽골군은 귀주성 북방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기록이 너무 간략하여 어떠한 기병전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성에 집중하다가 적이 빈틈을 노출하면 출격하여 기습하는 한반도지역에서 가능한 전형적인 기병 전술을 보인다는 점,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군사를 물리치는 사례는 주로 기사를 하는 기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석하면 김경손과 12명의 기병대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이홍두, 2007).

또한, 김경손(金慶孫)은 고종 24년(1237) 초적(草賊) 이연년(李延年) 형제가 원울(原栗)·담양(潭陽) 등 여러 군(郡) 무뢰배(無賴輩)를 불러 모아 해양(海陽) 등 주현(州縣)을 치며 내려오다 김경손이 있는 나주(羅州)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경손은 나주성에서 즉시 별초(別抄)로 30여 인을 선발하여 기병전을 벌였다.²³¹⁾ 그렇기에 김경손은 별초들과 함께 수성전을 전개하다 기병을 출격하여 적을 섬멸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무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1) 『高麗史』, 卷一百三, 列傳 卷第十六 諸臣. 二十四年, 爲全羅道指揮使. 時草賊李延年兄弟, 嘯聚原栗·潭陽諸郡無賴之徒, 擊下海陽等州縣, 聞慶孫入羅州, 圍州城. 賊徒甚盛, 慶孫登城門, 望之曰, “賊雖衆, 皆芒屨村民耳.” 卽募得可爲別抄者三十餘人. 集父老, 泣且謂曰, “爾州御鄉, 不可隨他郡降賊.” 父老皆伏地泣. 慶孫督出戰, 左右曰, “今日之事, 兵少賊多, 請待州郡兵至乃戰.” 慶孫怒叱之, 於街頭, 祭錦城山神, 手奠二爵曰, “戰勝, 畢獻.” 欲張蓋而出, 左右進曰, “如此, 恐爲賊所識.” 慶孫又叱退之. 遂開門出, 懸門未下. 召守門者, 將斬之, 卽下懸門. 延年戒其徒曰, “指揮使, 乃龜州成功大將, 人望甚重. 吾當生擒, 以爲都統, 勿射.” 又恐爲流矢所中, 皆不用弓矢, 以短兵戰. 兵始交, 延年恃其勇直前, 將執慶孫馬轡以出. 慶孫拔劍督戰, 別抄皆殊死戰, 斬延年, 乘勝逐之, 賊徒大潰, 一方復定.

3. 고려 후기 사냥으로 본 기사(騎射) 양상과 특징

10~13세기경 동아시아는 더 이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국제질서가 아니라 금(金), 몽골(元), 서하(西夏), 토번(吐蕃) 등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등장으로 다원적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한반도 지역의 고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을 멸망으로 몰고 간 거란의 요, 여진의 금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원적 질서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 주목한 점은 이 시기 공통의 문화인 기사 사냥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기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왕조가 바뀔 조선 초에도 이를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 탐색해보았다.

1) 일상생활 속 사냥으로 본 기사의 목적

중화의 문명세계는 외부의 기사하는 민족들을 흉노, 동이, 오랑캐 등으로 낮추어 보았다. 이는 보통 ‘조공체제’(Tribute System) 또는 중화주의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한족중심적 문화론(culturalism)을 기반으로 한다(윤영인, 2015).²³²⁾ 바필드(Thomas Barfield)는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중원,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만주의 세 지역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이해하였다.²³³⁾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통적으로 행한 기사 사냥이라는 활동에 주목하였다.

(1) 한반도 북부에서 기사 사냥의 양상

거란(契丹)은 이른바 동호(東胡)계 유목민인 선비(鮮卑)의 한 갈래로서,

232) ‘조공체제’ 이론의 핵심 내용은 John K. Fairban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와 西島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社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서구학계 문화론적 조공체제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터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참조.

233) Thomas Barfield, 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lackwell, pp.167~177.

그 명칭은 4세기 전반부터 사서(史書)에 나타난다. 요(遼)은 10~12세기에 거란(契丹)이 중국 북방의 내이명구(內蒙古)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왕조로서, 916년 건국 당시의 명칭은 거란국(契丹國)이었지만, 938년 연운 16주(燕雲十六州)를 획득한 뒤 나라 명칭을 요(遼)라 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거란의 성종(聖宗)은 993년 소손녕(蕭遜寧)에게 고려(高麗)를 침략하여 배후를 다진 뒤, 1004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송(宋, 960~1279)을 공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천연지맹(澶淵之盟)’을 체결하였다. 1125년 여진(女眞)의 금(金, 1115~1234)에 멸망되었지만, 야율대석(耶律大石)이 중앙아시아에 서요(西遼, 1132~1218)를 건국하여 1218년 칭기즈칸(成吉思汗, 1155?~1227)의 몽골에 병합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요사(遼史)에는 이들의 수많은 사냥 기록이 존재한다. 가장 특이한 점은 후비(后妃)들의 사냥과 전투와 관련된 기록이다. 이들은 말안장으로 집을 삼고 살아 후비(后妃)들도 기사에 뛰어나(長於射御) 전쟁과 사냥에 모두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응천황후(應天皇后)는 실위(室韋)를 격파하였고, 승천황후(承天皇后)는 천연(澶淵)에서 군사를 직접 지휘하였고, 인의황후(仁懿皇后)는 친히 중국을 격파하였다.²³⁴⁾

송나라와 달리 요나라의 침공에 고려는 적극적인 공세로 대응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정벌까지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송나라는 요와 금의 침략으로 지속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금나라는 여진족이 동아시아 중국 북부에 세운 나라로 1115년에 세워져 1234년까지 존속하였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완안부(完顔部)에서 흥기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여진족은 발해 멸망 후로 한동안 만주 지역을 떠돌며 거란족의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란이 점차 세력이 약화되자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여 12세기 초 완안부를 중심으로 부족들을 통일한다.

이후 금태종 시대에 송나라 연합하여 요나라를 제압하였고, 그 후에는 송나라 역시 제압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금나라 역시 사냥으로 유명한 민족들이며, 사냥으로 훈련된 이들은 중국역사에 치욕적

234) 국역 요사 하 p.192論曰：遼以鞍馬爲家，后妃往往長於射御，軍旅田獵未嘗不從。如應天之奮擊室韋，承天之御戎澶淵，仁懿之親破重元，古所未有，亦其俗也。

인 패배의 기록을 남겼다. 금나라 사절단 17기의 기병을 공격한 송나라 보병 2,000과의 전투를 보면, 송나라의 군대는 동북쪽에서 발흥한 기사를 잘하는 민족들은 이들이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다.

『삼조북회맹편』 권1을 보면 1126년 금나라는 송나라 수도 개봉을 공격하였고, 이에 송측은 금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강화협상을 하게 된다. 이후 금군은 강화협상의 급보를 기병 17기를 선발하며 황제에게 알리게 하는데 송나라 장군 이간(李侃)이 2,000명의 보병으로 그들을 막아 저지하였다. 금 기병들은 강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간(李侃)은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금의 사절단 17기(騎) 중 7기(騎)는 정면에(居前), 5기(騎)씩 좌우익(左右翼)으로 3대로 나뉘어 대응하였다. 정면의 7기(騎)가 질주하여 나갔는데(馳進) 송의 관군(官軍)이 점점 밀려났다(少卻). 금 기병 좌우익(左右翼)의 각 5기는 갑자기 공격(掩襲)하여 또 돌격하며, 또 쏘니(且馳且射), 송의 관군(官軍)은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奔亂). 이에 이간 측의 죽은 자가 거의 절반이었다.²³⁵⁾

May, T.(2006)는 몽골의 특기인 기사 능력과 사냥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였다. 초원에서 몽골 기병의 훈련은 주로 네르게(nerge)라고 불리는 포위사냥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이 송군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냥꾼들은 반드시 전시편제에 따라 중간과 좌, 우 양익으로 나뉘고, 각 파견대는 장군 한 사람이 지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냥은 반드시 이들의 전술적 기동으로 이어졌다.

경기병은 끊임없이 습격과 퇴각을 반복하여 상대를 피곤하게 만든다. 사수는 멀리서 상대의 지휘자를 노리는 사격을 가한다. 경기병의 움직임은 주간에는 지휘관 기에 따르고, 야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등 신호에 따른다. 상대가 피곤해졌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중기병이 상대의 주력이 위치한 중심지역이나 혹은 측익으로 진출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낸다. 상대가 붕괴되었을 때는 반드시 추격하여 섬멸시킨다.

235) 十七騎者分爲三，以七騎居前，各分五騎，爲左右翼。而稍近後，前七騎馳進，官軍少卻，左右翼乘勢掩之。且馳且射，官軍奔亂，死者幾半。金人退師。

기사 사냥이 특기인 기병대는 중화를 압도하였다. 중화의 북쪽과 동쪽의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사 사냥에 유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요, 금, 고려와 같이 산림과 평원이 공존하는 반농반목의 지역 그리고 초원의 유목지역을 근거로 한 곳은 기사 사냥이 특기였다. 송 고려와 같은 정주세계에서는 이들의 침략을 막아내느냐 못하는냐에 국운이 갈리었다. 실제로 요, 금은 중화 깊숙이 침투하였고, 몽골은 제국으로 성장하여 중화지역에 완벽한 원나라 정부를 세웠다. 기사를 국기로 내세운 민족들은 대외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고려의 국제적 지위와 기사 사냥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다원적 국제질서의 주축이었던 요, 금, 몽골의 경우 경제적으로 사냥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다.

『宋史』 열전(列傳) 발해국전(渤海國傳)를 보면 300여 기(騎)를 이끌고 송에 투항한 발해의 추장(酋帥)인 대란하(大鸞河)를 포상하면서 오랑캐의 천성은 말달리기로 낙을 삼으니, 하늘이 드높은 늦가을이 되거든 주위를 경비하고 준마(駿馬) 수십 필을 주어 교외에 나가 사냥(遊獵)하게 하여 그 본성을 따르게(遂其性) 하도록 하는 것에서 송에서도 기마사냥을 발해인의 습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와 몽골인들의 관계에 있어 사냥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우선 『元史』 卷166 列傳53에는 고려왕(高麗王) 왕철(王暉, 고종)의 유자(猶子)인 왕준(王綽)이 몽골에 볼모로 있을때 용모와 행동거지가 아름답고 의로우며 지략이 있고, 기사를 잘하였으며, 독서를 하면 대의를 통달하였으므로 질자(質子)로 조정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고려로 귀화한 북방민족과 고려인들이 같이 사냥한 기록이 보인다. 몽골 사람으로 궁술과 기마술에 능했던 이의풍(李宜風)은 고려 충숙왕과 기사 사냥하여 총에받았고²³⁶⁾, 고려에 투항한 몽골인인 이오로테무르(李吾魯帖木兒)와 여진인인 투란테무르(豆蘭帖木兒)는 후에

236) 『高麗史』 卷一百二十四, 列傳 卷第三十七, 嬖幸

이성계가 기사 사냥하는 장면에서 각각 고려식 이름인 이원경, 이두란(李豆蘭)으로 등장한다.²³⁷⁾ 또한 최윤덕은 어릴 적부터 양수척들과 기사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정도로 사냥에 있어서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²³⁸⁾

이렇게 한반도 지역과도 연결되는 사냥을 매개로 한 문화적 특징은 서금의 말대로 산림지역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에 기인한다. 『高麗世系』의 첫 장면에 반영되어있다. 태조 왕건의 5대조 격인 호경(虎景)이란 인물의 호랑이 사냥으로 시작된다.

金寬毅編年通錄云, “有名虎景者, 自號聖骨將軍. 自白頭山遊歷, 至扶蘇山左谷, 娶妻家焉, 富而無子. 善射以獵爲事, 一日與同里九人, 捕鷹平那山. 會日暮, 就宿巖竇, 有虎當竇口大吼.”²³⁹⁾ - 후략

호경은 부소산(扶蘇山)의 왼쪽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활을 잘 쏘아 사냥을 일(善射以獵爲事)로 삼았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호경이 마을 사람 아홉 명과 평나산(平那山)에서 총 열 명 규모의 사냥을 벌였다. 마침 날이 저물어 바위굴에서 하룻밤을 묵으려 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입구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들어오려 했던 것을 호경이 홀로 맞선다. 이후의 장면은 호경이 신이 되는 건국 신화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충분히 고려의 생활상은 반영 하였다고 본다.

이 장면에서 등장한 사냥감인 매와 호랑이는 이후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주지하듯 조선과 고려의 가장 큰 특성은 농사 규모의 차이에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향상됨으로써, 상업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송, 요, 원, 일본 등의 인접한 국가 외에도 대식국(大食國)이라 불리웠던 현 중동지방의 국가들과의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237) 『高麗史』 卷四十二, 世家 卷第四十二, 恭愍王 20年

238) 『筆苑雜記』 卷之一

239) 『高麗史』 「高麗世系」

다.²⁴⁰⁾

10~13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무역을 통한 조공체제의 쇠퇴’는 전반적인 추세였다. 거란의 요나라 이후 여진에 의해 금(金)이 송을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왕조로서의 송은 그 위상을 상실하였다.²⁴¹⁾ 이로써 13세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었던 세계들이 무역을 통해 하나의 교환체계 속으로 통합되어갔다(배종열 2017 : 2).

고려에서 몽고(원)에 보내진 수출품에 대하여 강글온(2009 : 70)은 금은제품, 옷감, 가죽류, 기타 물품으로 나누어 수량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수달피, 표범가죽, 범가죽, 고양이 가죽, 곰가죽, 너구리 가죽이 중요한 수출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종열(2017 : 86)이 분석한 『寶慶四明志』의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출품 목록 중 야생동물의 가죽인 호피(虎皮)는 고려에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거란과 여진과의 전면전에 성공한 이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는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김호동(2015 : 99~100)은 고려의 독자성에 주목하여 몽골제국과 주종관계를 맺었음에도 그 외곽에 존재하는 ‘외연적’ 존재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1306년경에 완성된 라시드 앳 딘의 『집사』에서도 고려의 독자성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서도 인정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 금, 몽골처럼 고려인들이 기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역시 사냥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에 사병 효과를 감행한 이유도 군사력이 약해지기 시

240) 몽골인들에게는 솔랑기 또는 솔랑가로 주로 불리우다가 몽골제국이 무너진 이후 ‘솔랑가’라는 말이 남아 후대 몽골의 역사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솔롱고스(Solongos)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김장구(2021). 「대몽골국 초기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 사신들」 남종국, 김장구, 박용진, 박현희, 성백용, A. Dunlop, 이영미, 조원, 조원희(2021).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p.207~238

241) 몽골제국이 출현하기 이전인 11~13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단일 패권국가의 부재로 인해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맹약체제’가 형성되었다(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4, 16~21쪽; Morris Rossabi ed., 위의 책, 1983, 225~229쪽; 杉山正明, 『中國の歴史8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2005, 211~213쪽; 古松崇志, 「契丹・宋間の澶淵体制における國境」 『史林』90-1, 2007, 33~35쪽; 윤영인, 「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8쪽).

작한 이유도 사냥과 관계가 있다. 사냥에서 획득하는 식자재와 가죽 등은 주요한 경제 활동의 한 측면이었으며, 조직적인 몰이사냥은 군사훈련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였다. 그리고 이는 훌륭한 기병대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기에 조선초기에 중앙집권을 위해서는 사냥을 금지하여 사병 훈련을 금지하였다.

(3) 무인의 생활에서 기사 사냥의 목적

고려와 주변국의 대외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사냥은 매우 중요한 생업(生業)이었다. 사냥은 식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자료를 조달하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사냥은 실제의 삶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렇기에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냥에 관계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의 군사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본다.

예종 2년(1107) 3월 정해 초하루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여 그 뜻을 기쁘게 하려고 때를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한다고(田獵無時)²⁴²⁾ 하여 고려시대에 수령들의 사냥이 어떠한 목적에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거란과 여진의 침공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군사력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의 무사들이 어려서부터 기마 사냥을 하며 익숙하게 된 기사 능력이 바탕이 되었듯 사냥은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에서뿐 아니라 고려에서도 중요한 개인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의 수단이었다.

물론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사냥에 의존한 것만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도 농업 역시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나 사냥을 통해 획득한 야생동물은 가축과 함께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자원을 공급했다. 이병희(2021)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호(虎), 표(豹), 장(獐), 녹(鹿), 낭(狼), 이(狸), 호(狐), 영양(羚羊)과 산양(山羊), 웅(熊), 토(兔), 치(雉) 등이 사냥감이었고, 이 야생동물은 고려인의 의식(衣食) 생활에

242) 『高麗史』 卷十二, 世家 卷第十二, 睿宗 2年 3월

매우 중요한 소재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고려인들은 사냥을 통해 획득한 호랑이·표범·곰·담비·수달 등의 야생동물들로부터 인간의 삶에 긴요한 가죽을 공급 받았다. 그중 호피(虎皮), 표피(豹皮), 웅피(熊皮)는 극상품으로 매우 고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담비의 가죽인 초피(貂皮)도 귀하게 여겨졌다. 고려말 조준의 상소문에, 권세가가 경쟁적으로 교역에 참여하면서 초피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보이고, 초피를 불법적으로 뇌물로 바치는 일이 언급되어 있다. 철리국(鐵利國)²⁴³과 동·서 여진에서 그것을 고려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에서도 공급받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가죽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한반도 북부의 민족들과 거의 일치한다. 기원전부터 중국인들은 발조선(發朝鮮)의 특산물로 모양과 무늬가 있는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인 문피(文皮)를 언급하였듯이 초원, 산림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가죽은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구(狐裘)와 초구(貂裘)가 필요했다. 이는 고려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색은 시에서 겨울에 호맥(狐貉)을 사용한다고 표현하였다.²⁴⁴ 이는 조선초에도 마찬가지였다. 호구가 십년의 눈 서리에 헤졌다는 표현이 보이는데²⁴⁵ 겨울철 의류로 여우 가죽옷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냥을 통해 획득한 야생동물은 식량으로서 가장 큰 가치가 있었다.²⁴⁶ 식료의 확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슴, 노루, 토끼, 멧돼지,

243) 발해(渤海)가 멸망한 뒤에 철리부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부(府) 이름. 발해(渤海)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5경(京)·15부(府)·62주(州)가 있었는데, 이 부는 철리족이 살던 중국의 흑룡강성(黑龍江省) 의란현(依蘭縣)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해가 멸망하자 이곳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 철리국이라 하였다. 『星湖僿說』 권21, 渤海, 祚榮之弟野勃四世孫仁秀, 有地五京·十二府·六十二州, 以肅慎故地爲上京, 其南爲中京……拂涅故地爲東平府, 鐵利故地爲鐵利府.

244) 李穡, 「杏店途中風雪」『牧隱詩藁』권4, 李穡, 「圓齊少年 按行關東 奇觀絕景 … 故發之於詠歌耳 又作一篇趣其行」『牧隱詩藁』 권21; 李穡, 「立秋」『牧隱詩藁』 권3.

245) 徐居正, 「書懷 示士願 平仲」『四佳詩集』권3.

246) 고려시기 야생동물과 가죽을 포함한 고기 식품[肉食]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소개는 박용운,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음(食飲) 생활』, 경인문화사, 2019, 77~127쪽이 참고된다. 16세기에 동물성 식품 가운데 꿩고기·노루고기·닭고기의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차경희, 「『쇄미록』을 통해 본 16세기 동물성 식품의 소비 현황」『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23-5,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7). 16세기에든 가죽보다 야생동물을 더 많이

평, 여우 등을 포획했다. 누구든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사냥이 이루어졌고, 서민의 먹거리로서 야생동물이 활용되었다. 조선초에는 양녕대군이 꿩과 토끼를 섬돌 위에 쌓아놓고 굽는 내용이 전한다.²⁴⁷⁾ 이렇듯이 단백질의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야생동물은 아주 귀한 식자재였다(이병희, 2021).

2) 무예수련으로 본 기사의 특성

(1) 사냥방식에 보이는 무예의 성격

고려시대의 사냥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²⁴⁸⁾은 주로 매를 활용한 사냥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렇기에 사냥과 관련 있는 기구인 응방(鷹坊)의 기능 그리고 매사냥이 가능한 고위층의 생활상과 몽골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었다. 매사냥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사냥이지만 기사 사냥과 같이 개인의 생존에서부터 전쟁에까지 두루 쓰인 사냥 방식은 아니었다. 매가 사냥하는 희귀한 방법을 동원한 일부 귀족들의 취미 사냥으로 볼 수 있다.

사냥 관련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려사회에서의 기사 사냥이 가지는 의미는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보편적인 사냥에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은 다른 어떠한 능력들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병희(2021)는 선기사(善騎射) 선사어(善射御) 능력과 사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냥뿐 아니라 군사훈련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도 뛰어난

식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성향은 고려시기에도 비슷했을 것이다. 결국 고려시기에 야생동물이 가축보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냥이 중요한 생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47) 成倪, 『慵齋叢話』권5, 孝寧大君.

248) 旗田巍, 「高麗の鷹坊(1·2)」 『歴史教育』10-6·7, 1935; 內藤雋補, 「高麗時代の鷹坊について」 『朝鮮學報』8, 1955; 鄭鎭禹, 「高麗鷹坊考」 『清大史林』3, 1979; 朴洪培, 「高麗鷹坊의 弊政-主로 忠烈王대를 중심으로-」 『慶州史學』5, 1986; 李仁在, 「高麗後期 鷹坊의 設置와 運營」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혜안, 2000; 임형수, 「고려 충렬왕대 鷹坊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93, 2020.

기마술과 활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고려시대에 행해진 사냥과 관련 표현은 獵, 田獵, 射獵, 畋獵, 獵騎, 弋獵 등이다. 대부분의 사냥은 기사사냥으로 행해졌으며,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매사냥도 기사 사냥과 같이 시행되었다. 특이한 것은 弋獵으로 숙종·예종의 여진정벌 때 4차에 걸쳐 신기군(神騎軍)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 민영의 사냥장면에 보인다. 그리고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인 조준의 상소에서 볼 수 있다.²⁴⁹⁾ 이들의 기록에서 弋獵역시 기사사냥임을 알 수 있다. 고려말 사냥을 즐긴 충렬왕, 충숙왕, 충혜왕, 공민왕, 우왕의 사냥은 모두 기사사냥이었다.

활쏘기는 중국에서 비롯된 유교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선 전기 강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주로 주(周)나라의 수수법(蒐狩法)과 같이 수레나 도보로 활을 쏘는 사냥 방식을 연관지어 논의 하기에 중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교에서의 활쏘기는 예법을 중시하고 심성을 수양하며 연장자를 존중하는 의미가 크지만, 중국 북쪽 몽골지역의 초원 그리고 한반도의 북부와 한반도지역에서 행해진 사냥에서는 말과 자유자재로 호흡하는 기마술과 사냥감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을 중시한다.

특히 조선초기에도 자주 인용되는 주례의 수수법같은 경우도 기사 사냥과는 거리가 있다. 주례가 정립된 전국시대의 경우 앞서 논의한 같은 시대 조나라 무령왕의 호복기사의 군제개혁사건과 같이 기사는 중화의 예와는 완전히 다른 이민족의 군사기술로 인식되었다.

(2) 기사 연습 수단으로서의 기사사냥

앞선 3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대부분 중국정사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중국인들의 특기는 전차를 몰고, 쇠뇌를 쏘는 것이라는 점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성 북쪽과 동북쪽의 민족들은 기사를 잘하는 것이 특기인데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작은 동물을 타고 활을 쏘아 연습하고

249) 『高麗史』 卷一百十八, 列傳, 卷第三十一, 諸臣

점차 자라나며 말을 타고 강한 활을 당기게 되어 큰 동물을 사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사사냥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익혀야 숙달할 수 있는 사냥 방식이었다. 이는 장성 동북쪽 그리고 한반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선기사(善騎射)자들 예를 들어 숙종과 예종대의 신기군으로 활약한 민영(閔瑛), 원종대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던 현문혁(玄文赫), 조선 전기에는 최윤덕(崔潤德) 모두 당대에 기사로 이름을 날렸고,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는데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기사 사냥을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기사를 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사냥에서 기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충렬왕과 함께 사냥에 나섰던 강윤소(康允紹)와 이지저(李之氏)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국왕이 그들에게 자주 사냥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²⁵⁰⁾ 그들은 사냥에 필수적인 기사의 능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사 사냥은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탁월한 것이었다.

사냥은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최고의 훈련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 실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기사 사냥은 야생동물을 상대로, 때로는 맹수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맹수를 사냥하는 행위는 조선전기에 착호갑사가 따로 생길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그 한 예가 향리 최상저(崔婁伯)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한 사건이다.²⁵¹⁾ 맹수가 아니더라도 사냥 중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충숙왕이 사냥하고 있던 중에 사슴이 국왕의 수레 앞으로 뛰어 올랐는데, 이의풍이 하나의 화살로 사슴을 쓰러뜨렸다.²⁵²⁾ 사냥하는 경우 이처럼 동물이 뛰어 오르는 긴급 상황을 만나는 수가 매우 많았을 것이다. 사냥의 과정은 이처럼 위험한 일이었다.

250) 『高麗史節要』 권20, 忠烈王 5년 10월.

251) 『高麗史』권121, 列傳34, 孝友, 崔婁伯.

252)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1년 9월.

사냥을 하다가 낙마(落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만큼 사냥은 최고의 기마술을 필요로 했다. 맹수의 공격으로 혹은 맹수의 돌발 출현으로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우왕 11년(1385) 국왕이 화살로 사슴을 쏘던 중 말에서 떨어져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²⁵³⁾ 우왕 12년에는 용진에 이르러 멧돼지를 쏘자 화살을 맞은 멧돼지가 독기를 품고 돌진해 우왕이 탄 말을 들이받았다. 이에 우왕이 놀라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²⁵⁴⁾

사냥에 능숙한 반복해란 인물도 낙마한 일이 있었다. 우왕을 따라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지자 우왕은 자신이 타고 있는 말을 그에게 주었다.²⁵⁵⁾ 우왕 10년 우왕이 사냥하면서 여러 내시들을 거느리고 동지(東池)에서 말을 씻기고는 그들과 함께 말을 달렸는데, 김원길(金元吉)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²⁵⁶⁾ 기마술에 이름난 이성계 역시 사냥 중 낙마한 일이 있었다. 공양왕 4년(1392) 3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부상당한 일이있었다.²⁵⁷⁾

이렇듯 기사 사냥에서는 말을 타고 있다는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고있는 말의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말이 놀라 기승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야생동물들의 습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돌격에 대비하여 말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는 기마술이 필요하며, 실제 사냥하는 상황에서는 거침없이 말을 몰아 화살을 명중시켜야 본인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기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사냥이 기병전투 훈련과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사냥 상황에서는 순간의 판단과 즉시 기사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253)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禡 11년 3월.

254) 『高麗史』 권124, 列傳37, 髣幸2, 潘福海; 『高麗史節要』 권32, 辛禡 12년 10월.

255) 『高麗史』 권124, 列傳37, 髣幸2, 潘福海.

256) 『高麗史節要』 권32, 辛禡 10년 2월.

257)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戊戌; 『高麗史』 권117, 列傳30, 鄭夢周.

(3) 무인의 무예로서 기사사냥의 특성

기사사냥은 정말 뛰어난 기마술과 활쏘기 능력을 필요로 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물이 사냥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냥감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적정 거리와 간격을 유지해야 했으며, 사냥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전후좌우로 활을 쏘기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야 했다. 그렇기에 사냥하는 기마인들은 출발, 정지, 측면이동, 급선회 등 말이 가능한 모든 움직임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고려 후기 충렬왕대의 문신인 한희유(韓希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냥과 실제 전투를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희유는 가주(嘉州)의 주리(州吏)로, 기사에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희는 화렵(火獵) 중 말을 채찍질하며 불 속을 출입하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표현되어 있다. 한희유 스스로가 전투에서 돌격할때와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전투와 기마 사냥을 같은 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⁸⁾

위와 같이 기사에 필요한 기마술은 고려시대의 문헌 기록에는 좌우 그리고 종횡으로 표현되어 있다.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와 함께 덕수현(德水縣)의 마제산(馬堤山)에서 사냥하였는데 왕이 호위무사들(忽赤)과 응방(應坊)을 거느리고 친히 활과 화살(弓箭), 매와 새매(鷹鷂)를 다루며 종횡(縱橫馳騫)으로 달리니 부로(父老)들이 모두 탄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²⁵⁹⁾ 충렬왕의 기사 사냥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을 보면 새매를 동반한 사냥과 기사 사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횡(縱橫馳騫)으로 달린다는 것은 숲에서 말을 타고 불규칙한 지형에서의 기마술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활과 화살 그리고 새매를 직접 다루었다는 것에서 충렬왕이 말 위에서 얼마나 능숙히 사냥 도구들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다.

258) 『高麗史』 卷一百四, 列傳, 卷第十七, 諸臣 韓希愈, 嘉州吏, 善騎射, 有膽略. 嘗與鄉人火獵, 希愈策馬, 出入火中如飛. 人相顧驚愕, 希愈笑曰, “大丈夫陷陣突敵, 死且不懼, 況此乎?” 初補隊正, 累遷大將軍, 從金方慶討珍島·耽羅, 皆有功.

259) 『高麗史』 권28, 세가 권제28, 충렬왕(忠烈王) 2년 8월

사냥 상황은 아니지만 이옥(李沃)이 기사 하여 왜구를 토벌한 기록에서 종횡으로 달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옥은 공민왕 시기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고려사』 공민왕 20년(1371년)에는 김용조와 함께 활쏘기를 잘하여(李沃·金用韶善射) 안장 얹힌 말을 하사받은 기록이 있을 정도로 활쏘기에 뛰어났다. 다음해 1372년 왜구가 강릉부(江陵府) 및 영덕현(盈德縣)과 덕원현(德原縣)의 2개 현을 노략질하자 이때 이옥은 관노(官奴)²⁶⁰의 신분이었지만 왜구를 물리쳐 역을 면제받았다.

『慵齋叢話』 제3권에는 이옥이 기사로 왜구를 물리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옥이 있던 강릉부(江陵府) 앞 들에 큰 나무가 많았는데, 이옥은 밤 사이에 사람을 시켜 화살 수백 개를 나무에 꽂아 놓게 했다(沃夜令人取矢數百分插於樹). 이튿날 말을 달려 해구(海口)로 나가 여러 개의 화살을 적에게 쏘고(發數矢射敵)는 거짓 패한 척(佯敗)하면서 나무 사이로 달려서 들어가니(奔入樹間), 왜적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다. 혼자서 당해 내는데(一身當之) 꽂혔던 화살을 뽑아 쏘며(抽矢而射) 종횡으로 사냥개 달렸다(縱橫馳突).

이옥은 단기로 왜구를 상대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기병 전술인 거짓 후퇴와 기사로 응수하였다. 그 결과 죽은 자가 즐비하였고 왜적이 군(郡)의 지경을 범하지 못하여 한 도(道)가 그의 힘으로 편안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큰 전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옥은 부앞에 나무가 많은 곳을 골라 화살 수백 발을 꽂아 놓음으로써 자신이 싸울 곳을 정하였다. 그리고 화살을 많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왜구를 유인하여 시종일관 기사로 응수하였다.

여기서 이옥은 큰 나무 사이를 종횡으로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사 사냥을 할 때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피해 야생동물들을 쫓는 것과 같으며 이는 종횡치돌(縱橫馳突)로 표현될 만큼 격렬하고 세찬 돌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름처럼 몰려든 다수의 왜구를 상대로 숲속에서 기사로 사냥하듯이 전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침부터

260) 1371년(공민왕 20) 아버지 이춘부가 신돈(辛旽)의 일당으로 처형되자 노비가 되어 강릉으로 추방되었다. 우왕 때 복권되어 1387년(우왕 13)에는 좌상시(左常侍)에 올랐다.

저녁까지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말과 사람 모두 약 12시간을 전투할 수 있을 만큼 체력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유자재로 사냥감을 쫓아가는 표현은 사냥감의 좌우로 말을 모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려말 문신인 김륜(金倫)은 합포(合浦)에서 진수(鎭守) 할 때 몽골(元) 천자(天子)의 사자와 함께 사냥을 하였는데 좌우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左右馳射), 쏘는 족족 맞히니(舍拔屢中)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원의 사자는 이미 김륜 군사의 엄숙함을 본 후에 그를 공경하기 시작한 이후였다.²⁶¹⁾

이러한 좌우로 말을 몰며 기사를 하는 모습은 주로 중화 변경에 사는 민족들의 특기로 묘사되곤 한다. 중국 후한시기 강족으로 현 감속성 출신인 동탁 역시 좌우로 달리며 기사하는 것에 능했고, 선비족(鮮卑族)의 탁발부(拓跋部)가 세운 북위의 우율제(于栗磾)는 북위(北魏) 대(代) 사람으로 무예가 뛰어나 좌우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어 무예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²⁶²⁾

이렇게 좌우로 달리며 기사하는 묘사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서거정이 편찬한 『筆苑雜記』에는 고려말(고려 우왕2년)에 태어나 세종대에 대마도정벌로 유명한 최윤덕(崔潤德)의 기사 사냥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최윤덕(崔潤德)은 서거정의 아버지 서미성(徐彌性)에게 무예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 서미성이 합포(合浦)를 지킬 적에 최윤덕의 사냥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 좌우로 달리며 쏘아(左右馳射) 맞히지 못하는 것이 없을(發無不中)²⁶³⁾ 정도로 이미 기사에 능한 상태였다. 이후에 서미성은 최윤덕의 기사 사냥의 기술을 더 다듬어 곧 활을 쏘고 적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서(仍教射禦之方) 마침내 명장이 되었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윤덕(崔潤德)이 좌우기사(左右馳射)하며 무예를 익히게 되는 과정에 있다. 최윤덕의 아버지 운해(雲海)는 변방(邊方)을 지켰기 때문에 있는 최윤덕은 이웃에 살던 양수척(楊水尺)에 의해 키워졌

261) 墓誌銘·墨書銘, 김륜묘지명

262) 魏書 卷三十一 列傳 第十九 于栗磾, 代人也. 能左右馳射, 武藝過人. 登國中, 拜冠軍將軍, 假新安子. 後與寧朔將軍公孫蘭領步騎二萬, 潛自太原從韓信故道開井陘路, 襲慕容寶於中山. 既而車駕後至, 見道路修理, 大悅, 卽賜其名馬.

263) 『筆苑雜記』 卷之一

다. 최윤덕이 점차 크면서 근골의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稍長膂力絶人) 굳센 활을 당겨서 단단한 물건을 쏘아 맞추었으며(挽强射坚), 양수척이 사냥하러 나갈 때마다 따라가(時隨水尺出獵) 짐승을 많이 잡아 오곤 하였다(所獲實多). 이를 통해 최윤덕은 고려시대에 섞여 살던 거란 혹은 여진 유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고, 이들과 같이 사냥을 주업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활을 쏘는 연습을 하고 점차 장성하며 말을 타고 기사 사냥을 하는 교육과정은 정착하여 농경을 주로하던 중국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긴 것이었다. 중국의 전역사에 걸쳐 공포의 대상이었던 흉노, 거란, 여진, 몽골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사 사냥을 주업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사 사냥은 이들의 주 무대였던 초원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의 산림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사 사냥을 연습한 최윤덕의 기사 능력은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를 사냥할 정도까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다. 『筆苑雜記』에는 최윤덕이 하루는 산중에서 가축을 먹이는데(一日牧山中) 큰 범이 별안간 숲속에서 나와서(有大蟲瞥出林莽) 여러 짐승이 놀라 달아나자 빠르게 말을 달려 활을 한번 쏘아 화살 한 발에 죽인(公驟騎一發一箭斃之)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최윤덕은 호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냥한 것이었으며, 그를 돌보던 양수척도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실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옥(李沃)이 종횡으로 말을 달리며(縱橫馳騫) 기사한 모습과 최윤덕(崔潤德)이 좌우로 달리며(左右馳射) 기사한 모습의 공통점은 나무가 울창한 곳과 산이라는 지형적 특징이 있다. 차이점은 이옥이 종횡으로 달린 것은 각종 지형지물을 피해 달린 모습이었다면 최윤덕이 좌우로 달리며 기사를 한 것은 사냥감을 쫓으며 좌우로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사 사냥을 위해서는 산에 형성되어 있는 지형지물에 따라 종횡으로 달리며, 사냥감의 이동 경로에 맞추어 좌우로 말을 몰아 활을 쏘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3장에서 논의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사냥감과 기사자의 위치변화에 따라 활을 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3) 군사훈련으로 본 기사 사냥의 특성

(1) 기사사냥이 가진 군사훈련의 성격

고려말 문신인 이색의 『牧隱詩藁』 권5, 「記打圍」에는 우림위(羽林衛) 소속의 말탄 호걸(騎士)들이 모여 사냥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²⁶⁴⁾ 명나라의 사신인 장녕(張寧)²⁶⁵⁾이 조선에 부임하여 지은 시에도 사냥한 기(獵騎)가 돌아온다고 언급하였다.²⁶⁶⁾ 또 함경도三水郡鎭戎樓를 배경으로 한 권민수(權敏手)의 시에서 말탄 사냥꾼(獵騎)들이 숲에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⁷⁾ 이렇듯 고려시대의 사냥은 보편적으로 말을 타고 행해졌기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에서 마별초 훈련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우(崔瑀)가 전투 연습을 마친 군사에게 다시 사냥하는 법을 익히게 한 것은²⁶⁸⁾ 그 때문이었다. 전투 훈련에서는 가상의 상황에서 무예를 익히는 것이고 그 무예를 잘 발휘하려면 사냥이란 실제 상황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사냥이 실전 연습하는 군사 훈련인 셈이었다. 사

264) 李穡, 『牧隱詩藁』 권5, 「記打圍」. 羽林騎士集群豪。中使傳宣獻獸牢。氈幕平郊催蓐食。櫛瓦高嶺倒芳醪。風聲忽起青絲鞚。雲影遙翻白a004_017d錦毛。每詠騶虞思一發。射狼無復詫遭猫。

265) 장녕은 1460년(世祖6년, 明 英宗 天順4년) 이른바 天順使節團의 정사자격으로 내조하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시문을 남겼다. 세조를 알현하여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아울러 당대 조선 최고의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적지 않은 양의 작품을 창작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였다(이남중, 2015).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장녕의 시문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黃州牧, 樓亭, 廣遠樓에 실려있다.

26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黃州牧, 樓亭, 廣遠樓. ○張寧詩：“層樓高出翠微間，景物迢遙慰客顏。芳草夕陽天外路，亂峯殘雪海中山。煙凝野色村居小，風送邊聲獵騎還。却憶帝鄉春似海，蓬萊宮闕五雲閑。”

26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9, 咸鏡道, 三水郡, 樓亭, 鎭戎樓. ○權敏手詩：“樓維新制度，城自舊經營。水近楹拖影，山深鳥不鳴。獵騎依樹聚，邊日照人明。揭號寧無意？平羌莫用兵。”

268)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附 怡; 『高麗史節要』 권15, 高宗 16년 11월.

냥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전 능력이 함양되어, 실제의 전투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는 전반적으로 사냥과 군사훈련을 동일시 하였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시기부터 신승겸, 김행과 등과의 기사 사냥 일화가 보이며, 그 후의 왕들도 기사 사냥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사 사냥을 선발하거나 용맹한 이들을 가려뽑아 이들에게 기사 사냥을 가르치며 전쟁준비를 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고려 말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공민왕(恭愍王) 12년(1363) 5월 기록을 보아 각처의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 것을 폐해라고 판단하여 금지시킨 것²⁶⁹⁾으로 보아 고려 말에도 군관들의 사냥이 빈번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 후기에 몽골의 세력이 약화되자 친원파였던 권겸, 노책 등과 결탁하여 친척과 세력 기반을 구축한 기철은 제멋대로 무기를 만들어 한가로울 때에 기사를 공공연하게 연습하여 조금도 감추지 않았으며, 유언비어로 선동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하여²⁷⁰⁾ 사적인 군사력 확충과 동시에 이들 훈련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말까지 이어져 우왕 시기에는 사냥 기록이 상당량을 차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왕의 기록들은 개인의 여가 활동 외에도 요동 정벌 준비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다(김창현, 2008).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교서를 내려 문(文)과 무(武)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여, 농한기에 강무(講武) 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라 하여 유학과 군사훈련 모두를 강조하였다.²⁷¹⁾

(2) 물이사냥 방식으로 본 기사의 위력

사냥은 홀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269) 十二年五月, 教曰, “比來, 各處防禦軍官, 率兵田獵, 不以其時, 敗傷胎卵, 有乖仁政, 仰諸道存撫·按廉使, 痛行禁理.”

270) 『高麗史』, 卷三十九, 世家 卷第三十九, 恭愍王 5年 7월

271) 『高麗史』 卷四十五, 世家 卷第四十五, 恭讓王 2年 2월

에 다수를 몰이꾼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사냥에 적극적인 수가 많았다. 다수를 부릴 수 있는 이들은 지방의 수령과 군 지휘관이 중심이었다(이병희, 2021).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몰이 사냥은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사냥할 때 중요했다.

지방관으로서 경내에 출몰한 호랑이 퇴치에 큰 공을 세운 이들이 있다. 왕충과 박원계였다.²⁷²⁾ 무인집권기 김준거(金俊据)는 황주목의 수령으로 용사들을 모집해 항상 사냥을 일삼았다.²⁷³⁾ 의주부사(義州副使) 김효거(金孝巨)도 사냥을 한 것이 확인된다.²⁷⁴⁾ 혼수의 부친은 용주의 수령으로서 사냥에 나섰다.²⁷⁵⁾ 조준은 수령이 사냥을 나가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²⁷⁶⁾ 수령이야말로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냥에 몰두할 수 있었던 중심층이었다.

군현에서 야생동물 내지 그 가공품을 공급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그것의 마련은 지방관의 책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관이 주도하는 사냥은 매우 성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군 지휘관 역시 휘하 병사를 이끌고 사냥에 종사한 일이 많았다.

충렬왕대에 박원계(朴元桂)의 호랑이 사냥하는 방식을 보면 박원계가 전주(全州)의 사록(司錄)으로서 장서기(掌書記)를 겸하고 있었던 시기에 경내(境內)에 호환(虎患)이 발생하였는데,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이 잡으려 했으나 허탕을 치고는 그 일을 박원계에게 위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호랑이 사냥이 절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박원계가 기병대를 인솔하여 호랑이를 사냥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⁷⁷⁾

그는 부대를 나누어, 기사하여 호랑이를 협소한 곳으로 몰았고, 화살한 발이 명중하여 드디어 죽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박원계가 인솔한 기병대를 2~3대로 나누었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협소한 곳으로 몰고

272) 왕충묘지명

273) 『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麗史節要』권14, 神宗 2년 8월.

274) 『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崔坦; 『高麗史節要』권18, 元宗 10년 10월.

275) 權近, 「普覺國師碑銘 并序」 『陽村集』권37;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9, 「忠州靑龍寺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

276) 『高麗史』권118, 列傳31, 趙浚.

277) 『牧隱文藁』卷19 墓誌銘, 公則部分騎射要於隘。一箭中之遂斃。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호랑이 사냥은 인간으로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종 14년(1273) 원(元)에서 호랑이 사냥꾼 9명을 파견하여 그들이 개 100마리를 끌고 왔는데, 여러 개가 호랑이를 쫓아 사냥하려 했으나 개만 많이 죽고 호랑이 사냥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²⁷⁸⁾ 초원 지역에서 생활하던 몽골인들이라 기사 사냥에 익숙했을 테지만 고려에서는 개를 동원하여 호랑이를 사냥하려고 한 이유는 한반도 지역에는 산이 많아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고 호랑이 사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 이 몽골 사냥꾼들이 고려(高麗)의 범은 개로는 잡을 수 없다고 하였을 정도로 사냥 방식에 있어서 자신들이 오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의 ‘기사’와 몽골인의 ‘개’ 두 가지 사냥 방식은 같은 기사를 잘하는 민족이지만 그 무대가 초원과 산림지대라는 지역적 차이가 기마술과 몰이 방식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우왕과 최영의 사냥기록에서도 몰이하여 사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우왕 6년(1380)에 성 동쪽에서 사냥하였고, 다음날 또 백언교(伯顏郊)에서 사냥하였다. 최영(崔瑩) 등이 짐승을 몰아서 왕 앞쪽으로 놓으면, 우왕이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²⁷⁹⁾ 최영을 비롯한 몇몇이 말을 달려 우왕의 앞으로 짐승을 몰아(驅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수(驅獸)로 표현되는 기마 몰이 방식은 조선시대 제도화된 강무에서도 흔히 언급된다. 세종대에 별시위 절제사 곽승우(郭承佑)는 몰이하는 임무를 맡은 구수군(驅獸軍)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징계받을 정도로 강무시 몰이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호랑이를 몰이사냥하는 방식은 이성계의 사냥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²⁸⁰⁾에 이성계는 소시(少時)에 산기슭(山麓)에서 멧돼지를 쫓아 기사 사냥 중에 호랑이를 죽인 기록이 있다.

278) 『高麗史』권27, 世家27, 元宗 14년 12월 辛酉. 辛酉 元遣搏虎人九名, 牽犬一百來, 驅群犬逐虎, 犬多被害, 終不獲曰, “高麗之虎, 不可用犬.” 乃還.

279) 『高麗史』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禡王 6年 3월 禡獵于城東, 翼日又獵于伯顏郊. 崔瑩等驅獸而前, 禡射中之.

280) 『太祖實錄』 1권, 충서

산록(山麓)의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으나 사용된 용어를 보았을 때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으로 평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지대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계는 멧돼지를 쫓던 도중 갑자기 백 길의 낭떠러지(百仞之崖)에 다다르게 되었고, 쫓던 멧돼지와 자신이 타던 말 역시 떨어져 죽었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 산의 중턱까지 멧돼지를 추격하여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광의의 요동지역인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한반도 까지에서는 주로 산(山)이라는 장소도 사냥의 무대가 되었다.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발흥한 고구려 이후 이 지역을 공유한 거란과 여진인들 역시 말을 타고 산에 잘 오르내렸으며, 계곡이나 비탈에서 사냥감을 몰아 활을 쏘는 데 능숙했다. 고려와 조선시대 역시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산이라는 곳은 사냥터와 마찬가지로였다.

실제로 이성계의 전투기록이 자세한 황산대첩 같은 경우는 산을 오르며 기병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이성계는 큰 호랑이가 숲속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듣자마자 사냥에 나섰다. 이성계는 활과 화살을 쥐고, 또 화살 한 개는 허리 사이에 꽂아 철저히 호랑이를 활로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몽골인들과는 달리 직접 기마 상태에서 호랑이를 사살하려고 한 것이다. 그 후에 숲 뒤의 고개에 오르고(登藪之後峴), 사람을 시켜 아래에서 몰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성계가 명령한 몰이꾼들에 의해 호랑이가 태조의 근처까지 접근하였고, 이성계도 호랑이의 갑작스런 접근에 즉시 말을 달려서 피하였다(卽馳馬避之)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가 숲속에서 나와 이성계를 공격하였고, 이에 즉시 이성계는 말을 이동시켜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범이 이성계를 쫓아와서 타고 있는 말의 궁둥이에 올라 움켜채는 공격을 하였고, 이성계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호랑이를 가격하여 호랑이는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성계가 말을 돌려 호랑이를 쏘아 죽였다. 이 기록을 통해 호랑이를 사냥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뛰어난 기마술과 활쏘는 능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다. 위에 사냥 중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향리 최상저(崔婁伯)는 이성계와 같

이 갑작스런 상황에서 말을 이동시키지 못했고 정확한 사격으로 호랑이에게 피해를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3)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본 기사 사냥의 특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주로 거란, 여진, 몽골, 왜구 등 외부의 침입에 대응한 군사훈련의 정황은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열(闕)’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열의 기록은 고려말 우왕 시기에 오면서 대열(大閱)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강무(講武)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고려사 병지(兵志)의 기록²⁸¹⁾에는 우왕 11년(1385) 1월 마암(馬巖)에서 시행된 강무(講武)는 두 진영(陣營)으로 진행되었는데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진 자 1대(隊) 그리고 창(槍)과 깃발을 가진 자를 1대로 삼아 궁수군(弓手軍)으로써 따르게 하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북치고 소리 지르며(鼓噪) 서로 치계(相格) 하니 부상을 당한 자가 자못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진법 훈련으로 볼 수 있으며 훈련이 실전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⁸²⁾

그런데 고려사 우왕 11년(1385) 1월 기록을 보면 우왕이 마암(馬巖)에서 군대의 강무(講武)를 구경하다가 싸우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무예도감사(武藝都監使) 성중용(成仲庸)·이빈(李贇)을 매질하였다. 군인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연습을 해서,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²⁸³⁾고 되어 있어 같은 기록으로 보이고 무예도감의 존재와 이를 성중용(成仲庸)과 이빈(李贇)의 책임을 물어 매질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尹薰杓(2004)는 무예도감(武藝都監)이 군사훈련인 강무(講武)를 담당하는 부서였으며, 책임자로 2명의 무예도감사(武藝都監使)가 임명되었다고 보았고, 방어진을 형성한 1대와, 공격진을 형성한 1대가 서

281) 『高麗史』 卷135 列傳 卷第四十八 禡王 11年 1월

282) 『高麗史』 卷81 志 卷第三十五 兵一 병제

283) 『高麗史』 卷135 列傳 卷第四十八, 禡王 11年 1월

로 대련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면서 궁수군(弓手軍)이라는 원거리 공격 및 적의 후방을 노리는 부대까지 편제하여 창술과 궁술을 구사하는 부대를 결합시켜 진열을 형성하여 전투하는 방식으로 연습했던 것으로 보았다.

위의 고려사 병지와 우왕의 강무 시행 기록에서는 도입된 진법의 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같은 달 우왕은 강무(講武)를 구경하다가 친히 기사(騎射)하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마암(馬巖)이란 강무 장소는 말이 달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기사연습을 할 수 있는 과녁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려말의 군사훈련은 대열, 강무, 사냥 등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과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창업의 주체인 이성계 본인도 사냥을 자주 하였고, 우왕대의 사냥 기록과 고려의 마지막 요동 정벌과정을 보면 전쟁 준비는 시종일관 사냥 준비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고려 말에 정확하게 보이는 사냥과 군사훈련에 관한 기록들은 고려 전반에 산재하여 존재한다. 공민왕 12년 5월에 내린 교지(敎)에 따르면, 근래 각처의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병사를 거느리고 아무때나 사냥하여 짐승들의 생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 한다며 엄격히 금지하게 했다.²⁸⁴⁾²⁸⁵⁾ 당시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적침이 계속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兵士를 동원하여 사냥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사냥은 항상 군사훈련을 핑계 대고 실시되었다. 사냥은 실전(實戰)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의 하나로 자주 활용되었다. 사냥에 필요한 기마술과 활쏘기를 익히고 물이사냥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서 일정한 규범에 의거하여 사냥 시킴으로써 실제 전투에 필요한 무예나 전법을 습득하였다. 동시에 농사에 많은 해를 끼치는 악수(惡獸) 따위를 포획하고자 철에 맞추어 실시했다(朴道植, 1987 : 391).

우왕은 서해도에 자주 행차하여 사냥을 하였다. 고려사에 우왕의 사냥

284) 『高麗史』 卷84, 刑法志 1, 職制, 恭愍王 12年 5月, 下冊,

285)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中冊,

관련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기행과 각종 폐단의 원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있다. 그러나 명확한 점은 이 사냥이 명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기도 하였다는 점이다(김창현, 2017).

우왕 13년(1387) 명은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나하추를 평정하고 요동 지역에서 원나라 잔여 세력을 일소했다. 요동진출이 가능해진 명측은 요동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우왕은 최영과 더불어 요동정벌을 결정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우왕의 사냥은 모두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왕 14년(1388) 3월에 평소와 같은 해주(海州) 백사정(白沙亭)에서 서렵(西獵) 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요동을 공격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우왕의 사냥관련 기록들과의 연장선상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의 요동진출의 준비가 사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규철(2014)은 요동정벌계획을 우왕이 직접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왕 시기 명의 철령위 설치 문제로 최영이 요동정벌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우왕이 요동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정벌할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태조시기에도 요동정벌계획을 정도전이 아니라 태조가 직접 요동지역과 더불어 북방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공민왕 사후 요동을 점령한 명나라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감당키 어려운 세공(歲貢)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1388년(우왕 14년) 음력 3월, 명나라가 철령위 설치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우왕은 8도의 정예 병사 징발을 명령하고, 스스로 평안도로 행차하겠다고 나서면서 요동 공격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서해와 평양 2도는 서렵을 맞이하느라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실제 사냥준비와 동시에 군사적 측면의 준비가 더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다.²⁸⁶⁾ 시중(侍中) 최영(崔瑩)은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음력 4월에 주

286) 『高麗史』 권137, 우왕 14년 3.4월

전론(主戰論)을 지지하는 우왕과 더불어 평양으로 떠났고, 조민수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하여 좌우군 3만 8,830명 등 5만여 병력을 요동으로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성계가 결정한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의 기회는 실패로 돌아갔다. 고려 우왕 시기 요동정벌계획은 본래 이성계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다. 아울러 이성계는 최영 제거와 국왕 교체 등 명에 대한 사대명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우왕이 봉산에 가서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처음 요동 정벌 계획을 알렸을 때(음력 4월 1일), 이미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²⁸⁷⁾를 들어 이를 반대했으나 우왕은 묵살했다. 우왕과 최영은 반대여론을 억누르고 출병을 강행하였다. 우왕은 직접 평양에 머물며 군사 징발을 독려하고, 좌군과 우군을 정비하였으며 압록강의 부교(浮橋)를 설치하는 것을 지휘하였다.

5월 22일,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우군도통사였던 이성계가 좌군도통사인 조민수를 회유하여 전군(全軍)을 회군시켰다. 당시 성주(成州, 평안남도 성천군)의 온천에 머물고 있던 우왕은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말머리를 돌려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동강을 건너 개경으로 돌아왔으며 성난 군사들을 회유하였다.

개경을 점령한 이성계 일파는 최영의 군대를 물리치고 최영을 내어줄 것을 청한 뒤, 고봉현으로 유배보낸 뒤 이후 처형하였다. 우왕은 군사들을 다독이며 한편으로는 이성계를 급습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388년 6월 8일, 우왕은 마침내 이성계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로 쫓겨났다.

1370년 공민왕대의 동녕부 공격과 1388년 우왕대의 요동 공격과 조선 태조 년간의 요동을 둘러싼 어떠한 공감대 혹은 지역적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지역을 관통하는 전통인 기사가 있었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일관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앞서 무예도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진법 훈련과 같은 보병훈련은 더 이상 보이지

287)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 (以小逆大), 여름에 출병하는 것 (夏月發兵),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빈틈을 노릴 염려가 있는 것 (舉國遠征, 倭乘其虛), 장마철에는 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않고, 요동을 둘러싼 기사하는 인물들의 각축전만이 보일 뿐이다.

4. 소결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고려의 군사력은 외적의 침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 이후에도 지속된 충렬왕 11년(1290) 몽골 카다안의 침입, 공민왕 4년(1355년) 중국 홍건적의 침입, 우왕 대 까지 이어진 다수의 왜구 침입에 대하여 고려는 적극적인 공세로 토벌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 군사력의 힘은 평소 사냥으로 훈련된 기사 능력과 몰이사냥을 근거로 한다.

최윤덕의 경우처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는 고려 무예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고, 군사로서 훈련받으면 실제 전쟁터에서 그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 고려시대 전반의 전투기록을 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소수로 다수의 적을 격퇴한 경우는 대부분 기병들의 기사였다. 이러한 고려 후기의 특징은 이러한 기사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자들은 고려말 강무의 특징을 진법에 의한 군사훈련 관점에서 주로 논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고려말 강무는 사냥을 통한 기병훈련과 진법을 통한 보병훈련 등 복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앞서 고려 말 사냥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였듯이 사냥의 측면에서 보면 군사훈련의 기능이 같이 있고 군사훈련으로서 사냥을 보면 이 역시 고려의 풍토에 맞는 기사를 중심으로 한 기병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 전기에 제도화되기 이전 강무는 기사 사냥을 기반으로 한 군사훈련의 성격이 강하다. 이 기사 사냥은 고려의 자연환경 그리고 고려인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평생 걸쳐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 능력의 연장선상에서 강무라는 군사훈련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IV. 조선시대 기사(騎射)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몽골은 요동과 맞닿은 고려와의 오랜 전쟁을 거쳐 1270년 고려의 서북면 지역에는 동녕부를, 1258년 이후 고려의 동북면 지역에는 쌍성총관부를 각각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몽골은 요양행성(遼陽行省)을 통해 요서(遼西)와 요동(遼東) 지역에서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해 왔다(최윤정, 2010). 이 과정에서 요동을 비롯한 남만주 일대와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은, 명 당국에 의해서도 달단(韃靼), 여진(女眞), 고려인(高麗人)들이 섞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었다.²⁸⁸⁾

이 지역은 조선의 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임과 동시에 그 이전 한국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선기사자들의 고향과도 같았다. 3장에서 고려의 기사 사냥은 고려인들에게 있어 생필품 취득, 개인의 무예연습 그리고 기병전술 훈련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고려시대의 기사사냥이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를 이루며 강무라는 군사예와 무과시취라는 능력을 시험하는 과목으로 제정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보았다. 고려말의 개인과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무예와 군사훈련의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강무와 무과를 논의하였다.

1. 고려말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전통적 특징

고려시대부터 주로 보병의 훈련을 위하여 중국식의 진법훈련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북방의 민족들이 기사를 중심으로 기병전술에 특기가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보병의 무예를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서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하였다. 특히 『周禮』는 군사

288) 『明太祖實錄』 권187, 洪武 20년 12월 壬申. 命戶部咨高麗王以鐵嶺北東西之地舊屬開元其土著軍民女直韃靼高麗人等遼東統之鐵嶺之南舊屬高麗人民悉聽本國管屬疆境既正各安其守不得復有所侵越

훈련의례의 표준으로서 중국에서 대대로 연구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는 유학이 성행하기 시작한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에서도 고제(古制)로서 각종 군사제도에 성문화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이러한 중국식 군제의 수용이 무조건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저변에 자리잡은 기사의 문화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결과 였다.

1) 고려말 한반도 북부 기사의 전통적 특징

몽골제국이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구축한 통치 질서가 14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면서 명(明)의 건국과 세력 확대는 고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고려는 정치적으로 몽골과 명을 모두 상대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정다함, 2017). 중국 각지에서 흥건적이 봉기하자 몽골은 공민왕 3년(1354) 고려에게 구원병을 요청할 정도로 약화 되어있었다.²⁸⁹⁾

(1)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이성계의 등장

몽골의 군사력이 확실히 약화 되었음을 인지한 공민왕은 공민왕 5년(1356) 부원세력(附元勢力) 먼저 제거하기 시작했고, 원을 배경으로 왕권을 위협하며 권세를 부려온 부원세력은 일시에 숙청되었다. 공민왕은 또한, 국토회복을 위해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공격하게 하였고,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수복하게 했다.²⁹⁰⁾ 같은 해 6월에 인당이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파사부(婆娑府) 등 3참(站)을 공격해 격파했다.²⁹¹⁾

공민왕의 고토 수복 명령을 받은 동북면병마사 유인우는 이자춘(李子春)·이성계(李成桂) 부자의 호응을 얻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이때

289) 『高麗史』 권38, 세가 권제38, 공민왕 3년 6월

290) 『高麗史』 권39, 세가 권제39, 공민왕 5년 5월

291) 『高麗史』 권39, 세가 권제39, 공민왕 5년 6월

화주(和州)·등주(登州)·정주(定州)·장주(長州)·예주(預州)·고주(高州)·문주(文州)·의주(宜州) 및 선덕진(宣德鎭), 원흥진(元興鎭), 영인진(寧仁鎭), 요덕진(耀德鎭), 정변진(靜邊鎭) 등을 수복했다.²⁹²⁾

이렇게 고려는 조정 내의 부원 세력을 제거하면서 원이 지배했던 평안도(서북면)와 함경도(동북면)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자춘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면서 당시 22세의 이성계 역시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이성계는 원나라 세력을 축출 하는데 전력하였고 동시에 왜구토벌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서 고려정부의 실세 무장으로 성장하게 된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 20-21).

한편 흥건적은 국호를 송(宋)이라 정하고 허난성(河南省)·산시성(山西省)·산시성(陝西省) 등지로 세력을 확장 중이었다. 그 일부가 만주(滿洲) 지역으로 북진해 요동(遼東)을 잠시 점령했다가 몽골의 반격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와 도리어 고려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⁹³⁾ 이후 1359년 12월 모거경(毛居敬)이 이끄는 흥건적 4만 군사에 의해 철주(鐵州)와 서경(西京 : 平壤)까지 빼앗겼으나 안우, 김득배, 이방실의 군대가 흥건적을 대파하여 서경을 탈환하였고,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내었다.²⁹⁴⁾

공민왕 10년(1361) 10월 반성(潘誠), 사유(沙劉), 관선생(關先生), 주원수(朱元帥) 등이 10만의 무리를 이끌고 다시 고려를 침범하여 개경(開京)을 위협하여 공민왕이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로 파천(播遷)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공민왕 11년(1362) 이성계는 고려의 무장들인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황상(黃裳), 한방신(韓方信), 이어경(李餘慶), 김득배(金得培), 안우경(安遇慶), 이구수(李龜壽), 최영(崔瑩) 등과 함께한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흥건적 사유(沙劉), 관선생(關先生), 파두반(破頭潘) 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성계는 뛰어난 기마술과 무예를 선보여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²⁹⁵⁾

292) 『高麗史』 권39, 세가 권제39, 공민왕 5년 7월

293) 『高麗史』 권39, 世家 권第三十九, 恭愍王 8年 12월

294) 『高麗史』 권113, 列傳 권第二十六, 諸臣

295)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二, 恭愍王 十一年 1월

(2) 이성계의 지역적 기반을 통해 본 기사의 특징

고려말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 북부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明太祖實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원, 명, 고려가 서로의 경계에서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대립했다. 앞선 2, 3장에서 살폈듯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사하는 인물들이 서로 반목, 회유, 연합하던 곳으로 선기사(善騎射) 하는 사람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결정적으로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에게 한반도 북부지역은 자신의 세력기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다. 몽골에서 명(明)으로 교체시기와 맞물려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의 교체가 서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이성계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은 모두 고려의 동북면과 서북면, 즉 여진족 사회의 남동쪽과 중첩되는 지역들이었다. 이성계와 그 선대들은, 몽골 황실의 신하인 천호(千戶)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살아갔었고, 이후 공민왕 때에는 다시 고려 왕실의 신하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결국 이성계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정다함, 2017).

이러한 한반도 북부지역의 풍습은 조선 전기 세종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新增東國輿地勝覽』과 조선 후기 유형원의 『東國輿地誌』에 나타나 있다.

평안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개발된 곳으로, 중국역사서에 기록된 한국사인 고조선에서부터 조선시대 까지 잦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13년(1413)에 평안도로 이름이 확정되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권53 평안도(平安道) 의주목(義州牧) 지역의 풍속에 대해서 풍기(風氣)가 강경(強勁)하고 기사(射御)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²⁹⁶고 기록되어 있고, 귀성도호부(龜城都護府)에 대해서는 기사에 힘쓴다(務射御), 간소하고 질박(質朴)한 것을 숭상한다²⁹⁷고 기록되어 있어 이 지역의 역사성과 동시에 풍속을 알 수 있다.

『東國輿地誌』 8권의 함경도(咸鏡道)의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의 풍속

296) 風氣強勁, 善射御, 好畋獵. 『東國輿地誌』 권9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297) 務射御, 尚簡質. 『東國輿地誌』 권9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에 대해서는 모진 추위(風氣苦寒)가 있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尙儉素), 강용(強勇) 하다고 하며, 기사에 뛰어나고(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고 기록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6진의 민속(六鎭民俗)이 모두 말을 달리는 것을 즐기고(喜騎馬) 가장 앞서 빨리 돌격하고(馳上突), 기사에 뛰어나며(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 사람들은 모두 용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⁸⁾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에 대해서는 풍기가 강력하고(風氣強勁), 기사에 뛰어나며(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²⁹⁹⁾고 기록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함경도와 평안도는 모두 한반도의 북쪽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땅으로 고려와 조선전기 까지도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거란과 여진같은 북방민족들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어 사냥과 목축 그리고 농사까지 겸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북방민족들과 수, 당, 명과 같은 중화의 국가가 한반도를 침입할 때 1차 방어선이 되는 주요 거점들이기도 하다.

(3) 이성계의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위와 같은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무대로 이성계는 우선 1362년 2월 북면(東北面) 쌍성(雙城)을 공격하고자 수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한 납합출(納哈出)³⁰⁰⁾과는 기병전투로서 서로 간의 실력을 확인한다. 납합출은 그의 세력이 몽골과 고려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나라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권을 챙겼고 후에는 명에 항복하여 운남 정벌에 나설 만큼 몽골, 고려, 명을 오가며 활약한 인물이다.

1368년 명나라 군대에 밀려 상도로 물러난 원 황제 토곤 테무르가 납합출(納哈出)의 요동 세력에 크게 의지할 정도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

298) 風氣苦寒。尙儉素、強勇。并地志。行者不齋糧。府籍。善射御，好畋獵。六鎭民俗，皆喜騎馬馳上突，善射御，好畋獵。人多勇力。

299) 風氣強勁，善射御，好畋獵。

300)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제국의 개국공신 무칼리([木華黎], Jalair Muqali) 후에

고 있던 실력자였다.

몽골이 중화 지방에 세운 원나라의 멸망 5년을 앞둔 공민왕 11년(1362) 2월 고려의 반역자 조소생(趙小生)의 유인을 받은 그는 동북면(東北面) 쌍성(雙城)을 치고자 수만 대군을 이끌고 삼철(三撤), 홀면(忽面) 등지에 침입하였으나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게 함흥평야의 대회전(大會戰)에서 참패하고 달아났다.

時賊兵勢甚盛，太祖知其詐，欲令降之，有一將，立納哈出之傍，太祖射之，應弦而倒，又射納哈出之馬而斃，改乘又斃之。於是，大戰良久，互有勝負，太祖迫逐納哈出，納哈出急曰，“李萬戶也！兩將何必相迫。”乃迴騎。太祖又射其馬斃之，有麾下士，下馬以授，納哈出遂得免。³⁰¹⁾

『高麗史』에는 이성계와 납합출 간의 쫓고 쫓기는 다급한 기사 전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성계가 납합출을 쫓으며, 세 번이나 말을 쏘아 죽였지만, 그때마다 납합출 역시 말을 바꾸어 타 위기를 모면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납합출이 이성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살려줄 것을 청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변경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마술과 활쏘기의 달인들 간의 감정적인 교류까지 느껴지는 묘사로 볼 수 있다.

고려계 몽골인으로 몽골식 이름인 이오로테무르(李吾魯帖木兒)로 등장하는 이원경 역시 몽골과 고려의 사이에서 활약하던 인물이다. 공민왕 19년(1370) 제1차 요동정벌 때 동녕부 정벌 시기에 이원경은 이성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弓羅山城)으로 이동해 주둔하여 험한 지형에 의지해서 항거하려고 하였다.

이성계가 야둔촌(也頓村)에 이르자 이원경이 도전하였으나, 얼마 안있어 무기를 버리고 두 번 절까지 하며, 선조가 고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300여 호(戶)를 거느리고 투항하였다. 그러나 추장 고안위(高安慰)는 저항을 계속했다. 고려군은 성을 포위했고, 이들이 저항하자 이성계는 종(從者)에게서 빌린 활로 편전(片箭)을 쏘아 70여 발을 명중시켜 고안위가 도망갈 정도로 성안의 사기를 떨어뜨린다.³⁰²⁾

301) 『高麗史』 권四十, 世家 권第四十, 恭愍王 11年 7월

이에 여러 성들이 소문을 듣고 모두 항복하였으므로 모두 10,000여 호(戶)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북방 사람들(北人)을 회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이원경은 이성계와 기사사냥을 하거나 같이 전투에 참여하며 친근한 모습으로 자주 묘사된다.³⁰³⁾³⁰⁴⁾ 이원경의 가족은 대대로 길주에서 거주하며 백성과 토지를 차지해 부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시애의 난으로 유명한 이원경의 손자 이시애대에는 조선의 중앙집권화를 거부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 동녕부(東寧府)의 무장으로 기사인테무르(奇賽因帖木兒)를 따르던 처명 역시 이성계와의 전투 중에 항복한 인물이다. 처명은 공민왕 19년(1370년) 고려의 지용수, 이성계 등이 지휘한 1차 요동 정벌 당시 요양(遼陽)을 지키고 있었다.

이성계는 처명(處明)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하여 처명의 투구를 떨어뜨리며 항복³⁰⁵⁾을 받고 요성(遼城)을 함락시킨다. 이후에 처명은 이성계의 휘하로 활약하면서 공민왕 21년(1372) 6월 이성계와 동북면에 침입한 왜구를 막는데 같이 하였으며, 우왕 6년(1380년)의 황산 전투에서도 이성계의 말 앞에서 싸워 공을 세웠다.

이성계가 처명을 회유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원경의 공 역시 컸다. 이성계는 세 번이나 이원경(李原景)에게 일러 처명을 타일러(諭)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其將處明恃驍勇，猶拒戰，太祖使李原景諭之曰，“殺汝甚易，但欲活汝收用，其速降。”不從。原景曰，“汝不知我將之才。汝若不降，一矢洞貫矣。”猶不降，太祖故射拂其兜牟，又使原景諭之，不從。太祖又射其脚，處明中箭退走，既而復來欲戰。又使原景諭之曰，“汝若不降，則射汝面。”處明遂下馬，叩頭而降。有一人，登城呼曰，“我輩聞大軍來，皆欲降，守將勒令拒戰。若力攻城，可取也。”城甚高

302) 『高麗史』 권四十二, 世家 권第四十二, 恭愍王 19年, 其酋高安慰帥麾下, 嬰城拒守, 我師圍之. 太祖適不御弓矢, 取從者之弓, 用片箭射之, 凡七十餘發, 皆正中其面. 城中奪氣, 安慰棄妻孥, 縋城夜遁.

303) 『高麗史節要』 권29, 恭愍王四, 恭愍王 十九年 1월

304) 『高麗史』 권四十二, 世家 권第四十二, 恭愍王 20年

305) 『高麗史』 권一百十四, 列傳 권第二十七, 諸臣

峻，矢下如雨，又雜以木石，我步兵冒矢石，薄城急攻，遂拔之，賽因帖木兒遁，虜金伯顏。

위 사료에서 보면 이원경은 처명이 우리 장수들의 재능을 모르는(汝不知我將之才) 것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으면(汝若不降) 화살 하나로 관통시켜주겠다(一矢洞貫矣)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성계 그리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말을 타고 활을 겨누는 채 처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계가 일부러 처명의 투구를 쏘아서 떨어뜨렸는데도(太祖故射拂其兜牟) 처명은 항복하지 않았고, 다리를 맞혀도(太祖又射其脚) 처명은 화살이 박힌 채로 퇴각했다가(處明中箭退走). 다시 전투하려고 올 정도로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이성계가 다시 이원경에게 일러 처명을 깨닫게 하는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명의 얼굴을 쏠겠다고 위협하여 처명이 마침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였다.

위의 납합출, 이원경과 같은 맥락에서 처명 역시 그 회유 과정에서 이성계와 그 장수들의 기사가 큰 교류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명이 항복한 이후 매우 높고 험준한 곳에 위치한 성은 보병에 의하여 함락되었다. 이후 처명은 이성계의 은혜에 감복하여 매양 화살 맞은 상흔을 보고 그때마다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으며 항상 좌우에서 시종하기도 하고 황산 전투에서는 왜구를 토벌하는데에도 선봉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³⁰⁶⁾

후에 공민왕 21년(1372)경 처명은 이성계를 따라 화령에 가서 사냥한 기록이 있는데 왜적(倭賊)이 동북계(東北界)에 침략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성계와 처명은 사냥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곰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처명의 말이 얼음판에 미끄러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이성계가 즉시 가파른 비탈을 말을 달려 내려와서 큰 곰 3-4마리를 모두 화살 한 개로 쏘아 죽여 처명을 구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³⁰⁷⁾

306) 『高麗史』 권126, 열전 권제39, 간신

307) 『太祖實錄』 권1, 총서

이렇게 당시 급변하던 몽골, 명, 고려 간의 세력변화는 요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명나라 측에서도 인지하였듯이 이 세력 외에도 흩어져있던 여진인, 발해인 등 각 세력의 변경에 위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기사라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였다. 3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이 지역은 고조선 때부터 이어진 기사하는 사람들의 주 무대였으며, 이것이 이어져 기사라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다시금 서로를 인지하게 된 시기였다.

2) 군제 개혁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 중국식 군사훈련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

앞선 3장에서 논의한 고려후기에 보이는 군사훈련은 강무, 사냥, 대열 등이 명확한 구분 없이 군사훈련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전반에 걸쳐 행해진 기사사냥은 그 방식이 명확하나 중국에서 도입을 시도한 강무와 대열 등은 기존 보수세력과 군제상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송나라의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

고려 초중반기의 역사와 함께한 송나라의 경우 요(遼), 서하(西夏), 금(金) 등 강력한 기병 전술을 구사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받았기에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주무기로하는 보병의 전술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기에 주례에 보이는 사냥에서의 군사훈련과는 달리 송나라에서는 진법훈련 위주의 강무를 중시하게 되었다(허대영, 2021 : 29).

송나라 병학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여 고려시대에도 중국식 국가주도의 훈련이 점차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제(古制)라고 불리우는 『주례(周禮)』의 사냥 의례와 군사훈련이 연결되는 기록은 『高麗史』 정종(靖宗) 5년(1039) 6월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종은 전쟁이 없는 시기에 무(武)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周禮』를 인용하여 사냥(蒐狩)으로 군사를 익히고, 『論語』를 인용하여 사람을 가르쳐 전쟁에 내보내야 하

는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五年六月 制曰, “自前朝, 偃武修文, 盖有年矣, 雖四方無事, 不可忘戰. 周禮, ‘以軍禁, 糾邦國, 以蒐狩, 習戎旅.’ 傳曰, ‘以不教人戰, 是謂棄之.’ 宜遣使兩京·兩路·諸州, 簡取驍勇, 教習弓馬.”

3장에서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왕이 친림한 사열(閱) 기록을 분석하였듯이 고려 전기에는 대부분 기사를 중심으로 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의 기사 사냥은 개인의 기사 능력을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정종(靖宗)은 고려시대에 주로 행해졌던 기사사냥과 주례의 가르침인 사냥으로 용려를 익힌다(以蒐狩, 習戎旅)는 것과 연관 지은 것이다.

조선 초에 태조와 태종 모두 유학자들에게 사냥의 당위성을 주례에서 찾은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정종(靖宗)은 『論語』에 의거하여 전쟁터에 보낼 사람을 가르쳐야(教) 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뒤의 문장인 효용(驍勇) 한 사람을 가려 취하여(簡取)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평소 사냥으로 용맹을 키운 사람을 가려 군사훈련으로서 기사(弓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종 4년(1050) 당시 도병마사였던 왕충지(王寵之)의 상소에서도 볼 수 있다. 왕충지는 군사훈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병 훈련으로서 북을 쳐 소리로 신호하는 체계인(金鼓), 깃발을 올려 시각 신호하는 체계인(旌旗), 나아가고 멈추며 앉고 일어서는 행동 지휘 체계(坐作)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후 문종 26년(1072) 무학(武學)이 설립되어 최초로 『孫子』, 『吳子』, 『六韜』를 시작으로 『武經七書』가 병학 교육의 기본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문종 34년(1080)에는 송나라의 국자감(國子監)에서 『武經七書』를 교정하고 인쇄 간행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³⁰⁸⁾. 이를 통해 이미 중국식의 대규모 진법훈련이 『武經七書』가 고려시대에 점진적으로

308) 노영구(2017)a에서 재인용, 謝詳皓, 中國兵學(宋元明清권), 山東人民出版社, 1998, p.32

도입되었음을 엿 볼 수 있다.

무경칠서 중 하나인 『司馬法直解』의 원주(原注)³⁰⁹에는 왕충지가 간언한 정기(旌旗), 징과 북(金鼓), 앉고 일어나는(坐作) 규칙의 인용 출처를 알 수 있다. 무경칠서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바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에서 각종 소리 신호, 깃발 신호를 활용하여 전진과 후퇴 등의 군사를 다스리(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진법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위 정종의 주장에 보이는 군사훈련은 효용(驍勇) 한 사람을 뽑아 기사를 가르치고 사냥을 통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왕인 문종대 왕충지의 상소를 자세히 보면 그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金鼓), 정기(旌旗), 좌작(坐作)과 같은 중국식 진법 훈련의 용어가 보인다.

왕충지가 간언한 시기를 보면 거란이 침입한 지 약 30여 년 만에 해이해진 기병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四年十月 都兵馬使王寵之奏, “傳曰, ‘安不忘危,’ 又曰, ‘無恃敵之不來, 恃吾有備,’ 故國家每當仲秋, 召會東南班員吏於郊外, 教習射御. 而況諸衛軍士, 國之爪牙, 宜於農隙, 教金鼓旌旗坐作之節. 又馬軍, 皆不練習, 請先選先鋒馬兵, 每一隊, 給馬甲十副, 俾習馳逐, 仍令御史臺·兵部六衛, 掌其教閱.” 從之.

문종(文宗) 4년(1050) 10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 왕충지(王寵之)는 『좌전(左傳)』을 인용하여 평안(平安)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적(敵)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방비 되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왕충지가 말한 국가에서 매년 중추(仲秋)가 되면 동반(東班)과 남반(南班)의 원리(員吏)들을 교외(郊外)로 불러 모아 기사를 가르치고 익히게 한다(教習射御)는 구절에서 고려의 중류층들 역시 주기적으로 기사를 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09) 武夫前呵 壯士後隨 旌旗麾幟 金鼓笳笛 坐作進退 分合解結 此軍容也 所以不可入於國

이와 동시에 여러 위(衛)의 군사들은 농한기를 틈타 금고(金鼓)·정기(旌旗)·좌작(坐作)의 규칙을 훈련하였고, 마군(馬軍)은 모두 연습(練習)하지 않는다고 하여 훈련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선봉마병(先鋒馬兵)을 선발하여 1대(隊)마다 말의 갑옷(馬甲) 10벌(副)을 지급하여 달리고 쫓는 것을 익히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기사는 지위가 낮은 원리(員吏)들도 지속적으로 훈련 중이었고, 별도로 마군의 훈련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사대(御史臺)·병부(兵符)·6위(六衛)로 하여금 그 교열(教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³¹⁰⁾

왕충지의 상소에는 당시 군사훈련에 대한 정보가 종합되어 있다. 우선 왕충지의 글을 보면 중추(仲秋)라는 정기적인 시기에 단체로 모여 집중하여 기사를 가르치며 연습하고(敎習射御)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은 동반(東班)과 남반(南班)의 원리(員吏)들로 이들은 각자 개인적인 무예 수련의 차원에서 교외(郊外)에 모여서 연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기사를 교습(敎習)한 교외(郊外)는 수도 밖의 사냥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냥으로 기사를 교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여러 위(衛)의 군사들은 마땅히 농사에 여유있는 시기(農隙)에 금고(金鼓)·정기(旌旗)·좌작(坐作)의 규칙을 훈련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당시 왕충지가 진법훈련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군(馬軍)은 모두 연습(練習)하지 않는다고 하여 훈련이 부족함을 구분하여 지적한 것으로 보아 바로 직전에 언급한 금고(金鼓), 정기(旌旗), 좌작(坐作)은 보병훈련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봉마병(先鋒馬兵)을 선발하여 1대(隊)마다 말의 갑옷(馬甲) 10벌(副)을 지급하여 달리고 쫓는 것을 익히게 한다는 것을 보아 중추에 연습하는 개인 무예 차원의 기사 훈련이 아니고, 금고(金鼓)·정기(旌旗)·좌작(坐作)의 진법 훈련도 아닌 같은 기병대(隊) 수준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충지 이전 국왕 친림 군사훈련 기록인 열(閱)과 관련된 기록은 앞선 4장에서 분석하였듯이 대부분 기사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310) 『高麗史』 권八十一, 志 권第三十五, 兵 一

있다. 그렇기에 거란과의 전투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소규모 별동대 방식으로 대응한 고려의 군제가 보병과 기병의 개인 훈련과 대규모 훈련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예종 1년(1106)에 사신(使臣)을 보내 지방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도록 한 일이나 숙종 9년(1104년) 보승군(保勝軍)의 병진(兵陣)을 보았던 일을 보면³¹¹⁾ 왕충지의 요청 이후 고려시대의 군사훈련 시행기록이 12세기부터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기사 훈련위주의 훈련에 더하여 보병의 훈련 역시 증가하였으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식 병학에 기초한 진법훈련으로 바뀌기 시작한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3) 왜구의 침입과 군사훈련의 변화

몽골의 세력이 약화되고 중국대륙에서 명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고려는 명과 우호적 외교관계는 유지하되 영토 침입이나 영역을 넘어서는 간섭은 물리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金順子, 199 : 70). 이 시기 한반도의 북방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한 몽골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해안을 통한 왜구들의 위협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홍건적, 왜구, 몽골 잔당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적들과의 전투가 빈번해지자 기존 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 11년(1362) 감찰사(監察司)의 상언(上言)³¹²⁾, 공민왕 21년(1372) 10월 우현보(禹玄寶) 등의 상소(上疏)³¹³⁾를 보면 매번 위급(危急)할 때마다 훈련받지 못한 농민(農民)을 징발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미리 장수와 장정(壯丁)을 가려 병법(兵法)을 배우게 하고 무예(武藝)를 익히게 하는 병서(兵書)로 사람을 채용하는 과거(科擧)의 실시가 제시되며, 금고(金鼓) 소리를 익히고 눈에 정기(旌旗)를 익숙하게 하여 모두 전쟁에서 놀라지 않게 하는 진법의 훈련 방식 역시 제시되고 있다.

우왕 9년(1383) 8월에 올린 이성계의 변방(邊方)을 평안하게 하는 대책

311) 『高麗史』 권81, 병지, 병제, 문종 9년 ; 숙종 9년 ; 예종 1년.

312)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恭愍王 11年 6月

313)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計策)에는 왜구의 침략을 막는 방도(方途)로 시작한다. 그동안 변방의 위협은 주로 거란, 여진, 몽골이었으나 이 시점부터 해안을 경계로 침입하는 왜구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이성계는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병사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 기(旗)를 휘두르고 북을 쳐서 지휘하는 신호에 익숙하지 못하며(不熟旗鼓), 치고 찌르는 기술도 습득하지 못해(不習擊刺) 적과 싸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훈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³¹⁴⁾ 이를 통해 보병에 대한 훈련체계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피해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에 말을 타지 못하고 사냥을 하지 않는 농민들을 전투에 내보내면 전혀 대응할 능력이 없어 도망가기 급급했다. 사냥과 연관된 군사훈련 사료들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는 군사훈련 대상이 기병이 아닌 졸오와 농민들로 구성된 보병훈련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그 훈련의 내용은 주로 중국식의 법제에 따른 신호체계인 진법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성계가 제시한 안변책 다음 해에 무예도감(武藝都監)이 설치된다는 저점이다. 무예도감은 우왕 10년(1384) 12월 곽해룡(郭海龍)의 건의에 따라 설립되었다.³¹⁵⁾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우왕 11년(1385) 1월 기록³¹⁶⁾과 같은 해 병지(兵志)의 기록을 보면³¹⁷⁾ 훈련의 수준이 높지 않아 우왕이 직접 책임자인 성중용과 이빈을 매질하고, 훈련 중에도 부상자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는 힘들다.

尹薰杓(2004)는 무예도감(武藝都監)이 진법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였으나 단지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았다. 염홍방 등은 무예도감의 설립과 함께 추진된 대열을 통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그것을 구실로 통수권 장악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예도감사(武藝都監使) 성중용(成仲庸)은

314)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禡王 9年 8月, 中冊

315) 『高麗史節要』 권32, 禡王 10年 12月

316) 『高麗史』 권一百三十五, 列傳 권第四十八 > 禡王 11年 1월

317) 『高麗史』 권八十一, 志 권第三十五, 兵 一

우왕 14년(1388) 1월 임견미(林堅味), 엄흥방(廉興邦)의 당(黨)이 숙청될 때 함께 처형되었던 인물이다.³¹⁸⁾

3) 고려말 군사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1) 최영의 기사사냥으로 본 군사훈련의 특징

무예도감에서 시행된 강무 그리고 엄흥방이 추진한 대열에 보이는 군사훈련과 가장 잘 대비되는 것이 최영의 사병훈련이다. 『高麗史節要』 공민왕 14년(1365) 5월의 기록을 보면 경천흥(慶千興)과 최영(崔瑩)이 사병(私兵)을 데리고 동교(東郊)에서 대규모의 사냥(大獵)을 하였다³¹⁹⁾고 하여 훈련의 성격과 규모를 동시에 알 수 있다.

공민왕 14년(1365)에는 왜적이 교동(喬桐)과 강화(江華)를 침략하였을 때 최영이 동서강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동강(東江)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도 최영은 고봉현(高峯縣)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여 이간질 하는 일화가 보인다.³²⁰⁾ 최영의 업적상 그리고 후에 우왕의 무절제한 사냥에 대한 직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유희의 목적으로서 사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왕 즉위년(1374) 10월에 최영이 여러 장수와 사냥을 나갔다가 함께 되돌아오니 공민왕이 이미 흥서(薨逝)하였으므로 채궁(粹宮)에서 복명(復命)하고 통곡하다가 목이 쉬었다³²¹⁾고한 것으로 보아 공민왕이 시해당할 동안에 최영을 위시한 측근 장수들은 사냥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최영이 평소 사냥을 통해 훈련한 군사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우왕 2년(1376) 7월의 기록³²²⁾을 보면 알 수 있다. 왜적이

318) 『高麗史』 권126, 列傳 “又斬(李)成林黨前判書成仲庸

319) 『高麗史節要』 권28, 恭愍王三, 恭愍王 十四年, 5월, 慶千興崔瑩以私兵大獵于東郊. 史臣安仲溫曰, “時, 方旱蝗而地又震, 千興瑩身爲領袖, 民望所屬, 不思所以變理而禽荒是事, 其招辛屯讒構之禍, 非不幸也.”

320) 『高麗史』 권113, 열전 권제26, 제신(諸臣)

321) 『高麗史』 권113, 열전 권제26, 제신(諸臣)

322) 倭屠連山開泰寺, 元帥朴仁桂敗死, 瑩聞之, 自請擊之. 禍以老止之, 瑩曰, “最爾倭寇,

연산(連山)의 개태사(開泰寺)를 도륙하고 원수(元帥) 박인계(朴仁桂)가 패하여 죽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최영(崔瑩)이 이를 듣고 우왕에게 자신이 출격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왕이 반대하자 최영이 말하기를, 만약 다른 장수를 보내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군사도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으니 역시 쓰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1372년 10월 우현보(禹玄寶)가 상소한 군사훈련의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현보가 제시한 진법을 통한 훈련과 최영의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 얼마나 대척점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공민왕(恭愍王) 12년(1363) 5월 기록에는 각처의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 것을 폐해라고 판단하여 금지시킨 적이 있다.³²³⁾ 군관들의 사냥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과 군사훈련의 정도가 연관이 있는 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로 사냥을 통해 군사를 훈련하는 최영에게 군사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영이 생각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우왕이 무예도감 책임자를 매질한 일화와 같이 강무와 대열 훈련이 실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공민왕의 사냥 폐지로 인하여 군사들이 훈련을 못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 최영의 사냥기록과 전투기록을 보았을 때 최영은 사냥을 최고의 훈련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영은 실제 자신의 자신감을 증명하였다. 왜적들이 홍산(鴻山)에서 기승을 부릴 때 최영(崔瑩)이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최공철(崔公哲), 조전원수(助戰元帥) 강영(康永), 병마사(兵馬使) 박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였다. 최영이 먼저 험하고 좁은 곳을 점거하였는데,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한길만 통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진격하지 않았다.

최영이 몸소 사졸들의 앞에서(瑩身先士卒) 매우 빠르게 돌진하니(盡銳

肆暴如此，今不制，後必難圖。若遣他將，未必制勝，兵不素鍊，亦不可用。臣雖老，志則不衰，但欲安宗社衛王室耳，願亟率麾下往擊。”

323) 十二年五月，教曰，“比來，各處防禦軍官，率兵田獵，不以其時，敗傷胎卵，有乖仁政，仰諸道存撫·按廉使，痛行禁理。”

突進) 적이 바람에 쓰러지는 풀(披靡)과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최영은 이 와중에 입에 화살을 맞을 정도로 분전하였는데 태연자약하게 적을 쏘아 활시위를 당겨서 쓰러뜨리고 이내 맞은 화살을 뽑았다. 최영이 더욱 힘쓰니 마침내 적을 크게 격파하여 거의 다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최영이 우왕과 물이 사냥하는 장면³²⁴)처럼 직접 선봉에 서서 활을 쏘면서 왜적들을 소탕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의 사냥은 우왕대 무예도감사가 생긴 1384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당시 보병훈련은 강무, 대열이라는 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기병은 사냥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왕의 사냥 같은 경우도 고려사의 기록들만 보면 각종 기행과 개인의 향락 위주의 사냥으로만 묘사되어 있으나 요동 정벌 계획이 사냥과 바로 이어지기에 이를 그대로 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영은 우왕의 사냥에 동참하여 물이사냥을 돕기도 하고, 사냥이 너무 사치스럽거나 폐단이 생길 경우 직언을 서슴치 않는 모습이 눈에 띈다. 우왕이 사냥하면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오자 최영은 왜구들의 위협이 있는 와중에 소인배들과 친하게 지내며 사냥에 절도가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우왕이 이를 부끄러워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인다.

우왕(禔) 11년(1385)에 우왕이 최영(崔瑩)과 함께 교외(郊外)에서 사냥하고, 또 해주(海州)에서 사냥하니 최영이 따라갔는데 경성(京城)으로부터 숙식할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 100리나 이어져 이때에도 최영은³²⁵) 면전에서 그 폐단을 극언하자 우왕이 옳다고 여겼다. 우왕 12년(1386)에 서해도에서 사냥할 때에도 지봉주사(知鳳州事) 유반(柳蟠)이 숙식할 물자를 빙자하여 재물을 많이 거두어들이자 최영이 그가 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미워하여 장형(杖刑)에 처하였다.

이 시기의 최영에게는 사냥이 효과적인 군사훈련이기도 했지만 여러 신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각종 폐단과 비리의 온상으로도 여긴 것이다. 그리고 염홍방과 같이 최영의 반대 세력에 있는 당은 이러한 사냥의 폐단을 빌미로 하여 중국식 군사훈련과 동시에 병서를 익힌 인재상을

324) 『高麗史』 권一百三十四, 列傳 권第四十七, 禔王 6年 3월

325) 『高麗史』 권113, 열전 권제26, 제신(諸臣)

제시하였고, 진법, 대열 등과 같은 보병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요동정벌 과정에 보이는 기사사냥의 특징

고려말의 군사훈련은 대열, 강무, 사냥 등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회군 이후 정도전과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성계 본인도 사냥을 자주 하였고, 우왕대의 사냥 기록과 고려의 마지막 요동 정벌과정을 보면 전쟁 준비는 시종일관 사냥 준비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고려말에 정확하게 보이는 사냥과 군사훈련에 관한 기록들은 고려시대 전반에 산재하여 존재한다. 공민왕 12년 5월에 내린 교지(敎)에 따르면, 근래 각처의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병사를 거느리고 아무 때나 사냥하여 짐승들의 생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며 엄격히 금지하게 했다.³²⁶⁾³²⁷⁾ 당시 방어군관(防禦軍官)들이 적침이 계속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병사를 동원하여 사냥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사냥은 항상 군사훈련을 명분을 가지고, 실전(實戰)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의 하나로 자주 활용되었다.³²⁸⁾ 사냥에 필요한 기마술과 활쏘기를 익히고 몰이사냥을 하는 것은 실제 전투에 필요한 개인의 무예 훈련 그리고 각종 전술 기동 능력과 같은 단체훈련과 같았다. 동시에 농사에 많은 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철에 맞추어 실시되었다(朴道植, 1987 : 391).

우왕은 서해도에 자주 행차하여 사냥을 하였다. 고려사에 우왕의 사냥

326) 『高麗史』 권84, 刑法志 1, 職制, 恭愍王 12年 5月

327)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328) 『周禮』 夏官司馬條에 “以蒐狩習戎旅”라고 되어 있는데, 蒐는 봄의 사냥, 狩는 겨울의 사냥으로서, 蒐狩는 곧 狩獵을 말한다 (李基白, 『高麗史兵志譯註』, 1969, 一潮閣, 27쪽). 실제 사냥을 통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1985; 朴道植, 앞의 논문; 金瑛河, 「百濟・新羅王之 軍事訓練과 統帥」,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 대동고전연구소, 1990; 李瑀秀, 앞의 논문 등의 연구 성과들이 참조된다.

관련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기행과 각종 폐단의 원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있다. 그러나 명확한 점은 이 사냥이 명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기도 하였다는 점이다(김창현, 2017).

우왕 13년(1387) 명은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나하추를 평정하고 요동 지역에서 원나라 잔여 세력을 일소했다. 요동진출이 가능해진 명측은 요동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우왕은 최영과 더불어 요동정벌을 결정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우왕의 사냥은 모두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왕 14년(1388) 3월에는 우왕의 요동정벌 의도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왕은 평소에 자주 사냥하던 해주(海州) 백사정(白沙亭)에서 서렵(西獵)을 한다는 핑계로 사냥을 준비시킨다. 이는 순수 사냥을 목적으로 한 행차가 아닌 요동을 공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전 우왕의 사냥 관련 기록들과의 연장선상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요동 진출의 준비가 사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규철(2014)은 요동 정벌계획을 우왕이 직접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왕 시기 명의 철령위 설치 문제로 최영이 요동정벌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우왕이 요동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정벌할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태조시기에 요동정벌계획을 정도전이 아니라 태조가 직접 요동지역과 더불어 북방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공민왕 사후 요동을 점령한 명나라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감당키 어려운 세공(歲貢)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1388년(우왕 14년) 음력 3월, 명나라가 철령위 설치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우왕은 8도의 정예 병사 징발을 명령하고, 스스로 평안도로 행차하겠다고 나서면서 요동 공격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서해와 평양 2도는 서렵을 맞이하느라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실제 사냥준비와 동시에 군사적 측면의 준비가 더하여 졌을 가능성이 있다.³²⁹⁾ 시중(侍中) 최영

329) 『高麗史』 권137, 우왕 14년 3.4월 : 권 113. 최영전. 조선 세종 10년에 永康과 白翎을 합쳐 康翎縣이라 하면서 해주 牛峴 이남의 땅을 빼어 속하게 했다. 강령현의 登山

(崔瑩)은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음력 4월에 주전론(主戰論)을 지지하는 우왕과 더불어 평양으로 떠났고, 조민수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하여 좌우군 3만 8,830명 등 5만여 병력을 요동으로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성계가 결정한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의 기회는 실패로 돌아갔다. 고려 우왕 시기 요동정벌계획은 본래 이성계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다. 우왕이 봉산에 가서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처음 요동정벌 계획을 알렸을 때, 이미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³³⁰⁾를 들어 이를 반대했으나 우왕은 묵살했다. 우왕과 최영은 반대여론을 억누르고 출병을 강행하였다.

5월 22일,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우군도통사였던 이성계가 좌군도통사인 조민수를 회유하여 전군(全軍)을 회군시켰다. 개경을 점령한 이성계 일파는 최영의 군대를 물리치고 최영을 내어줄 것을 청한 뒤, 고봉현으로 유배보낸 뒤 이후 처형하였다. 우왕은 군사들을 다독이며 한편으로는 이성계를 급습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388년 6월 8일, 우왕은 마침내 이성계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로 쫓겨났다.

(3) 군사훈련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인 및 소규모 사냥을 통해 개인의 무예가 기사를 중심으로 길러지고, 전쟁과 호환과 같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이들을 모아 사열을 통하여 군사훈련을 하였음을 밝혔다. 그렇기에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강무(講武)라는 용어는 중국의 군사훈련인 강무(講武)와

串은 縣南 60리에 있는데 海潮가 물러나면 白沙가 平衍해 동물을 쫓을만했다. 원래 옛 海州의 땅으로 麋鹿이 千百으로 무리를 지을 만큼 많아 고려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해주 白沙汀(白沙亭)에서 西獵한다고 칭탁한 곳이 이곳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康翎縣 건치연혁 • 산천. 한편 장연현 阿郎浦의 白沙汀과 백령도 일대에는 김극기의 시로 보건대 김극기 이전부터 四仙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장연현 산천.

330)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 (以小逆大), 여름에 출병하는 것 (夏月發兵),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빈틈을 노릴 염려가 있는 것 (舉國遠征, 倭乘其虛), 장마철에는 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는 달리 사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우가 실시한 마별초의 기병훈련이 사냥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와서 중국의 의례를 받아들이며 체계적으로 의례화된 사냥의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정도전에 의하면 강무는 무사(武事)를 익힌다는 뜻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고기휘(金鼓旗麾)로 진퇴좌작(進退坐作)의 절차를 밝혀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창·칼·궁시를 갖고 격자사어(擊刺射御)의 법을 익혀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이 있다.³³¹⁾고 하였다. 그렇기에 중국식의 법제를 수용함에 있어 기존에 행하던 기사사냥이 합쳐져 군사훈련의 방식이 분화 혹은 다양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말기의 강무(講武)가 대열(大閱)이나 습진(習陣) 등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유는 고려시대의 오례(五禮) 가운데 하나인 군례(軍禮)에는 강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周)나라 이래 당(唐), 송(宋)까지 지속해서 의례화(儀禮化)된 강무(講武) 또는 수수(蒐狩), 전수(田狩)가 고려시대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기록에도 염홍방이 구정(毬庭)에서 대열(大閱)을 하려는데 대사헌 임헌(任獻)은 유교적 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군사를 마음대로 풀어놓고 그 안에서 말을 달리게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염홍방은 현릉(玄陵, 공민왕)도 일찍이 이곳에서 오군(五軍)을 사열(查閱)하였으니, 넓고 한적한 이곳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一日，將大閱于毬庭，大司憲任獻，興邦妹壻也，遣臺吏，告都堂曰，“此庭非惟先王大朝會行禮之所，密邇景靈殿。太祖列聖神御在，豈可縱軍士，馳騁於其間乎？”興邦曰，“玄陵嘗閱五軍於此，取其閑曠也。”獻執不可。興邦怒曰，“講武之事，非惟都堂，亦憲司所宜深慮也。”玄寶亦謂臺吏曰，“姑且休矣。”

위의 기록을 보면 대열(大閱), 열(閱), 강무지사(講武之事)라는 용어가

331) 鄭道傳, 『三峰集』 권7, 陣法, 正陣

혼재³³²)한다. 위의 염홍방과 임헌의 논쟁에서 구정(毬庭)이라는 공간에서 공민왕이 오군(五軍)을 사열(查閱)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정은 큰 조회를 열고 예식을 행하던 장소이고, 태조(太祖)와 후대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경녕전(景靈殿) 근처이기에 확실히 조선시대처럼 사냥 강무를 하던 장소는 아니었다. 구정에서 하는 대열(大閱)과 열(閱)은 강무(講武之事)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심승구(2007)는 고려의 강무와 조선의 강무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고려의 강무제는 병법(兵法)에 기초한 진법(陣法)과 격자지법(擊刺之法)의 무예(武藝) 교습 위주의 순수 군사훈련이었고, 조선의 강무제는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앞서 살펴본바 고려의 강무가 정확히 병법에 기초한 진법만을 위주로 훈련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려말에 시행된 강무는 염홍방과 임헌의 대열(大閱) 시행 논쟁을 보면 염홍방이 이전 공민왕대에 시행된 오군 사열(閱五軍)과 강무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³³⁾

염홍방이 대열을 하려던 구정(毬庭)이란 장소는 최이³³⁴/335)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마별초의 격구, 기사, 기창과 같은 무예 연습이 이루어지던 곳이며 대규모의 기병이 대(隊)를 구성한 훈련이 실전과 같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그리고 기병 훈련이 끝나면 별도로 사냥을 위한 연습도 행해졌다. 그렇기에 고려말에는 고려의 전통적인 기병훈련과 보병을 위주로 진법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주로 거란, 여진, 몽골, 왜구 등 외부의 침입에 대응한 군사훈련의 정황은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열(閱)’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열의 기록은 고려말 우왕 시기에 오면서 대열(大閱)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

332) 『高麗史』 권一百二十六, 列傳 권第三十九 姦臣

333) 『高麗史』 권一百二十六, 列傳 권第三十九 姦臣

334) 『高麗史』 권一百二十九 列傳 권第四十二, 叛逆

335) 『高麗史節要』 권15, 高宗二, 高宗 十六年 10월

는다. 그리고 동시에 강무(講武)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고려사 병지(兵志)의 기록³³⁶⁾에는 우왕 11년(1385) 1월 마암(馬巖)에서 시행된 강무(講武)는 두 진영(陣營)으로 진행되었는데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진 자 1대(隊) 그리고 창(槍)과 깃발을 가진 자를 1대로 삼아 궁수군(弓手軍)으로써 따르게 하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북치고 소리 지르며(鼓噪) 서로 치계(相格) 하니 부상을 당한 자가 자못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진법 훈련으로 볼 수 있으며 훈련이 실전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³⁷⁾

그런데 고려사 우왕 11년(1385) 1월 기록을 보면 우왕이 마암(馬巖)에서 군대의 강무(講武)를 구경하다가 싸우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무예도감사(武藝都監使) 성중용(成仲庸)·이빈(李贇)을 매질하였다. 군인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연습을 해서,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³³⁸⁾고 되어 있어 같은 기록으로 보이고 무예도감의 존재와 이를 성중용(成仲庸)과 이빈(李贇)의 책임을 물어 매질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尹薰杓(2004)는 무예도감(武藝都監)이 군사훈련인 강무(講武)를 담당하는 부서였으며, 책임자로 2명의 무예도감사(武藝都監使)가 임명되었다고 보았고, 방어진을 형성한 1대와, 공격진을 형성한 1대가 서로 대련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면서 궁수군(弓手軍)이라는 원거리 공격 및 적의 후방을 노리는 부대까지 편제하여 창술과 궁술을 구사하는 부대를 결합시켜 진열을 형성하여 전투하는 방식으로 연습했던 것으로 보았다.

위의 고려사 병지와 우왕의 강무 시행 기록에서는 도입된 진법의 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같은 달 우왕은 강무(講武)를 구경하다가 친히 기사(騎射) 하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마암(馬巖)이란 강무 장소는 말이 달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기사연습을 할 수 있는 과녁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 기록에 등장하는 대열, 강무, 그리고 우왕이 강무 중 난입

336) 『高麗史』 권一百三十五, 列傳 권第四十八, 禡王 11年 1월

337) 『高麗史』 권八十一, 志 권第三十五, 兵 一

338) 『高麗史』 권一百三十五, 列傳 권第四十八, 禡王 11年 1월

하여 기사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고려말 군사훈련은 대열, 강무 모두 기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사열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듯이 고려의 사열은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열이라는 큰 규모의 고려식 군사훈련에 기사는 반드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법 훈련으로 볼 수 있는 강무에도 우왕이 난입하여 기사를 할 정도로 모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공양왕 2년(1390) 2월의 기록을 보면 문(文)으로 가르치고 무(武)로 대비해야 하나 현재는 인재가 없는 반면 외침이 많아 군사훈련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농한기에 강무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기에 문묘(文廟)에 배알하여 유학을 권면하고, 전함을 순시하여 군대의 위용을 살펴보고자 하니, 유사(有司)에서는 계문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³³⁹⁾

癸亥 教曰, “自古, 爲國之道, 文教武備, 不可偏廢. 近年以來, 法制陵夷, 人材不作, 盜賊興行, 予用惕然. 夫臨雍拜老, 農隙講武, 古之制也. 予欲謁文廟, 以勸儒學, 視戰艦, 以觀軍容, 有司啓聞施行.”

공양왕이 말한 농한기에 하는 강무는 옛 제도(古之制也)로서 공자의 사당(文廟)에 제사하는 일과 같이 시행하여 유학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활용 가능한 시기에 하는 군사훈련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공양왕이 시행한 강무 개념은 중국에서 들여온 진법과 같이 농사의 시기와 큰 관련이 있고, 이는 주로 보병훈련으로 볼 수 있다.

1370년 공민왕대의 동녕부 공격과 1388년 우왕대의 요동 공격과 조선 태조 시기 요동을 둘러싼 어떠한 공감대 혹은 지역적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지역을 관통하는 전통인 기사가 있었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간의 일관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앞서 무예도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진법 훈련과 같은 보병훈련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요동을 둘러싼 기사하는 인물들의 각축전만이 보일 뿐이다.

339) 『高麗史』 권四十五, 世家 卷第四十五, 恭讓王 2年 2월

2. 조선 전기 기사의 제도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고려의 말기는 요동 문제를 놓고 명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전란과 권세가들의 토지점병으로 인해 피폐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세력을 대표하는 최영과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받는 이성계는 군사훈련에서도 진법을 위주로 하는 세력과 사냥을 위주로 하는 세력의 차이가 있었을 만큼 향후의 국정 방향을 놓고 미묘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에서 도입한 진법훈련은 우왕의 요동정벌 준비 과정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우왕의 요동 정벌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려의 역사는 사냥으로 시작해서 사냥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 『高麗史』, 「高麗世系」에 기록된 호경의 호랑이 사냥에서 시작하여 우왕의 요동 정벌을 목적으로 한 서렵(西獵) 이후 고려는 이성계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1) 여말선초 군제 개혁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이성계가 회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의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고, 명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대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를 유지해나가며 점차 안정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이성계의 세력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정치, 사회적 질서를 세워나갔다. 우왕의 사냥을 통한 요동 정벌 준비에서부터 이성계를 위시한 위화도회군은 조선 건국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신진사대부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특히 이성계와 교류하고 있던 정도전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다. 고려말을 거쳐 조선의 개국과 함께 정도전은 조선의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주체로 떠올랐다.

(1) 태조의 즉위교서에 보이는 기사의 양상

이성계는 태조 1년(1392년) 즉위교서(即位敎書)를 공포하여 우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고 천명함하여 고려 계승의 의지를 보였다. 17개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이 조서에는 자신의 등급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3번째 항목에 문과와 무과 시험 시행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재 육성과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즉위교서의 내용에는 앞서 논의한 고려말 진행된 강무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鄉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舉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舉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練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후략-340)

무과의 경우는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練觀)에서 『武經七書』와 기사(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성취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식 병법과 기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윤훈표(1987)는 즉위교서의 ‘강무의 법’이 곧 무과(武科)를 의미하며, 고려시대와 달리 훈련관(訓練觀)이란 별도의 무학교육기관(武學教育機關)을 설치하여 문과(文科)의 성균관(成均館)과 같이 과거(科擧)를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윤한성(2013)은 이 즉위교서에서 문무과의 시행

340)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을 먼저 선포하였고 후에 강무의 법(講武之法)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강무지법은 무학과 무과의 세부 시행방법으로 보았다.

응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훈련관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시험으로 급제자를 가리는 방식에 대한 구상이었고 그 내용은 전통의 기사를 연습하게 한 것과 더불어 중국식 병서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문과(文科)와 함께 무과를 논하는 맥락상 강무지법(講武之法)의 언급은 앞선 1절에서 논한 고려말에 시도된 중국식 군사훈련과 동시에 인재선발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말부터 제기된 군사훈련 개혁에 대한 문제는 조선 초에도 전통적인 기사를 중심으로 한 개인과 집단 군사훈련을 기반으로 무경칠서(武經七書)로 대표되는 중국식 병서교육(兵書教育)과 대규모 보병훈련인 진법훈련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본다. 여말선초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사훈련과 인재 양성 및 선발제도 역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태조의 즉위교서에 명시된 강무나 무과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았다.³⁴¹⁾

(2) 정도전이 구상한 강무(講武)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태조의 즉위교서는 정도전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이는 이후 새롭게 시작될 조선왕조의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정도전은 통치 이념과 통치 조직의 종합적인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박연호, 2014). 특히 고려말부터 논란이 있어 온 강무, 대열, 무과 등의 군제를 조선식으로 정립해 나갔는데 그 이유는 고압적인 정책으로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명을 견제를 위한 군사적 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 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동 정벌계획에 대한 최초의 내용은 『太祖實錄』 태조 6년(1397)에 서 살펴볼 수 있다.³⁴²⁾ 정도전은 『五陣圖』와 『蒐狩圖』를 만들어 바

341) 『太祖實錄』 3太祖 2年 3月 辛酉

342)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6월 14일 갑오. ; 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嘗撰『五陣圖』及『蒐狩圖』以進, 上善之, 命置訓導官以教之, 令各節制使、軍官、西班牙各品、成衆愛馬,

쳤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요동 정벌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군사 체제를 정비하여 국경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서술된 점을 보아 이미 요동 정벌계획을 기반으로 『五陣圖』와 『蒐狩圖』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성계가 즉위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朝鮮經國典』 「軍制」에 의하면, 정도전은 태조(太祖) 원년(1392)에 『五行陣出奇圖』와 『講武圖』를 만들었다. 이때의 『五行陣出奇圖』는 『周禮』의 「司馬蒐狩之法」과晉 文公의 「被慮之蒐」, 齊 愍公의 「技擊法」, 魏 文公의 「武卒」, 秦 昭公의 「銳士用兵法」, 사마양저(司馬穰苴), 이정(李靖), 제갈무후(諸葛武侯) 등의 병법(兵法)을 절충 참작하여 만든 독자적 병서이고, 『講武圖』는 사마법(司馬法)을 증보한 것이었다.³⁴³⁾

유교(儒敎)를 통치이론으로 삼고 있던 정도전을 비롯한 개혁가들은 군제개혁의 해답을 주대(周代)의 제도에서 찾아내었고 강무제(講武制)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다.³⁴⁴⁾ 그러나 정도전의 구상은 무조건적인 중국식 군제의 수용이 아니었다. 그 근거는 사냥을 통한 훈련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주나라 시기의 수수(蒐狩)는 기마사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周禮』의 제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냥을 구분하여 군사훈련 의례를 시행하였기에 사냥과 관계가 있다. 이후 당대(唐代)에 오례(五禮)로 분류되면서 사냥훈련과 진법훈련의 두 가지로 나뉘었고, 송대에는 무학(武學)의 설립과 무과(武科)의 시행, 그리고 이에 따른 병학(兵學) 발전하여 사냥훈련 의례는 당시 사냥훈련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 양상을 보인다(허대영, 2022).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시대에서부터 한나라 후반기에도 기사

習『陣圖』，又以通曉人，分遣各道教之。時鄭道傳、南閔、沈孝生等，謀興兵出境，獻議於上，抵左政丞趙浚之第諫。浚方疾病，乃以輿進闕，極言不可曰：“本國自古不失事大之禮，且以新造之邦，輕舉無名之兵，甚爲不可。雖以利害言之，天朝堂堂，無費可圖，臣恐舉事不集，而變生不虞也。… (후략).

343) 鄭道傳, 『朝鮮經國傳』 下, 敎習條

344) 『朝鮮經國典』 下 政典 軍制

사냥은 장성 북쪽의 흉노(匈奴)와 동쪽의 호(胡), 부여, 고구려, 백제와 같은 중화 외부 민족들의 특기였다. 그렇기에 주대의 강무는 기마 사냥을 위주로 한 군사훈련이라기보다는 수레와 도보 사냥을 지칭했다. 같은 맥락에서 朴道植(1987) 역시 당시 주례의 수수법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태조 2년(1393) 8월에 정도전은 다시 『四時蒐狩圖』를 편찬하여 절제사(節制使)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軍士) 중 무략(武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진도(陣圖)를 가르칠 것을 태조(太祖)에게 건의하였고,³⁴⁵⁾ 태조 5년(1396) 11월에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강무(講武)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³⁴⁶⁾ 정도전이 참고한 역대의 강무제도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전투용 수레(용로, 戎輅)와 쇠뇌(弩)를 사용하는 진(陣)을 연습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재선발 역시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정도전은 중국식 강무의 제도와 기간은(其講武之制與踈數之節) 시대와 사세가 다르니(時與勢殊),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그냥 강무가 아닌 수수강무도(蒐狩講武圖), 즉 사냥을 행하면서 강무하는 방식을 만들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도전이 주장한 사냥과 군사훈련을 결합한 방식의 강무제도는 정도전이 지은 『三峯集』 권13, 「陣法」에 명확히 명시되었다.

動則爲奇。靜則爲陣。陣則陳列。戰則不盡。分苦均勞。輪轍無競。按兵前守。後隊乃進。臣道傳按。講武之道。有二焉。以金鼓旗麾。明進退坐作之節。所以一衆心也。以槍劍弓矢。習擊刺射御之便。所以一衆力也。衆心不一。無以整部伍。衆力不一。無以勝敵人。故先王每於四時之隙。因田獵以講武事。誠非得已也。今見行講武之法。詳於金鼓旗麾進退坐作之節。未及槍劍弓矢擊刺射御之習。非略之也。教之有序也。今後當講武之時。先作四表。以金鼓旗麾。習坐作進退之節。後復結五陣。更出迭入。槍劍弓矢。習擊刺射御之便。講武之道。庶

345) 『太祖實錄』 권4, 2년 8월 癸巳條

346) 『太祖實錄』 10권, 태조 5년 11월 30일, …진략 其講武之制與踈數之節, 時與勢殊, 取古制而損益之, 見作『蒐狩講武圖』, 京中當四時之季, 講武獲禽, 以祭宗社, 外方當春秋兩節, 講武獲禽, 以祭其州方社之神。如此則武事熟, 神人和矣。當講武時, 乘輿親幸及攝行儀注, 外方官員監考之法, 令禮官詳定啓聞。

平得矣。

정도전은 강무(講武)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첫째는 금고(金鼓)와 기휘(旗麾)를 가지고 나아가고 물러서고 앉고 서는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데 뭉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창검(槍劍), 화살(弓矢)로써 격자(擊刺)와 기사(射御)가 능숙하도록 연습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힘을 한데 합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정도전은 마음을 합쳐야 대오(隊伍)가 정돈 되고, 힘을 합쳐져야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선왕(先王) 역시 사철 농한기(農閒期)에 사냥으로 강무(講武)를 했다(因田獵以講武事)고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과 달리 강조하여 모든 군사훈련에 있어서 사냥의 중요함을 피력했다.

정도전은 고려시대에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개인의 무예로서 기사(射御)로 그리고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인 강무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인 대규모 훈련 방법으로서 진법(陣法)을 시행하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기사사냥을 중국식 진법 훈련을 더하여 훈련하는 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정도전이 구상한 무과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고려에서부터 이어진 기사는 활쏘기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군사훈련 그리고 인재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무과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사는 인재의 평가와 선발에 있어 굉장히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광종 9년(958) 처음 과거제를 시행할 때 무과는 없었다.³⁴⁷⁾ 예종 4년(1109) 7월 무학(武學)을 위하여 강예재를 두었고, 무학으로 시취(試取)하여 배치하였다³⁴⁸⁾ 무학을 취재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는 것으로 보

347) 『高麗史』 권2, 世 第2, 光宗, 光宗 戊午9년: 九年 夏五月 始置科學 命翰林學士雙冀取進士 丙申 御威鳳樓放枋 賜崔暹等及第

348) 『高麗史』 권74, 志 第28, 選舉2, 學校, 國學: 睿宗卽位制… 四年 七月… 武學曰講藝 試取…武學韓自純等八人分處之.

아 이때 무인선발을 위한 시험이 존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인종 11년(1133) 1월, 무학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와 무학제의 칭호는 설치된 지 24년 만에 모두 폐지되었다.³⁴⁹⁾

공민왕 20년(1371) 2월 성균관과 향교에서 문·무학을 병설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였다.³⁵⁰⁾ 학교에 무학이 생겼으나 무과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공양왕 1년(1389) 십학(十學)을 설치할 때도 병학(兵學)을 군후소(軍候所)에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을 뿐이다.³⁵¹⁾

고려 말에는 군인들이 관(官)에 기록되지도 않았으며, 유명한 무장들은 패기(牌記)라고 불리는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³⁵²⁾ 이때까지도 무학과 관련된 학교의 형태는 보이지만 시험은 시행되지 않았다. 무과를 포함한 4가지 선발방법은 고려시대 공민왕 20년(1371) 군공이 있는 문(文), 무(武)관의 정원을 늘려 군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하기 위해 만들었던 첨설직³⁵³⁾을 공양왕대에³⁵⁴⁾ 폐지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정도전이 문학(文學), 무과(武科), 이과(吏科), 문음(門蔭)을 제시한 후 도평의사사의 요청으로 무과가 정식 설치되었고, 3년에 1번씩 시관과 동고시관의 주관하에 병서(兵書)와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33명을 뽑도록 하였다(윤한성, 2013).³⁵⁵⁾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된 무과는 공양왕 3년(1391) 1월 오군(五軍)을 정리하여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를 두었는데, 이때 정도전은 우군총제사(右軍總制使)가 되었다.³⁵⁶⁾ 이 시점부터 정도전은 군대를 직접 통솔하면서 무과 시행과 무인 양성, 즉 무인 선발제도와 양성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349) 『高麗史』 권74, 志 第28, 選舉2, 學校, 國學: 仁宗朝… 十一年正月判… 自今已登第者與文士一體敘用武學取士及齋號並停罷.

350) 『高麗史』 권74, 志 第28, 選舉2, 學校, 國學: 恭愍王… 二十年十二月教曰文武之用不可偏廢內自成均外至鄉校開設文武二學養成人才以備擢用.

351) 『高麗史』 권77, 志 第31, 百官2

352) 『知退堂集』 권6, 東閣雜記乾 本朝塔源寶錄 太祖: 高麗末 官不籍兵 諸將各占爲兵號曰牌記大將 若崔瑩·邊安烈·禹仁烈等 專欲立威 具幕僚士卒有不如意者 詆罵無所不至 酷加榜捶 至有死者 麾下多怨望 太祖獨推赤心 禮以接下 平生無一諛語 諸將佐軍民 皆願屬焉.

353) 『高麗史』 권75, 志 第29, 選舉3, 銓注, 添設職, 恭愍王 20년

354) 『高麗史』 권119, 列 第32

355) 『高麗史』 권74, 志 第28, 選舉2, 科目2, 武科

356) 『高麗史』 권46, 世第46, 恭讓王2, 辛未3년

그러나 고려가 무너지면서 시행은 미비했다. 태조 1년(1392) 7월 18일 종친과 대신에게 여러 道の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고, 10일 뒤 정도전은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 절제사(節制使)가 되었다.³⁵⁷⁾ 이는 개국 초 훈신(勳臣)들에게 병사를 분속(分屬)시켰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날 정도전이 작성한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무과의 시행을 다시 선포하였다. 이 즉위 교서에는 조선초에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 모두 인재를 선발하고 양육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졌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강무의 법(講武之法)은 훈련관(訓練觀)에서 주관하여 무경칠서(武經七書), 기사(射御)의 기술을 강습시키고, 그 통달한 경서의 다소(多少)와 무예의 정조(精粗)로써 고하(高下) 등급을 정하여, 입격자 33명에게 출신패를 주고, 명단을 병조로 보내어 쓰도록 하는 것이다.³⁵⁸⁾

앞선 4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고려시대의 사냥은 곧 개인의 무예의 성취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자 그 규모에 따라 군사훈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또한, 기사하는 능력은 외침에 대비하여 군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데 가장 기본 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점에서 강무가 조선의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기사를 중심으로 무과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았을 때 고려말과 조선 초의 기사는 두 왕조를 잇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도전은 무과의 시행을 일관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를 제시한 『朝鮮經國典』에도 무과(武科)·의과(醫科)·이과(吏科)·통사과(通事科)와 함께 분류되고 있다.³⁵⁹⁾ 정도전은 判義興三軍府事로 병제개혁(兵制改革)을 지휘하며 의흥부(義興府)에 사인소(舍人所)를 설치하여 양반자제(兩班子弟)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때 경사(經史), 병서(兵書), 율문(律文), 산수(算數), 기사(射御) 기예를 이습(肄習)시켜 장래의 발탁 임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³⁶⁰⁾ 이는 당시 정도전이 義興三軍府를 中心으로 여러가지 개혁정치를

357) 『太祖實錄』 1년 7월 28일,

358) 『太祖實錄』 1년 7월 28일

359) 『三峯集』 13 朝鮮經國典禮典 貢擧

360) 『太祖實錄』 11太祖 6年 1月 丁丑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보충하기 위해 양반층 자제들을 모아서 여러 방면의 교육을 실시하여 등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윤훈표, 1987).

현재 그 실체가 전하지는 않고, 조선시대의 사료에 인용으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전(法典)인 『經濟六典』이 태조 6년(1397) 12월 26일 공포, 시행되었는데 안에 무과정식(武科程式)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이지만 『經濟六典』 무과정식(武科程式)의 과목을 엿볼 수 있다. 초장(初場)에서는 보사(步射)로서 편전(片箭)을 사용하고, 중장(中場)에서는 기창(騎槍)·기사(騎射)·격구(擊毬)에 모두 능한 자는 1백 90분이고, 종장(終場)에서는 『武經七書』와 『四書·一經』과 『通鑑』을 다 통한 사람은 90분³⁶¹⁾이라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 보편적으로 훈련된 보사와 기사의 과목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식 병법에 대한 시험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도전이 구상한 강무와 같이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북부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말을 타는 능력과 활쏘는 능력을 중심으로 중국식 병법에 대한 소양을 시험보는 방식의 무과의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강무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 조선초 강무의 시행과 한계

정도전이 구상한 강무는 당시 조선의 국정 방향과 일치했다. 고려 말부터 왕자 종친 대신들이 소유한 사병적 성격을 띤 의흥친군위³⁶²⁾와 시위패³⁶³⁾는 병권의 중앙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그 후 일원적이며 중

361) 『世宗實錄』 68世宗 17年 6月 戊午

362) 이성계의 군사적 노력의 기반은 동북면 일대의 流移민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家別抄集團이었다. 이성계는 고려말 그 자신이 대외항쟁을 통하여 키워온 휘하군사를 주축으로 하여 설립했던 도총중외제도군사부를 혁파하여 의흥친군위를 설립하였다(朴道植, 1987).

363) 고려말에 편성된 기존의 8위와 더불어 10위의 편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군의 실태는 법적적인 측면에서 10위가 중앙군의 기간을 이루었으나 8위는 거의 명목뿐이

양집권적인 군제를 확립을 위해 의흥삼군부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判事)가 된 정도전은 모든 군사를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원화시키되 모든 권한은 의흥삼군부에 귀속시키고 지방군은 교대로 상경하여 경성을 숙위(宿衛)하게 하였다(한영우 1973 : 50).

그러나 정도전이 최종적으로 사냥을 통한 강무를 계획했음에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은 지금의 강무(講武)하는 법을 보면, 금고와 기휘를 가지고 나아가고 물러서고 앉고 서는 절차만 자세히 가르치고, 창검(槍劍), 화살(弓矢)로 격자(擊刺)와 기사(射御)를 연습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당장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정도전이 도입한 진법을 위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위에서 언급한 고려의 말기에서 조선에 걸쳐 활약한 오랜 경력의 소유자들인 제위의 대장군(諸衛大將軍)과 각령의 장군(各領將軍) 등 무반의 최고위직들에게 병서를 강습했다는 것과 연결되어 기존 고려식 군사훈련에 익숙했던 무반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식 새로운 군사훈련의 실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들에게 굳이 기사를 위주로 한 훈련은 필요치 않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들을 중앙집권을 위한 조선식 중앙군으로 재교육 하려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전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의 군사가 중앙의 통제에 따라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무를 구상한 것이었다. 이는 사병을 폐지하고 중앙집권화하려는 조선의 전체 기조와 부합한다. 정도전이 창검(槍劍), 화살(弓矢)로 격자(擊刺)와 기사(射御)를 생략하자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가 군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후 강무할 때면 먼저 4개의 표시를 만들어서 금고와 기휘를 가지고 앉고 서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절차를 익힌 다음, 다시 5진(陣)을 결성(結成)하고 번갈아 들락거리며 창검(槍劍), 화살(弓矢)로 격자(擊刺)와 기사(射御)를 익히게 하면 강무 하는 방법을 거의 얻을 수 있다(講武之道 庶乎得矣)고 하여 최종 목적을 제시하였다.

고 실제로는 왕실 사병의 성격을 띤 의흥친군위와 종친과 대신들의 사병적 성격을 띤 시위패(侍衛牌)가 중심이었다(朴道植, 1987)..

그러나 조선 전기에 있어서 강무가 법제적인 완성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太宗) 2년(1402) 6월에 이르러서 수수법(蒐狩法)이 마련되었고,³⁶⁴⁾ 그 후 동왕 14년(1414)에 이르러 講武의 시행규칙인 講武事宜를 제정하였다.³⁶⁵⁾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세종대(世宗代)에는 五禮 중 軍禮의 하나로 완성되기에 이른다.³⁶⁶⁾

(2) 강무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고려시대 태조 이성계의 5남인 이방원은 고려에서 관료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다. 태종 3년(1403) 태종은 시서(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유자(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다(馳騁田獵)고 하며, 본인은 비록 문인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무가(武家)의 자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런 태종은 조선 개국 후 정몽주를 살해하였다. 이어 태조 6년(1398)과 정종 2년(1400)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개국공신 정도전과 남은 일파를 모두 숙청하고 권력을 모두 장악하였다. 경쟁 대상이었던 형제들을 숙청한 뒤 정종에 의해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이후 정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즉위 후에도 왕권의 강화를 위해 정적뿐 아니라,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신들과 외척들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숙청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사실상의 2대 군주로서 혼란스럽던 건국 초기의 상황을 수습하고 신생 국가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 태종이라는 묘호에 어울리는 업적을 쌓았다고 평가된다.

정도전이 주도한 강무는 사병을 소유한 절제사들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도전이 병권을 장악하여 앞으로 실행해 나가려는 군사정책에 대하여 불만과 저항을 느끼는 일부 세력의 비협조와 건

364) 『太宗實錄』 권3, 2년 6월 癸亥條

365) 『太宗實錄』 권27, 14년 2월 己巳條

366) 『世宗實錄』 권133, 五禮, 軍禮 講武儀條 講武制의 제도적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朴道植, 1987, 참조

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朴元燾, 1976). 태조 6년(1397) 8월에 각진(各道)에 진도훈련관을 파견하여 진법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습진을 주도한 정도전이 다음 해 왕자의 난으로 제거됨으로써 지방군의 습진을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으로 보인다.³⁶⁷⁾

그러나 태종대부터는 수수법을 시작으로 강무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태종 2년(1402) 6월에 예조에서 수수법을 계문(啓聞)하여 사냥할 장소의 선택, 기(旗)를 사용한 지휘, 북(鼓)을 사용한 신호, 포위(圍) 사냥의 방식, 임금의 행차에 따른 의식, 물이하는 기군(騎軍)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수수법은 철저히 임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임금을 중심으로 군(君)과 장수가 움직이며, 마지막에 백성들의 사냥을 허용하는 기사 사냥의 방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잡은 짐승을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는 제례의식과 잡은 사냥감의 배분과 연회(宴會) 방법까지 지정되어 있다.

태종 6년(1406) 부터는 강무장을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태종은 산곡이 험조하여 짐승을 쫓기에 불편한 곳이거나 군사 이동에 불편한 곳보다는 백성들이 살지 아니하고 금수가 많은 휴경한 지역을 강무장으로 택하고 있다.³⁶⁸⁾ 이후 태종 14년(1414) 이숙번(李叔蕃)의 제안을 거쳐 같은해 2월 강무사의(講武事宜)가 제정되면서 기내(畿內)는 아니지만 멀지 않고 빈 곳이 많은 해주(海州)를 강무의 장소로 삼았다.

정종대에 이르러 이방원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인하여 사병이 혁파되면서 일원적인 명령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태종이 집권한 후에 실시한 군사훈련을 살펴보면 정도전이 계획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9년(1409) 3월 21일 기록을 보면 태종은 자신과 정적이었던 정도전 제거 후에도 이전에 시행하였던 진법훈련뿐 아니라 강무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있다.

태종은 전보(田甫)를 호용시위사 대호군(虎勇侍衛司大護軍)으로 삼은 후 삼군 갑사(三軍甲士)와 응양위(鷹揚衛), 별시위(別侍衛) 그리고 좌우(左右)의 인물들에게 좌작진퇴(坐作進退)의 절차를 알게 하는 진법훈련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367) 『太祖實錄』 12권, 태조 6년 8월 9일

368) 『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 2월 20일 신사 3번째기사

태종 14년(1414)에는 병조에서 계문하여 강무사의(講武事宜)가 제정되었다. 그 내용에는 물이하는 구군(驅軍)과 군졸이 서로 섞이지 말아야 하며, 어가 앞의 짐승은 몰아서 쓰지 말아야 하며, 대소인은 임금보다 먼저 위내(圍內)에 들어가지 못하며, 이 사항들을 어길 때에는 엄히 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무를 하는 규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군법을 적용한 것이다.³⁶⁹⁾

(3) 군례로서 강무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징

정도전이 계획하고 태종대에 정비된 강무는 세종대에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인 강무와 진법을 통한 군사훈련인 대열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세종 2년(1420)에 전라도병마도절제사가 본영(本營)과 각진(各鎭)이 훈련할 수 있도록 진도(陣圖)와 진설(陣說)을 요청³⁷⁰⁾하여 그동안 실시되지 않던 지방군의 습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3년(1421) 5월에는 변계량³⁷¹⁾으로 하여금 새로이 진법을 만들게 하여 개편된 진도법이 확정된다. 이를 각 도병마제절제사에게 명하여 수령 중에서 진법에 밝고 익숙한 자를 차사원(差使員)으로 삼았고, 품관 중에서 훈도관(訓導官)을 삼아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락의 지방군에게 진을 연습하게 하였다. 당시 변계량이 개편한 진법은 종래의 진용을 5진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습진시에 무예훈련을 병행토록 한 것으로 실전시의 전투편성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이는 대열(大閱)을 행할 때 평가받았는데 만약 군사들이 습진에 익숙치 못한 경우에는 훈도관 수령 병마제절제사까지 처벌하였다. 대열시에는 왕이하 문무대신들은 모두 용복으로 갈아입고 군사를 일정하게 나누어 진법에 따라 대항(對抗)케 한 다음에 사냥을 통하여 군사훈련을 익히는 강무를 행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강무에 선행하는 대열은 생략하고 곧바로 금수를 타위(打圍)하는 강무를 행하였다.³⁷²⁾

369) 『太宗實錄』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370) 『世宗實錄』 7권, 세종 2년 3월 17일 乙酉

371) 『世宗實錄』 12권, 세종 3년 5월 18일 己卯

세종 14년(1432)과³⁷³⁾ 세종 24년(1442) 3월에는³⁷⁴⁾ 태종대 시행된 강무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은 강무의 본의가 군사훈련에 있는데 태종(太宗)대에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훈련하는 본의에 어긋 난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세종 역시 강무의 목적이 군사훈련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절차 때문에 대규모 군사가 동원되는 군사훈련의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강무는 『世宗實錄』 권 133 오례 군례의식 강무의(講武儀)에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어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와 같이 본격적으로 유학의 가치를 내걸고 예에 의한 중앙집권적 국가지배 체제가 완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조에서 성종대에야 완성되는 국조오례의의 전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高麗史』에 보이는 강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국왕이 친림한 군사훈련은 본격적인 진법훈련으로 정비되어 세종 3년(1421) 『世宗實錄』 五禮³⁷⁵⁾를 시작으로 수정을 거쳐 후에 『國朝五禮儀』에 대열의(大閱儀)로 구분하여 정리되었다. 조선왕조에서는 그동안 보인 열, 대열, 진법 등의 군사훈련은 강무의(講武儀)와 대열의(大閱儀)로 명확히 구분되어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과 ‘진법·격자지법’에 의한 군사훈련을 별도로 마련하여 군사훈련을 추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성종대에 완성된 『國朝五禮儀』 권6 군례(軍禮) 강무의(講武儀) 내용은 철저히 왕을 중심으로 기사사냥을 전제로 한 절차가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몰이하는 기병(驅騎)의 몰이하는 절차, 임금이 기사하는 절차, 장수와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기사하는 절차와 세부 시행 방법, 각종 안전 관련 수칙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냥감의 분배와 종묘에 제사 지내는 절차가 마련되어 유교적 측면의 군례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진행은 깃발과 북을 사용하여 지휘하게 되어 있어 전통적인 고려의 기사사냥 방식과 중국식 진법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72) 강무의 장소, 사냥감, 왕조별 시행 횟수 등은 박도식(1987), 김동진(2007), 심승구(2007)에 자세하다.

373) 『世宗實錄』 55권, 세종 14년 2월 21일 庚戌

374) 『世宗實錄』 95권, 세종 24년 3월 9일 庚午

375) 『世宗實錄』 12권,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3) 무과시취의 제도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 조선초 무과시취의 시행 과정에 보이는 기사

앞서 살핀 정도전이 편찬한 『經濟六典』에 무과가 성문화 되었음에도 무과는 정식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고려말 집권세력은 병사(兵士)의 징발로부터 군적(軍籍)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의 사병은 무과 시행의 취지와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건국 초기 실권을 장악한 정도전을 위시한 문신들은 사병(私兵)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앞서 논한 태조 6년(1397)에 들어서면서 가시화된 요동 공략을 위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인 강무와 같이 무과의 실시는 당시 군제개혁의 최종목표였던 사병 혁파의 명분을 얻기에 충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군사 훈련에 있어 앞서 정도전이 기사를 하지 않고 중국식 진법훈련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유를 피력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기존 보수세력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최소 이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⁷⁶⁾

태조 7년(1398) 명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절제사(節制使)를 혁파하여 관군(官軍)을 만들어 만전(萬全)을 기하자는 등의 건의가 계속되자³⁷⁷⁾ 병권(兵權)을 가진 이방원과 같은 왕자들과 무장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조 7년(1398) 8월, 정종 2년(1400) 정월 2차에 걸쳐 일어난 ‘왕자의 난’을 야기하였다.

2차 왕자의 난을 무력으로 진압한 태종은 사병의 존재가 자신의 지위까지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정종 2년(1400) 4월에 사병의 혁파를 단행하였다. 또한 곧이어 관제(官制) 및 군제개혁(軍制改革)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측근무인(側近武人)에 대한 관료화(官僚化) 등 왕권 강화를 위한 인재 선발인 무과를 시행하였다(심승구, 1994 : 19).

태종 2년(1402) 1월 처음으로 무과법(武科法)을 시행하였는데 『經濟六

376) 三峯集 권之十三 奉化鄭道傳著 / 陳法

377) 『太祖實錄』 13권, 태조 7년 3월 20일 정묘 2번째기사

典』을 기준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武經七書』와 마(馬)·보(步)·무예(武藝)를 시험 보기로 하였고,³⁷⁸⁾ 무과법이 시행된 이후 4월에 윤하(尹夏) 등 28명을 뽑았다.³⁷⁹⁾ 같은 해 4월 부병(府兵)을 마암(馬巖)에 모아 기사(騎射)·보사(步射)를 시험하여 갑사(甲士)로 삼았다는 것을 볼 때³⁸⁰⁾ 그리고 태종 16년(1416) 실시된 문과(文科)·무과(武科) 별시(別試)에서는 기사(騎射)·보사(步射)와 함께 창쓰는 능력(弄槍)을 시험하였다³⁸¹⁾는 것으로 보아 태종대에 정식으로 시행된 무과의 과목에 기사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2) 기사 시험방식의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전통적 특성

강무를 제도화하는데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듯이 무과시험에서 기사의 규정 역시 무과의 과목 중 가장 많은 수정 보완이 진행되었다. 세종 11년(1429)의 기사 시험방식에 대해 기마자(騎馬者)가 말을 직진하기만 하여 물고 오직 한 방향의 표적만 공격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 제기가 보인다. 그리하여 세종 15년(1433)에 기사 시험 방식을 수정하여 양방향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에 이른다.³⁸²⁾

召都鎮撫訓練觀提調議曰："騎射之法，以馳馬鈍快，取其工拙。今之武士專不馳意於制馬，直馳射矢，或至初革，棄鞭直行，騎射之法未盡。予欲依古制置五革，相距各三十步，左右各置一革，相距五步。左第一紅革，次白次紅，次白次紅。右第一白，次紅次白，次紅次白。左執弓者，初射左第一革後橫走，次射右第二革，次射左第三革，次射右第四革，次射左第五革。右執弓者反之。如此縱橫疾馳中革者，每一革給三分，未發一矢減三分。其不能制馬，左弓右射，右弓左射中革者，只給一分。雖中五革，驟馬不疾、彎弓不滿者，全不給分。且步射之法，亦以彎弓引滿爲貴，今之武士，全不致意，皆用短矢，誠爲未便。今一百五十步，單八十步能用長矢者，加給一分何如？熟議以啓。" 僉曰："可。" 遂令

378) 『太宗實錄』 3권, 태종 2년 1월 6일 기축

379) 『太宗實錄』 3권, 태종 2년 4월 4일 병진

380) 『太宗實錄』 3권, 태종 2년 4월 19일 신미

381) 『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신유

382) 『世宗實錄』 권59, 세종 15년 3월 갑자.

兵曹立法。 初於慶會樓北，令晉平、臨瀛大君與司僕官善騎者試之，遂發此議。

세종이 언급한 기마술에 있어 무사(武士)들의 제어 능력 문제와 말을 곧게 달려 활을 쏘는(直馳射矢)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기사를 잘하고 못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전투에서와 같이 말을 급히 달려 추격(馳馬)하는 능력의 익숙함(鈍快)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말을 제어(制馬)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곧게 달려서 활을 쏘아(直馳射矢) 초혁(初革)에 이르면 채찍을 버리고 직행(直行)하므로, 기사(騎射)의 법이 극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종은 원래 기사의 잘하는 기준에 맞추어 무과에서 기사 시험방식을 수정하려고 한 것이다. 세종은 고제(古制)에 따라 관혁의 숫자를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앞뒤 과녁과 과녁 사이는 30보(약 37.8m)로 늘렸고, 좌우의 과녁을 백색과 홍색으로 구분하여 5보(약 6.3m) 거리에 배치하였다. 번갈아 가며 쏘도록 기사의 방법을 변경하였다. 또한 좌우 과녁의 거리는 5보(약 6.3m)로 변경하였다. 이를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약38.321m를 중횡으로 달려야 한다.

<표 IV-2-2> 세종대 기사 방식의 변화

세종 11년 기사 방식				세종 15년 기사 방식			
						주로 5보(6.3m)	
						약38.321m	
				1 관혁 홍		1 관혁 백	
				30보 (37.8m)			
				2 관혁 백		2 관혁 홍	
				30보 (37.8m)			
50보 (63m)				3 관혁 홍		3 관혁 백	
				30보 (37.8m)			
				4 관혁 백		4 관혁 홍	
				30보 (37.8m)			
				5 관혁 홍		5 관혁 백	
				거리 151.2m			

세종대 기사 방식의 수정 과정에 있어 과녁 배치를 기준으로 <표 IV-2-2>를 작성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한쪽에 배치된 과녁을 말을 달려 직진하여 활을 쏘는 방식에서 좌우에 배치된 과녁을 종횡(縱橫)으로 달려 활을 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과녁과 과녁 사이 말을 달리는 거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녁의 앞뒤 간격은 약 6m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를 사선으로 달려야 하기에 과녁 간 약 38m를 질주하도록 하여 세종 11년 기록상의 총 질주 거리 약 63m에서 세종 15년에는 약 153m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세종은 이렇게 과녁의 숫자를 3개에서 5개로 늘린 이유를 고제(古制)에 따랐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고제는 중국식 주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고 판단된다. 가까운 시대 태종 10년(1410) 1월 12일에 예조(禮曹)에서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규식(規式)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이는 기사(騎射)의 활쏘는 횡수는 직배 다섯 발(直背五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³⁸³⁾

그리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당시에 기사를 5번 하는 것이 한반도 지역의 풍습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귀순(2019)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당(唐) 시기에 시작된 무과 제도를 분석하였는데³⁸⁴⁾ 여기에는 4개의 과녁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2장에서 논의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마사회(馬射戲)의 5개 과녁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덕흥리 고분벽화에는 정확히 408년으로 축조된 절대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 당의 건국되는 618년보다 훨씬 앞선다.

말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여 종횡으로 달리는 방식은 고려시대의 사냥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산림이라는 지형에서 각종 지형지물을 피해 연속으로 기사하는 장면은 사냥 장면과 동시에 각종 전투 기록에서도 종횡기사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세종은 기사에 있어 기마술의 중요성과 연속으로 최소 5번 활을 쏘는 것을 무과 시험방식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이렇게 종횡으로 말을 달리는 기마술이 선행되어야 활 역시 자유자재로 쏠 수 있다.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에서도 쌍검의 사용을 논하면서 기사(騎射)를 하는데 사람과 말이 호응하여야만 좌우로 활 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고³⁸⁵⁾ 하여 기사하는데 있어 기마술과 활쏘기 두 가지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을 거친 기사(騎射)를 시험하는 방식에 대한 변경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五禮』 가례의식(嘉禮儀式)에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³⁸⁶⁾로 확정 발표되기에 이른다. 무과전시의에는 기사 할 때의 과녁의

383) 『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 1월 12일 己卯, 禮曹上武科親試規式。 初場步射片箭, 竝限二百步; 中場騎射直背五發、騎槍、揮著、奪避; 終場講《武經七書》。 曾中武科者, 直赴會試, 正從三品赴學者, 亦直赴會試, 新進者, 依常例額數, 隨人才多少, 不拘前數

384) 『新唐書』 권三十四 選舉制. 其制 有長塚 馬射 步射 平射 筒射 又有馬槍 翹關 負 重 身材之選

385) 『宣祖實錄』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戊寅, 比如騎射, 必須慣熟馳騁, 人馬相應然後, 乃學左右之射。

386) 『世宗實錄』 권 128, 五禮, 序文. 『世宗實錄』 권133, 嘉禮儀式, 武科殿試儀.

수, 색깔, 규격, 배치방법, 쏘는 방법 및 감점의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문종대에는 ‘注筒之法’이라 하여 주적(注筒)³⁸⁷이라는 일종의 물시계를 세워 놓고 기마술에 있어서 말을 느리게 달리는 자를 가리는 수정까지 이루어진다.

(3) 무과시취(武科試取)의 법제화 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앞서 여말선초를 지나는 과정에서 군사훈련과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의 변화과정에 기사(騎射)가 중요한 신체활동이자 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계의 「即位敎書」부터 정도전의 『經濟六典』 그리고 태종과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기사는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시험방법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 전기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무과시취의 과목으로 실리게 된다.

나영일(1992)은 조선시대의 법전과 방목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되어온 인재선발 제도는 개별항목의 명확한 실시목적과 구성요소별 검사중목의 타당성과 객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끊임없이 변천되었다고 하였고, 조선왕조의 유교 교육과 맥을 같이 하여 무사를 배양하고 선발하려는 통치이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훈련관(訓練觀)이 담당하였던 무과 업무는 태종 13년(1413)에 병조로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무과는 병조가 주관하고 훈련관(訓練觀)이 함께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병조가 주관하는 무과제도는 바로 세종대에 더욱 완비된다. 『經國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무과제도는 대부분 세종대에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문무를 겸비한 인재의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심승구 1994 : 22).

『朝鮮經國典』 이후 조선왕조의 기틀을 위한 법전의 필요성이 세조대에 대두되어,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조선 초기 법전인 『經國大典』이 성종 대 편찬되었다(윤국일, 1986 : 161). 시취의 과목으로서 기사는 매 1중에 5분(每一中, 給 五分), 4발 4중은 5발 3중에 준함(四發四中, 准五發

387) 『文宗實錄』 권 8, 문종 1년 7월

三中), 4발 3중은 5발 2중에 준함(四發三中, 准五發二中). 5개 과녁 간 거리는 각 35보(五的相距各三十五步). 과녁은 원형으로 지름이 1척, 살반이는 1척 5촌(的圓徑一尺, 棚高一尺五寸)으로 규정되었다.

<표 IV-2-1> 경국대전의 무과 과목

구분	무예(武藝)	강서(講書)	내용
初試	木箭(240步) 鐵箭(80步) 片箭(130步) 騎射 騎槍 擊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리의 무과응시는 초시 전에 무경칠서의 강서 시험에서 粗(7분만점에 3분)이상을 받아야 한다. · 목전과 철전은 3矢 중 1矢 이상 되어야 다음 과목을 치를 수 있다. (覆試도 같음) · 院試와 鄉試의 정원은 각각 70명, 120명으로 인구비례에 의해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
復試	木箭(240步) 鐵箭(80步) 片箭(130步) 騎射 騎槍 擊毬	四書五經 中 一書 武經七書 中 一書 通鑑, 兵要, 將鑑博議, 武經, 小學 中 一書	강서의 고시 방법은 臨文考講하여 通은 7分, 略通은 5分, 粗通은 3分の 點수를 준다.
殿試	騎步擊毬		殿試의 최종선발인원은 甲科 3인, 乙科 5인, 丙科 20인이다
都試	木箭(240보) 1矢이상 鐵箭(80보) 1矢이상 편전(1301나) 기사 2차 기창 2차 격구	강서를 자원하는 자는 論語, 孟子중 一書, 五經중 一書, 通鑑, 將鑑博議, 兵要, 孫子 中 一書를 택하여 시험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춘추에 兵曹, 訓練院의 堂上官이 軍士 및 동서반 중 3품 이하, 그 밖의 閑良人을 시취한다. 190分 이상 - 1등 160分 이상 - 2등

나영일(1992 : 75)이 제시한 <표 IV-2-1>에서 볼 수 있듯이 경국대전에 실린 조선전기 무예의 종목은 서서 쏘는 보사(步射)와 말을 탄채 행

하는 기사, 기창, 격구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둘이 중첩되는 부분은 활쏘기와 격구인데 보격구는 전시에만 있어 보사 혹은 기마술이 선행되는 기사(騎射)가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조선전기 군사제도였던 오위(五衛) 체제에 편입되어 조선의 장기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3. 조선 후기 기사의 변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고려시대부터 전해진 기사가 조선시대에 강무와 무과시취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신체활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의 창건자들은 중국식 군사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기사를 중심으로 규모와 형태에 있어 조선식의 강무와 무과제도를 정착시켰다. 기사가 고려시대 이전부터 개인의 특기로서 여겨졌다면 조선시대에 와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체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1) 기사의 훈련방식 변화과정에 보이는 특징

조선시대에 기사가 법제화되며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선의 장기라는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세조대부터 등장하는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선기사(善騎射)로서 개인의 무용이나 소양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로 인식된 것이다.

(1) 군사적 장기(長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앞서 논의하였듯이 고려시대부터 군사적 이점은 기병의 기사에 있었다. 세조대에는 ‘我國長於騎戰’라 하여 기병 전투를 장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3년(1457) 논의에서는 왜구는 수전(水戰)에는 장점(長點)이 있고, 조선은 기전(騎戰)에는 장점이 있기에 수전(水戰)을 잘하는 왜구에 대비하여 조선군이 거깃으로 패주(敗走)하는 체하여 왜구

가 육지에 내려오도록 하여 조선의 장기(長技)를 사용하여 기병(騎兵)으로써 친다면 거의 도적을 방어하는 계책에 합당할 것이라는 전략을 주장하였다.³⁸⁸⁾

세조 10년(1464)의 논의에서도 황산대첩 중 운봉(雲峰)의 전투를 예로 들며³⁸⁹⁾ 조선의 장기(我國之長技)는 여진과 같은 기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三國史記』를 근거로 중국인(漢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일곱 번 이기고, 왜인(倭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세 번 이기고, 야인과 더불어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다섯 번 이긴다고 분석하였다.³⁹⁰⁾ 조선은 전통적으로 여진 기병이 사용하는 호시 즉, 기사에 능했기에 중국인들과 전쟁을 하면 승률이 70%로 좋고, 같은 대등한 전력의 여진과는 승률이 50%이며 수전에 능하지 못한 조선군은 왜인에 약해 승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종 9년(1478)에는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극중은 오랑캐(虜)의 장기(長技)는 칼(劍)과 극(戟)에 있고 우리의 장기는 기사(射御)에 있다고 하였다.³⁹¹⁾ 또한, 성종 18년(1487)에 논의된 중국의 활쏘는 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조선의 특기를 기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식 도입을 반대하자는 의견에서는 오히려 기존 습진(習陣)을 하면서 실전과 같이 실제로 기사(騎射)를 하자는 주장도 보인다.³⁹²⁾

이러한 기사에 대한 인식은 선조대에도 이어진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 당시 패배 상황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최황(崔滉)은 왜적은 칼을 잘 쓰고 우리는 장기인 기사(弓馬)로 하지 않고 지친 군졸만을 먼저 내보냈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맹장(猛將)마저도 패한다고 하였다.³⁹³⁾ 선조 29년(1596)에는 이조 참판 김우옹(金宇顛)이 기사를 권장해야 함을 주장하며 ‘騎射乃我國之長技’라 표현하고 있다.³⁹⁴⁾

388) 『世宗實錄』 6권, 세조 3년 1월 16일

389) 『世宗實錄』 6권, 세조 3년 2월 25일

390) 『世宗實錄』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391) 『成宗實錄』 94권, 성종 9년 7월 16일

392) 『成宗實錄』 201권, 성종 18년 3월 11일

393) 『成宗實錄』 26권, 선조 25년 5월 23일

394) 『宣祖實錄』 72권, 선조 29년 2월 16일 癸丑 2번째기사

임진왜란이 발발한 초기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장을 직접 보고 전장의 체험에 기초하여 왜란의 전말을 생생하게 증언한 정탁(鄭琢)은 『藥圃先生文集』에 하북과 요동인은 북쪽 오랑캐를 방어하는데 뛰어나고, 북건과 절강인이 왜적을 막는 데 뛰어나기에 남병을 빨리 징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장기는 기사이고(我之長技在騎射), 왜적의 장기는 조총에 있습니다(倭之長技在鳥銃)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총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과 말을 보호할 수 있는 중국 남방식 등패(藤牌)와 일본(鳥銃)의 조총을 모두 도입 할 것을 주장한다.³⁹⁵⁾

선조 34년(1601)에 선조는 병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사만 일삼는 조선 기병의 문제를 지적한 기록에서도 당시 무사들이 보편적으로 행한 기병 훈련이 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는 직접 우리나라 사람은 병서(兵書)를 전혀 모르는데 천 사람, 만 사람이라도 말달리고 활을 당기(馳馬彎弓)는 데에 불과할 뿐이요 장군의 재능(將才)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효순(孝純) 역시 기사(弓馬)만 장기(長技)로 삼고 대중을 통솔하는 데는 뜻이 없어서 병서(兵書)를 읽게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³⁹⁶⁾

조선의 장기는 이외에 태종부터 세조까지 편전(片箭)³⁹⁷⁾, 궁시(弓矢)³⁹⁸⁾, 통전(筒箭)³⁹⁹⁾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보사와 기사에서 모두 사용하는 무기(武器)의 차원에서 언급된다. 숙종대를 기점으로 기사는 더 이상 조선이 장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숙종 1년(1675)부터는 북인(北人)이 화포(火砲)를 요구하는 데에 대하여 숙종 스스로가 화포가 우리나라의 장기(長技)이지만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한탄한다.⁴⁰⁰⁾ 사료상 숙종대 이후의 정조대까지 火砲⁴⁰¹⁾, 兵車⁴⁰²⁾, 鳥銃⁴⁰³⁾, 鳥銃⁴⁰⁴⁾, 造化砲, 一窩

395) 『藥圃先生文集』 권之四, 雜著

396) 『宣祖實錄』 142권, 선조 34년 10월 28일 임진

397) 『太宗實錄』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398) 『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16일 갑신

399) 『世祖實錄』 28권, 세조 8년 7월 26일 기미

400) 『肅宗實錄』 3권, 숙종 1년 3월 18일 병자

401) 『肅宗實錄』 3권, 숙종 1년 3월 18일 병자

402) 『肅宗實錄』 3권, 숙종 1년 4월 16일 갑진

403) 『肅宗實錄』 15권, 숙종 10년 12월 16일 정미

404) 『景宗實錄』 13권, 경종 3년 7월 3일 경진

蜂⁴⁰⁵)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어 조선의 장기는 기사 보다는 화포로 여겨진다.

(2) 강무제(講武制) 시행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⁴⁰⁶)

앞서 살폈듯이 강무는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기사사냥을 기반으로 중국식의 진법 훈련과 유교사상이 결합되어 군례로서 국조오례의에 포함되었다. 이렇듯 강무는 왕의 권위의 상징, 대규모 군사훈련, 유교행사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강무의 시행은 조선 후기가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종 31년(1536)에는 조종조에서 시행한 대강무(大講武)와 소강무(小講武)를 언급하고 소략한 타위(打圍)⁴⁰⁷)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타위는 이전에 행한 강무에 비교하여 소규모의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군사훈련에 있어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적인 측면에 있다고 본다. 정재훈(2009)은 성종대 이후에 강무가 크게 줄어든 원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평화, 성리학자들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조선 중후기에 군사훈련이나 점검 위주의 열무로 변화하여 사냥의 요소는 거의 생략되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정재훈(2009)의 분석에 동의하며, 강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기사를 훈련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화포가 도입되며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후술할 기사를 훈련하는 방법으로서 모구(毛毬)와 삼갑사(三甲射)는 조선의 장기가 화포, 조총 등 화약무기로 바뀌어 가는 시점인 숙종대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각종 사냥과 관련된 기록도 숙종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영준, 변우혁(1994)은 각종 사냥과 관련된 조선왕조 기록의 양적 추

405) 『正祖實錄』 12권, 정조 5년 10월 28일 정유

406)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강무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정재훈(2009)의 연구 참고

407) 『中宗實錄』 82권, 중종 31년 6월 21일 甲辰

이를 분석하였는데 세종대 782회로 가장 높았고, 성종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횡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강무에 대한 왕별 시행 횡수 역시 태조 1회, 태종 11회, 세종이 24회, 세조 2회, 성종 2회, 선조 1회, 중종 1회로 점점 줄어드는데 이는 강무장(講武場)의 정비 마초의 수급 등 농사를 해치는 노동력과 비용의 발생을 염려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져 강무에 대한 빈도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성종대의 강무는 군례로서 제도화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군사훈련보다는 소규모 인원이 몰이 사냥을 하는 타위(打圍)가 선호 된 것으로 보인다. 타위 역시 원래 강무(講武)할 때는 타위(打圍)를 통하여 사냥을 행하였다고 하여 군사훈련으로서 강무(講武)를 논할 때 같이 언급된다. 성종 4년(1473) 7월 강무를 대신하여 타위(打圍)를 하였다는 내용 역시 보인다. 영의정 신숙주가 농사를 이유로 강무(講武) 대신 배릉(拜陵)한 후에 서울로 돌아올 때에 과평산(坡平山) 등지와 같은 데서 두 세 번 타위(打圍) 하여서 행군(行軍)을 시험하자고 하여 강무(講武)는 정지되었다.⁴⁰⁸⁾

그나마 이마저도 중종대에 보면 점차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종 23년(1528)년⁴⁰⁹⁾에는 강무와 타위 등의 일을 하지 않으나 천금(薦禽) 같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중종대 이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도성 부근에서 행하는 답렵(踏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보인다.⁴¹⁰⁾ 중종 5년(1510) 전관(箭串)의 목장(牧場)에 거동하여 습진(習陣)과 함께 답렵(踏獵) 하였고, 중종 31년(1531) 1월 기록에는 답렵(踏獵)이 전렵(畋獵)이 아니라 열무(閱武)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장수가 물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몰이사냥 형태의 소규모 군사훈련임을 알 수 있다.⁴¹¹⁾

이와 같이 『國朝五禮儀』에 성문화된 강무제는 16세기 말을 고비로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군사훈련은 대열(大閱)의 형태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강무제가 확립된 지 100여 년이 지난 16세기말을 기점으로 사

408) 『成宗實錄』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409) 『中宗實錄』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계미

410) 『中宗實錄』 12권, 중종 5년 10월 3일 丙戌

411) 『中宗實錄』 81권, 중종 31년 1월 12일 무진

냥을 통한 종합적인 군사훈련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⁴¹²⁾ 물론 조선후기에도 『國朝五禮儀』에 입각하여 사냥을 겸한 강무제도의 시행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⁴¹³⁾ 거의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서의 강무(講武)란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의 의미가 아니라 대열(大閱) 또는 관무재(觀武才)와 같이 국왕 친림 아래 이루어진 무예훈련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정재훈, 2009).⁴¹⁴⁾

기사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었던 강무제가 타위와 답렵 등으로 규모적인 측면에서 축소된 것은 확실해 보이나 그 방법까지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위와 답렵은 몰이사냥 방식이 유지된 것이 확실하며 그 기사사냥으로 이루어진 것은 강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3) 모구와 삼갑사의 도입으로 본 기사의 특징⁴¹⁵⁾

앞서 강무와 무과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서부터 이어진 기사사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기사를 훈련하는 방식으로서 모구(毛毬)와 삼갑사(三甲射)가 등장한다. 모구(毛毬)란 활로 쏘아 맞추는 射毬의 대상이었다‘ 모구는(毛毬)는 기사의 대상 중 하나였다.

모구는 태종대 사청(射廳)의 설치를 계기로 도입된 도입되어 세종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제정된 강무와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는 사냥을 모방한 기사연습의 한 방안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태종이 강무에 대한 언급 이후 모구의 도입을 추진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중앙집권을 위해 단행한 여러 군제 개편과 동시에 무과의 실시, 내금위, 갑사, 별시위 등의 왕실과 궁궐수비를 위한 금군(禁軍)의 정비 등 강무는 태종을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으로 기사가

412) 『孝宗實錄』 권10, 4年 2月 癸卯.

413) 『孝宗實錄』 권20, 9年 6月 癸酉.

414) 조선후기의 講武는 사냥을 겸한 방식이 아닌 주로 陵幸 參拜 시 호종군사들을 闕武하는 방식이 큰 특징이었다(『顯宗實錄』 권9, 5年 9月 壬寅).

415) 모구는 심승구(1999)에 삼갑창은 최형국(2011 : 19~22)의 연구성과에 자세히 논의되어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에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서의 소개로 마침을 밝힘.

중심에 있었으며, 이러한 기사를 사냥터가 아닌 사청이라는 공간에서 연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沈勝求(1999)는 모구를 말을 달리면서 앞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공, 즉 예구(曳毬)를 쏘아 맞추는 기사 훈련방식의 일종으로 보았다. 모구는 태종 16년(1416)에 처음 보이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원(李原)이 사청(射廳)의 건립을 제안하며 언급된다. 태종은 『文獻通考』와 『冊府元龜』에 근거하여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군왕이 친히 강무(講武)와 대열(大閱)을 행하고 공경대부(公卿大夫)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위(侍衛)하여 모구(毛毬)에 활을 쏜다⁴¹⁶⁾하고, 이어서 사청(射廳)터를 상지(相地)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세종 6년(1424)⁴¹⁷⁾에는 세종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경회루에서 군사와 귀화한 올랑합(兀良哈)·올적합(兀狄哈) 등을 모아 활을 쏘게 하고, 모구(毛毬)를 세 번 쏘아 세 번 맞힌 자에게 각궁(角弓) 각 하나씩을 상으로 주었다그리고 세종실록에는 모구(毛毬)를 쏘는 것은 이날부터 시작한 것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어 태종대는 논의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기록상 무과의 시행 직후에 바로 장군들이나 위사(衛士)들을 시험하는 용도로 시행하였기에 시재나 취재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의 기사사냥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탄 앞사람이 모구를 끌고 가면 뒤에서 말을 달리면서 활로 쏘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⁴¹⁸⁾ 기록상으로는 ‘毛毬’ 또는 ‘射毬’라 하고 여기에 쏘는 방법을 ‘射毬之法’이라하였다.

삼갑사는 삼갑창(三甲槍)과 함께 세조대부터 보인다. 세조 6년(1460)⁴¹⁹⁾에는 날쌔 기마(騎馬)를 뽑아서 그 다소(多少)에 따라 갑(甲)·을(乙)·병(丙)으로 3대(三隊)를 나누어 그 표지(標識)를 다르게 하고 화살 끝에 가죽을 입힌 연습용 화살인 피두전(皮頭箭)에 붉은 물을 들여 우전

416) 『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 7월 16일 을사

417) 『世宗實錄』 26권, 세종 6년 12월 13일 갑인

418) 『世宗實錄』 권78. 19年 9月

419) 『世祖實錄』 20권, 세조 6년 6월 6일 신해

(羽箭)의 끝에 꽃고, 천천히 가도록 하여서 사람을 상(傷)하지 않게 한다. 북을 치면 갑(甲)·을(乙)·병(丙)이 각각 2인씩 두루 말을 달리면서 그 등을 쏘는데, 갑은 을을 쏘고, 을은 병을 쏘고, 병은 갑을 쏘되 서로 함부로 쏘지 않는다 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구는 숙종 8년(1682)⁴²⁰ 까지 무과, 관무재, 열무(闕武) 등의 시험이나 군사훈련 이후에 마상재(馬上才)와 사모구(射毛毬)를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감사 역시 모구와 마찬가지로 숙종 32년(1706)⁴²¹ 까지 시재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숙종대의 이후로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삼감사의 경우는 기창(騎槍)·기전(騎箭)으로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후로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냥으로 시행된 강무제 그리고 모의 사냥 방식인 모구는 조선시대 접경의 여진과의 접전을 대비한 훈련방식이었다고 본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통적인 특기인 기사를 공유했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선보다 더 강력한 기사능력을 보유한 여진인들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고려말 세력이 약해지긴 하였지만 조선전기에는 북방 야인들과의 전투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병전술에 군사전략이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의 기병은 기사와 기창이 중심이었고, 앞서 살펴보았듯 군사적 측면에서 기사(騎射)는 조선의 전통적인 특기였다.

2) 화포(火砲)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 보이는 기사의 한계

앞서 기사의 전통적인 측면을 논의하며 한반도의 북부지역은 한국의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역시 건국 이전부터 태조 이성계와 여진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국경선이 길주에서 두만강 하류까지 확대되고 경원도호부가 설치되면서 일대의 여진족과 영토의 지배권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유재성,

420) 『肅宗實錄』 13권, 숙종 8년 4월 20일 丁酉

421) 『肅宗實錄』 43권, 숙종 32년 3월 21일 己卯

1996 : 93). 태종대부터 시작된 여진 정벌은 세종대 2차의 정벌 결과 압록강 지역에 4군을 설치하였고, 세조대에도 여진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였으며, 성종대 까지도 강력한 여진기병을 압박할 수 있었다.

조선과 같은 기사를 잘하는 여진을 무력으로 압박한 기간은 모두 강무, 모구, 삼감사 등 기사훈련이 성행한 왕조대와 일치한다. 또한, 여진 정벌의 공이 큰 최윤덕⁴²², 남이⁴²³, 어유소⁴²⁴, 성우길⁴²⁵ 등은 당대의 기사를 잘하는 장수들이었다. 그러나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이러한 조선 기병의 기사는 왜군의 조총과 화기에 큰 약점을 드러내었다.

왜의 침입에 대응한 당시의 조선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는 진관제와 제승방략제가 있는데,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자는 지역을 백전백수(自戰自守)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중앙에서 파견된 경장(京將)만이 지휘권을 갖는 전투 방식이었다(심승구, 1999 : 35). 이에 따른 조선군은 임진왜란 초기에 대응이 너무도 늦었고, 상황과 약도 더더 습진(習陣) 중에도 일본군이 집결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 왜의 화포사격에 기사로 대응하려 했지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²⁶

이에 대하여 이흥두(2006)는 조선의 기병은 일본군의 조총에는 기사(騎射)로, 단검에는 기창(騎槍)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에 당시 조선군의 패배가 제승방략에 따라 장수들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신립은 여진을 상대로 북쪽 변경을 시키는데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선조 16년(1583) 온성부사(穩城府使)로 있을 당시 세 겹으로 포위된 성을 기사하여 구원하였으며⁴²⁷, 같은 해 포위된 훈융진(訓戎鎭)을 구하기 위해 기사하여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신립은 평소에 5백여 철기(鐵騎)를 사냥을 통해 전술을 익히게(校獵習戰) 하고 연안(沿江)에서

422) 『世宗實錄』 60권, 세종 15년 5월 7일 己未

423) 『世祖實錄』 46권, 세조 14년 5월 18일 정축

424) 『成宗實錄』 65권, 성종 7년 3월 16일 己未

425) 『宣祖實錄』 167권, 선조 36년 10월 29일 신해

426)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일 경인

427) 『宣祖修正實錄』 17권, 선조 16년 2월 1일 갑신

치돌(馳突)하는 연습을 시켰다⁴²⁸⁾고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논의해온 선 기사자의 모습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신립은 평소 사냥을 통해 기사를 연습하여 실제 전투에서는 성에 의지한 기병을 운용하는 전통적인 여진 기병에 대한 대응 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25년(1592) 4월 선조가 직접 신립을 인견(引見)하고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삼아 보내는 순간에도 유성룡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왜구에 대한 대책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립과 함께한 8천 병력이 활을 잘 쏘는 자 수천 명만 확인할 수 있다.⁴²⁹⁾

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사료를 입수할 수 없어 패전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신립과 이일 부대의 병종 구성과 이들이 치른 전투의 공통점은 포수 등 화기를 사용하는 병종 혹은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록상 이일은 용사(勇士)로 유명한 박정호(朴挺豪)들에게 왜군을 탐지하도록 하나 이들이 허무하게도 총에 맞아 사망한다.⁴³⁰⁾ 결정적인 패퇴의 원인은 왜군이 포위 후 실시한 일제사격에 조선 군인들이 겁에 질려 제대로 기사나 활을 쏘지 못한 데 있었다.

유성룡이 『懲毖錄』⁴³¹⁾에 기록한 신립과 대화에서 왜군의 조총을 언급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대비는 보이지 않는다.⁴³²⁾ 그 외의 논의 역시 험한 지형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만 논할 뿐 왜군의 화기를 대비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⁴³³⁾ 비변사의 의견도 다를바 없었다.⁴³⁴⁾ 전투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명나라 도독(都督) 이여송(李如松)마저 조령을 지나다 신립의 우매함을 탄식하는 지경에 이른다.⁴³⁵⁾

사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당시 조선군은 기병의 기사를 전술로 택하였고, 왜군은 보병의 조총과 화포를 사용하고

428) 『宣祖修正實錄』 17권, 선조 16년 2월 1일 갑신 6번째기사 1583

429) 『宣祖修正實錄』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6번째기사 1

430) 『宣祖修正實錄』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8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431) 『懲毖錄』 권1, 유성룡, 이민수 역(2005), 을유문화사.

432) 『宣祖實錄』 48권, 선조 27년 2월 19일 戊辰 2번째기사

433) 『宣祖實錄』 66권, 선조 28년 8월 14일 甲寅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434) 『宣祖實錄』 71권, 선조 29년 1월 24일 辛卯 3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435)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4월 14일 기사

있었음은 분명하며, 신립과 이일 더 나아가 조선의 조정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일과 신립의 패전은 당시 조선군이 얼마나 여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군사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2) 절강병법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선조는 1년이 지나서야 선조 26년(1593) 6월 조선의 약점은 바로 화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인식 한 것으로 보인다.⁴³⁶⁾ 왜군은 16세기 중엽 조총과 화약이 전래되면서부터 조총부대와 궁시부대(弓矢部隊)가 공격을 주도하였다. 이미 왜는 오다 노부나가(직전신장, 織田信長)가 1575년 조총을 보유한 보병으로 다케다 신겐(무전신현, 無田信玄)의 기병을 격파하여 전술의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豊臣秀吉)는 1582년 전투부대를 기병과 보병으로 나눈 다음, 대장의 지휘하에 기병, 총병, 궁병, 창검병의 단위부대를 편성한 전술을 갖추고 있었다.(柳在城, 1996 : 141)

한편 명나라 척계광은 1556년 단병전술(短兵戰術)이 특기인 왜구(倭寇) 소탕을 위하여 개발한 절강병법(浙江兵法)을 제정하고, 방패(防牌), 낭선(狼筈), 장창(長槍), 당과(鎗鈹) 등 병기를 활용하여 일본군을 무력화시켰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1592년 명나라 장수 조승훈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최초 파병하여 단독으로 일본군과의 제2차 평양성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패배했다. 이듬해 1593년 이어송이 4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제4차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盧永九, 1997).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명측의 화포 사용이 두드러진다. 확실히 명나라 군사는 화포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병전에 불리함을 드러내었다. 파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어송이 직접 이끈 친기병(親騎兵) 1천은 단검(短劍)에 기마(騎馬)뿐이었고 화기(火器)가 없었다고 하며, 길이 험하

436)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임자.

고 진흙이 쌓였으므로 제대로 말을 달리지 못하였다.⁴³⁷⁾ 이에 적이 긴 칼을 휘두르며 좌우에서 돌격해 들어오니 그 예봉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흥두(2006)는 선조 26년(1593) 1월의 기록을 근거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과 조선의 기병이 평양성 뒤에 매복했다가 도망하는 일본군을 기습하고 추격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았다.⁴³⁸⁾

고려시대와 조선초기를 거치며 중국의 고제(古制)를 참고하기 시작하여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기사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완성된 진법은 또 한번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기존 조선의 군사 편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효신서의 도입이 이루어 졌다. 명나라 장수 척계광의 『紀效新書』는 임진왜란 이후 여러 경로를 거쳐 여러 판본의 습득을 위한 노력의 결과 조선군의 편성과 훈련을 『紀效新書』의거 하여 진행하였다(노영구, 1997).

조선의 『陣法』과 절강병법의 군사 편제의 차이는 편성 규모에 있었다(김동경, 2008 : 39). 노영구(1997)는 진법의 군사편제 특징과 기효신서 군사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진법의 군사편제는 병력의 다과와 전투 규모에 따라 상이한 지휘체계를 적용하기 않고 동일한 체제를 이용하되 다만 統의 규모를 조정하여 대처하도록 한 매우 유연한 편제였다. 반면, 16세기 중반 명나라에서 편찬된 기효신서의 편제는 여러 가지 병종을 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였다.

전투시 기본 전투 대형은 2열 종대인 이른바 원앙대(鴛鴦隊)로서 살수대의 가장 앞에는 대장이 서고 2열 종대로 등패수, 낭선수, 장창수, 당과수의 순으로 배치하며 가장 뒤에 화병이 따르게 된다. 포수대는 포수(砲手) 10명이 대장 뒤에 2열 종대로 서서 교대로 사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효신서 편찬 당시에는 척계광 휘하의 명군은 살수와 포수의 비율이 4 : 1로 조총병의 비중은 전체 전투병 중에서 2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⁴³⁹⁾

조선은 일본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조총을 다루는 포수의 양성에

437) 『宣祖修正實錄』 27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438) 『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1월 1일,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11일

439) 『紀效新書』 권1, 「編伍法」

힘을 기울이게 된다.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총을 익히도록 명령하고, 조총 사격술을 무과의 시험 과목으로 넣도록 하였다.⁴⁴⁰⁾ 또한 명나라군이 보여준 새로운 단병 기예를 익히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당시 조선은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선보인 새로운 전술인 절강병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았다.

16세기 중반 명나라는 남방의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확립된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중심인 조총 등의 화력과 각종 단병기로 무장한 보병의 단병(短兵) 접전이 이루어지는 전술은 평양성 전투를 에서 명군에 의해 실전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전술이 일본군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한 조선은 포수(砲手)와 단병 전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술 체계에 적합한 군사력 확충과 이를 위한 군사제도를 만들기 시작 하였다.

(3) 화포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선조 26년(1593) 7월 선조가 피난지였던 의주에서 한성으로 환도하며 본격적인 화기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비변사에서는 병조로 하여금 포수(砲手) 200명을 양성하게하였고,⁴⁴¹⁾ 이일을 시켜 행재소의 무신, 금군, 화포장 등을 선발하여 각종 화기 및 살수 기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체찰사 유성룡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전략 수립을 추진하여 화포와 여러 기구를 제조하여 전쟁을 대비할 것을 건의하고, 낙상지에게 화포, 낭선, 창검 등의 기술과 진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유성룡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곧 훈련도감 설치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이석무, 2008 : 195). 선조는 유성룡을 도제조로 임명하고 무반 재신(宰臣)인 조경(趙徹)을 훈련대장으로 삼아 조직을 갖추었다. 8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사목(事目)에 화포(火炮), 기사(騎射), 보사(步射)나 용약격자(踴躍擊刺)·추축(追逐)·초주(超走) 등을 모두 익혀야 한다⁴⁴²⁾고 하여 화포가 도입 된 이후에도 기사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40) 『宣祖修正實錄』 권27, 선조 26년 2월 병술.

441) 『宣祖實錄』 권40, 선조 26년 7월 경진.

442) 『宣祖實錄』 41권, 선조 26년 8월 22일 癸卯

10월⁴⁴³⁾에는 선조가 직접 기사(騎射)의 시험방식을 실전과 같이 사람 모양의 추인(芻人)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보인다. 그리고 11월에는 기록을 보면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포수(砲手)들을 좌우영(左右營)으로 나누어 교련하고 있는데 포수가 미비한 영(營)의 수효를 기사(騎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⁴⁴⁴⁾

즉 창설 초기 훈련도감 편성을 통해 당시 조선의 당면한 군사적 과제는 포수의 양성이었고 이에 더하여 기존 조선의 장기인 기사(騎射) 역시 중시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도감의 창설 초기에는 포수를 중심으로 좌영과 우영의 2영 체제로 편성되었고, 살수(殺手)가 합류하면서 절강병법에 입각한 새로운 군영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27년 6월 사수(射手)가 훈련도감에 편성되었다.⁴⁴⁵⁾

훈련도감 체제는 포수, 사수, 살수 등 보병의 세 병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삼수병(三手兵) 체제가 정립되었다. 조총 사격 이후에는 반드시 살수대의 근접 엄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비해 궁시는 발사 속도가 조총에 비해 빨라 여러 차례 사격이 가능하였으므로 살수대의 엄호 필요성이 적었다(강성문, 2000).

노영구(2017)는 이 훈련도감의 삼수병 체제는 편성의 기본이 되었던 『紀效新書』의 편성법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포수와 살수만으로 구성된 기효신서의 편성법에 사수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수의 존재가 궁시(弓矢)가 조선의 전통적 장기로서 조선의 군사들이 이에 익숙한 것을 고려한 것이었고⁴⁴⁶⁾, 임진왜란 중 조선이 발사 속도가 느리고 기상의 영향을 받았던 조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기술적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박금수(2013 : 45)는 조선 전기의 오위진법에서는 군사들을 기병(騎兵)으로 이루어진 기통(騎通)과 보군(步軍)으로 구성된 보통(步通)으로 나누고 각 통(通)마다 원사무기와 근법무기를 배합하도록 한 반면, 조선 후기

443) 『宣祖實錄』 43권, 선조 26년 10월 22일 壬寅

444) 『宣祖實錄』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445) 『宣祖實錄』 권52, 선조 27년 6월 갑술.

446)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戊戌.

의 『兵學通』에서는 보군을 원사무기인 조총을 다루는 포수(砲手)와 근접무기를 사용하는 살수(殺手)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부대를 따로 편성함으로써 포수와 살수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기능과 살수의 전투력을 크게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화포가 도입되고 기병이 화기를 사용하는 보병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술이 변화하였지만, 기사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에는 기존 원형의 기사의 과녁을 기추(騎芻)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선조는 기사(騎射)할 때 과녁을 말의 배 밑에 설치하고 굽어보며 쏘는 방식의 실전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람모양의 허수아비인 추인(芻人)으로 시험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에 공조 판서 김명원(金命元) 역시 추인으로 시사(試射)하는 것에 동의하는 논의가 있었다.⁴⁴⁷⁾

3) 화포의 도입 이후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1) 전략전술 변화에 보이는 기사의 기능 변화

선조대에 훈련도감이 세워지면서 보병인 포수, 살수, 사수들에 대한 훈련은 활발하였지만 기병의 기사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조 37년(1604) 12월에는 훈련도감은 보졸(步卒)만 훈련시킬 뿐 마병(馬兵)에 대한 훈련은 없는 것을 지적하고 별무사(別武士)나 사수(射手)들에게 말을 주어 기사(騎射)·기창(騎槍)·격자(擊刺) 등의 기예를 익히게 해야 한다는 비망기가 있었다.⁴⁴⁸⁾ 이는 선조 36년(1603) 8월 기사하는 여진 기병의 동관(潼關) 침입에 대하여 조선군이 총포로 방어하지 못한 데 기인 한다고 본다.

선조 38년 5월 조선은 동관을 약탈한 여진의 근거지인 건가퇴(件加退)를 공격하였다. 조선군 1천은 총통(統筒)과 화전(火箭)을 사용하는 보병 중심의 전술을 선택하였고, 이에 여진 기병 1백 기는 기사로 응전하였다.

447) 『宣祖實錄』 43권, 선조 26년 10월 22일 임인

448) 『宣祖實錄』 182권, 선조 37년 12월 17일 壬戌

수는 많았지만 조선군은 여진 기병을 감당하지 못했고, 기사에 능한 우후(虞候) 성우길(成佑吉)이 보병들을 먼저 퇴각하게 하고 수하의 돌기(突騎)로 여진 기병의 추격을 막지 않았다면 몰살당할 뻔한 전투였다. 기록 상에도 아군 수천이 추격해 온 적의 기병은 40~50명에 불과했는데도 10배의 군사를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⁴⁴⁹⁾

1593년 압록강 중류지역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해서여진(海西女眞) 연합체인 호륜(扈倫) 4부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백두산과 두만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노영구, 2016). 북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성룡(柳成龍) 등은 주요 거점에 성에 각종 화기(火器)를 배치하여 여진 기병의 돌격을 저지한다는 수성(守城) 전술을 적극 모색하였다.⁴⁵⁰⁾ 노영구(2002 : 70)는 이러한 수비중심의 전술이 절강병법을 기초로한 보병위주의 전법이라 여진 기병의 돌격에 맞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광해군대부터 여진 기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2년(1610) 3대(隊)의 기병을 양성하고 또 다른 척계광의 병서인 『練兵實紀』의 전술에 따른 훈련이 시작되었다. 도체찰사 이항복은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 평안도 철산과 선천 마장(馬場)의 말 수백 필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며, 시재(試才)에 합격한 병사들에게 평안도 목마장의 말 50~60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⁴⁵¹⁾ 북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평안도를 중심으로 기병을 양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병 양성과 함께 기병(騎), 보병(步), 전차(車) 등을 통합하여 여진 기병에 대응하는 전술이 고안되었다. 한교(韓嶠)가 편찬한 병서인 『練兵指南』에 의하면 화포를 실은 수레인 전거(戰車)를 앞세우고 다음으로 보병과 기병의 순으로 군사를 배치하는 전술체계였다. 보병은 총수(銃手)와 함께 살수(殺手), 궁수(弓手)로 각기 隊를 만들고 후진(後陣)에 있던 마병이 좌우에서 나와 적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練兵指南』의⁴⁵²⁾ 마병(馬兵)은 후진에 위치하였다가 좌우 날개가 되

449) 『宣祖實錄』 187권, 선조 38년 5월 19일 壬辰

450) 『宣祖實錄』 권68, 선조 28년 10월 신유.

451) 『光海君日記』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壬戌.

어 나뉘어, 측면을 공격(傍功)하고, 복병(伏兵)이 있는 앞까지 진격한다. 적이 멀리 있으면 말에서 내려 삼혈총(三穴銃)과 화살을 쏘고 적이 가까이 오면 말에 올라 적군이 가까이 오면 말에 올라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으로 나뉘어 원양진(駕騫陣) 대형으로 달려나간다(馳出)⁴⁵²고 하여 화포를 중심으로 한 보병들을 엄호하며 전형적인 여진의 매복병을 경계하는 전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병은 삼혈총이나 활과 화살을 소지하여 좌우 측면에서 기사하여 공격하거나 근접하면 단병무기로 교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공격이 가능한 전술임을 알 수 있다.

화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병 전술에 이어 기사훈련의 부활은 광해 8년(1616) 8월에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장관별무사(將官別武士)와 금군 별대(禁軍別隊)는 평소에 포(砲)를 쏘거나 칼을 쓰는 기예는 익히지 않고 오직 기사(弓馬)를 익히고 있으며, 현재 장관 이하로서 기사(弓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기사돌격하는 기예(騎射突擊之技)를 익히게 하고 있어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별대와 별무사 그리고 초군 가운데에서 말타는 재주가 많은 자를 뽑아내어 본격적인 기병(騎兵)을 양성하기 시작한다.⁴⁵⁴

이후에 청야(淸野) 수성전술(守城戰術)이 조선군의 핵심전술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광해군대에 기병에 대한 수적인 증강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으나, 인조대 정묘, 병자호란(丁卯·丙子胡亂)을 거치면서 기병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후 효종대에 북벌(北伐)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병에 대한 전반적인 재인식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최형국, 2011 : 75).

효종대에는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에 사장(射場)을 만들고 금군을 위한 시재(試才)를 치르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군이 본보기가 되어 실제 전투에서 화살에 맞지 않도록 말안장에 엮드리고 기사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⁴⁵⁵ 이후 금군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 3년

452) 『練兵指南』, 後陣馬兵 爲左右翼 分出傍功 播鼓天鵝吶喊不絕 進至前伏兵

453) 『練兵指南』 「車騎步隊伍規式」, “馬兵一隊 敵遠下馬 放三穴銃 或射矢矣 敵近上馬 分爲左右翼 以駕騫陣馳出 或用鞭棍 或用長刀 或用偃月刀 或用雙刀 或用鉤槍 吶喊作戰 亦或馬上輪放三穴銃 兩儀三才 臨時合變.”

454) 『光海君日記[중초본]』 37권, 광해 8년 8월 21일 己未

만에 원래 629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되었다.⁴⁵⁶⁾

이후 효종대에는 북벌을 명분으로 한 지속적인 금군 기병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종에는 정초군(精抄軍)을 새로 편성하면서 기병의 증설을 꾀하였으며, 기병이 보병의 방진(方陣)을 공격하는 것을 기본 훈련체제로 삼게 되었다. 숙종대(肅宗代)에는 청(淸)과의 대립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조선 내부의 난(亂) 등으로 함경도의 친기위(親騎衛)와 평안도의 별무사(別武士), 경상도 동래의 별기위(別騎衛)를 비롯한 지방에 특수 기병대가 증설되면서 기병 강화정책은 중앙군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숙종대의 특이 한 점은 기사가 유생들에게도 권장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숙종 1년(1675) 기록에 따르면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이 기사를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성균관 채주(祭酒) 윤휴(尹鑄) 사례(射禮)를 행할 것을 청하고, 날마다 무부(武夫)를 맞이하여 유생(儒生)에게 기사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후에 상사례(庠射禮)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아⁴⁵⁷⁾ 당시 성균관에서 행한 사례(射禮)에서 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숙종대를 기점으로 기사가 점차 교육적인 측면으로서도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2) 기병훈련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조선 후기 기병훈련에 대한 모습은 훈련도감에서 기병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첩인 『訓練都監別武騎哨軍大習圖』와 장용영(壯勇營) 소속의 백동수가 제작의 주체 중 하나이자 교범으로 사용된 『武藝圖譜通志』의 기병⁴⁵⁸⁾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55) 『孝宗實錄』 권9, 孝宗 3年 9月 壬申. 孝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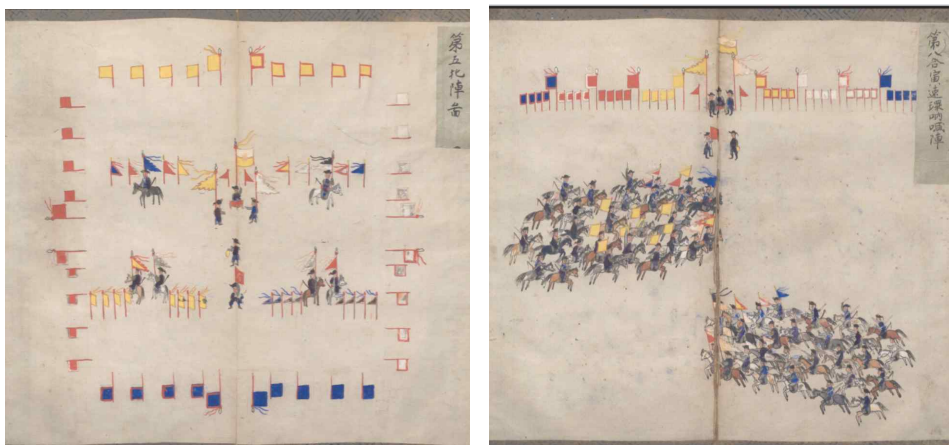
456) 『孝宗實錄』 권14, 孝宗 6年 4月 癸酉.

457) 『肅宗實錄』 4권, 숙종 1년 9월 27일 壬子

458) 『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一 善騎隊三哨 三百四十五名 每哨以馬才抄中 右哨以技藝抄定” 私習, “一 善騎隊 左哨馬才 右哨別哨 使之全習 而右哨之馬才 左哨之別哨 間多有之 六臘計劃時 左右哨馬才別技居首 各一人哨施賞 柳葉箭騎藝 一體肄習亦爲施賞爲白齊.”

『訓練都監別武騎哨軍大習圖』는 그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나 염정하(2013 : 150)는 이 기병훈련 장면을 숙종대 1710년 이후로 추정하였다. 이 그림은 훈련도감의 마병(馬兵)인 별무기초군(別武騎哨軍)의 기병 훈련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大典通編』 「兵典」을 보면 한성 수비를 위한 기병대인 금위영(禁衛營)이 창설되는데 숙종 8년(1682)에 훈련도감의 군사 총수를 감원하고 중부(中部)의 별대(別隊)와 병조의 정초군(精抄軍)을 통합하여 설치하였다고 하여 훈련도감에서 특별히 선발된 기병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군사훈련에서는 각자의 위치와 지위를 나타내고 명령을 보내기 위해 기치(旗幟)를 이용했다. 각 군에는 방위에 따라 각기 휘장(徽章)을 두는데, 중군(中軍)은 황기(黃旗), 전군(前軍)은 홍기(紅旗), 좌군(左軍)은 남기(藍旗), 우군(右軍)은 백기(白旗), 후군(後軍)은 흑기(黑旗) 등으로 표시한다. 이들 휘장에는 소속군의 명칭과 해당 대오의 이름을 써 넣으며 방위에 따른 짐승을 그려 넣었다. 보통 5영(五營)이 있을 때에는 영(營)으로 방위의 색깔을 나누고, 각 영에 있을 때에는 사(司)로, 한 사에 있을 때에는 초(哨)로, 방위의 색깔을 나눈다(염정하, 2013 : 150).⁴⁵⁹⁾



<그림 IV-5-1> 「訓練都監別武騎哨軍大習圖」 5 번째, 8번째 침

459) 국립중앙도서관, 「訓練都監別武騎哨軍大習圖」 해제, 자료검색일 2022. 12. 19. <http://www.dibrary.net/>

따라서 <그림 IV-5-1>은 초에 따라 방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⁰⁾ 그리고 기병의 무장을 보면 진법을 연습하는 장면이기에 무기와 갑주를 모두 갖추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편곤만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정조 14년(1790)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⁴⁶¹⁾와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5-1>과 <그림 IV-5-2> 모두 기병의 편곤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과 기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림 IV-5-2> 『武藝圖譜通志』 기병의 편곤(좌), 기창(우)

무예도보통지에 기사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대에 기사가 여전히 중요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우선 최형국(2011 : 162)은 무예도보통지안에서도 묘사된 기병의 모습에서 기사를 분석해 내었다. <그림 IV-5-2>는 『武藝圖譜通志』마상편곤과 기창의 모습으로 당시 기병의 필수무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먼저 편곤을 내리치고 있는 무사의 좌측에 기병용 환도 동개궁이 보이며, 우측 시복에는 화살들과 편전(片箭)⁴⁶²⁾

460) 『肅宗實錄』, 권24, 肅宗18年 7月23日 庚午

461) 『武藝圖譜通志』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교에 의해 완성된 『武藝諸譜』의 보병의 무예를 기반으로 광해군대 편찬된 『武藝諸譜翻譯續集』 이후 영조 35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때에 편찬된 『武藝新譜』에 6가지 기병의 무예를 더하여 정조대에 완성된 것이다(나영일, 2001). 특히 『紀效新書』, 『武備志』, 『日本記』, 『倭漢三才圖會』 등 145권의 한, 중, 일의 무예서가 규장각의 이덕무와 박제가에 의해 실기와 이론이 종합되어 편찬되었다(곽낙현, 2013).

462) 시사(試射) 할 때 기사에 편전이 사용되기도 하였음은 인조 5년(1627)에서 알 수 있다. 今宜考據往事, 及時稟旨, 如片箭、芻人、騎射、立射, 最似着實於戰用, 時時命試亦當。 請竝令兵曹舉行。” 上從之。

을 쓸 때 사용되는 통아가 꽃혀있음을 알 수 있다.

곽낙현(2013)은 『壯勇營故事』에 『朝鮮王朝實錄』과 『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壯勇營大節目』의 시사(試射)에는 활쏘기를 통하여 인재를 선발, 승진, 논상 하는 시험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장용위와 선기대 모두 기추(騎藹) 과목이 있어 기사를 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의 친위 기병인 장용영은 우수한 말을 선별하여 운용하였다.⁴⁶³⁾ 『武藝圖譜通志』의 마재(馬才)와 기예(技藝) 그리고 유연전을 사용한 기추를 쏘는 기사 역시 행하고 있었고,⁴⁶⁴⁾ 동개궁, 화살, 환도, 편곤을 소지하였다.⁴⁶⁵⁾

강화된 장용영의 선기대와 친군위 등 중앙군영의 기병력을 비롯하여 속종대 창설된 북방의 특수 기병대였던 함경도 친기위와 평안도 별무사의 경우는 정조대에도 매년 도시를 치러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매년 도시를 치루었던 사실은 이들 기병부대가 지속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었으며, 핵심 군사력으로 손색이 없었음을 추측 할 수 있게 해준다. ⁴⁶⁶⁾ 『兵學通』 「場操」에도 조선후기 기병부대로 대표되는 용호영의 핵심 전술은 기사와 편곤으로 적이 100보 거리 내에 있으면 말에 올라 기사하고, 50보 이내에 접근하면 편곤으로 돌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⁶⁷⁾

(3) 무과시취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463) 『壯勇營大節目』 권1, 「馬政」, “一軍馬試馳擇捧專取 其能走而雖 或健實可合馳突是白良置 俗稱步才之馬一切 勿捧至 於馳試時不入 於藹路者惟在頭馴制 之能否忝酌許 捧爲白齊.”

464) 『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一 善騎隊三哨 三百四十五名 每哨以馬才抄中 右哨以技藝抄定” 私習, “一 善騎隊 左哨馬才 右哨別哨 使之全習 而右哨之馬才 左哨之別哨 間多有之 六臘計劃時 左右哨馬才別技居首 各一人哨施賞 柳葉箭騎藹 一體肄習亦爲施賞爲白齊.”

465) 『壯勇營大節目』 권3, 「親軍衛」, “一 筒筒弓箭環刀鞭棍 依內禁衛例 自官分授 爲白乎矣”

466) 『正祖實錄』 권11, 正祖 5年 4月 甲辰.

467) 『兵學通』 「場操」 問花疊退, “龍虎營 作戰 賊在百步之外 各兵上馬 放砲立一二羽旗 點鼓點旗 後層出前層之前 一字擺列 賊至百步之內 聽令弓矢齊發 賊到五十步 搥鼓吹天鵝聲 拔鞭棍吶喊追擊 賊敗鳴金鼓止 各兵立 鳴金三下 卽回身 放砲立該番旗向內點 退回原地 又作賊狀 放砲 立一二內旗 點鼓點旗 前一字羅列 賊之百步之內 射矢追擊俱如前 又作賊來狀 放砲立一二內旗 點鼓點旗 中層出前層之 一字羅列 射矢追擊 俱如前.”

앞서 살핀 기사(騎士)의 변화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 조선 전기 무과시취에서의 기사(騎射) 과목은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 조선의 기병들은 기사하며 돌격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표 IV-5-1> 범전에 보이는 기사의 축소

과목	경국대전	→	속대전	변경 내용
동일	木箭	→	木箭	
동일	鐵箭	→	鐵箭	
동일	片箭	→	片箭	
동일	騎槍	→	騎槍	
페이지	擊毬	→	擊毬	
변경	騎射	→	騎芻	○ 五의左右相距二十步內, 馬路二步。 俯身馳馬, 向前迎射, 畢射後, 仰身舉手翻弓。 ○ 橫走及不及漏水限者, 雖中, 勿施。
신설			貫革	○ 一百五十步。 ○ 的長十尺八寸, 廣八尺三寸。 貫長·廣各三分之一。 ○ 武科初·覆試及都試, 則否。
신설			柳葉箭	○ 一百二十步。○ 的長六尺六寸, 廣四尺六寸。 貫長·廣各三分之一。 ○ 箭重八錢, 鏃尖細者, 禁斷。 ○ 武科初·覆試, 則否。
신설			鳥銃	○ 一百步。 ○ 每一中, 給七分半。 貫則倍給。 ○ 的長七尺, 廣二尺。
신설			鞭芻	○ 出馬後, 以右手執鞭, 向後舉, 又以兩手向前舉, 因向左右各一揮。 每一擊後, 輒左右一揮。 ○ 橫走者·不及漏水者, 同騎芻。 ○ 六芻, 相距各二十八步, 左·右相距, 自馬路三步。

이러한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과를 통해 기사, 기창 등의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였고 이는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조선 후기인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 『續大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5-1>와 같다.

선조가 직접 제안한 방식대로 속대전에서는 ‘騎射’에서 ‘騎芻’로 표적을 바꿔 실전성을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훨씬 다양한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병의 소양인 격구, 기사,

기창 외에 편곤이 조선 후기에 추가됨에 따라 기병전술에 있어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에 정조대에 완성되는 무예도보통지에는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쌍검, 월도, 기창, 편곤의 장면에 활, 화살, 통아가 같이 보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經國大典』은 조선에서 500여 년간 통용되어 오던 기본법전이다. 무사시취제도는 『經國大典』이 1485년에 반포된 이후 갑오개혁이 1894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00여 년이 나 존속하였다. 『經國大典』兵典에는 武科, 都試 그리고 試取方法이 나온다. 무과는 무예와 강서시험 두 분야를 보아야 했고,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무과(式年武科)의 경우 대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筋),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6가지였다(나영일, 1999).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기존의 과목에 鳥銃·鞭芻가 추가된 것인데는 ‘騎芻’는 ‘騎射’에서 바뀐 것이다.⁴⁶⁸⁾ 이는 화약무기의 발달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좀 더 정밀한 방식으로 시험 보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원형 표적 騎射방식의 경우는 정확한 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표적만을 맞추는 방식이었기에 선조와 효종은 직접 그 실전성을 문제삼기도 하여 의문점을 나타내게 되었다.⁴⁶⁹⁾

이러한 『續大典』에 보이는 무과 과목으로서 기사는 법전상으로 19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종 2년(1865) 왕명에 따라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大典會通』의 병전(兵典) 시취(試取) 과목(科目)에 속대전과 같은 내용으로 실려있다. 원래 기사(騎射) 과목이 기추(騎芻)로 바뀐 내용이 속대전과 같다. 선조에 의해 제기된 기추(騎芻) 방식은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27년(1594) 9월의 기록을 보면 무사 1인이 기추를 하려고 말을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이를 선조가 질책하자 영의정 유성룡이 말을 달리며 추인(芻人)을 쏘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甚難)는 것을 피력하였다.⁴⁷⁰⁾

騎射와 騎芻 이외에도 武科를 제외한 試取에서 행해진 것 가운데 말을

468) 『續大典』 권4, 兵典 試取 武科式年條.

469) 『宣祖實錄』 권43, 26年 10月 壬寅條, 『孝宗實錄』 권6, 효종 2년 6월 甲子.

470) 『宣祖實錄』 55권,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술 2번째기사

타고 활을 쏘는 기예로 毛毬와 三甲射⁴⁷¹⁾ 등이 있는데, 毛毬는 움직이는 거깃 동물 표적을 쏘는 일종의 모의 사냥훈련으로 볼 수 있으며, 三甲射⁴⁷²⁾는 실제 기사교전(騎射交戰)을 생각하며 시행했던 기병 대 기병 사이의 모의 전투 훈련의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구와 삼갑사는 숙종대에 혁파되었다. 『武藝圖譜通志』 騎槍편을 살펴보면 三甲射는 숙종 32년(1706)에 파하고 騎槍交戰으로 변경되었으며, 擊毬편을 보면 ‘射球(毛毬)之法은 도중에 사라지고 오늘날의 皮球와 화살은 모두 軍器寺에 보관되어있다’라고 하였다.⁴⁷³⁾ 또한 실록 기사에서도 毛毬는 숙종 8년(1682)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무과에서 기사는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순조 25년(1825) 『盧尙樞日記』에는 노충원(盧忠元)이란 인물이 68세의 나이에 기추에 만점을 받아 무과에 급제한 일화가 있다. 노충원(盧忠元) 1824년 겨울 순영(巡營)의 도시(都試)에 별무사(別武士)로서 응시해 기추(騎芻)에서 물기(沒技)를 하여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보인다.⁴⁷⁴⁾

고종대에도 군사훈련에서 기추(騎芻)와 기창(騎槍)이 시취과목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⁵⁾ 그러나 『承政院日記』 고종 17년(1880) 3월 11일의 과거 시행 기록을 보면 무일소(武一所)와 무이소(武二所) 중 무일소에서 철전(鐵箭)과 기추(騎芻)⁴⁷⁶⁾를 마땅히 시취해야 하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6월 19일에도 편전(片箭), 기추(騎芻), 조총(鳥銃), 기창(騎槍)으로 마땅히 시취하여야 하는데 응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종 대의 『承政院日記』를 보면 고종 19년(1882) 1월 13일 병조에서 오는 2월 25일에 시행하는 대왕대비전의 관례가 주갑(周甲)이 된 데 따른 경과 정시(慶科庭試) 무과 초시(武科初試)의 규정을 정하는 논의가

471) (射)毛毬와 三甲射에 대한내용은 심승구(1999) 참조.

472) 甲乙射라고 하여 갑, 을 두 조가 서로 화살을 주고받는 기예도 함께 행해졌는데, 三甲射와 대동소이하다.

473) 『武藝圖譜通志』 권4, 격구

474) 『盧尙樞日記』 4, 純祖二十五年乙酉日記, 五月大

475)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0月 3日 ;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2月 4日 ; 『承政院日記』, 高宗 4年, 3月 19日 ; 『承政院日記』, 高宗 7年, 4月 15日.

476) 『承政院日記』 고종 17년(1880) 3월 11일

벌어진다. 철전(鐵箭), 편전(片箭), 유엽전(柳葉箭), 강서(講書)와 함께 기추(騎芻)는 한 차례에 석 대를 맞히는 규정을 정하였다. 고종 31년(1894) 승정원일기 4월 18일 갑자의 기록⁴⁷⁷⁾에도 무이소에 철전의 시험은 마치고 2인이 입격했으나 편전, 기추, 기창, 조총을 마땅히 시취 해야하나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기에 강서 시험으로 넘어가겠다는 보고가 보인다. 고종 31년(1894) 5월 8일 갑신⁴⁷⁸⁾에는 식년무과가 춘당대에서 진행되었다. 고종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편전, 기추, 유엽전, 조총, 강서 다섯 과목 중 3과목에 입격해야 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무과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지막 무과의 기록과 같은해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갑오개혁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4. 소결

고려말과 조선초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기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기사사냥을 중심으로 중국식 군사제도와 의 융복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강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과라는 인재선발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심에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선기사라는 개인의 능력은 조선시대에 군사 활동으로 정착하면서 조선의 국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전반에 있어서 기사는 무과라는 인재선발과 동시에 시재와 시취 등의 시험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고, 기병의 개인훈련에서 전술훈련 더 나아가 조선의 군대의 한 일익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에 보이지 않던 모구와 삼갑사의 도입한 결과 잃었던 강역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그 위상은 임진왜란 이후 화포의 발달로 인한 기병의 축소와 맥을 같

477) 又以武二所試官意啓曰，臣所，今日鐵箭應射學子五人內，入格二人矣。鐵箭今已畢試，片箭·騎芻·騎槍·鳥銃當爲試取，而無一人應射者，故仍爲捧講之意，敢啓。傳曰，知道。

478) 兵曹，今五月十五日甲午式年武科春塘臺親臨殿試教是時，原榜人規矩，片箭三矢一百三十步一巡一中，騎芻一次二中，柳葉箭五矢一百二十步一巡一中，鳥銃三柄一巡一中，講書粗以上五枝取三枝。

이하에 조총과 같은 화기에 중심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기사는 최후까지 조선의 역사와 함께 했다. 19세기의 대전회통이라는 범전에도 존속했으며, 무과에서도 고령의 노인이 만점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또다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국기로서 존재했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과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조선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V. 근·현대 기사(騎射)의 스포츠화 가능성 탐색

2절부터 4절까지는 한국의 왕조별 역사 전개에 따라 이전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신체문화로서 기사의 특성을 밝히고, 그 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유럽식 ‘근대스포츠’와 만나며 진행된 전통무예의 경기화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였다.⁴⁷⁹⁾ 기사가 가진 ‘개별 종목’으로서 그리고 ‘국제경기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제시하였다.

스포츠로서 기사를 재해석하는 논의는 근대스포츠의 발전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 Elias와 Guttmann의 이론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4장까지 중화의 문명, 유목문화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문화권과의 관계 속에서 기사를 논의하였지만, 5장에서는 근대유럽의 문화인 스포츠와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전통무예를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 스포츠에서 벗어난 형태의 기사의 스포츠화는 어떠한 형태로 가능할 수 있을지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1. 근·현대 스포츠로서 기사(騎射)의 재해석

1) ‘스포츠화’로 본 전통무예의 재해석

(1) 문명화과정과 근대스포츠의 특징

Elias(1978, 1982)⁴⁸⁰⁾는 스포츠 경기를 사회적으로 허용된 호전성과 공

479) 5장부터는 연구의 지리적 범위가 대한민국으로 좁아짐을 밝힘. 전통무예와 근대스포츠와의 만남과 현대 기사의 경기화와 관련되어 더는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역인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연구자 역량의 부족이 원인이며 이는 향후 반드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480) Elias, N. (1978). The civilizing process, Vol 1: The history of manners. Oxford: Blackwell., Elias, N. (1982). The civilizing process, Vol 2: State formation and

격육의 표현으로 보았고 이를 규정된 공간과 규칙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그리고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전자들에게서 찾았다. Elias는 특히, 중세 유럽의 폭력의 상징이었던 ‘기사(Knight)’⁴⁸¹들이 11세기부터 ‘궁정인(courtier)’이 되는 과정 즉, 자유로운 개인에서 왕에게 종속된 신하로 변모하는 과정에 보이는 시빌리테(civilité)의 형성을 중요한 문명화의 사례로 보았다(Elias, 1996 : 384~405).

Elias는 중세 유럽의 사회에서 기사들이 궁정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격육의 통제과정에 주목한 것이었다. 이전 기사들이 공격육을 채우는 방식에 있어 자유로웠다면 궁정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했다. 기사들의 문명화되는 과정은 결국 이들이 행하는 토너먼트와 사냥같이 공격성을 대체할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규칙이 생겨나고 스포츠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예로 스포츠의 발달과정에서 축구, 복싱, 레슬링, 여우사냥과 같은 개별 종목들의 발달 역사를 밝히며, 지방간의 또는 도시 내의 여러 집단 간의 폭력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Elias, 1987). 따라서 그의 문명화 과정의 이론에 있어 스포츠에서 발견되는 폭력적 행위는 제거되어가면서 스포츠는 규제가 많아진다고 보았다.

이후 진행된 Elias, Dunning(1986)의 『Quest for Excitement—Sport and Leisure in the Civilizing Process』⁴⁸²에서는 기사들의 공격육에 대한 절제를 스포츠화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송형석(2004) 역시 문명화과정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활동들로부터 구별해줄 수 있는 스포츠의 특징을 ‘공격 충동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공격적 행동양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송형석은 Elias(1975)의 연구와 논의하여 스포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인 18세기 영국 귀족들의 ‘여우사냥’을 문명화의 산물로 보았다. ‘여우사냥’을 위한 다양한 규칙제정은 참여자들

civilization. Oxford: Basil Blackwell. 본 연구에서는 박미애가 옮긴 문명화과정 I (1996), 문명화과정 II(1999)를 참고 하였음.

48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사(騎射)와 유럽의 기사(Knight)는 한국어 단어를 같지만, 다른 시대적 배경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한자와 영어를 함께 적었음을 밝힘.

482) 본 연구에서는 송혜룡이 옮긴 스포츠와 문명화(2014)를 참고하였음

의 흥분감과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어렵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근대스포츠가 발달하는 과정은 서구사회가 문명화되며 하위문화인 신체활동의 문명화가 이루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스포츠문화 차원에서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등의 담론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인식을 보면 과도한 신체접촉과 이로 인한 폭력행위에 관대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문명화과정에서 공격적인 신체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경기규칙을 부과하여, 비폭력적인 방향으로의 신체활동인 ‘스포츠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스포츠화’는 기록을 추구하게 되었다. 전통무예의 경기화를 논의하는데 Guttman(1978)⁴⁸³의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의 근대스포츠의 특징은 중요한 준거이다. Guttman은 근대스포츠의 특징을 ‘세속화’, ‘평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계량화’, ‘기록추구’로 정의했다.

그에 의하면 과거 신의 명예를 위하여 경쟁하던 스포츠가 세속화되어 인간의 경쟁이 되었고,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이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전문화되어 직업선수와 경기별 포지션, 스포츠 전문기관이 생겨났고, 경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합리화된 경쟁의 규칙이 생겨났고, 현대 스포츠의 규칙을 결정하고 복잡한 대회를 통제하기 위해 관료조직화 되었고, 객관인 경쟁의 판단을 위해 길이, 무게, 초 통계 등으로 계량화 되었고, 최고기록의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기록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Guttman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무예인 태권도가 현재 전세계의 스포츠로서 성장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기에 전통무예의 스포츠화를 논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태권도가 세계화되는데 경기화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장태호, 2004 ; 임군덕, 2006 ; 양현석, 2006 ; 장권, 2010 ; 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 2010 ; 임일혁, 2010 등) 그리고 이러한 경기화는 서구근대스포츠와의 만남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본다.

483) 본 연구에서는 송형석(2008)이 번역한 『근대스포츠의 본질: 제례의식에서 기록추구로』를 참고하였음

특히 성제훈(2014)은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서구인의 시각에서 밝히며, 일본의 무도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서구권 문화에서 대중화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서구스포츠와의 같은 흐름에서의 경기화 추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실제의 문제는 근대스포츠의 유럽식 체제에 따라야 한다는 모순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⁴⁸⁴⁾

이러한 문명화과정에 보이는 신체활동의 스포츠화 그리고 한국에 도입된 근대스포츠와 전통무예의 만남에 따른 경기화라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스포츠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송형석(2006)⁴⁸⁵⁾이 주지한 대로 탈스포츠화한 형태에서 기사는 어떠한 스포츠로서 스포츠화가 가능할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2) 기사(騎射)의 단절과 보사(步射)의 근대화 과정에 보이는 특징

위에서 논한 Elias와 Guttmann의 이론은 근대까지 지속된 유럽 신체 문화의 경기화 과정과 스포츠로의 귀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무예를 근간으로 스포츠화된 궁도 종목은 중요한 예시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Elias의 문명화과정과 유사한 형태의 맥락에서 조선 시대 역사 전개에 보이는 활쏘는 행위에 대한 공격성의 제한과 근대스포츠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Guttmann이 주장한 근대스포츠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선 4장의 마지막에서 논의하였듯이 고종 31년(1894) 5월 8일에 치러진 식년무과가 춘당대에서 편전, 기추, 유엽전, 조총, 강서 5과목이 실시

484) 제1회 올림픽에 참가한 300여명의 선수 중에서 비-서양 출신은 칠레인 한 명 뿐이었다. 1904년 최초로 두 명의 아프리카출신 선수가 영국소속으로 참가했고, 1908년 최초로 러시아인 다섯 명이 참가했으나 영국인은 710명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선수들을 발굴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실패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금메달을 확보한 것은 1960년 맨발의 아베베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후였다. 그러나 1988년까지 아프리카 선수들이 메달을 받은 수는 1%에 불과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1912년 일본 선수단 4명이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다(제프리 시그레이브, 도널드 추, 1984).

485) 송형석(2006)은 전반적으로 Guttmann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의 특징들을 비판하며, 근대내의 반근대적 속성이 있어 스포츠에도 스포츠의 탈스포츠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New Sports의 출현을 파악하였다.

된 이후 무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94년 시행된 갑오개혁은 신식무기 수입과 이에 따른 신구무기 체계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더 이상 무과 과목의 핵심이었던 기사와 보사는 군사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사(步射)의 경우는 다른 양상으로 조선시대에 전개되었다. 기사가 한국의 역사에서 최고의 공격성을 내포한 신체문화였던 반면, 보사는 유교문화의 예(禮)를 갖춘 신체문화로 여겨졌다. 고려시대까지 사냥이라는 경제적 기능의 상실 이후 조선시대부터 기사는 완전 군사 전술로서만 존재했다. 기사를 한다는 것은 무인들의 기본 소양이었으며, 선기사는 최고의 찬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공격성이 강한 무인 중심으로 행해진 기사는 유교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반면, 보사는 유교 사회에서 육례(六禮) 중 하나로 성인들이 행하던 신체문화로서 신성시되어 국가의 의례적인 행사와 놀이로서 존재하였다. 보사는 군사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장소가 성균관이나 궁중에서 행해지면 유학자의 덕행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신식 군대가 도입된 이후 전쟁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서의 보사(步射)는 기능을 상실했어도,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당대의 엘리트 계층 지식인들에 의하여 그 명맥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영일(2019)은 고종 31년(1894) 5월 마지막 무과가 실시 이후로 조선의 활쏘기는 보이지 않지만, 스투어트 킬린(Stewart Culin, 1895)의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 of China and Japan*에 보이는 ‘편사대회’, 독립신문 1896년 5월 28일자에 보이는 경찰을 피해 활을 쏘았다는 기사, 황성신문 1900년 11월 3일자에 보이는 ‘아동편사’의 금지 기사 등을 이유로 500년간 실시되었던 활쏘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있어 활쏘기는 대한제국시기 결성되었던 각종 체육단체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관덕회(觀德會)와 사계(射契) 결성을 통해 조직화, 대중화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⁴⁸⁶⁾ 나영일(2019)은 이렇게 전통 활터 부

활의 계기를 1899년 6월에 방문한 프러시아의 하인리히 왕자의 방한 그리고 이때 영접했던 민영환과 이재순을 주축으로 황학정과 청룡정의 사계(射契)가 부활되고, 고종이 후원하면서 전통활터와 조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대회가 열렸고, 광복 이후에도 상류층의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사가 신식군대의 등장과 함께 자취를 감춘 반면, 보사는 그동안 이어진 유교적 자기 수양이라는 정신적 측면 그리고 행해진 기술 일부를 토대로 근대스포츠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활터 구성원 대부분이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사대부들이었기에 활터의 규범, 규칙과 같은 사풍은 다분히 유교 관습의 답습을 통해 형성되었다.

육예(六禮) 수양으로 보사의 특징은 무과의 규정과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무과의 과목으로서 보사는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유엽전(柳葉箭)에 능통해야 했지만, 안전한 유엽전을 중심으로 활쏘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에서 보사(步射)는 원후(遠侯) 240보, 중후(中侯) 180보, 근후(近侯) 80보로 다양했지만, 스포츠화된 궁도에서는 145m의 거리 하나로만 경기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 1939년 3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씨름 줄다리기 그네 널뛰기 활쏘기등 韓國 고유의 경기가 각급 학교에서 정규 체조과목으로 채택되어 간 것으로 보이며 『한민족독립운동사』 9권에는 1928년 열린 전조선궁술대회를 “내쇼날 스포츠로서의 활쏘기를 부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스포츠로서 보사를 부활시키려는 사회 분위기하에 조선의 유교적 이념을 담은 사정(射亭)은 계속 남을 수 있었다.

(3) 양궁의 도입과 궁도의 재해석 과정에 보이는 특징

근대 스포츠로서의 궁도는 활을 쏘는 장소인 활터인 사정(射亭)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현재에도 서울에는 황학정과 석호정과 같은 유서 깊은

486) 『매일신보』 1916년 7월 25일.

활터들이 남아있고, 전국에 100년 이상 된 활터들이 약 50곳이 존재한다.⁴⁸⁷⁾ 조선시대의 사정(射亭) 중 관설보다는 사실 사정이 전직 고관이나 토호들의 사조직으로서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최석규, 2009 : 54).⁴⁸⁸⁾ 특히 황학정은 고종이 세운 활터로 근대스포츠의 종목으로서 궁도가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2011)는 일제강점기 황학정(黃鶴亭) 궁도인들의 결실인 『조선의 궁술』 발간에 있다고 보았다.

대한궁도협회⁴⁸⁹⁾에 의하면 1928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의 황학정(黃鶴亭)에서 발기인 35인으로 당시 황학정(黃鶴亭) 사두(射頭)였던 성문영(成文永)의 주재 아래 대한궁도협회의 전신(前身)인 조선궁술연구회를 창립 이후 광복과 함께 1946년 2월 10일 부활한 조선궁도회는 전국궁술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쏘기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⁴⁹⁰⁾ 이 조선궁도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대한궁도협회로 개명⁴⁹¹⁾ 후 1954년 3월 16일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면서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정식스포츠단체가 되었다(韓國洋弓三十年史, 1992: 153).

주목해야 할 점은 양궁의 도입과정에 보이는 궁도와 밀접한 관계이다. 1959년 서울 석호정의 사원이자 수도여자중학교 체육교사인 석봉근은 양궁을 지도하기 시작했고(나영일, 2012 : 155). 이에 대한궁도협회가 석봉근의 양궁 보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63년 국제궁도연맹 가입과 1983년 대한양궁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대한궁도협회는 20년간 전국 16

48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국궁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서울시 체육정책과, p.386

488) 李重華(1929 : 53-54)에 의하면 고종 광무 3년(1899)에 가면, 풍소정을 계승해 황학정(黃鶴亭)이 설립되었고, 청룡정이 동문 밖에 설립되어서 각 활터의 부흥을 보여주었다. 또 이후에 남촌에 석호정, 한강에 남덕정, 서문 밖에 서호정, 북촌에 일가정, 마포에 화수정, 광희문 밖에 무학정이 차례로 다시 설치되었다. 지방은 고양에 숭무정(崇武亭)이 설립되었고 개성에는 관덕정(觀德亭)·군자정(君子亭)·호정(虎亭)·명월정(明月亭)·반구정(反求亭)·보선정(步仙亭)·채빈정(採蘋亭)·구군정(九君亭) 등이 있었는데, 1899년에는 관덕정과 호정 그리고 반구정만 존재하였다고 한다.

489) <http://kungdo.or.kr/?mcd=2020>(2023년 1월 31일 검색)

490) 『동아일보』 1947년 5월 29일

491) 『동아일보』 1948년 10월 12일

개 시도지부 산하 각 사정을 통해 한국양궁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오도광, 2000 : 134).

양궁을 접하며 한국의 궁도계는 스스로를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양궁(洋弓)이란 용어도 대한궁도협회에 양궁 분과가 신설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며, 양궁의 상대적 개념인 국궁(國弓)이란 용어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국궁은 1963년 대한궁도협회가 국제궁도연맹(FITA)에 가입한 이후 도입한 ‘국제경기용 활’에 대해 ‘양궁’이라 칭하게 되면서 생겨난 용어(Seokgyu Choi & Gwang Ok, 2016)로 보인다.

각궁과 죽시의 불편함을 개선한 카본 소재의 개량궁을 사용한 시점 역시 양궁에 쓰이는 활을 도입한 이후이다. 대한궁도협회의 경기용품 공인 규정의 제11조(공인대상 및 기준과 규격)에는 각궁, 죽시와 함께 카본궁, 카본 화살을 공인하고 있다. 현대에 쓰이는 카본궁(개량궁)과 카본 화살(개량시)는 카본궁은 FRP나 카본 등 합성섬유로 만들어, 각궁의 단점을 개량하였기에 전통문화를 고수하였다기보다는 양궁이라는 근대스포츠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 나온 개량궁은 양궁에 쓰이는 활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며 점점 모양새도 나아져 얼핏 보기엔 각궁과 크게 차이가 없는 외형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재료 선택의 제한이 없는 덕에 독특한 디자인의 화피를 채용하거나 속에 천연 재료를 섞기도 하는 등의 개량을 꾀하는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무과시취의 과목이었던 보사(步射)는 현대의 한국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아 ‘활쏘기’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대의 스포츠로서 궁도가 경기화 되고 양궁이라는 유럽의 근대스포츠와 만나며 스스로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현대 스포츠 궁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궁과 죽시와 같은 전통방식과 카본소재의 활과 화살의 공존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종목으로서 궁도의 경기화 과정과 근대스포츠인 양궁과의 만남 그리고 진행된 재해석 과정은 전통무예의 스포츠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기사는 보사와 더불어 중요한 한국의 문화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사를 재해석 하여 경기화 할 수 있는 계기 혹은 참고할 수 있는 인접한 근대스포츠 종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기사에 필요한 말, 활, 화살, 경기장 등과 같은 장비들 그리고 조직체 등 근대스포츠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근대 유럽승마의 도입으로 본 기사의 잠재성 탐색

(1) 일제강점기 마종의 개량과정에 보이는 특징

궁도는 스포츠의 개별 종목으로서 유럽식 양궁과 상호 작용하며, 근대 스포츠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례를 본보기 삼아 기사의 종목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사와 기사는 조선시대까지 무과와 군사훈련의 두 축이었다. 그러나 무과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보사는 근대스포츠로서 재탄생했지만, 기사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보사는 유럽식 양궁과 만나며 한국의 활쏘기 국궁이라는 정체성 역시 획득하였다. .

본 연구자는 기사의 스포츠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근대스포츠인 양궁의 도입과 비슷한 사례로서 유럽식 승마의 도입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가 말을 타는 신체활동과 활을 쏘는 신체활동의 결합이기에 유럽식 승마의 도입 역시 기사를 개별 종목으로서 다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경마의 역사를 검토한 결과 기사가 스포츠로서 재해석될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궁도 종목에서 카본 소재의 활과 화살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변화는 마종(馬種)의 개량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서양의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외국의 말들을 본 조선인들은 제주마의 개량이나 서양의 좋은 품종의 말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1883년 9월에 최초의 건미사절단(遣美使節團)인 보빙사(報聘使)가 미국

의 워싱턴에 가게 된다. 이들 중 무관인 최경석에 의하여 미국의 숫말 1두와 암말 2두 그리고 황태자의 승마용으로 사용하고자 포니 3두를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마사동우회, 2010 : 20~21).

고종은 조선시대에도 주로 기병들을 훈련했던 지역으로 보이는 망우리 동쪽의 넓은 땅을 최경석에게 하사하여 농축목시험장이라는 이름으로 최경석을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나 이후로 마종의 개량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마사동우회, 2010 : 22). 각궁과 죽시가 양궁의 도입 이후 카본 소재의 활과 화살과 공존하게 되었다면 기사에 있어서도 근대화를 거치며 새로운 마종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순간으로 보인다.

마종의 개량은 주로 일제강점기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일제는 전쟁에 사용할 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에 종마목장을 설치하였으며, 수원이나 성환에 목장 설치를 추진하였다(마사동우회, 2010 : 23). 1915년에는 수원에 이왕실(李王室) 목장을 개설하여 일본으로부터 서양종 하크니를 도입하여 종마로 사용하여 왕실에 필요한 마차용 말의 생산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민간인들도 일본의 마정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일본산 서양종 기드란과 앙그로노르만 2두의 종마를 최초로 도입하여 몽골로부터 수입한 56두의 암말들과 교배를 통해 한반도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말 생산을 시도하였다(마사동우회, 2010 : 25~32).

1918년에 세계적으로 널리 경마 품종인 ‘Thoroughbred’ 종마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일본은 당초 군용마의 생산 방침을 변경하여 조선에서도 승용마와 경마용 말의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1922년에는 함경북도 웅기에 군마 보충부를 설치하고 경원 경흥 등지의 광활한 지역에 말 생산을 위한 목장을 설치하여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군마의 생산과 아울러 일부는 승용마와 경마용으로 전용되었다(마사동우회, 2010 : 24).

이렇게 한국의 근대승마의 도입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마필(馬匹) 개량의 시도가 있었다. 이들이 시작한 경마의 경우에는 대중성과 오락성을 이용한 대중적 근대스포츠의 기능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중요한 세수(稅收) 확보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이경돈 외

6인, 2018 : 32).

(2) 경마와 승마대회 개최에 보이는 특징

궁도가 스포츠화되는데 사정(射亭)이 주축이 되었듯 유럽식 승마와 경마 경기는 전통적으로 기사를 연습하던 장소인 훈련원에서 시작되었다. 한국마사회(1984)는 경마의 시작을 1898년 5월 28일 훈련원에서 열린 관립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에서 선보인 나귀경주, 1907년과 1909년 한강백사장과 훈련원에서 실시된 기병경주(騎兵競走)를 국내에서 행해진 최초의 서양식 경마대회로 보고 있다.

대한체육회(2010 : 29)는 한국에서 승마의 도입을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스포츠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도 승마, 검도, 사격 등 군인들에게 필요한 종목들의 도입에 앞장서 1896년 6월 10일 왕명으로 친위기병대가 창설됐고 1901년 4월 23일에는 무관학교에서 기병대의 훈련을 시작했으며, 1909년 6월 13일 근위기병대가 훈련원에서 기병 경마대회를 열어 헌병대의 이영철 참위(소위)가 우승한 것을 근대승마의 시작으로 보았다.

근대스포츠로서 말과 관련된 신체문화는 경마와 승마라는 복합성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다.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아도 경마와 승마는 말과 관련된 대회에 혼용되어 사용되어 정확한 도입의 정황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로 일본 군인들의 주도로 도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기병들은 한국에서 종교적 성격을 가진 ‘제전경마(祭典競馬)’의 형식으로 승마를 도입하기 시작했다(한국마사회, 1984 : 42).

일제강점기 경마는 용산의 구 일본군 연병장에 임시 경마시설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제1회 경마대회는 경성경마구락부(京城競馬俱樂部)에 의해 용산의 신 일본군 연병장(서빙고)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제2회 경마대회부터는 1921년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가 여의도와 이촌동 한강 변 등지에 임시경마시설을 마련하여 경마대회가 열렸다(손환, 최지만, 2009). 여의도 경마장에서의 경마는 총독부가 나서서 각종 임시부대설비를 마련하는 파격을 단행하는 등 수많은

사람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⁴⁹²⁾

일제에 의해 시작된 마필 개량과 각종 경마시설의 토대 위에 점차 근대승마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2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도시경영회사로부터 승인면 신설리의 토지 6만 평을 10년간 대부받아 경성경마장이 지어졌고,⁴⁹³⁾ 해방 후 6.25 전쟁 이후 뚝섬으로 옮겨졌다.⁴⁹⁴⁾(김동민, 2019 : 42). 이 뚝섬은 조선 초부터 국마(國馬)를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사복시(司僕寺) 소속의 국영목장이 운영된 곳이었다. 도성과 가까우면서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세종대부터 열무(閱武)와 같은 대규모 군사 활동이 이루어졌고(백기인, 2006) 한강 변과 너른 평야가 갖는 풍광은 왕족이나 양반들의 연회, 매사냥의 공간이었다.

(3) 승마의 도입과정으로 본 기사의 잠재성

근대스포츠로서 승마의 도입은 양궁의 도입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양궁이 순수한 스포츠로서 명확한 유입이 이루어졌지만, 승마의 도입은 군사적 목적을 배경으로 조선의 신식 군대, 일본의 군대, 민간 일본인 등에 의해 산발적인 형태로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이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승마라는 말을 타는 행위와 그리고 이를 겨루는 경기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행위에 베틀이 가능한 경마(競馬)라는 도박의 성격을 내포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김정(1999 : 13~23)은 일제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군사력 확보의 목적인 군마(軍馬) 생산을 경마의 활성화에서 찾았고, 이를 통한 세금 수입으로 재정을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이렇게 승마의 도입과정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마사회(1984 : 44)에 의하면 1910년대부터 승마대회는 일본인 회원이 주축인 ‘경성승마구락부’에 의하여 용산의 연병장(舊練兵場, 현 남영동, 구 미군기지 일대)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1931년 6월에 와서

492) 『동아일보』 1921년 4월 2일, 『동아일보』 1921년 9월 18일

493) 『동아일보』 1932년 1월 19일

494) 『매일신보』 1921년 5월 7일

야 용산의 연병장에서 열린 조선승마대회에서 종합마술, 구보권승, 장애 물비월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었고 올림픽 마술(馬術) 선수의 시범도 있었다(한국마사회, 1984 : 89) 근대스포츠로서 승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1934년에는 서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뒤에 현대시설을 갖춘 서울 승마구락부가 설립되어 동호인들의 연습에 제공되었다. 1934년 제3회 전조선승마대회의 장애물 뛰어넘기에서 민병선, 권대갑이 일본인 선수보다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였다. 광복 후 마침내 1946년⁴⁹⁵⁾ 6월 대한승마협회가 창립되었고 7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제1회 한국마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광복 이후 독자적으로 이바지해온 단체로는 한국마사회와 대한학생마술연맹이 있다. 1952년 7월 대한승마협회가 국제마술연맹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에 최초로 참가하였다(정찬모, 1999).⁴⁹⁶⁾

궁도가 조선시대 보사가 행하진 활터인 사정(射亭)을 중심으로 재탄생하였다면, 승마의 도입은 무과에서 기사, 기창, 편곤 등을 시험하던 장소와 기사사냥이 이루어지던 사냥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석원, 안진규, 조문기(2014)가 분석한 근대부터 현대까지 설립된 경마장은 현 서울 중구 훈련원 터, 용산 남영동,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촌동 한강인도교, 舊동대문 등기소인근, 서울숲 공원, 과천시 주암동 등이다. 현 훈련원터와 남영동은 물론이거니와 뚝섬과 과천 등은 모두 전통적으로 기사를 연습하던 장소이거나 사냥터였다.

위에서 승마라는 근대스포츠는 양궁과 달리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를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군사적 목적인 마필의 생산 그리고 경마라는 세수확보의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다. 구한말의 친위기병대에서 승마의

495) http://kef.sports.or.kr/servlets/org/front/intro/action/intro?command=intro_03(대한승마협회 2022년 12월 11일 검색) 대한승마협회에 의하면 1942년 일제 강점기 성의경, 이재간의 노력으로 경성기도회가 창설되어 현 대한승마협회의 모체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49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180>(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년 12월 11일 검색)

모습을 찾을 수 있지만 일제에 의해 도입된 마종과 경마의 영향은 한국에서 승마문화의 형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궁도가 전통의 장소와 장비의 개량 조직화를 통하여 스포츠화를 이루었듯이 기사 역시 조선시대 기병의 훈련 장소나 사냥터, 마종의 개량, 대한승마협회의 탄생 등 충분히 기사를 스포츠로서 재해석 할 수 있었던 순간들은 잠재하고 있었다. 기사의 역사에 보이는 마종의 개량은 근현대를 거치며 이루어져 천연기념물 347호로 보호 받는 제주마와 영국 원산의 경주마 더러브렛과의 개량종으로서 한라마가 탄생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기사의 장소였던 뚝섬과 동대문 근처에서 말 사육과 각종 경마 대회가 진행되어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궁도와 양궁의 관계처럼 충분히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정립될 수 있었던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승마의 도입은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군사적 기능이 강했던 기사는 이와 상충 될 수밖에 없었고, 경마와는 연계할 수 있었던 지점을 찾지 못하여, 근대의 스포츠로서 승마와 접점을 모두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편등산마’에서부터 ‘한라마’ 까지 한반도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그리고 품종의 특성 면에서 끊이지 않는 맥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와 개량종인 한라마의 공존은 한국의 말 문화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양궁과 궁도의 만남과 같이 제주마와 한라마의 활용에 대한 방안은 기사의 종목화 또는 경기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3) 전통무예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에 보이는 기사

(1)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대상으로서의 기사

기사가 근대스포츠로서 재탄생 할 수 있었던 여러 잠재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 스포츠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현대에 기사는 주로 전통무예의 한 종목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발간한

임동권, 정형호(1997)의 『韓國의 馬上武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말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마상무예의 한 종목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기사는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기병의 6가지 무예⁴⁹⁷)와 함께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조선의 무과시취와 전시의에 보이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구성에 있어 시연단체로서 참가한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의 무예 실기 재현에 대한 해석 비중이 크다.

이후 문화재청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격구⁴⁹⁸)가 개별 종목으로 예비조사 목록에 있고, 그 후의 연구조사자료를 보면 격구와 마상무예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사를 따로 분류하여 무형문화재로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 115)에 의해 수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분류체계 및 명칭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을 보면 문화재청은 ‘기사’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련 제437호)에 의거 관계전문가 조사를 시행하였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2018.2.23.)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판단을 보류하였다고 하여 기사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기사가 한국의 근대역사에서는 스포츠화되지는 못하였지만 1990년대부터는 한국 전통 마문화로서 한국의 전통무예로서 재해석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한국 전통의 마상무예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는 문화재청의 조사대상의 한 개별 종목으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7) 기창(騎槍), 마상월도(馬上月刀), 마상쌍검(馬上雙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毬), 마상재(馬上材)

498) 사)한국민속학회(2009).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 문화재청. p.47.

사)국제온돌학회(2014). 「온돌기술 문화유산 등록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p130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분류체계 및 명칭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문화재청. p.115.

(2)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와 기사의 관계성

‘활쏘기’는 2020년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활쏘기’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로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⁴⁹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서 활쏘기를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이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는 활쏘기가 한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한국의 ‘활쏘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민족의 문화적 자산이라고 명시하였다.

그 사례들로서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1928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뽕나무·뽕·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과 유엽전(柳葉箭)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활쏘기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2, 3, 4장에서 살펴본 기사의 역사성은 충분하고 본다. 군제사,

499) 문화재청 고시문 2000-08호

무예사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보사와 기사는 한국의 역사에서 두 축이었기에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역사학 분야에서는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인접국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연구가 가능하며, 체육학 분야에서는 경기화 방안, 종목개발, 수련 효과 등의 학술적 가치가 크고, 궁도나 양궁 승마와 같은 이미 경기화 된 인접 스포츠가 많기에 장비 개발, 기술개발과 같은 실기 차원에서의 연구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3) 서울시문화재 전통군영무예와 기사의 관계성

2019년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51호⁵⁰⁰)로서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군영무예’라는 종목이 지정되었다. 서울시가 정의하는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서, 정조대에 체계화된 「무예도보통지(1790)」에 의해 정비된 무예이며, 오늘날 서울의 무예를 대표하는 무예이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재 지정의 사유를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이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현 무예의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서울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을 밝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 밝힌 현재의 한계는 무예 재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실기 수준은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현재로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4장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기사에 대해서 논하였듯이 조선시대의 기사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간직함과 동시에 병법과의 융합 그리고

500) 무형문화재위원회 2018년 제1차 합동회의자료 p.110, 고시문(전통군영무예)

화포와의 복합으로 조선 후기로 이어져 왔다.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고 장용영의 기병훈련에 적용되는 시점에도 주요한 무예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또한 무예도보통지에는 모구라는 기사할 때 쓰이는 이동식 표적과 기창, 편곤의 장면에 한국 전통의 무예로서 복식과 활과 화살, 통아 등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조선 후기에도 보편적인 기병의 무예였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와 같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된 상태이지만 활쏘기가 궁도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군영무예를 실제 이어가고 있는 인구는 소수로 보인다. ‘전통 군영무예’를 근거로 상설 공연과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십팔기보존회,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사)24반 무예경당협회, 수원시립예술단의 무예 24기 등은 여러 가지 무예를 재현하고 있다.

특히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와 ‘세계기사연맹’은 임동권, 정형호(1997 : 381)는 본 협회를 구한말에 전승이 끊긴 이후 마상무예를 실현하는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2003)이 시행한 ‘전통무예 기록영화 및 해제집 제작’ 결과물인 『한국의 무예 마상무예』에도 본 협회를 1994년에 마상 6기, 1997년에 고려 경기격구, 1998년 조선무과시험 재연(조선무과 격구 포함), 1999년 지상 격구, 그리고 2002년 마상재 등 마상무예의 모습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위 단체들에 대하여 서울시 측에서 현재의 실기 수준은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현재로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다양한 기마술과 활쏘기 방식 등 고난도의 기사에 대한 고증과 기술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통군영무예에 대하여 비록 단절이 있었으나 복원 혹은 재현의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서울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전

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을 밝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기사가 조선시대에 국기로서 대표적인 군사전술이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전통군영무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근대스포츠와 구분되는 기사의 문화적 특성

2장에서 논의한 기사가 가진 경기스포츠로서의 요소들, 3장에서 논의한 참여 형태들, 4장에서 밝힌 여러 규칙과 시행방법 등은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사의 경기화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 역사학의 방법을 통해 논의한 기사 문화를 현대에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사가 행해진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다시 정리해보고, 한국인의 인식을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근대스포츠와 다른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1) 지리 환경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1) 한국 기사의 공간적 범위로 본 특징

앞선 2장에서 4장까지 꾸준히 논의되었듯이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가 행해진 지역적 범위는 한반도의 북부와 한반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역사적 범위는 현재의 중국에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을 넘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흔히 동북 3성으로 불리우며, 가장 큰 특징은 약 81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린성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과 러시아의 교차지점에 존재한다.

우선 한국 역사에서 호, 맥,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이 활동한 지역으

로는 현 중국의 동베이 평원을 주 무대로 볼 수 있다. 만리장성의 북동쪽에 위치한 동베이 평원의 동쪽과 동남쪽은 백두산을 경계로 한반도와 구분된다. 북쪽에서는 소싱안령(小興安嶺), 서쪽으로는 대싱안령(大興安嶺) 산맥을 경계로 몽골 고원과 구분된다. 평원의 서남쪽은 치라오투(七老圖) 산맥, 누루얼후 산맥 등에 의해 네이멍구 자치구와 황허 평원으로부터 구분되는데(N. Di Cosmo, 2005 : 30) 본 연구에서 논의한 기사의 공간적 범위와 일치한다.

넓은 평원과 산림지대가 공존하는 동베이 평원의 자연환경의 특징의 산물로서 말을 사육하기 유리했고, 야금술이 발달한 곳으로 평양문화, 샤자덴 문화 등 기원전 8세기 이전의 것들로 추정되는 마차, 기마와 관련된 유물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와서도 한반도의 북부 지역과 그 이남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사하는 인물들이 서로 반목, 회유, 연합하던 곳이었다.

특히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에게 한반도 북부지역은 굉장히 중요했다. 몽골에서 명의로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의 교체가 서로 복잡하게 연동되면서, 1356년 이후로 조선 건국 이후까지, 이성계의 지역적, 군사적, 경제적 기반은 모두 고려의 동북면과 서북면, 여진족 사회의 남동쪽과 중첩되는 지역들이었다. 이러한 한반도 북부지역의 풍습은 조선 전기 세종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新增東國輿地勝覽』와 조선 후기 유형원의 『東國輿地誌』에 나타나 있다.

평안도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권53 평안도(平安道) 의주목(義州牧) 지역의 풍속에 대해서 풍기(風氣)가 굳세고(強勁) 기사(射御)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⁵⁰¹고 기록되어 있고, 귀성도호부(龜城都護府)에 대해서는 기사를 힘쓴다(務射御), 간소하고 질박(質朴)한 것을 숭상한다⁵⁰²고 기록되어 있어 이 지역의 역사성과 동시에 풍속을 알 수 있다.

함경도는 중국의 사서에는 숙신국(肅愼國)의 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東國輿地誌』 8권에는 함경도(咸鏡道)의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의

501) 風氣強勁, 善射御, 好畋獵. 『東國輿地誌』 권9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502) 務射御, 尚簡質. 『東國輿地誌』 권9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풍속에 대해서는 모진 추위(風氣苦寒)가 있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尙儉素), 강용(強勇) 하다고 하며, 기사에 뛰어나고(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고 기록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6진의 민속(六鎭民俗)이 모두 말을 달리는 것을 즐기고(喜騎馬) 가장 앞서 빨리 돌격하고(馳上突), 기사에 뛰어나며(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 사람들은 모두 용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⁰³⁾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에 대해서는 풍기가 강력하고(風氣強勁), 기사에 뛰어나며(善射御), 사냥을 좋아한다(好畋獵)⁵⁰⁴⁾고 기록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함경도와 평안도는 모두 한반도의 북쪽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땅으로 고려와 조선전기 까지도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거란과 여진같은 북방민족들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어 사냥과 목축 그리고 농사까지 겸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북방민족들과 수, 당, 명과 같은 중화의 국가가 한반도를 침입할 때 1차 방어선이 되는 주요 거점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수도가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겨지면서 기사는 한반도 지역에서 강무와 무과시험으로서 제도화 되었다. 강무를 하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훈련원, 모화관과 같은 기사를 수련하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또한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기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한국 역사전개의 흐름상 기사의 역사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지리적 범위는 현 중국의 동북삼성지역, 북한, 대한민국이며, 이 곳 자연환경은 산림지역으로 초원의 유목민과 달리 기사는 산과 평야 모두에서 이루어졌다는 전통적 특성이 있다. 결정적으로 사실상 한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신체활동으로 초원과 중국과 같이 넓은 평야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종목화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현대의 궁도와 승마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용객 대비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해

503) 風氣苦寒。尙儉素、強勇。并地志。行者不齋糧。府籍。善射御，好畋獵。六鎭民俗，皆喜騎馬馳上突，善射御，好畋獵。人多勇力。

504) 風氣強勁，善射御，好畋獵。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자연환경과 말(馬)의 관계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말의 가축화와 기마술의 발전은 대초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료상 나타나는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늦지만,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가축을 잘 다루는 집단 용맹한 기병이 있는 집단이 존재한 것은 확실하다. 『戰國策』 「晉策」에서 소진이 진 혜왕에게 대왕의 국가는 서쪽으로 파, 촉, 한중 등의 이익이 있고 북쪽으로는 호, 맥, 대 등에서 나는 말을 이용할 수 있다⁵⁰⁵⁾하여 유목민족인 호와 같이 말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⁵⁰⁶⁾에 보이는 고조선의 말 5천 필로 보아 고조선에서 말 생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한나라 후기부터 요동지역에서 나는 말에 대한 기록으로는 진수의 『三國志』에는 부여의 ‘명마(名馬)’가 생산되고 있었다.⁵⁰⁷⁾ 읍루, 물길, 말갈⁵⁰⁸⁾ 등은 『三國志』와 『魏書』에서 공통적으로 말의 생산지로 기록되어 있고, 수서와 구당서에는 말갈 기병⁵⁰⁹⁾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三國志』의 고구려에 대한 기록부터는 고구려의 말이 모두 체구가 작아서 산에 오르기에 편리하⁵¹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三國志』와 『後漢書』에서는 예(濊)에서 과하마⁵¹¹⁾의 생산지임을 명시하였다. 이 과하마는 『舊唐書』의 「百濟專」의 기록을 보아 백제에서도 생산된 것으로 보이며,⁵¹²⁾ 『北史』 「高句麗專」에는 이 과하마를 주몽이 탔던

505) 『戰國策』 「秦策」 蘇秦始將連橫說秦惠王曰 大王之國 西有巴蜀漢中之利 北有胡貉代馬之用 南有巫山黔中之限 東有肴函之固 田肥美 民殷富 戰車萬乘 奮擊百萬

506) 天子爲兩將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 頓首謝: 「願降, 恐兩將[주]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주]軍糧.

507)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狝·美珠

508) 有五穀·牛·馬·麻布

509) 元率靺鞨之衆萬餘騎寇遼西

510) 其馬皆小, 便登山

511) 其海出斑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512) 武德四年, 其王扶餘璋遣使來獻果下馬

말로서 기록되어 있다.⁵¹³⁾

그리고 이러한 요동지역에서 생산된 말이 그대로 전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호, 맥, 대의 전투용 말 외에도 『宋書』의 고구려전에는 원가 16년(439) 송태조가 북방을 토벌하고자, 고련(장수왕 長壽王)에게 조서를 내려 말을 보내도록 하여, 이에 고련이 말 800필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⁴⁾ 고구려의 편등산마 인지 과하마 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세력 범위에 있었던 말이 북방을 토벌하는 데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중화의 역사가들은 맥, 조선, 고구려 등의 세력이 통치했던 요동지역에 대하여 춥고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이들은 농사 외에도 사냥해야 하는 반농반목의 경제활동을 했으며, 이들의 자연환경에서도 가축을 기르기 좋아 유목민인 호(胡), 흉노(匈奴), 오환(烏桓), 선비(鮮卑) 등과 같이 좋은 말의 생산지였다.

이러한 말 생산지에 대한 인식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여진, 거란의 말들과 같은 종의 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후기에는 몽골의 말들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방목되어 명마의 생산지로서 한반도는 조선 초까지 명나라와 말 교역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된다. 우왕 13년(1387)에는 명(明) 황제가 고려(高麗)는 예로부터 명마(名馬)가 산출되는 곳인데, 근래에 바친 말들이 품종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고려의 불손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3)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로 본 한국 기사 문화의 특징

한국의 문화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인 산림은 생필품 획득, 무예수련, 군사훈련, 외침에 대한 전쟁 그 자체의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산림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신체문화인 기사가 발달한 것이었고 한국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좋은 말이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

513) 出三尺馬，云本朱蒙所乘，馬種卽果下也

514) 十六年，太祖欲北討，詔璉送馬，璉獻馬八百匹

경과 더불어 사냥과 농경이라는 복합적인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기사가 발달하였다. 그렇기에 기사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절대적인 공존 관계에서 존재한 신체문화라고 볼 수 있다.

농경지가 많아 말이 자라기 힘든 중국에서는 유목민족들로부터 국가를 존속하기 위하여 기병을 양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서역으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큰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기병보다는 보병 위주의 전략 전술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이들은 자신들의 북쪽과 동쪽 사람들은 기사를 잘한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동쪽의 사람들은 초원의 유목민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사에 뛰어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이 역시 중화의 자연환경, 초원의 자연환경과 구분되는 산림지역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에 기인한다. 초원과 달리 산림지역은 산에서의 이루어지는 사냥에 필요한 기마술이 요구되었고, 적을 방어할 때도 산성에 의지하기에 이에 필요한 기마술이 요구되었다. 고려시대를 기점으로 드러나는 기사사냥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은 생활의 터전이자 군사 훈련장이었고, 그곳이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 평소 사냥으로 훈련된 기마술과 정교한 활쏘기 능력은 지형지물에 따라 중흥으로 말을 달리며 이를 피해 좌우로 기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지리적 관계와 동시에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기사는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었다. 고려시대의 후반기부터 사냥이 금지되고, 농경이 장려되자 야생동물의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에서의 사냥이 증가하자 호랑이가 한반도로 남하하여 호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농경 위주의 경제활동 증가로 농지가 점차 넓어지자 야생동물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4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조선시대에 기사사냥은 유교 의례와 결합하여 기사사냥을 통해 야생동물들의 개체수를 통제하기도 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사냥을 경계하는 윤리적인 규범 역시 생겨났다. 물론 외침에 의해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은 파괴되었겠지만, 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산림이라는 자연환경을 무대로 한 신체활동

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등산, 산악, 클라이밍, 골프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대규모의 공사를 통해 스포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⁵¹⁵⁾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2) 역사적 경험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1)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성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선기사(善騎射)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부터 조선의 국기(國技)라 할 수 있는 조선의 장기(長技)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기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현대에도 이어져 기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올림픽 경기의 양궁이라는 종목에 더욱 많은 몰입을 하게 된다고 본다. 이는 양궁 경기마다 언급되는 동이(東夷) 관련 신문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양궁국가대표 선수들이 엑스 텐을 맞추는 장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사냥 장면과 그 이미지를 일치시킨다. 특히 이(夷)자를 파자하여 大 + 弓(활에 화살을 합쳐 형상화)로 보고 은나라 갑골문에 나오는 동이(東夷)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여길 정도로 유럽식의 활쏘기에 한국인 자신을 투영한다.

2장에서 논의하였지만 사실 동이(東夷) 중국인이 지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추상적으로 설정한 중화라는 자신들의 문명 밖의 민족들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전통적 인식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로서의 동이가 아닌 선기사나 아국장기로서의 기사와 연결 지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국기로서의 자부심은 조선 후기에 기병이 하는 무예에 대한 군사적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하나의 문화로서 조선인들의 인식에 자리잡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의 시인 「大駕至鍊戎臺閱武 觀馬上才有述」⁵¹⁶⁾

515) 송형석(1999)은 스포츠에 의해 자행되는 생태학적 위기를 스포츠가 환경을 위협하고 다시 환경이 스포츠를 위협한 것이라고 경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에는 척계광이 창출한 십팔기 무예 중에(戚家武藝十八技) 이 기예가 우리나라 들어왔다 말하는데(世稱此技輸我東) 기마전을 잘 하는 건 말 잘 물기에 있으니(騎戰之能在善馭) 하여 기마술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무예에 있어서 당대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부심과 동시에 기사의 문화를 잃는 것 역시 경계하였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동란섭필(銅蘭涉筆)에는 청(淸)의 태종(太宗)에 대한 박지원의 시각이 담겨있다. 박지원은 청태종이 조선인들이 다시 우리 풍속을 익혀 기사(騎射)를 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조선인들의 문약(文弱)함을 유지하기 바라는 계교라고 보며 한탄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애국계몽가들은 실업교육을 통한 국력의 배양에 못지 않게 독립전쟁에 대비한 상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최형욱, 2020). 박은식과 신채호 같은 애국계몽가들은 상무교육을 강조하였는데 당시 국권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文을 숭상하고 武를 천시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까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은식은 사대부의 유학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며,⁵¹⁷⁾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하찮게 보고, 기사를 천한 재주로 여기게 되어 국가가 위태로워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사의 역사에서 한국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면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기사의 뛰어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면, 점점 기사의 군사적 기능이 쇠퇴하였음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강인한 한국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남게 된 것이다.

(2) 무예(武藝)의 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2장에서 중국의 문헌을 통해 유목민들은 기사사냥과 군사훈련을 동일

516) 다산시문집 제1권 / 시(詩)

517)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西友』 제10호(1907.9.1), pp.1-6.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전략 視干城如土苴호고 把騎射爲賤技호니 綱繆之備와 揚號之戒는 全屬疎虞호야 후략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북부에서 행해진 기사(騎射)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춘추시대에 쓰여진 『管子』 권8 「小匡」에는 제 환공(齊桓公)이 호맥(胡貉)을 패배시켜 이로써 기병도적(騎寇)을 비로소 굴복시켰다(518)고 하여 중국인들이 호(胡)와 맥(貉)이 기병을 앞세워 도적질 하는 기구(騎寇)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기, 삼국지, 한서 등 한나라 시대의 중국 문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기병을 동원하여 중국의 변경을 침범하는 약탈자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고구려 기병의 모습은 고분벽화에 시각적으로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덕흥리 고분벽화에는 소규모의 포위기사사냥이 표현되어 있으며, 장천 1호분과 약수리 벽화에는 대규모 포위기사사냥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화가 두려워한 유목민족들의 사냥과 이들의 기병대로의 발전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고려시대의 기록상 기사사냥은 개인 무예 연습에 있어 최고의 방법이었다. 고려말과 조선초의 인물인 최윤덕(崔潤德)의 일화를 보면 기사사냥을 개인의 무예 연습과 동일시 하고 있다. 최윤덕이 서미성(徐彌性)에게 무예를 배울 때 최윤덕의 사냥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사냥을 한 최윤덕인 이미 좌우로 달리며 쏘아(左右馳射) 맞히지 못하는 것이 없을(發無不中)⁵¹⁹⁾ 정도로 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미성은 최윤덕이 사냥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후에 기사를 중심으로 무예를 가르쳐 최고의 명장으로 성장시킨다.

세종과 사간원 간의 무과시취에서 격구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⁵²⁰⁾에서도 기사가 중요한 무예를 연습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사들이 무과 급제 이후에 무예 연습을 게을리한다고 한탄하는 것에서도 기사가 개인의 무예 연습으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⁵²¹⁾ 이처럼 개인 무예의 연습에 있어서 기사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해 논의 된다.

518) 中救晉公，禽狄王，敗胡貉，破屠何，而騎寇始服，北伐山戎，制泠支，斬孤竹，而九夷始聽，海濱諸侯莫不來服

519) 『筆苑雜記』 卷1

520) 『世宗實錄』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521) 『世宗實錄』 45권, 세종 11년 7월 11일 을묘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만큼 일상생활에서 사냥을 통해 기사를 연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세종이 문체를 제기 한 바와 같이 무과에만 급제하면 더 이상 기사를 연습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이는 화포의 도입과 발달로 기병의 위상이 축소되자 조선 후기가 되면 청나라의 기병을 전혀 대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소규모로 몰이사냥하는 모습에서부터 대규모의 군사훈련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다. 특히 고려 전기에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항하여 훈련하는 모습은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도 우왕과 최영은 기사 사냥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여 요동 정벌을 꾀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고려말 조선초의 기록에 보이는 이성계의 휘하 무장들과 행한 기사 사냥 묘사와 실제 전투에서 보여주는 기병 전술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인식한 무예인 기사 그리고 사냥을 통한 연습은 그대로 군사훈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 전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인 강무로 제도화 되기에 이른다. 강무는 고려시대에 행해진 기사사냥을 기반으로 중국식 진법훈련이 더해진 것으로 왕을 중심으로 행하는 기사사냥의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정비과정을 거쳐 성종대에 군례로까지 제정된다. 이렇게 기사는 개인에서부터 단체로 협동하는 형태 모두 가능한 무예 수련에 있어 필수신체활동으로 인식되었다. 개인의 무예 수련 차원에서부터 여러 명이 같이 협동하여 사냥을 하는 모습은 현대의 단체 운동 종목들과 맥을 같이 한다.

(3) 국기(國技) 차원의 인식에 보이는 기사의 특징

개인 종목 시작하여 단체 종목으로서 무예 수련을 위하여 행해진 기사는 결국 조선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기(長技)로 인식된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문헌기록에서의 기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사냥의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훈련의 목적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삼국시대부터 보이는 선기사(善騎射)로 보이는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 전기에는 아국장기(我國長技)라고 인식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신체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는 마치 근현대의 태권도가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국기태권도(國技跆拳道)로서 자리 잡는 과정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와 근대 유럽의 스포츠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근대 스포츠가 한국에 도입되어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그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태권도는 민간차원에서 다시 말해 생활체육 단계에서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하여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 발전하게 되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사의 역사도 같은 방식으로 조선시대에 아국의 장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 시대부터 기사는 일상생활에서 사냥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다. 그리고 점차 이루어진 인재선발은 기사에 능한 사람들이 그 조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군사훈련을 통한 기병의 양성과정과 이의 군례화 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기사는 한국의 역사에서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한 신체활동이었다.

앞서 살폈듯이 역사를 초월하여 한반도의 북부와 한반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좋은 말이 생산되었고, 산림지역이라는 특성상 산을 잘 오르내릴 수 있는 말과 기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규칙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정확히 활을 쏠 수 있는 활쏘기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기마술과 활쏘기의 결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냥을 통해 연습이 이루어졌고, 사냥을 통해 길러진 탁월한 기사 능력은 뛰어난 군사전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현대의 한국스포츠와 비교를 시도해보자면 태권도가 생활체육에서 시작하여 전문체육으로 그리고 국기태권도로 성장하였듯이 기사 역시 생활체육의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신체활동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은 결국은 전문적인 군사전술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자는 개인의 차원에서의 선기사(善騎射) 문화를 바탕으로 무과와 강무에 제도화된 종목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국장기(我國長技)

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종목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3) 융복합적 관점으로 본 기사의 문화적 특성

(1) 한국 기사의 역사에 보이는 다문화적 특성

2장과 3장의 논의 중 특히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무대로 한 기사의 전개는 다인종(多人種), 다계층(多階層)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중원의 농경민과 초원의 유목민 그리고 동쪽의 반농반목민이 기사라는 신체문화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중립지역에서는 기사라는 신체문화를 공유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교류했고, 서로간 각축이 벌어져 때로는 교류하고 때로는 반목했다.

삼국시대에도 다양한 인종이 그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멸망 후에는 이들이 중국의 장수들로 활약한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의 건국과정에는 발해의 유민들은 물론 거란, 여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요와 금의 침공을 전면전을 펼쳐 막아내었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말선초에 이성계의 고향과 지지세력은 모두 북방민족들의 연합체에 가까웠다. 실제로 한반도의 북부에는 몽골, 여진, 거란의 사람들이 섞여 살며 기사라는 신체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세 문화권의 변경은 흉노, 돌궐, 몽골, 동호, 거란, 여진 등 기사를 잘 한다고 기록된 민족들이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친 기사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몽골, 거란, 여진 등 남자 뿐 아니라 여성들마저 기사를 잘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한계를 실감했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양마(養馬)를 잘 아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며, 기사사냥에 능했다는 기록들 역시 존재한다.

『高麗史』에는 몽골 사람으로 기사에 능했던 이의풍(李宜風)은 고려 충숙왕과 기사사냥을 하면서 총애받기 시작했고⁵²²⁾, 고려에 투항한 몽골인인 이오로테무르(李吾魯帖木兒)와 여진인인 투란테무르(豆蘭帖木兒)는

522) 『高麗史』 卷一百二十四, 列傳 卷第三十七, 嬖幸

후에 이성계가 기사 사냥하는 장면⁵²³⁾에 각각 고려식 이름인 이원경, 이두란(李豆蘭)으로 등장한다.⁵²³⁾ 또한 최윤덕은 어릴 적부터 양수척들과 기사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정도로 사냥에 있어서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⁵²⁴⁾

그리고 한국에서 기사는 신분을 막론하고 혹은 무반과 문반을 막론하고 익힌 보편적인 신체문화였다. 특히 인재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기사에 뛰어났다는 선기사(善騎射)는 필수적 수식어가 될 정도로 기사를 익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역시 기사를 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아주 흥미롭게도 기사를 잘한다고 평가된 사람들은 그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들은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보다는 어릴 때부터 사냥을 통해 기마술과 활쏘기를 스스로 익혔다. 어려서부터 익힌 기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무과시취나 시재 관련 기록을 보면 60세 노인이 되어도 기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노소가 모두 할 수 있는 신체문화라고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기사에 보이는 이러한 다문화적 혹은 다계층적 성격은 현대의 스포츠문화에 보이는 특징이자 한계점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 올림픽 종목의 예를 들면 평등을 추구하기는 하나 남녀의 성대결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게다가 노소의 대결도 마찬가지 이다. 기사에서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그다지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대등한 대결이 가능해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현재도 양궁⁵²⁵⁾ 종목에서는 남녀 기록의 큰 차이가 없으며, 승마⁵²⁶⁾는 올림픽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는 종목이다.

523) 『高麗史』 卷四十二, 世家 卷第四十二, 恭愍王 20年

524) 『筆苑雜記』 卷之一

525) 대한 양궁협회(<https://www.archery.or.kr/archer/team/athleteDetailAll.do>, 2020년 10월 11일 검색)

526) 국제승마연맹(<https://www.fei.org/>)올림픽 초창기에는 승마 종목에 남자, 그 중에서도 기병대 장교만 참가 가능했다. 그러나 1952년 헬싱키 올림픽부터 승마는 남녀 구분 없이 참가가 가능해졌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은 샬럿 듀잘딘(영국)으로, 여자 선수다. 듀잘딘

(2) 두 가지 신체 능력의 융복합으로 본 기사의 특징

2장에서 인류가 기사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폈듯이 기사라는 행위는 그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기원전 1500년쯤 어떠한 시점에서 기마술과 활쏘기라는 두 가지 신체활동이 결합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인류가 처음부터 혼자서 말을 달리며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빌려보면 마력의 활용은 바퀴의 발명과 마차, 혹은 전차의 발명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금술과 이를 제공하는 기술과 같이 금속을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며, 정교한 재갈과 각종 연결 끈을 위한 고리 등의 전문적인 마구가 발명되었다. 특히 야금술에 뛰어났으며, 말 위에서 생활해야 했던 유목민들은 말을 전차에서 분리하여 타는 기마술이라는 형태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들은 혼자 말을 타게 되며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여러 가지 복합소재로 구성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활과 화살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최고 과학기술과 두 가지 신체 기술의 융복합을 이루어 내며 당대의 최고의 전투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북부의 산림지형에서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기사능력이 필요했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며, 울창한 숲 사이로 활을 쏘아야 했기에 더욱 정교한 말과의 소통 방법 혹은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으며, 거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활과 더욱 정교하고 빠른 활쏘기 능력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사냥장면과 더불어 등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등자가 표현되지 않은 서쪽 초원이나 중국의 유물들을 보면 말 위에서 다리를 구부려 중심을 잡고 있는 반면, 한반도의 북부에서 발견되는 유물에는 등자에 의지하고 있는 형태의 기마술이 보인다.

은 리우 올림픽 그랑프리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93.857%의 스코어를 받으며 역대 올림픽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초원과 달리 산림이라는 협소하고 험한 지역에서의 사냥에서는 연속으로 빠르게 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고려사 조선의 사료들에서는 일관적으로 기사를 할 때 빠른 속도로 연속사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는 조선시대의 무과시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주통으로 말 달리는 시간을 재며, 5개의 과녁을 지그재그로 달려가며 연속으로 활을 쏘아야 했다.

직선으로 앞만 보며 달리는 기마술이 아닌 산림지형에서 말을 타듯이 지그재그로 말을 보내야 했고, 빠른 선회력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선회하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정확하게 활을 쏘아야 하는 고난이도의 신체기술이었다.

(3) 과학기술과 문화기술과의 융복합 측면으로 본 기사의 특징

한국 기사의 역사는 두 가지 신체기술의 융합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특히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여 가장 유연하게 변한 신체문화로 보았다. 이는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4장의 초반에 논의한 조선초 강무와 무과의 성립과정에 잘 나타나있다.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 양방향에서 침입해 오는 적들을 모두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군사 전술로서 기사는 주로 북방의 침입에 대적하여 사용되었다. 수, 당과 같은 중원에서 침입해 오는 적을 막았고, 거란과 여진과 같은 북방에서 침입해 오는 적들 역시 전면전을 펼쳐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배를 타고 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을 때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양쪽 방면을 모두 막기 위해 보병과 기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국식 병법이 도입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기사는 강무제라는 군례를 실현하는 신체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강무는 특히 전통적인 기사사냥이라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함과 동시에 이 사냥에서 획득한 동물로 종묘·사직과 지방사직에 제사하고 잔치를 베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고려시대 까지 이어온 기사와 조

선시대의 국가이념인 유교사상과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기부터는 화포(火砲)라는 최고의 과학기술의 결과인 화약무기와 기사가 전술로서 같이 활용되며, 화기를 중심으로 한 기사 전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가진 융복합적인 성격을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체활동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기사는 이미 현대에 역사와 관련되거나 이를 모티브로 한 각종 방송, 영화, 게임 등 문화예술 산업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융복합 기술의 예로 스크린골프를 비롯한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있듯이. 시설, 직간접 체험, 등에도 문화기술과의 융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국제경기대회로서 한국 기사의 잠재력 검토

이상의 기사를 종목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방출, 권순용(2007)에 의하면 민족주의 담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그에 대한 맥락적(contextual) 성찰 또한 동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경기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적 성찰을 위하여 일체강점기에 단절된 한국 기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역사성과 민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사가 어떻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1) 무예와 스포츠관련 정책으로 본 기사의 경기화 가능성 탐색

(1) 21세기 동시대 스포츠와 무예의 정책적 연관성

태권도 이외의 전통무예에 대한 노력은 한국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제화까지 도달했다. 충북 충주를 중심

으로 1997년 택견전수관 건립, 1998년 충주무술축제 창건, 2002년 세계무술연맹(WoMAU) 설립, 2003년 한국무예총연합회(KMAF) 설립, 2010년 세계무술공원 개원, 2011년 세계무술박물관 개관, 2013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유치가 이루어지는 등 국제무예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무예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문화재와 무형유산의 성격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상 ‘무예’ 분야로서는 최초였으며, 이후 씨름은 201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 이후 2018년에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택견과 씨름에 이어 2020년에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무형문화재로서 인류의 무형유산으로서 한국의 전통무예는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무예계를 끌어나가는 원동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에 전통무예진흥법이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립기관’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2019, 문화체육관광부)이 발표되었고, 2021년에는 국제무예센터가 완공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통무예진흥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 목적을 가지고 법률 제9006호로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 전통무예는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으며(김의환, 허건식, 2008), 무예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굴 혹은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당시 전통무예의 정책적 문제는 스포츠 종목의 중점 육성과 태권도에 전폭적인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전통’은 상업성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다수의 무예들이 ‘전통’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신흥무예단체들도 전통을 표방하여 단체들이 난립하기에 시작하고, 이에

전통무예를 수련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허건식, 2008).

전통무예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는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제5조),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렇기에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하여 기사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목화 역시 가능하다. 그 이후 지도자 교육과 양성 각종 대회 개최와 그에 대한 자원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명시하는 또한,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역시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 5조에 따라 전통무예단체 역시 체육단체로 볼 수 있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예와 스포츠관련 정책의 기초를 보았을 때 기사 역시 전통무예로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경기화 하면 대회 개최, 지도자 양성 그리고 단체 운영 등 잠재적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말산업 육성법」으로 본 기사의 경기화 가능성 탐색

기사의 스포츠화를 위해 무예와 스포츠관련 법과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말산업 육성법」이다. 그 이유는 말이라는 동물의 관리와 이에 동반되는 시설 등 체육시설관련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 산업으로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 승마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말산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말산업 특구지정”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등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다양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의 시행은 2012년에 수립한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서 비롯된다. 그동안의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됐지만, 시대의 흐름과 레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인해 승마장 개설조건이 완화되었다.

현재 관리 및 신규로 개발되고 있는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형 시설”과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시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체육형 시설”의 승마장의 등록요건은 실내·외 승마장 구별 없이 500(m²) 이상의 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실외 승마장의 경우 0.8m의 목책이나 펜스를 쳐야 하며, 그 외의 편의 시설과 함께 3두 이상의 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형승마장의 등록요건은 실내·외 승마장 구별 없이 500(m²) 이상의 운동장이나 동물운동장(초지)이 있어야 하고, 실외 운동장의 경우 0.8m의 목책이나 펜스를 쳐야 하며, 그 외의 편의 시설과 함

께 3두 이상의 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말 관련 자격제도는 말 관련 직군의 숙련된 기술 및 기능을 보유한 전문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성정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 승마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자격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 육성법」 제11조⁵²⁷⁾에 의해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향상 등 말조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말조련사”가 있고,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승마지도사”가 있으며,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제사”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전문스포츠지도사 승마 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 1급,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승마), 노인스포츠지도사(승마),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승마 1급, 2급이 있다.

이러한 「말산업육성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승마산업 발전이 핵심과제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국내산 한라마의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말산업 육성법을 검토하여 기사의 경기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농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유소년승마산업발전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2, 3, 4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듯이 기사를 잘하는 무사들은 어려서부터 기마술을 연습하였다. 말산업에 있어서도 유소년승마에 적합한 승용마 보급이 필수인 상황이며, 승용마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라마를 보급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말생산자 소득창출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

527)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현재 한국마사회는 제주마 보호육성을 위해 1990년 10월 28일 제주경마장에서 제주마경마를 시작한 적이 있으나 말 사육농가에서는 순수혈통 제주마의 경주능력 개량보다는 외국산 경주마인 더러브렛과의 교배를 통한 경주능력 향상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제주마의 교잡이 한라마의 출현 배경이 되었고 제주마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⁵²⁸⁾

이에 2011년 제주경마장 새해 첫 경마에서 제주경마본부가 제주산마경주를 한라마 경주로 공식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한라마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지난 2002년 1월 제주마 보호 및 확산을 위해 발표한 ‘등록 경주마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2003년부터 제주마 경주를 확대 시행하였고, 2023년에는 100% 혈통이 등록된 제주마로 경주를 시행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부터 승마시장 활성화에 따른 한국형 승용마로 육성하기 위한 한라마 규격화, 체계화, 균일화 작업에 돌입하였으나 아직 한라마 브랜드화를 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마사회, 2019 : 3) 본 연구자는 이렇게 한라마의 전통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유소년스포츠로서의 확대는 기사를 경기화 하여 기존 경마에서 탈피를 꾀함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말 문화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시도는 신규승마스포츠 개발의 일환으로서 삼성전자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수행된 「신규승마스포츠 개발의 타당성 검토」에는 농축산업의 발전, 관광산업의 발전, 용품산업의 발전, 스포츠마케팅 시장의 확대라는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기사를 삼성의 이미지와 연계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사업화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전략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어 스포츠 산업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52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한라마의 승용마 브랜드 정립 및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마사회.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본 기사의 국제경기화 가능성 탐색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는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25개의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전통무예 관련 대회들은 단체별로 국내·외의 대회를 개최 하고 있으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받은 경우는 없다. 기재부의 국제행사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2022.03.29.)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의 법규화 재검토의 차원에서 논의 된 바는 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제기구 유치 지원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wmc에서 개최 하는 관련 대회도 사업비에 대해서 국제체육행사로 인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현실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사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정식 종목이기에 이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과 함께 제정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은 전체 21조로 구성되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서울 하계 올림픽대회,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폐기하는 개별입법의 행정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와 관련한 대회 유치 승인, 대회 개최계획서 및 사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다. 대회 유치와 관련한 대회 유치 승인 취소 규정, 대회의 사전·사후 평가, 국제경

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가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및 국가 등 지원, 공무원 파견, 대회 관련 시설 등에 관한 계획 수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및 개보수비 일부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로 여겨지는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문화행사·국제관광행사·국제체육대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해 정부 승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앞서 살핀 국민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말산업 육성법, 국제경기대회 진흥법은 대회 개최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이 깊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은 기사의 종목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말산업 육성법은 지속가능한 산업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진흥법은 국제대회로서 발전할 경우 지속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실�크로드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1)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통한 국제협력의 가능성

한국의 기사가 종목화되고 경기화 되면 택견, 씨름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기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목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말문화, 활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소재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국제 무예센터’, ‘세계무술연맹’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경기스포츠화 된 무예 종목 중 택견, 씨름은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UNESCO)에 등재⁵²⁹⁾되었다. 유네스코는 기존 올림픽과

달리 각국의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없어질 위기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 중 산하 국제기구인 ‘Traditional Sports and Games (이하 TSG)’는 기존 스포츠의 세계화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전통 스포츠를 보호하고 문화 간 대화와 평화를 강화하고, 청소년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 윤리적인 스포츠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술연맹(World Martial Arts Union ; WoMAU)은 외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국제 민간기구로서, 유네스코의 공식 협력 NGO이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 NGO이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ICM)는 무예철학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신 수련의 기예가 포함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 리더십 향상 및 공동체 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한 실크로드⁵²⁹⁾의 국가 중 기사가 완전히 단절되어 소멸된 국가의 경우 이의 복원과 계승 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한국, 몽고, 일본을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국가들과 공동등재 등 인류무형 문화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평화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일본의 야부사메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기사(騎射)는 일본에서는 기사삼물(騎射三物)이라 하여 세종류의 기사 방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야 부사에⁵³¹⁾라는 방식이 무형문화

529) 한국은 현재(2021년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총 22개의 종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180개 협약 당사국 중 세 번째로 많은 종목이 등재되어(중국 34종목, 일본 22종목) ‘과등재국’으로 분류됨. 이에 2년에 한번, 매 짝수 년도에 1개 종목의 등재가 가능함(2018년 씨름 공동등재). 중국의 경우 42건 등재 중 대표목록 34, 긴급보호 유산 7, 모범보호사례 1개임.

530) 실크로드는 사실 중국 중심의 용어로 정확히는 Steppe 대초원을 따라 형성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다.

531) 일본의 역사에서 야부사메를 포함한 말타고 활쏘는 문화는 헤이안 시대부터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1096년의 기록인 주유기(中右記)에 정확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로서 신사(神社)의 의식⁵³²⁾에서 행하고 있다(中澤克昭, 1966 : 123; 福原敏男, 1995 : 379). 그리고 놀랍게도 사이타마현에 소재한 고마진자(高麗神社)에서는 세계기사연맹과 일본기사협회와 공동주최하여 고려군 건국 1300년 주년 행사로 2016년 까지 5회에 걸친 고구려 마사회(馬射戲) 재현 행사를 하였다.⁵³³⁾

야부사메(流滴馬)는 옛날 기마무사 복장을 하고 마를 타고 달리면서 화살로 표적을 맞히는 일본의 전통 마상무예이다(한국마사회 : 185). 말을 달리면서 화살로 표적을 맞히는 기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5세기 무렵으로 대륙에서 승마에 관한 기술과 도구가 전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세기 이후에는 궁중행사로써 천황 앞에서 기사 경연을 벌이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나라시대부터는 무사의 대두와 함께 신사, 불각에서 천하태평, 무운장구, 악마퇴치를 기원하는 행사로 정착하여 점차 의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早坂昇治, 1987 : 57~58).

야부사메는 전국 각지의 신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봄 혹은 가을에 야부사메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이지 신궁에서는 1921년 건립 기념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1945년부터 중단되었으나 1953년에 다시 부활하여 매년 11월 3일 건립 기념 행사의 일부가 되었다.⁵³⁴⁾

Wood, M. T.(2015)에 의하면 야부사메는 발명된 전통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야부사메는 일본문화에서 어떤 내적 본질, 변하지 않는 숨겨진 것의 세대에서 세대로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을 잘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이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신사의 의식은 오가사와라 유파의 계승 전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내용으로서는 가르치는 장소가 오가사와라 가문으로 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며, 오가사와라 가문의 존속은 겐페이 전쟁(1180-1185)과 가마쿠라 설립 이후 가문의 정치적, 사회적 명성이 현대에 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말타고 활을 쏘는 방식들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한 것인지 논란

532) 일본 116개 지역의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신사별 정확한 일정이 존재한다. https://www.bajikyo.or.jp/festival_12.html(2022년 12월 15일 검색)

533) <https://japanese.korea.net/Events/Overseas/view?articleId=2970>(2022년 12월 15일 검색)

534) 195 야부사메가 개최되는 지역은 일본마사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많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말 문화가 초원과 산림지역에서 만큼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없으며, 한국의 역사에서 보이는 것 만큼 치열한 기병전을 치른적도 없다. 그러나 현대에서 이를 재해석해보았을 경우에는 확실한 것은 조선통신사가 마상재와 기사 등 일본과 교류하며 선보인 기록들은 확실히 존재한다. 또한 현재의 사이타마현의 고마신사에서는 고구려 유민들의 행사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마사회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서 행사를 하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무형유산적인 측면에서 해석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기사는 서로간의 공유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3) 터키식의 콰바로 본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유목민족인 돌궐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터키의 전통 활 문화가 2019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⁵³⁵⁾ 터키의 전통 활을 만드는 궁장(弓匠), 보사(步射) 그리고 기사(騎射)는 콜럼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무형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정부간 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터키가 내세운 기사(騎射)의 한 종목인 ‘까박(Kabak)’은 장대에 원형의 과녁을 달아 맞추는 방식으로 2009년 세계기사연맹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0년부터 세계기사대회의 정식 종목⁵³⁶⁾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에 등재 목록을 보면 ‘전통적인 터키의 활쏘기(Traditional Turkish archery)’⁵³⁷⁾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알 수 있다. 터키의 활쏘기는 수백 년 동안 발전된 의식과 사회적 관습, 전통적 장비 공예, 활쏘기 훈련법 및 활쏘기 기술 등을 포괄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터키의 활쏘기’는 훈련 유형에 따라 기립 또는 기마 자세로 구분된다. 개인적으

535)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turkish-archery-01367/>(2019년 12월 20일 검색)

536) <https://mookas.com/news/9614/>(2020년 1월 14일 검색)

537)

<https://heritage.unesco.or.kr/%EC%A0%84%ED%86%B5%EC%A0%81%EC%9D%B8-%ED%84%B0%ED%82%A4%EC%9D%98-%ED%99%9C%EC%8F%98%EA%B8%B0/>

로 활쏘기 연습을 하거나 경연대회나 축제에 참여하는 등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활쏘기 기술을 연마한다.

‘전통적인 터키 활쏘기’는 터키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나 터키의 무형유산 국가목록(ICH National Inventory of Turkey)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산은 아다나(Adana), 아마시아(Amasya), 앙카라(Ankara), 발르케시르(Balıkesir), 부르사(Bursa), 차나칼레(Çanakkale), 이스탄불(İstanbul), 안탈리아(Antalya), 이즈미르(İzmir), 카라뵤크(Karabük), 코니아(Konya), 쿠타히아(Kütahya), 말라티아(Malatya), 오스마니예(Osmaniye), 시바스(Sivas), 토크트(Tokat) 등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은 독특한 기술, 장비, 사회적 관습을 갖춘 전통적 궁도가 많이 있다. 특히 중동부 유럽, 유라시아, 캅카스,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궁도를 찾을 수 있다. 그 중 일부 국가의 유산은 관습과 의식, 활쏘기 기술, 전통 공예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터키의 활쏘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전통적 활쏘기 장비 공예도 이 유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활쏘기 장비는 높은 고도의 특정한 기후 조건에서 성장하는 나무와 유기 접착제, 뿔, 힘줄, 비단, 가죽 등과 같은 원재료를 이용하여 만든다. 따라서 공예인들은 식물이나 동물, 기후 등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활쏘기 장비는 일반적으로 서예, 장식품 장식, 쪽매붙임 세공 등으로 꾸민다.

공예인들은 전통 활쏘기 장비의 장인정신에 관여하며, 명인이 견습생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공예인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익히는 방식으로 이 공예를 보호하고 기술을 전승한다. 최근 몇 년간, 터키의 여러 지역에서 활쏘기와 관련된 NGO 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궁수 또는 훈련생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보유자와 연행자들은 현대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적응함으로써 유산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장한다.

터키에서 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장한 활쏘기에는 보사와 기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역사에서 조선시대 까

지 이어진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에서는 세계기사연맹이 유네스코의 로고 후원을 받는 등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터키는 2014년부터 준비하여 이를 먼저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기사를 인류무형유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접근하여 국제경기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3) 매사냥으로 본 기사의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제도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단독 등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건수 역시 공동등재 건수 보다 단독등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사냥’의 공동등재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국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의 양상을 통해 기사가 국제경기대회로서 발전 하려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지금까지 18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공동 등재에 성공한 사례로써 유네스코로부터 국가간 협력과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여 공동등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보유한 대표목록 20개의 무형유산 중에서 처음으로 공동등재가 된 유산이 매사냥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써 의미가 있다.⁵³⁸⁾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단독등재 보다 공동등재 신청 건을 국가별 등재 신청 심사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한국은 ‘매사냥’과 ‘줄다리기’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이후, 아리랑의 공동등재를 추진하였으나 남북 모두 단독으로 등재하게 되었고, 올해 2018년 씨름이 최초로 남북 공동으로 등재되었다.

538) 현재까지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등재된 32개의 공유유산은 대개 2개국에서 5개국 참여하여 등재를 추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매사냥은 18개의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공동등재 참여국 수가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협약 이행지침에서는 등재유산에 대한 참가국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 약 60여 개국에서 매사냥이 전승되고 있음에 두고 볼 때 앞으로도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국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사냥의 공동등재 참가국 수의 기록은 사실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냥은 멧금류가 날짐승이나 길짐승을 사냥하는 습성에서 착안해 매를 훈련시켜 사냥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술 가운데 하나이다.⁵³⁹⁾ 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적 관계와 교역을 통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60개국 이상의 지역 공동체 내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매사냥하고 있다.

매사냥꾼들에게는 매의 양육과 훈련, 관리, 비행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매와 긴밀한 관계와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냥 자체뿐만 아니라 전통의상과 음식, 노래, 음악, 시, 춤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특 매사냥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윤리, 그리고 수렵 집단으로서의 협력방식을 주목할 만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아름쿠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릭’ 모임에서는 매사냥꾼간의 윤리와 동지애를 도모한다(황경순, 2018).

아름쿠와 모임에서 매사냥은 넓은 대지에서 매사냥꾼들 간의 동지애를 나누는 문화적 전통을 즐기는 수단인 것이다. 매사냥은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역할도 한다. 황경순(2018)에 의하면 매사냥꾼들이 경험하는 동지애는 “우리는 사냥감 자체가 아니라 사냥 중에 겪게 되는 다른 좋은 경험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체크 매사냥꾼들의 언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매사냥은 가족 내 학습과 공식적인 훈련, 매사냥꾼 공동체와 동호회에 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매사냥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비공식 교육의 주된 방법은 1:1 교육이다. 노련한 매사냥꾼들은 초보자들을 지도하고 기술을 선보인다. 비공식적인 지식의 전승은 종종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몽골과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는 일반적이다. 매사냥꾼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매를 다루는 법과 그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 하는 법을 훈련한다.

먹이주기, 주먹 위에 매 올리기, 미끼 던져매부르기 등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한 세대 단위로 마을에 정착하는 중동 국

53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unesco/unesco_korea/

가의 경우, 매사냥은 사막의 삶과 연결된 무형문화유산이다. 공식적인 매사냥 학습체계는 여러 매사냥 단체에 의해 개발되어왔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의 경우 합법적으로 매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매사냥 지식은 수 천 년 동안 문서로 기록 되어 왔다.⁵⁴⁰⁾

다 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공동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공동등재를 통해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활동('09~1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11) 등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⁵⁴¹⁾

UAE에서 협력 요청을 받은 당시 한국은 공동등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등재의 절차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 이후 공동등재가 단독등재와 별개로 카운팅되며, 매사냥의 가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국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전북과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 전북과 대전시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⁵⁴²⁾

매사냥 공동등재는 주도국이자 조정국인 UAE를 중심으로 참여국은 개별적으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공동등재 신청서를 작성했기에 공동등재 작업의 특성상 처음 발의한 국가인 UAE의 역할이 컸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공동등재 참여국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어 보였지만 18개 국가가 함께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다. 그만큼 한 가지의 문화가 보편적으로 여러국가에 존재할 경우 공감대를 이끌어

540) 13세기에 프리드리히 2세가 쓴 '새를 이용한 사냥의 기술(De Arte Venandi cum Avibus)'은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541) 2003년 10월 17일에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래로 한국은 2005년 2월 9일에 11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그동안 협약운영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협약 체재 하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의 경험은 협약국과 공유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증진과 노력으로 현재 20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 등재되었다. 이는 등재 건수로서 적지 않은 수이다.

542) <한국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국가간 공동등재 참여 협조요청>, 국제교류과-618(2009.7.31.) 문건.

내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본 연구에서는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매사냥 역시 기사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3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한반도 지역에서 사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매사냥을 주제로 연구되었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부터 고려시대 왕들의 사냥 그리고 조선시대에 까지 매사냥은 특정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고려의 매를 매번 요구하여 곤욕을 치렀던 만큼 사냥에서 기사와 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매사냥이 18개의 국가와 공동등재를 하였듯이 기사역시 산림지역에서 시작하여 대초원을 거쳐 유럽의 국가들까지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인류무형유산 등재 뿐 아니라 참여한 국가들을 주축으로 국제경기역시 개최가 가능하다고 본다. 김기환은 방신웅(2010)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에 있어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무조건적으로 개최도시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를 전략적으로 선택, 유치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친밀도가 낮은 도시에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안전성의 도시에 대한 신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친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를 통한도시에 대한 신념의 상승효과가 친밀도가 낮은 도시에 비해 약하므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도시에 대한 신념의 긍정적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사냥과 같은 여러 국가의 역사와 민족들에게서 행해진 보편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종목화 하고 이를 경기화 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개최도시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적 공감대를 고려하기에 거부감이 덜하거나 오히려 자긍심 고취와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다고 본다.

3) 세계기사선수권대회에 보이는 기사의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탐색

(1) 경기 규정으로 본 기사의 종목화 가능성

근·현대화를 거치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대장경판전, 서울의 종묘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문화유산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은 1997년이 문화유산의 해로 해와 맥을 같이 하며 한국의 문화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⁵⁴³⁾

기사를 종목화하려고 시도한 민간단체인 사)한민족마상무예격구협회 역시 90년대에 협회를 설립하여 유럽에서부터 일본까지 한국식의 대회(Korean Style)를 기반으로 자국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1994년 8월에 포천 녹원파오랜드 승마장⁵⁴⁴⁾에서 국내 최초로 마상무예 공개시범을 가졌으며, 1997년에는 문화유산의해 해단식⁵⁴⁵⁾에서 마상무예, 마상재 등의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한 무예와 고려식의 경기격구를 시연하였다.

이 단체는 특이하게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수렵 장면에서의 기사(騎射) 기술과 마사희(馬射戲)의 경기장 개념에 착안하여 말을 달리며 정확하게 한번 쏘는 단사(Single Shot), 속사(Double shot), 연속사(Serial Shot)로 구분하고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며 연속으로 활을 쏘는 현재의 경기형태를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⁵⁴⁶⁾

세계기사연맹 의장 김영섭에 의하면 기사는 1994년에 고분벽화의 ‘수

543) 고병익(1997). 97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문화재, 30(-).

544) <https://news.joins.com/article/3020980> 2020년 10월 11일 검색

545) 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1997), 97 문화유산의 해 사업결과 보고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20쪽.

546) 1980년대부터 마상무예, 격구, 마상재, 기사의 복원과정은 김영섭(2003), 『잃어버린 우리 마상무예와 도검문화를 찾아서』, 세계로미디어와 국립민속박물관(2003). 마상무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임동권, 정형호(1997). 韓國의 馬上武藝.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참조.

렵도'에 그려진 수많은 기사(騎射)하는 자세들을 중심으로 복원을 시작하여 조선시대의 무과전시의, 무과시취 등의 무과 시험에 대한 기록, '탐라 순력도', '북새선은도' 등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경마문화제 등의 수많은 재현행사에서 선보이며,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고, 1998년 4월 28일 건국 50주년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내 최초 조선시대 무과 재연을 하며 각종 마상무예를 선보였는데 그중 기사의 경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국내대회인 2004년 제1회 대한민국화랑기사대회와 2005년 제2회 대한민국화랑기사대회를 개최하며 지금 형태의 기사를 갖출 수 있었다고 한다.

(2) 세계기사연맹의 회원국으로 본 경기화 가능성

실제 1997년에 발간된 『한국의 마상무예』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한국선수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세계기사연맹을 결성하고,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5회의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Korea style 혹은 Korean track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기사의 방식을 정착시켰다.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의 말타고 활쏘는 경기대회의 종목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제규모에서 한국방식의 경기를 차용하고 있는 경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국의 방식을 기본으로 각국의 방식을 추가하는 형태의 종목 구성을 하고 있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한국방식의 기사를 알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므로 본 협회가 복원하고 수정 보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사(騎射, Horseback Archery)를 스포츠 종목으로 보았을 때 '세계무예마스터십'에 2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세계기사선수권대회(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는 15회째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아프리카, 이란, 아랍,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아시아까지 국가별 민족별 대회가 계속 생기고 있다.

'세계기사선수권대회(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라는 대회의 탄생에는 그동안 농림축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속초시의 지원이

있었다. 세계기사선수권대회는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화랑 기사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회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중단되었다.⁵⁴⁷⁾

흥미로운 점은 2011년 6회 대회부터 유네스코의 공식 로고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별 연맹체인 세계기사연맹(World Horseback Archery Federation)에는 현재 72개국이 가맹되어있다. 세계기사연맹은 또한,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세계무술연맹(World Martial Arts Union)의 회원단체이기도 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의 가맹단체이다.

이렇게 민간이 운영해가는 단체에서 역사 기록을 기반으로 경기를 만들고 또 이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점은 현대 스포츠사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한국식 기사종목을 유럽, 이란, 아랍, 중앙아시아, 아시아, 북남미지역의 기사를 수련 및 즐기고 있는 단체에서 채택하여 훈련 및 경기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에 ‘대한민국 화랑 기사대회’에서 고구려 벽화를 토대로 복원된 기사를 종목화 하여 단사, 속사, 연속사, 마사회 4종목을 처음 선보였다. 이는 고구려 시기의 벽화에 수없이 표현된 ‘수렵장면’과 덕흥리 벽화에 표현된 ‘마사회(馬射戲)’ 장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식 종목이다. 이는 2005년 제1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보이며, 현재 회원국들의 중심 종목이 되었다.

주목할 점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있는 6가지의 마상무예 외에 고구려의 벽화를 기반으로 재현한 기사를 세계대회 차원에서 조직하여 현재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마사회와 함께 2019년 현재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15회째 주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고구려식의 종목을 응용하여 종목화한 대회로 한국식의 기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부터 일본까지 한국식의 대회(Korean Style)를 기반으로 자국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한계는 우선 생활체육 단계에서의 저변 확대가 필요

547) 세계기사연맹 조직위원장 Fuad Alamudahka, 2022년 12월 10일 확인

하다고 본다. 고려시대의 기사를 분석하며 살펴보았듯이 개개인이 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어려서부터 수련이 가능함과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사조직으로서 동원이 가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궁도와 승마와 같은 접근성의 어려움 등의 요소가 해결되어야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기사의 국제경기대회 가능성

궁도가 한국 근대의 역사를 지나며 부활하고, 승마라는 스포츠가 일제에 의해 도입된 것과 반대로 기사는 현대에 대한체육회의 정식 스포츠종목으로서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단절된 시기가 너무 길어 궁도계의 고종, 민영환, 성문영과 같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처럼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근현대의 한국에서 말을 보유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대중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한국의 무예를 다시 돌아보는 소수의 민간에 의해서 전통무예 재해석의 일환으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한 Guttman(1978)은 근대스포츠의 특징을 세속화, 평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계량화, 기록추구로 정의했다.⁵⁴⁸⁾ 소수지만 국외에 한국식 종목이 인정받게 된 저변에는 미국협회(MA3)와 유럽협회(IHAA)의 한국식 기사 종목을 채택⁵⁴⁹⁾하여 알린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구트만이 제시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을 기준으로 스포츠화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점이 기사만의 특징인지 분석해보려고 한다.⁵⁵⁰⁾

548)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에 대한 논의는 송형석이 번역한 A. Guttman(2008). 근대스포츠의 본질 : 제례의식에서 기록추구로. 송형석역, 과주 : 나남. pp.41-100. 참고하기 바람

549) 세계기사연맹 사무국에 의하면 1회 세계기사대회부터 같이한 미국의 홀뉴만(Holm Neunan)이 북미와 남미에 독일의 크리스티안(Abdul Majid Christian Schrade)이 유럽지역에 소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함.

550) 단지 구트만이 제시하는 세속화라는 측면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사가 생존이라는 인간의 세속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다고 논하고 있기에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사가 근대스포츠와 다른 특징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스포츠로서 기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로 보인다. 헝가리의 카사이 라오스는 그의 저서 『Horseback Archery』⁵⁵¹⁾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사로 경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고, 1990년대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 보급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김영섭에 의하면 1980년대에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고 10여 년에 걸쳐 1994년에 마상무예를 복원하고 1998년 조선무과시험을 재현하면서 경기화를 준비하였고, 2004년 한국내 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세계기사연맹을 결성하여 현재 15회에 이르는 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올림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들은 중세시대처럼 특정 계층만이 참가할 수 있는 불평등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인종간 젠더간의 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창안된 근대의 스포츠들은 대부분 유럽 백인 남성 중심의 종목들로 시작되었다.⁵⁵²⁾ 그 결과 유럽에서 온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은 남성과 여성의 기량 차이가 많이 난다.⁵⁵³⁾ 그렇기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경기대회를 열고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아마존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성으로만 구성된 기병이 스키타이 남성과 거의 대등하였던 것으로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아마존을 묘사한 듯한 여성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이 표현된 유물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온달전에는 평장공주가 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와 수 차례⁵⁵⁴⁾ 사냥을 나간 기록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같이 말 다루는 능력 그리고 사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551) K. Lajos(2002). Horseback archery. Budapest: Budapest : Püski Kiadó kft.

552) 쿠베르탱은 여성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년은 1912년 전까지 대부분의 스포츠종목 공식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A. Guttmann(2008). 근대스포츠의 본질 : 제례의식에서 기록축구로. 송형석역, 파주 : 나남. p.71

553) 대표적으로 1897년부터 채용된 올림픽의 표어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를 보면 알 수 있다.

554) 제국대장공주는 비록 몽골제국의 공주이지만 고려와 몽골제국간의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한국사에서 남녀가 같이 사냥을 다닌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화라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현재도 양궁⁵⁵⁵⁾ 종목에서는 남녀 기록의 큰 차이가 없으며, 승마⁵⁵⁶⁾는 올림픽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는 종목이다.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사대회에서는 최소한 젠더간의 평등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대회는 안전을 위하여 16세 이하의 유소년 부만 따로 경기를 할 뿐 16세 이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경기에 참가가 가능하다. 실제 많은 여성 선수들의 참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상위에 랭크된 여성 선수들은 꾸준히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⁵⁵⁷⁾

2022년 현재 세계기사선수권대회의 정식 종목은 고구려식(단사, 속사, 연속사, 마사회), 조선식(모구), 터키식(콰마크), 카자흐스탄식(카작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종목들의 규정을 자세히 보면, 말이 달리는 주로의 거리 및 선회 구간, 주로와 과녁 사이의 거리, 과녁과 과녁사이의 거리 등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총회를 열어 연맹의 분과의 위원들 그리고 각국의 대의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안전사항을 검토하고 더욱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며 추가 및 삭제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기사대회 조직위원장인 Fuad Alamudahka에 의하면 선수들의 기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대회 초창기에는 과녁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던 선수들이 기량이 좋아지고 있기에 과녁과 주로와의 거리를 변경하고 있고, 경기장의 구성도 최대 5번의 과녁을 맞추어야 하는 연속사와 마사회 경기에서는 기병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며 선회하며 활을 쏘는 상황을 재현 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이란의 맘루크 방식, 조선시대 무과 방식, 청나라의 사류기사 등이 총회에서 채

555) 대한 양궁협회(<https://www.archery.or.kr/archer/team/athleteDetailAll.do>, 2020년 10월 11일 검색)

556) 국제승마연맹(<https://www.fei.org/>)올림픽 초창기에는 승마 종목에 남자, 그 중에서도 기병대 장교만 참가 가능했다. 그러나 1952년 헬싱키 올림픽부터 승마는 남녀 구분 없이 참가가 가능해졌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은 샬럿 듀잘딘(영국)으로, 여자 선수다. 듀잘딘은 리우 올림픽 그랑프리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93.857%의 스코어를 받으며 역대 올림픽 최고기록을 세웠다.

557) 1회 대회부터 입상자 명단은 2019년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책자에 모두 실려있으며, 다수의 여성 선수들이 항상 순위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기사연맹의 각 분과에서 검토 후 총회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현 종목의 규정 조정 외에 신규 종목 선정으로 볼 수 있다. 과박의 경우 김영섭 의장이 2009년 10월 터키 시바스에서 Murat Hilmi 당시의 터키 기사협회장에게 제안하여 최초로 시범을 보이고 그 후에 조직위의 회의를 거쳐 2010년 세계기사연맹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세계기마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카자흐 역사에 나오는 기사방식을 체계화하여 국제기사대회를 유치해서 누르술탄에서 몇 차례 국제기사대회를 하였고 Yeldos Badashev 카자흐스탄 협회장이 세계기사연맹에 정식종목 신청하여 세미나 발표 및 시범경기를 거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음. 이런 신규 종목 선정과정에서는 말이라는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부는 경우 말이 선회하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안전문제가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실제로 터키 종목인 과박크의 경우도 선수가 너무 몰입할 경우 말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에 종목에는 있지만 열띤 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종 성적에는 넣고 있지 않다고 한다.

김영섭에 의하면 고구려 기사의 기술과 기마사회도의 측정하는 모습에 모티브를 얻어 말의 속도, 과녁점수를 계량화 하여 말다루는 능력과 말위해서 활쏘는 능력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말마다 차이가 있기에 경기 도중 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구트만이 논의한 평등의 요소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회 재정의 한계로 올림픽 경기처럼 자신의 말을 가져올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기사에 적합하도록 훈련된 말을 대회 개최 2~3일 전에 기승할 기회를 주고 대회 시작전 경기에 참가할 말을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말의 속도 기록을 수치화 하여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또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활을 정확히 쏘려는 선수들은 느린말을 선호, 말제어에 능하고 화살을 시복에서 뽑는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빠른말 선호하는 편이다.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북부와 한반도라는 지역적 범위, 고려시대 이전부터 현대의 시대적 범위 내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의 존재 양상을 탐색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는 초원의 유목세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생필품의 획득과 맹수의 제거와 같은 생존을 위한 행위로서 존재하였다. 그렇기에 고려시대에 사냥이 금지될 때 까지 어려서부터 기사 사냥을 할 수 있었고, 유목민들이 놀랄 만한 선기사(善騎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 뿐만 아니라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여 단시간에 군사력을 확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평소 사냥을 통한 무예 연습과 군사훈련에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어져 기사는 조선의 장기로 인식된다. 고려 말 조선 창업의 세력은 전통적으로 기사를 잘하는 한반도 북부 지방의 군사력이 중요했고, 이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강무와 무과를 정비하고 군례와 하면서 기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조선의 중기부터 강무에서의 기사 사냥은 조선의 엘리트인 왕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이마저도 점점 축소되어 군사훈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는 화약 무기의 발달과 편제의 확대와도 맥을 같이한다. 화포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사는 조선 기병의 기본 무예와 전술로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선기사와 아국장기로서가 아니라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으로 기마술에 있어서의 쇠퇴가 감지된다.

결국 조선 후기에 병자, 정묘 호란으로 더 이상 조선은 조선 전기처럼 전면적인 기병전은 펼칠 수 없게 되고, 점점 더 화포에만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도 기사의 생명력은 끝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후기

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훈련한 장용영에서도 기사를 계속 훈련하였다. 그러나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기병의 존재가 축소되고 그 후 갑오개혁으로 무과가 사라지자 활쏘기와 마찬가지로 기사 역사는 단절되게 된다.

궁도는 고종과 당시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역사에서 재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사는 현대의 한국에서 90년대 무예의 재해석 차원에서 민간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는 90년대 말 한국의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차원에서 중국, 일본 등 근대화된 여러 무예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태권도의 스포츠화와 지자체에서 진행한 무예의 스포츠화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궁도가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도하여 스포츠화를 이루었다면 기사는 소수의 민간이 주도하여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스포츠에서 기사의 인접 분야인 궁도, 양궁, 승마 모두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 기사의 역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중요했듯 생활체육 차원에서 대중화되지 못하면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세계의 축제인 몽골 유목민의 나담축제에도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씨름, 활쏘기, 말타기 경주가 따로 존재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궁도, 양궁, 승마가 각각 존재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스포츠로서 종목화에 성공한 궁도, 양궁, 승마 세 분야의 융복합과 동시에 기술, 장비, 경기 방식 등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궁도와 양궁 종목의 활쏘기 승마에서의 기마술 등의 융복합과 한국역사적 해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스포츠문화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융복합적 접근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만남, 잊혀진 한국문화의 부활 차원에서 또 다른 스포츠종목의 탄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VI. 결론

한국의 역사에 보이는 기사의 문화적 특성은 산림지역이라는 자연환경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중화의 문화, 유목문화에 보이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활동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중화의 역사에 자신들의 동쪽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기사에 뛰어난 것으로 보았다. 사료의 한계상 한국인 스스로가 기록한 기사의 역사는 비록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 이전 중국의 사료에 기록된 기사에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배경은 이를 더 명확히 한다고 본다.

현재 까지 기사는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의 성과 덕분에 스키타이와 흉노와 같은 전형적인 유목민들의 특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모습은 정주민들의 문자와 예술작품에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기사의 역사는 중국 외부의 신체문화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중국의 문헌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기사의 형태는 고구려인들에 의해 고분벽화에 선명히 남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사(騎射)가 유목민들이 공유했던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정주민들이 가진 보편적인 신체문화라는 사실에 더하여 이들과 인접했던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기사(騎射)라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2장에서 삼국시대 이전의 문헌과 고구려시기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도상(騎射圖像)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역사에서 기사라는 신체활동은 농경민족, 유목민족과 달리 산림지역을 무대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말과 마구, 활과 화살이 발달하였고, 이를 활용한 경이로운 기사 능력은 군사 활동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악지형에 적합한 체고가 낮은 형태의 말이 등장하며, 고삐를 놓은 채 하체만으로 말을 통제하는 기마술과 짧고 굵은 활과 화살을 양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벽화에 표현된 사냥감을 사냥하는 방식은 방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냥감의 후방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말을 몰 수 있는 전술적인 기마술(騎馬術)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냥감의 위치 변화에 대응하여 전방 위기사법(全方位騎射法)이 중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포위기사전법(包圍騎射戰法)이 표현되어 있어 한반도 북부에서 사냥과 군사전술로서 기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유추 할 수 있다.

산악지형에 적합한 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냥감의 속도와 위치변화에 따라 말을 모는 기마술과 휴대가 용이한 활, 화살의 형태적 기능적인 특성이 만나 사냥감과 말의 속도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화살을 제어 쏘는 연속기사법(連續騎射法)이 드러났다. 또한 한 목표를 여러 번 활을 쏘는 전법과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에 활을 쏘는 다연발기사전법(多連發騎射戰法)이 가능함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기사는 중국과 초원에서 발달한 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림지역이라는 특성상 산과 평야에서 모두 활동이 가능한 말과 이에 따른 마구들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지에서 하는 기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활쏘기 역시 요구되었다. 이런 고도의 기마술과 활쏘기의 조합은 선기사(善騎射), 중기사(重騎射), 상기사(尙騎射)로 표현되어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남게 되었다.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고려의 군사력은 외적의 침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 이후에도 지속된 충렬왕 11년(1290) 몽골 카다안의 침입, 공민왕 4년(1355년) 중국 홍건적의 침입, 우왕대 까지 이어진 다수의 왜구 침입에 대하여 고려는 적극적인 공세로 토벌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 군사력의 힘은 평소 사냥으로 훈련된 기사 능력과 물이사냥을 근거로 한다.

삼국시대의 문헌 기록보다 고려사에 점점 더 자세한 기사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윤덕의 경우처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는 고려 무예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고, 군사로서의 훈련받으면 실제 전쟁터에서 그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 고려시대 전반의 전투기록을 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소수로 다수의 적을 격퇴한 경우는

대부분 기병들의 기사였다. 이러한 고려 후기의 특징은 이러한 기사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자들은 고려말 강무의 특징을 진법에 의한 군사훈련 관점에서 주로 논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고려말 강무는 사냥을 통한 기병훈련과 진법을 통한 보병훈련 등 복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앞서 고려말 사냥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였듯이 사냥의 측면에서 보면 군사훈련의 기능이 같이 있고 군사훈련으로서 사냥을 보면 이 역시 고려의 풍토에 맞는 기사를 중심으로 한 기병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 전기에 제도화되기 이전 강무는 기사 사냥을 기반으로 한 군사훈련의 성격이 강하다. 이 기사 사냥은 고려의 자연환경 그리고 고려인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평생을 걸쳐 익힌 기마술과 활쏘기 능력의 연장선상에서 강무라는 군사훈련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고려시대 까짓 논의된 기사의 문화적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말과 조선초의 기록을 분석하였다. 당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기사는 전통을 유지하기도 하며 중국식 병법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군사훈련이 탄생하는 등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기사사냥을 중심으로 중국식 군사제도와 융복합을 시도한 결과 강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과라는 인재선발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심에 기사라는 신체활동이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선기사라는 개인의 능력은 조선시대에 군사 활동으로 정착하면서 조선의 국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전반에 있어서 기사는 무과라는 인재선발과 동시에 시재와 시취 등의 시험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고, 기병의 개인훈련에서 전술훈련 더 나아가 조선의 군대의 한 일익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에 보이지 않던 모구와 삼감사의 도입한 결과 잃었던 강역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그 위상은 임진왜란 이후 화포의 발달로 인한 기병의 축소와 맥을 같이하여 조총과 같은 화기에 중심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기사는 최후까지 조선의 역사와 함께 했다. 그 이유는 과학기

술과 복합적인 관계로서 변화를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 정묘, 병자 호란으로 가속화된 화포의 발달과 함께 하여 비록 전장의 주역에서 보조의 역할로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사는 조선의 국기로서 지속되었다.

19세기의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에도 존속했으며, 무과에서도 고령의 노인이 만점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또 다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국기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과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조선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스포츠가 도입되고 현대에 전통무예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며 기사는 개별 종목으로서 경기화의 진행에 있다. 그 이전에 먼저 전통의 보사는 궁도 근대역사에서 재탄생 하였고, 유럽식 승마가 도입되며 마종이 개량되면서 기사는 다시금 현대에 재탄생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기사는 현대의 한국에서 전통무예가 주목받으며 재해석 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는 90년대 말 한국의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차원에서 중국, 일본 등 근대화된 여러 무예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태권도의 스포츠화와 지자체에서 진행한 무예의 스포츠화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궁도가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도하여 스포츠화를 이루었다면 기사는 소수의 민간이 주도하여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스포츠에서 기사의 인접 분야인 궁도, 양궁, 승마 모두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 기사의 역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중요했듯 생활체육 차원에서 대중화되지 못하면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역사적으로 인류 보편의 신체문화로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기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편성 안에서 한국 방식의 기사가 가진 경기스포츠로서의 특수성을 찾아낸다면 한국의 기사는 기존 서양 중심의 역사로서 술되고 있는 세계사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

리라 판단된다.

스포츠학의 차원에서 한국의 기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문화적 특성을 먼저 분석하였다. 기사는 태생적으로 말을 타는 행위와 활을 쓰는 행위의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융복합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연환경 안에서 중화의 민족과 유목민족과 다른 문화로 발전하였고, 동시에 역사적 전개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선과 변화를 이루어 왔다. 그 과정에는 중국식 병법과의 융합, 유교문화와의 융합이 보이며 화포와 같은 최고의 과학기술과도 복합되어 한국의 역사에 존재했다.

그리고 근현대를 거치며 스포츠로서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재해석되며 전통문화와 스포츠의 결합 또는 전통무예의 스포츠화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융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보사가 양궁이라는 근대스포츠와 만나며 대중의 스포츠로서 각종 현대화된 장비와 복식에 있어 발전을 이루었듯이 이를 기반으로 기사 역시 근대승마와의 어떠한 접점에서 새로운 한국의 스포츠로서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사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며, 근대스포츠의 특징을 적용하는데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기록을 추구하기 위한 전문선수, 규칙 제정, 조직 운영 등의 요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점은 기존 스포츠가 가진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발견해 내었다. 역사적으로 기사는 다인종, 다계층에서 행해져 문화적 포용성이 높은 신체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남녀, 노소 간의 평등한 대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권도와 같이 한국의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아닌 말과 활이라는 신체문화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형태의 기술과 종목개발이 가능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개최 할 경우 전용경기장의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가 아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형태의 경기진행이 가능해 보인다.

본 연구자가 시도한 기사의 역사 분석은 서구 근대스포츠의 전파와 확산 그리고 동양 무예의 서구 침투 그리고 세계화라는 근현대적 스포츠문

화현상 속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진행된 서양과 동양 간의 교류에 대한 시각보다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교류 차원에서 기사의 역사를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림지역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 위에 한국 기사의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현대 스포츠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서구근대스포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연구자가 역사전개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문화적 전개 양상에 따라 해석한 기사의 특성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기사의 역사 속에는 자연과 함께하며, 다른 문화와도 융합을 이루어내었고, 과학기술과도 복합적인 형태로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기사의 문화적 특성을 보았을 때 현대사회에서 기사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 된다.

참고문헌

『管子』
『高麗史』
『高麗史節要』
『舊唐書』
『北史』
『史記』
『三國史記』
『三國志』
『三朝北盟會編』
『新唐書』
『魏書』
『戰國策』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宣祖實錄』
『肅宗實錄』
『孝宗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武藝圖譜通志』

『武藝諸譜』
『壯勇營大節目』
『兵學通』
『萬機要覽』
『大典會通』
『漢書』
『後漢書』

Dio's Roman History

Diodorus

The Histories of Herodotus

Plutarch's Lives

- 강인욱(2006). 고구려 鏡子の 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2): 141-216.
- 강현숙(2008). 古墳 出土 甲冑와 馬具로 본 4, 5세기의 新羅, 伽倻와 高句麗. 新羅文化 32(-): 145-175.
- 곽낙현(2009). 武經七書を 통해서 본 조선전기 武科試取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34(-): 287-310.
- 고병익(1997). 97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문화재 30(-): 3-12.
- 곽낙현(2011). 조선후기 『紀效新書節要』에 대한 검토. 東洋古典研究 42(-): 355-378.
- 곽낙현(2013). 조선후기 『壯勇營故事』를 통해 본 도검무예. 東洋古典研究 51(-): 279-306.
- 곽낙현(2019). 『武藝圖譜通志』의 형성과정』 검토.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학술대회 2019(05): 33-44.
- 곽낙현(2009). 조선전기 習陣과 군사훈련. 東洋古典研究 35(-): 359-385.
- 구산우(2010).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85-127.
- 구산우(2020).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신분과 계층적 실체에 관한 시론 -전시과(田柴科)의 마군(馬軍) 보군(步軍)과의 연관성에

- 주목하여. 한국사연구 -(191): 133-173.
- 국립중앙박물관(2006). 고구려 무덤벽화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2007).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 두산동아.
- 국사편찬위원회(2011).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서울 : 경인문화사
- 권미세(1995). 韓國 騎馬服飾文化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漢陽大學校 大學院.
- 권영필(2002). 렌투스 양식의 미술 : 동쪽으로 불어온 실크로드 바람. 서울: 사계절
- 김광석(1992). 권법요결. 서울 : 동문선
- 김광석(1995). 본국검. 서울 : 동문선.
- 김광석(2002). 조선창봉교정. 서울 : 동문선.
- 김광언(2007). 韓·日·東시베리아의 사냥. 서울: 민속원
- 김기환, 방신웅 (2010).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개최도시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규모와 개최도시 친밀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5(6): 47-65.
- 金大鉉(2005). 高句麗 初期 社會에서 사냥의 類型과 機能. 靑藍史學, 12(-).
- 김동경(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 김동경(2011).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53(-): 35-64.
- 김동민(2019). 조선 후기~해방 전후 뚝섬 지역의 서울 근교로서 역할의 변화와 특징, 서울시立大學校.
- 김동진(2007).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朝鮮時代史學報 40(-): 93-132.
- 김방출, 권순용 (2007). 스포츠 민족주의 재인식: 전지구화, 스포츠, 기업 민족주의. 체육과학연구 18(1): 75-85.
- 김부환(2005). 고구려의 사냥에 관한 연구. 스포츠科學研究論文集, 23(-).

- 김산, 송일훈(2009). 고조선·고구려시대의 무예연구. 무도연구소지, 20(1).
- 金性泰(1993). 고구려의 무기(1) : 도검(刀劍)과 궁시(弓矢). 문화재, 26(-).
- 金秀旻(2003). 평양지역 고구려 벽화 狩獵圖에 보이는 生死觀. 고구려발해연구, 15(-).
- 김영학, 안종남(2005).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武藝 形態의 調查研究. 武道研究所誌, 16(-).
- 김종일(2013). 유라시아 전차(Chariot)의 등장과 확산과정의 고고학적 의미 - 유럽 내 전차의 확산과정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28).
- 金順子(1999). 麗末鮮初 對元·明關係 研究. 박사학위, 연세대학교.
- 김영학, 안종남(2005).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武藝 形態의 調查研究. 武道研究所誌 16(-): 55-86.
- 김의환, 허건식(2008). 한, 중, 일 무예정책을 통한 한국무예진흥 방향. 대한무도학회지, 10(2): 7-20.
- 김이수(2011). 『조선(朝鮮)의 궁술(弓術)』에 관한 연구(1) -현대적 가치와 의미-. 체육사학회지 16(2): 1-14.
- 김병인(2017). 고려시대 관인의 평가 기준과 함의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졸기(卒記)'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0(15): 143-171.
- 김정(1999). 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 濟州大學校 大學院.
- 김창현(2008). 고려시대 서해도 지역의 위상과 사원. 韓國史學報(33): 169-203.
- 김한규(1999). 요동사상의 고조선. 中國史研究 6(-): 1-35.
- 김한규(2004). 요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과주 : 돌베개
- 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과주: 사계절출판사
- 羅永一(1988). 體育史 研究의 方法과 動向. 서울大學校 體育研究所論集 9(1): 31-39.

- 羅永一(1989). 朝鮮朝의 武士試取制度에 나타난 武藝 및 體力檢定에 關한 研究 (I). 서울大學校 體育研究所論集 10(1): 29-37.
- 나영일(1992). 朝鮮朝의 武士體育에 關한 研究 : 武士試取制度를 中心으로, 서울 : 서울大學敎 大學院.
- 나영일(1997). 기효신서(紀效新書), 무예제보(武藝諸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비교연구(比較研究). 한국체육학회지 36(4): 9-23.
- 나영일(1999). 朝鮮朝의 武士體育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體育研究所論集 20(1): 69-87.
- 나영일(2012). 우리 활터 석호정. 서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나영일(2017). 한민족 씨름의 문화인류학적 기원. 체육사학회지, 22(1).
- 나영일, 곽낙현, 박귀순(2017). 한국의 스포츠학 70년.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나영일(2019). 하인리히 왕자의 대한제국 방문과 전통 활쏘기의 부활. 무형유산 0(7): 105-130.
- 나영일(2001). 『武藝圖譜通志』에 나오는 武藝의 도입 過程. 체육사학회지 7(-): 144-154.
- 나영일(2002). 武士의 身體. 東洋古典研究 17(-): 261-281.
- 나영일(2004). 『무과총요』 연구. 체육사학회지 13(-): 13-29.
- 나현성(1968). 한국 체육사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사범대학.
- 남도영(1997). 韓國馬政史. 과천, 과천 :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남종국, 김장구, 박용진, 박현희, 성백용, A. Dunlop, 이영미, 조원, 조원희(2021).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노희덕, 나영일 (1996). "체육사학 분야의 성장과 과제. 체육사학회지 1(-): 1-14.
- 盧永九(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陳法 논의. 군사(34): 125-154.
- 노영구(2002).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 13.

- 노영구(2002).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13): 355-381.
- 노영구(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영구(2002).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研究, 서울대학교.
- 노영구(2008). 조선시대 군사훈련을 통한 전투 복원. 군사학연구 6(-): 1-20.
- 노영구(2017a). 조선시대 『武經七書』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武經七書直解』의 도입, 간행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80): 117-143.
- 노영구(2017b). 조선후기 전술변화와 중앙 군영의 편제 추이. 군사연구 -(144): 27-55.
- 도유호(1959). 조선 거석문화 연구. 문화유산.
- 동북아역사재단(2009). 史記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柳昌圭(1984). "李成桂의 軍事的 基盤." 진단학보 -(58): 1-16.
- 대한체육회(2010). 대한체육회 90년사. 서울 : 대한체육회.
- 마사동우회(2010). 馬友情談 : 뚝섬경마장 시절의 애환과 역사. 과천, 마사동우회.
- 민경길(2010). 조선과 중국의 궁술. 민경길 편역, 과주, 이담Books.
- 박금수(2005).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세(勢)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금수(2007). 조선후기 공식무예의 명칭 "십팔기(十八技)"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6(5): 55-65.
- 박금수(2013). 朝鮮後期 陣法과 武藝의 訓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가영(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기동, 김상구(1992). 武藝圖譜通志 반포와 그 시대적 배경. 17(0): 83-97.
- 박귀순(2013). 명대(明代) 중국무예가 조선과 일본의 무예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2(6): 41-53.

- 朴道植(1987). 朝鮮初期 講武制에 관한 一考察. 國內史學史學位論文, 慶熙大學教 大學院.
- 朴世旭(2012). 韓中果下馬비교연구. 동아인문학 23(-): 187-230.
- 박아림(2014). 고구려 고분벽화와 북방문화. 고구려발해연구 50: 281-341.
- 박영준, 변우혁(1994). 조선전기 수렵문화(狩獵文化)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2(1): 50-71.
- 박용운(2019).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음(食飮) 생활. 파주, 경인문화사.
- 朴元燾(1976). 朝鮮初期의 遼東攻伐論爭. 한국사연구(14): 53-91.
- 朴玉杰(1990). "高麗의 軍事力 확충에 관한 研究." 군사 -(21): 36-63.
- 羅絢成(1967). 韓國 體育의 史的 考察 <古代>. 論文集 - 서울대학교 교 육대학원, 4(-).
- 朴權圭(1999). 傳統時代 弓射의 變遷과 種類에 대한 考察. 論文集, 22(-).
- 朴道植(1987). 朝鮮初期 講武制에 관한 一考察. 경희사학, 14(-).
- 박춘순(1988). 스키타이문화의 기원과 전파. 忠南生活科學研究誌, 1(-).
- 박현우(1997). 체육학에서 스포츠학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6(4): 56-71.
- 배은숙(2017). 359년 아미다(Amida) 전투에 나타난 샤푸르 2세(Shapur II)의 군사적 능력. 대구사학, 129(-).
- 백기인(2006).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27: 33-61.
- 徐榮敎(2004a). 고구려 기병고 鏡子 : 고구려고분벽화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81(-): 37-64.
- 徐榮敎(2004b).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고구려발해 연구 17(-): 347-368.
- 서윤경(2020). 중국 위진·북조 시기 고분미술의 수렵도 연구. 美術史論壇 -(51): 147-181.
- 성제훈(2018).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기사법(騎射法) 양상 검토. 체 육사학회지, 23(2).
- 성제훈(2019). 파르티아 시기의 '파르티안 샷 (Parthian Shot)'연구. 한국 체육사학회지 24(4): 83-99.

- 손환, 최지만(2009).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마장에 관한 소고(小考) 體育研究 31: pp.35-42.
- 송형석(1999). 스포츠와 환경 (II) - 공존을 위한 윤리적 이념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38(3): 25-42.
- 송형석(2004). 문명화과정과 스포츠, 그리고 동양무예. 한국체육학회지 43(2): 15-23.
- 신현규(2006). 축구의 기원과 형성과정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5(3): 1-9.
- 심승구(1994). 朝鮮前期 武科研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 沈勝求(1999). 朝鮮時代의 武藝史 研究. 군사 -(38): 101-134.
- 심승구(2000),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학예지』 10집, 육사박물관.
- 심승구(2004a). 한국무예의 정체성 탐구 -고구려 무예를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9(1): 61-70.
- 심승구(2004b). 고구려 무예의 특성과 그 의미. 역사민속학(18): 503-535.
- 심승구(200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165-197.
- 심승구, 임장혁, 정연학, 조태섭(2011).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안주섭(2003). 고려 거란 전쟁. 서울, 경인문화사.
- 여호규(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88): 165-208.
- 염정하(2016). 조선 후기 五軍營의 軍事服飾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만근(1997). 「산행(山行) (사냥)」 오용(誤用)과 「북남동서」 어순(語順). 어문연구(語文研究) 25(1): 187-189.
- 오도광(200). 퍼펙트골드로의 長征: 양궁. 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재성(1996). 한민족전쟁통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윤국일(1986). 경국대전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윤영인(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亞細亞研究 45(3): 269-290.

- 윤한성(2013). 조선건국기 교육정책에 나타난 정도전의 교육활동. *교육사학연구* 23(1): 51-83.
- 윤훈표(1987).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0): 1-62.
- 尹薰杓(2004). 麗末鮮初 軍事訓練體系의 改編. *군사* -(53): 181-217.
- 이경돈, 김은영, 김은경, 최규진, 김윤정, 김연숙, 김윤희, 서울역사편찬원 (2018).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이규철(2017). 여말선초의 국제정세 변화와 대외정벌. *전북사학*(50): 81-106.
- 이난영, 김두철(1999). 韓國의 馬具.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이동훈, 임순길(1997). 승마교본. 서울, 태근.
- 이병민(2000). 韓國의 弓道에 관한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東亞大學校 大學院.
- 이병민(2006). 중국 弓術의 시대적 변천양상.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이병민(2000). 한국 궁도의 기원과 발전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5(2): 68-75.
- 李玉洙(1991). 古代 狩獵圖의 樣式 기원 및 의미연구 - 고구려 古墳壁畫의 수렵도의 양식성립 배경으로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이원복(2005). 한국의 말 그림.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이병희(2021). 고려시기 사냥의 방법과 尙武性. *동국사학* 72(-): 5-44.
- 이병희(2021). 고려시기 사냥의 성행(盛行)과 대책. *한국중세사연구* -(67): 303-344.
- 이진수(1996). 한국 고대 스포츠 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 이중화(1929). 朝鮮의 弓術. 京城[서울], 朝鮮弓術委員會.
- 이흥두(2020). 한국 기마전 연구. 서울, 해안.
- 李孝珩(2006). 고려전기(高麗前期)의 북방인식(北方認識) - 발해 · 거란 · 여진 인식 비교 -. *지역과 역사* -(19): 53-89.
- 이행원(1983). 삼국시대의 체육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2(1).

- 임두빈(2012). 고구려 고분벽화의 미학적 해석-안악 3 호분과 덕흥리 고분, 무용총 벽화의 인물풍속도를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1(1).
- 장재이, 최종균(2000). 21 세기 무도의 전망 (The Vision of Martial Arts in 21st Century) / 2000 . 6 . 23 : 고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관한 무술사적 연구. 국제무도학술대회 논문집, 2(-).
- 전호태(2013). 고구려의 음악과 놀이문화. 역사와 경계, 88(-).
- 鄭京日(2012). 고구려 弓矢文化에 대한 試論 2 - “弓矢圖”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36(-).
- 전경숙(2007). 고려전기 군사기구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 전경숙(2014).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군사 -(91): 229-259.
- 정재남(2021).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 『方言』에 수록된 朝鮮 · 北燕지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단군학연구 44(-): 49-109.
- 정찬모(2003). 고려시대 무예체육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12(-): 111-128.
- 정해은(2007). "18세기 무예 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9).
- 정해은, 유제승, 이현수, 장학근, 서인한, 백기인(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정형호(2005).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11(-).
- 최석규(2009). 국궁의 변천과 사회·문화적 기능. 충북대학교 대학원.
- 최석규, 정희석(2009). 국궁의 고대사적 전통. 스포츠인류학연구, 4(2).
- 최석규(2020). 國弓의 組織化와 大衆化에 대한 社會·文化史的樣相연구: 일제강점기 新聞紀事를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25(2): 1-17.
- 최형국(2016). 한국 마상(馬上)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 무예

- 연구, 10(2).
- 한국마사회(2010). 한국마사회 60년사. 서울,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1984). 한국경마 60년사. 서울, 마사회.
- 한남희, 양도업, 최세희(2020). 4차산업혁명과 스포츠융복합산업의 적용 사례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8(3): 821-834.
- 허건식(2008). 「전통무예진흥법」의 법리해석과 전망.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학술대회 5(-): 3-17.
- 허대영(2012).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전술 변화와 군사훈련의 전문화. 韓國史論 58(-): 77-145.
- 허대영(2020).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92): 7-39.
- 허대영(2021).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 허대영(2022). 조선 초기 大閱의 정립과진법훈련의 변화. 군사 -(122): 161-203.
- 허대영(2022). 중국 군사훈련의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검토. 중앙사론 -(55): 129-167.
- 한명기(2006). 「조선시대 漢中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고구려의 ‘強盛’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 팽세건, 김순규(1997). 몽골軍의 戰略·戰術.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早坂昇治(1987). 競馬異外史、中央競馬ピーアール・センター.
- T. T. Allsen(2006).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 Thomas T. Allsen.** Philadelphia: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 Alram(1996). **Die Geschichte Irans von den Achaimeniden bis zu den Arsakiden (550 v. Chr. - 224 n. Chr.).** na
- J. K. Anderson(1975). Greek Chariot-Borne and Mounted Infantry.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79(3).**
- D. W. Anthony(2015). 말, 바퀴, 언어. 공원국 역, 서울: 에코리브르

- R. Ash(1999). An Exemplary Conflict: Tacitus' Parthian Battle Narrative ("Annals" 6.34-35). **Phoenix**, 53(1/2).
- R. BAGLEY(1999). **Shang archaeolog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 J. Barfield(2009).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C. I. Beckwith(2014).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서울: 소와당
- J. Bialostocki, E. Kaemmerling이한순(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 이론-전개-문제점**. 서울 : 사계절
- U. Brosseder(2011). Belt plaques as an indicator of east-west Relations in the Eurasian step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Xiongnu Archaeology.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the First Steppe Empire in Inner Asia**).
- Y. Chang(2017). A Study on the Costume of Bactria, center of Silk Road-Focusing Analysis of Antiquiti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4).
- B. W. Cunliffe(2019). **The Scythians: Nomad Warriors of the Steppe** Oxford :: New York, NY :
- V. S. Curtis(1993). A Parthian statuette from Susa and the bronze statue from Shami. **Iran**, 31(1).
- V. S. Curtis(2001). Parthian belts and belt plaques. **Iranica Antiqua**, 36).
- T. A. Davis(2013). **Archery in Archaic Greece**. Columbia University
- N. Di Cosmo이재정(2005). **오랑캐의 탄생**. 서울: 황금가지
- R. Drews(2004). **Early riders: The beginnings of mounted warfare in Asia and Europe**. Routledge

- B. Dwyer(2003). Scythian-Style Bows Discovered in Xinjiang.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er-Antiquaries, 46).
- R. Ghirshman(1962). **Persian art : Parthian and Sassanian
 dynasties, 249 B.C.- A.D. 651 / Roman
 Ghirshman translated by Stuart Gilbert and
 James Emmons.** New York : Golden Press
- P. B. Golden(2021). **중앙아시아사.** 이주엽 역, 서울: 책과함께
- A. K. Goldsworthy(1996). **The Roman army at war : 100 BC-AD
 200 / Adrian Keith Goldsworthy.** Oxford : New
 York: Oxford : New York : Clarendon Press
- C.J.Longman, COL.H.Walrond(1901). **ARCHERY.** LONGMANS,
 GREEN, AMD CO. PATERNOSTER ROW. LONDON
 AND BOMBAY, P163
- Le Sport universel illustré(190). IOC Olympic Museum Collections
- F. Grenet(2012). The Nomadic Element in the Kushan Empire
 (1st-3rd Century ad).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3).
- M. Gruber, J. Il'yasovK. Kaniuth(2012). A decorated ivory belt from
 Tilla Bulak, Southern Uzbekistan. **Ancient
 Civilizations from Scythia to Siberia**, 18(2).
- Herodotus(2016). **역사 / 헤로도토스 지음. 김봉철 역.** 서울: 길
- E. Hildinger(1997). **Warriors of the steppe :a military history of
 central Asia, 500 B.C. to 1700 A.D. / Erik
 Hildinger.** Staplehurst: Staplehurst : Spellmount
- E. Jacobson(1995). **The art of the Scythians : the interpenetration
 of cultures at the edge of the Hellenic world.**
 New York: Leiden
- A. KarasulasA. McBride(2004). **Mounted Archers of the Steppe
 600 BC - AD 1300.** Bloomsbury USA

- P. Kelekna(2009). **Horse in hum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 M. Khazanov(1990). 遊牧社會의 構造 : 역사인류학적 접근 / 하자노프 著 金浩東 譯. 서울 : 지식산업사
- H. Komatsu(2005).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역, 서울 : 소나무
- P. M. Leus(2011). New finds from the xiongnu period in Central Tuva. Preliminary communication. **Xiongnu Archaeology: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the First Steppe Empire in Inner Asia**/eds. U. Brosseder, B. Miller, 5).
- C. Li(1999). 사경(射經) : 사람을 쏘려거든 먼저 말을 쏘아라 / [李芻芬 著] 金海星 해역. 서울: 자유문고
- L. Liancheng(1993). Chariot and horse burials in ancient China. **Antiquity**, 67(257).
- B. K. Miller(2009). **Power politics in the Xiongnu Empi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 R. S. Moorey(1970). Pictorial Evidence for the History of Horse-Riding in Iraq before the Kassite Period. **Iraq**, 32(1).
- E. Panofsky(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 Wood, M. T.(2015). Mounted Archery in Japan: Yabusame and the Modern Setting. UNIVERSITY OF OSLO
- S. M. Perevalov(2002/04/01 2002). The Sarmatian Lance and the Sarmatian Horse-Riding Posture.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40(4).
- M. M. R. Brzezinski, G. Embleton(2002). **The Sarmatians 600 BC - AD 450**. Oxford United Kingdom: Osprey Publishing
- E. D. Reeder, E. Jacobson, G. Walters ArtA. San Antonio Museum

- of(1999). **Scythian gold : treasures from ancient Ukraine**. New York: New York : Harry Abrams in association with the Walters Art Gallery and the San Antonio Museum of Art
- M. Reisinger(2010). New evidence about composite bows and their arrows in Inner Asia. **The Silk Road**, 8).
- M. Rostovtzeff(1943). The Parthian Shot.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47(2).
- M. I. Rostovtzeff(1927). **Inlaid bronzes of the Han dynasty in the collection of CT Loo**. Librairie Nationale d'Art et d'Histoire
- M. I. Rostovtzeff(1929). **Centre de l'Asie, la Russie, la Chine et le style animal**. Seminarium Kondakovianum
- M. I. Rostovtzeff(1935). **Dura and the problem of Parthian art**. Yale University Press
- M. I. Rostovtzeff(1938). **Dura-Europos and its art**. Clarendon Press Oxford
- E. L. Shaughnessy(1989). Historical geography and the extent of the earliest Chinese kingdoms. **Asia Major**).
- J. D. Spence(2001). **강희제, 이준갑 역**. 서울: 서울 : 이산
- M. Sugiyama(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 : 민족과 국경을 넘어, 이진복 역**. 서울 : 학민사
- I. SYVÄNNE(2017). Parthian Cataphract vs. the Roman Army 53 BC-AD 224. **Historia i Świat**, (6).
- K. Tanabe(1989). A DISCUSSION OF ONE KUSHANO-SASANIAN SILVER PLATE AND RELATION TO GANDHARAN ART. **Orient**, 25).
- R. L. Thorp(2013). **China in the early bronze ag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 Torday(1997). **Mounted archers : the beginnings of Central Asian history / Laszlo Torday**. Edinburgh: Edinburgh : Durham Academic Press
- F. Wilma(1941). The Offering Shrines of Wu Liang Tz'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1).
- В. Грач(1982). Средневековые впускные погребения из кургана-храма Улуг-Хорум в Южной Туве. **Археология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7**).
- И. А. Исмаилов(1990). **Преступность и уголовная политика:(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организации борьбы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Азернешр

Abstract

Research on Sportfica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Sung Je H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of Horseback Archery seen in Korean history were develop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forest area. This was recognized as a physical activity that was clearly distinguished from horseback archery seen in Chinese culture and nomadic culture.

In particular, in th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who existed in the east of them were traditionally regarded as superior in horseback archery.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uch horseback archery were revealed. And exploratory research was conducted for figuring out possibility of horseback archery,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as sport.

As a result of analyzing documents and relics before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activity of horseback archery in Korean history was staged in forest areas, unlike

agricultural and nomadic peoples. With the development of horses, harnesses, bows and arrows suitable for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forest area, the continuous horseback archery method in which arrows are measured and shot at a high speed in proportion to the speed of the prey and the horse, as well as the tactic of shooting multiple arrows at one target and multiple targets at the same time. It was shown that the multi-shooting method of shooting arrows was possible.

The combination of advanced horsemanship and arche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aintained consistently until the Joseon Dynasty. More and more detailed documents are beginning to appear in Goryeo history than in the literature records of the Three States period. Goryeo people systematically learned horseback riding and archery from a young age which formed the basis of martial arts in the Goryeo Dynasty, and when they received military training as a group, they demonstrated their power on the actual battlefield without fail. Looking at the combat records of the Goryeo Dynasty, most of the cases in which a small numbers defeated a large number of enemies in a crisis situation were mostly done by cavalry of horseback archery.

As a result of attempting convergence with the Chinese military system focusing on horseback archery hunting of the Goryeo Dynasty, large-scale military training by King Kangmu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alent selection called Mugwa were established. In this way, the physical activity of horseback archery became the basis of 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dividual's ability, which was expressed as good horseback archery(善騎射) before the Three States period, became a national skill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orseback archery were

combin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he opportunity came from the development of artiller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it played a role in war like firearms such as rifles. In this way, horseback archery continued as a traditional martial art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llery, which was accelerated by the series of wars and domestic conflicts, the horseback archery continued as the national skill of Joseon, although a functional change was made from the main role of the battlefield to the role of an assistan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modern sports have been introduced, traditional martial arts have been reinterpreted in modern times, and horseback archery is being developed as an individual sporting event. Horseback archery reappeared by the civilians in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traditional martial arts in modern time period of Korea. And because of this strong cultural character, it shows a different character from existing sports ev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tendency as a sporting event or game of horseback archery lies in its cultural inclusiveness.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history of horseback archery in this study.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chieved convergence with other cultures and has developed in a complex form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e process of becoming sporting event or game through the modern era, various cultures were able to harmonize together, transcending national bounda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porting event or game of horseback archery are that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event hav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that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compete fairly in one place. Give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horseback archery, it has enough value as sport in modern society.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horseback archery and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it necessary to reexamine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sports in terms of space, object, and time. The concept as martial art is necessary which that can be practiced in an eco-friendly outdoor space away from indoors, and can be practiced not only in close contact between people but also at a distance. In addition, rather than focusing on physical strength, the concept can give a sense of tension in the momen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progressed by convergence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mixed reality metaverse.

**keywords : Horseback Archery, Equestrianism, Archery,
Cavalry, Hunting, Sortfication**

Student Number : 2014-30517